

Seongbukcheon

이왕무 유승희 만광군 류인태 정기환

성북천

청계천 기획연구 4

1. 총론 이왕무(경기대학교) 2. 조선시대 성북천의 역사와 하천의 역할 유승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 조선시대 성북천변의 국가시설과 거주민의 생활상 문광군(송파역사문화연구원) 4. 도성 방어와 어영청 둔토 이왕무(경기대학교)
5. 조선 후기 성북을 잇는 돌다리들과 누정 이야기 류인태(고려대학교) 6. 성북천 주변 도시변화 정기환(사학연구소)

이번 성북천 조사연구가
청계천박물관이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서울의 물길 전체를 조사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북천



성북천

청계천 기획연구 4

이왕무

유승희

문광균

류인태

정기황

청계천박물관

총괄	김용석(서울역사박물관장)
기획	박현욱(학예연구부장) 박상빈(전 청계천박물관장) 김지연(청계천박물관장) 나신균, 이슬찬(학예연구사)
진행	박혜림, 박민아(학예연구사)
지원	김수현, 김민정, 김성실, 안현모, 장지훈(학예연구원)
조사 책임	이왕무
집필	1장 이왕무(경기대학교) 2장 유승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장 문광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4장 이왕무(경기대학교) 5장 류인태(고려대학교) 6장 정기황(시시한연구소)
교정	김덕신(국립국어원)
자료협조	고려대학교박물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매일경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성북구청,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문화원, 열화당, 예담, 조선일보 Stanford University
행정지원	최경아, 백운태, 이형로, 정서영

일러두기

- 이 책은 2022년 실시한 청계천 기획연구 4 - 성북천 조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 이 책에 인용된 단행본, 신문자료, 논문의 내용은 최대한 원문의 뜻을 살려 표기하였다.
- 옛 사람과 인명은 각 장마다 처음에 등장할 때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가독성을 위해 가급적 한자 병기를 생략했다.
- 한글 문헌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했으며, 외국문헌은 원어로 표시했다.
- 주석은 각주로 하고, 주석, 표, 그림은 각 장별로 번호를 다시 매겨 정리했다.
- 인용 사진, 도면, 지도 등은 모두 '그림'으로 통일했다.
- 책에 실린 그림의 저작권은 해당 소유자에게 있으며,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 인용 그림과 사진은 최대한 소장처와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으나 일부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여 게재하기를 허가받지 못한 그림과 사진은 확인되는 대로 통상 기준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받기로 한다.

발간사

서울의 청계천은 북악산 서쪽 기슭 창의문 부근에서 시작합니다. 청계천은 현재 삼청각이 있는 북악산 동쪽에서 시작하는 성북천, 그리고 정릉천과 만나고,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조선시대에도 청계천을 기준으로 한양의 남과 북을 나눌 정도로, 청계천은 오랜 기간 서울의 가장 중요한 하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청계천의 첫 번째 지류인 성북천 5.2km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성북천은 안암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성북천은 북악산 구준봉에서 발원하여 한양도성 성곽을 마주한 계곡을 따라 흘러 청계천과 만나는 물길입니다.

수만 송이 복사꽃이 만발하여 조선 후기 한양도성 사람들의 봄철 명승지가 되었던 성북천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혜화문 밖 푸른 숲과 흰 모래밭, 복사꽃과 푸른 시냇가, 풍류객과 상춘객이 넘쳐나던 공간으로 묘사되던 성북천 일대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복개 공사와 도시개발로 큰 변화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청계천박물관을 중심으로 역사학·도시학·지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성북천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성북천 주변의 모습과 생활상뿐 아니라, 도시개발로 변화된 모습과 이야기, 복원을 통해 자연하천으로 돌아온 모습 등 성북천과 그 주변이 간직한 여러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주요 물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왕무 선생님을 비롯하여 유승희, 문광균, 류인태, 정기황 선생님 등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북천 조사연구가 청계천박물관이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서울의 물길 전체를 조사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Foreword

The Cheonggyecheon Stream in Seoul starts in the Changuimun area, at the western foot of Bugaksan Mountain. It meets two streams—Seongbukcheon, which starts on the east of Bugaksan Mountain where the Samcheonggak Pavilion stands, and Jeongneungcheon—before merging with Jungnangcheon Stream and finally flowing into the Hangang River. For a long time, Cheonggyecheo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eams in Seoul, serving as the landmark that separated the north and south of the Joseon capital city, Hanya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eonggyecheon Stream's first tributary, the 5.2-kilometer-long Seongbukcheon Stream, also known as Anamcheon. From its origin in Gujunbong Peak of Bugaksan Mountain, the Seongbukcheon Stream flows along the valley facing Hanyangdoseong (Seoul City Wall) and meets the Cheonggyecheon Stream.

A multitude of stories are kept by the Seongbukcheon Stream, where thousands of peach blossoms would bloom every spring for the people of Hanyangdoseong in the late-Joseon Dynasty. Just outside of Hyehwamun Gate, it was described as a place overflowing with green forests and white sandy fields, peach blossoms and blue water, people of leisure and springtime visitors. However, this landscape was lost towards the end of the 1960s, as the Seongbukcheon area underwent major changes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which completely covered the Seongbukcheon Stream.

Last year, the Cheonggyecheon Museum led a study that invited researcher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history, urban studies, and geography, to investigate the Seongbukcheon Stream's diverse stories. The study recovered numerous memories related to the stream and its surroundings including the scenery and life around the stream during the Joseon Dynasty, stories about the changes brought by urban development,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stream.

This study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marks the first step in research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Seoul's major waterway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roject supervisor, Lee Wang-moo, as well as Yoo Seung-hee, Moon Kwang-kyun, Ryu Intae, and Jung Kee-hwang and all 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I hope that the research on Seongbukcheon will mark the beginning of the Cheonggyecheon Museum's growth into an institution that researches and exhibits all waterways in Seoul, along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heonggyecheon Stream.

Director of the Seoul Museum of History
Kim Yong-suk

목차

1장 총론

014

- 1. 조선시대 성북천의 유래와 변화 016
- 2. 성북천 시설과 경제생활 019
- 3. 성북 방어와 둔전 022
- 4. 성북천 유람과 문학 025
- 5. 일제 강점기와 도시화 027

2장 조선시대 성북천의 역사와 하천의 역할

030

- 1. 청계천의 제1지류, 성북천 032
- 2. 조선시대 성북천 주변의 모습 050
- 3. 성북천과 주변 지역의 역할 068

- 1. 국가와 왕실 공간으로서의 성북천변 082
- 2. 성북천변 점유과정과 행정구역 편제 100
- 3. 성북천 거주민의 국역 부담과 그 실상 114

3장 조선시대 성북천변의 국가 시설과 거주민의 생활상

080

- 1. 18세기 한양의 삼군영 배치와 성북의 방어 체계 130
- 2. 어영청의 성북 지역 주둔과 군사 시설 150
- 3. 성북 지역 어영청 둔토의 운영과 변천 162

4장 도성 방어와 어영청 둔토

128

- 1. 조선 후기 봄꽃 나들이의 랜드마크, 성북동의 탄생 182
- 2. 봄날 복사꽃 만개한 성북동 경관과 그 기록의 흔적 198
- 3. 성북동 일대에 자리했던 여러 누정에 관한 이야기 222

5장 조선 후기 성북동 일대의 봄꽃 나들이와 누정 이야기

180

- 1. 성북천 인근 마을의 시작: 돈암리, 성북리, 안암리 258
- 2. 성북천 주변 지역의 도시화: 경성시가지계획 266
- 3. 성북천의 복개: 상가아파트의 건설 302
- 4. 성북천의 복원: 주변 지역의 재개발 318

6장 성북천 주변 도시변화

252

오늘날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안식처이면서 하천 생태계 복원의 모범 사례인
성북천은 서울 역사의 시대적 변화상을 보여주는 곳이다.

성북천이 보이는 용문교와 고려대로길, 2020년
(출처: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8세기에 성북동 일대는
봄꽃을 구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락지였다.

성북천 봄 풍경, 2022년, 강신제 촬영(출처: 성북구청)

성북천이 도시화되는 주요 계기는 일제 강점기
혜화문 외부의 돈암지구 개발이었다.



혜화문 밖 삼선평 일대의 현재 모습, 2021년

1. 조선시대 성북천의 유래와 변화 016

2. 성북천 시설과 경제생활 019

3. 성북 방어와 둔전 022

4. 성북천 유람과 문학 025

5. 일제 강점기와 도시화 027



총론

이왕무(경기대학교)



조선시대 성북천의 유래와 변화

오늘날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안식처이자 하천 생태계 복원의 모범 사례가 된 성북천(城北川)은 서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상을 보여주는 곳이다. 성북천은 서울 동북부의 출입처였던 혜화문 밖으로 흐르는 도심 하천이다. 삼각산 줄기인 구준봉(狗蹲峰) 기슭에서 발원하여 혜화문 앞을 지난 후 신설동 부근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중랑천으로 흘러간다. 조선시대에는 자연 하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인 1937년 돈암지구 정리 과정에서 개수되어 자연 하천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는 복개 공사를 해서 하천을 덮고 그 위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다시 복원 공사를 해서 현재와 같은 생태 하천으로 복구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

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화된 성북천과 그 주변 공간의 풍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 장은 다섯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성북천의 역사와 하천의 역할, 성북천변에 위치한 국가시설의 운영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도성의 방어와 어영청 둔토, 그리고 성북천 일대의 봄꽃 나들이와 주변의 도시 변화를 다루고 있다.

성북천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한양도성 북쪽에 인접한 하천이다. 조선 초기부터 도성 북쪽 일대를 ‘성북’이라 부른 것과 달리, 각종 관찬사료와 지리지, 고지도 등에서 ‘성북천’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북천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지명화된 용어라고 짐작된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성북천 주변의 마을들이 성북동 외에도 ‘북저동(北渚洞)’, ‘북적동(北赤洞, 北笛洞, 北積洞)’, ‘북사동(北寺洞)’, ‘묵사동(墨寺洞)’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북사동과 묵사동은 이곳에 북사와 묵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지명이다. ‘북저’라는 명칭은 북쪽 개울이란 뜻이다. 당시 사람들이 한양도성 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성북동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을 북저라고 불렀고, 그 주변의 마을을 북저동이라고 했다. 고지도에서는 성북동부터 신설동까지 흐르는 하천을 안암천이라고 표기했으며, 성북동이 1894년 ‘한

성부 동서송신방 성외 동소문외계 성북동’이라는 행정구역 체계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성북천과 안암천으로 구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성북천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18세기 성북천 일대의 풍경은 정조 조선시대 성북천이 흐르는 도성 북쪽 지역은 산이 많은 데다 높아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이런 곳을 사람들이 살만하도록 만든 것은 영조와 정조 대이다. 18세기 성북천 일대의 풍경은 정조 연간 여러 문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남겨진 혜화문 밖 풍경 묘사에는 푸른 숲과 흰 모래밭, 복사꽃과 푸른 시냇가, 풍류객과 상춘객이 등장한다.

영조와 정조는 도성 북쪽의 땅의 기운(地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북천 일대에 땅이 패여서 우묵한 곳에는 흙을 채워 넣고 나무를 심었다. 군영을 중심으로 둔전(屯田)과 창고를 설치하여 지역민이 모여살 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성북둔 인근 주민들이 무명, 베, 모시 등의 점포에서 포백(曝白)할 물건과 개경의 모시, 호조의 차일(遮日)에 쓰는 포 등을 삶아서 익히는 포역(曝役)을 전담

하게 하였다. 동시에 훈조막을 설치하여 메주를 쑨는 훈업(爇業)도 주도하게 했다.

성북천은 성북동 주민의 생업 수단인 마전터이기도 하였다. ‘마전터’란 천을 말려서 바래는 곳으로 선잠단 앞 성북천 일대에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시전 등의 점포로부터 받은 옷감을 삶거나 빨고 표백하는 일을 했다. 성북동 양쪽 골짜기의 물이 합류되는 부근의 냇가를 ‘마전터’라고 부르게 된 이유이다.

18세기 후반 성북천은 도성민들의 봄철 유람지이자 명승지였다. 성북천변에는 수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봄이 되면 수만 송이 꽃들이 동네를 에워쌌다. 복숭아는 도성 안 사람들이 길흉사를 포함해 공적·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성북천 일대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과수 농사는 곡식이 흉년이 든 해에도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마다 복숭아나무를 늘려 심어 이윤을 추구했다.

조선 전기 성북천 주변은 동부 송신방에 해당되었다. 조선 후기 상류 구간에는 사아리계, 우이리계, 가오리계, 능동계, 수유촌계, 벌리계 등 6개의 계가 있으며, 중하류 구간으로 안암리계, 신설계, 답십리계, 청량리계, 제기리계, 전농리계, 중랑포계, 장위리계 등 8개의 계가 있었다. 이들 계는 한성부 동부에 소속되었던 성저십리

의 마을이었다. 1788년(정조 12)에는 한성 부 전 지역을 부-방-계의 행정 체제로 일원화하면서 성북천 주변 지역 중에 신설계, 안암리계, 종암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능동계, 사아리계, 벌리계, 우이리계 등이 송신방에 소속되었다. 1866년(고종 3)에는 월곡리계, 장위리계가 포함되어 성북천 연변으로 주거지가 확대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북천 상류가 복사꽃으로 유명한 명승지였다면, 하류인 안암천은 국왕의 행차를 비롯한 국가 행사 등을 위해 조성한 도로가 지나가던 공간이었다. 안암천은 도성 인근의 선농단을 비롯해 동교의 왕릉에 행차하며 건너던 하천이었다. 도로는 혜화문 앞에서 안암동 안암천을 따라 형성되었다. 혜화문 앞길에서 정릉, 적유현을 거쳐 하묵현(下墨峴)까지 연결되는 도로에는 성북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설치되었다. 성북천 상류에는 1905년 당시 4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암천을 따라 형성된 도로는 안암내길, 안감내길이라고 하였다. 안암동 길은 간로(間路)였기 때문에 사아리 길과 번갈아서 정릉의 능행로(陵幸路)로 이용되었다. 안암교는 임금이 거동할 때 징이나 썰과리를 치던 장소가 될 정도로 변화가였다. 특히 안암천 주변의 삼선평과 사아리는 국왕의 임시휴게소나 군사들의 훈련 장소로 활용되었다. 삼선평은

넓고 평탄한 지형때문에 19세기 이후 혜화문 밖의 대표적인 군사 훈련장이었으며, 군마의 기예 시험을 비롯해 무관들이 활쏘기 모임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성북천 시설과 경제생활

성북천은 성저십리 동부 일대 지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자연 공간이었다. 한양도성의 동부는 지형적으로 북악산의 지맥과 성북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성저십리의 동부에는 경내를 상하로 가로지르는 성북천이 있다. 역사 자료에서는 성북천보다는 통상 안암천으로 더 많이 불렸다. 성북천의 상류는 낮은 구릉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사찰 등의 시설이 입지하기 좋은 위치이다. 반면 하류는 평지가 발달하였고 한강과 인접한 지역의 저지대 습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들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토질이 비옥하다. 용두리, 제기리, 전농리까지 이어지는 지대에는 왕실의 적전(籍田)을 두고 왕십리, 답십리, 마장리, 행당리에 이르는 다소 넓은 들녘인 살곶이벌을 포함한 사근리, 그 사근리와 동쪽 아차산을 경계로 하는 장안평까지의 구역에 국가가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다.

조선시대 성북천 주변에 설치되었던 대표적인 국가 시설은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동방토룡단, 동활인서, 보제원 등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 제사에 관련된 단묘(壇廟)와 여성 사찰 등 국가 및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지어졌다. 국가 사전(祀典) 시설의 경우 국왕의 거동이나 고위 관료가 치제할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성북천 일대의 정업원, 안암사 등의 사찰은 비구니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 니사(尼舍)가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찰의 영향이었다.

성북천 주변에는 병자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시설로 동활인서와 보제원을 설치하였다. 동활인서는 도성 밖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이는 전염병이 도성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보제원은 강원도나 함경도로 가는 교통시설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전별연이나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면서 동활인서와 함께 기민을 구제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반면 성북천 하류와 중랑천 합류 지점인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중화동, 묵동 지역은 비교적 넓은 평야를 갖춘 비옥한 지대로서 농경에 적합하였다. 위치가 개천에 인접해서 평평한 저습지에서는 채소를 재배하기가 쉬웠다. 연희동과 왕십리의 배추밭, 영은문 주변의 무밭, 양재역의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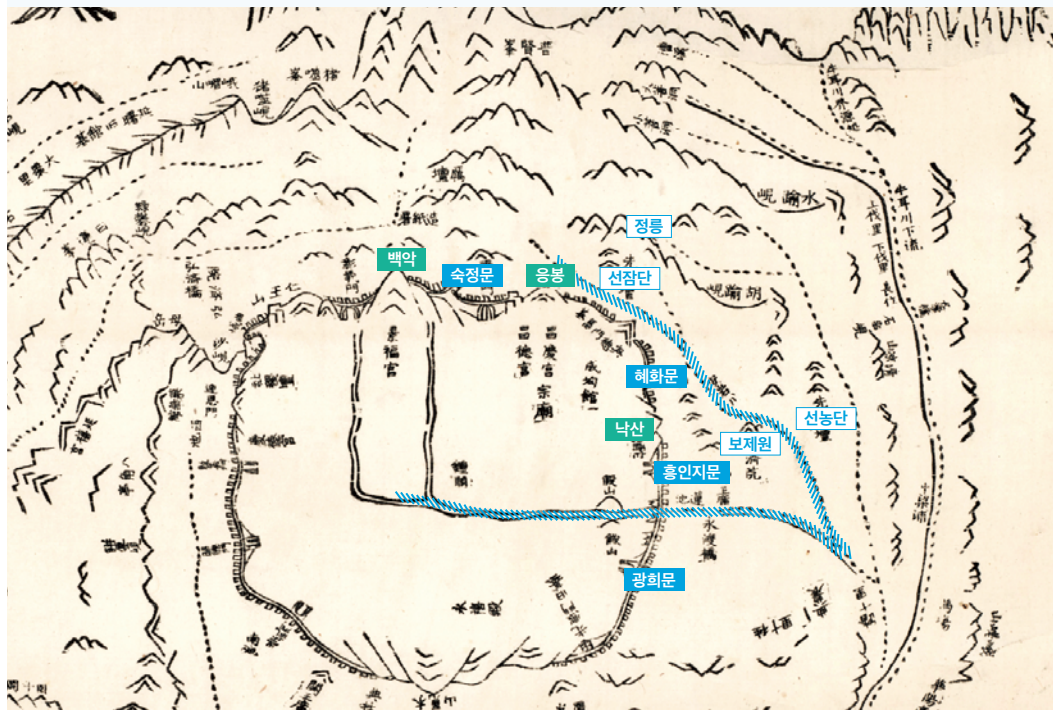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성북천 일대(『사산금표도』 부분, 17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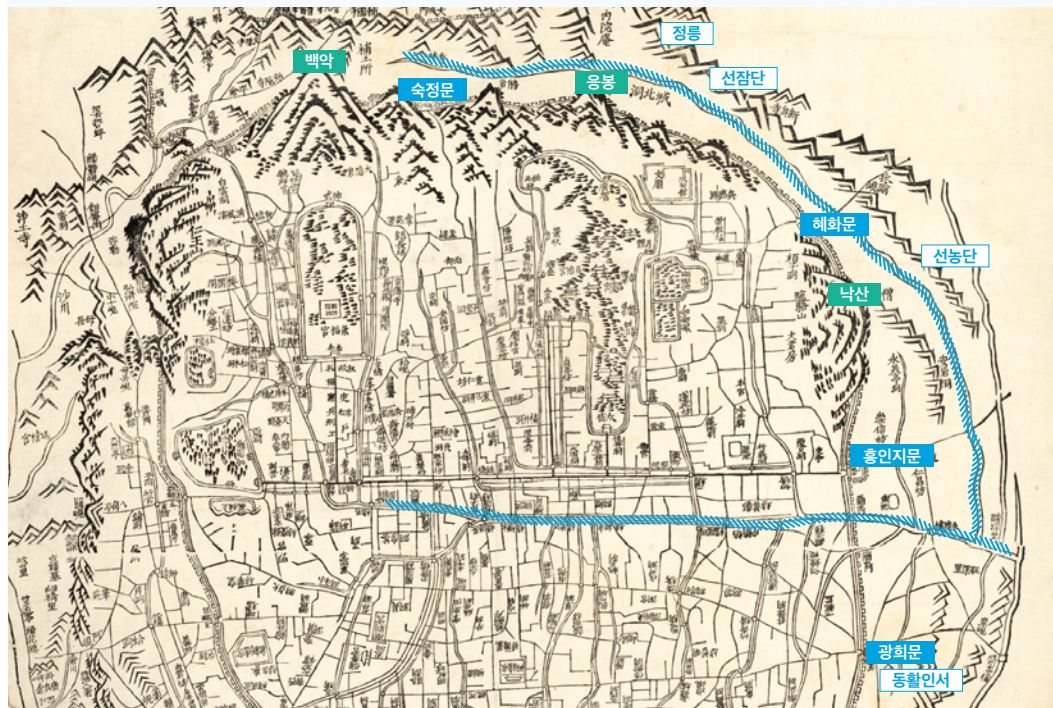


그림 2 19세기 성북천 일대(『수선전도』 부분, 1840년대)

밭, 제기동의 토란밭, 청파동의 미나리밭은 당시 이름난 채전(菜田)이었다. 그중에서도 성북천의 연변 지역인 제기동, 용두동의 저습 지대는 미나리, 배추 등 채소 재배가 쉬운 곳이었다. 당시에는 도성 안에도 집집마다 텃밭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규모가 작아 양이 부족했다. 무, 배추, 파, 마늘, 미나리 등을 비롯한 채소는 대부분 성저십리에서 공급되었다. 조선 후기 문인 유득공이 도성 안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이 동부지역의 채소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성북천변의 채전은 유명한 채소 공급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북천과 중랑천 합류 지역에 거주하던 민인(民人)들은 ‘동적전 경영’이라는 국역을 부담해야 했다. 조선 초기부터 동적전이 설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의 민인들이 동적전의 농사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성북천 주변의 민인들은 국가가 배정한 여러 역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조선 전기부터 내려오는 채소밭의 경작, 성북동 일대의 밤나무밭 등 과수원에서의 과일 재배, 동적 경작 등이 그들이 삶을 영위하던 대표적인 방식들이었다.

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하여 성저십리에 늘어나는 인구는 도성의 행정 체계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성북천 인근의 마을을 송인방과 인창방의 행정동리로 편제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북천 인근 마을이 한성부의 정식 방-계로 편제되고, 이곳이 국왕 행행(行幸)의 주요 경유지가 되면서 이들이 부담해야 할 국역은 더 늘어났다. 이러한 국역에 대한 보상으로 성북천변 백성은 직물의 포백이나 메주 판매 등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다. 성북천변 민인들이 담당하던 포백 물종은 무명, 베, 모시 등이다. 비변사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시전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포백하여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고가(雇價), 즉 인건비를 달리 받았다. 시전에 납부하는 포백 외에도 호조의 햇빛 가림용 장막도 포백하였다. 훈조계는 5명으로 1소(所)를 조직하여 운영되었다. 훈조계에는 내계(內契), 외계(外契)가 있었는데, 이때 성북동계(城北洞契)가 새롭게 만들졌다. 훈조막 1소에는 2개의 솔이 구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납품하였다.

이와 같은 성북천 상류 지역 민인들의 생활은 주변 군영인 어영청과 연계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체제는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성북천 연변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조성된 다양한 국가 시설과 함께 거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조성된 경제 기구들이 배설되어 있었다.

성북 방어와 둔전

한양도성의 최대 방어 수단은 성벽이었다. 수도의 중심부를 두르는 산악에 조성된 성벽은 평지로 통하는 대문들을 제외하면 그 자체가 공격자에게는 최대 난관이었다. 한양도성의 방어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성벽이었으며, 산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파괴될 수 없는 군사적 장애물이었다. 20세기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기계를 활용한 건축술을 도입하여 도성을 훼손하기 이전에 성벽이 존재하던 상황을 보면 한양도성의 주요 방어 수단이 성벽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양도성의 성벽은 다양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축성술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력으로만 돌파할 수 없는 구조물이었다. 동시에 도성의 대문에 웅성과 치성을 설치하였으며, 문루가 없는 곳에 누각을 올리고 수구문을 정비해서 방어 수단을 강화하였다. 한양도성이 외관상으

로 화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들이 설비되지 않았음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군사사적 배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성북 방어의 핵심 군사 기지인 어영청은 도성의 중심지에 위치하였다. 한양도성의 방위상으로는 홍인문에 인접한 동부에 자리하고 있으나, 어영청이 위치한 곳은 종묘, 창덕궁, 창경궁, 경모궁, 어의궁 등 왕실의 신성하고 기념비적인 공간과 왕족의 거주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도성 내부의 어느 곳보다도 군사적 방비가 강화되어야 했다. 어영청이 전담해서 방어한 구역은 본영이 위치한 동부 지역과 홍인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혜화문이 위치한 동북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는 도성 북측 성벽 외부의 응봉과 구준봉, 동측의 낙산, 남측의 남산에 이르는 공간이다. 또한 그 사이에는 청계천과 종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물론 어영청의 핵심적인 방어 공간은 종묘와 궁궐들이었다. 다만 그곳들은 도성 내부의 시설이므로 성벽 분담 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장소였다.

어영청 본영은 종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창덕궁에서 출발하던 국왕의 행차를 대비하고 호위하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성북을 방어하던 어영청은 당대의 최고 군사 집단이면서 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혜화문 외부의 둔전인 북둔(北屯)이었다.

18세기 도성의 군영에서 둔전을 경영하게 된 것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조선 왕조의 군역제는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한 번상입역제(番上立役制)로 운영되었다. 번상제는 농민이 식량과 피복 등을 스스로 마련하여 입역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련도감과 같은 장번(長番)의 급료병으로 구성된 전문 군인 집단인 군영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했다. 어영청의 경우 번상제로 운영되어 재정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도성의 군사 시설과 장기 주둔한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했다. 조선 왕조의 재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각사자판(各司自辦)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군영이 도성에 장기 주둔하는 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농업 경제가 기반이었던 당시에는 경작지에서 소출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경작지에서도 면세인 둔전이야말로 군영에서 운영하기에 최적의 재원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재정 확보책은 무엇을 새롭게 바꾸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방치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명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용이했다. 더욱이 도성 인근에는 황무지가 많았다. 성북천을 비롯한 연변에

는 경작에 필요한 도랑이나 수로를 조성하지 않아도 경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더욱이 도성 인근이었으므로 인분 등의 비료 확보도 용이하였다.

성북천 연변에 위치한 어영청 북둔은 성북둔(城北屯)이라고도 불렸다. 현전하는 기록으로는 영조 대인 1765년(영조 41)에 성북둔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어영청 북둔이 위치한 곳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성에서 야유회나 휴식을 위해 인파가 모이던 유락지(遊樂地)였다. 성북둔 인근의 민인들이 생활을 위해 복숭아나무를 심은 것이 지명의 이칭으로도 불렸으며, 이는 이 지역이 도성민들이 계절의 탐미를 위해 찾던 곳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사 김정희도 성북둔의 복숭아 꽃나무를 찬미하며 구경하였다. 성북둔 인근은 혜화문 외부의 명승지로 동교에서도 수선(首善)이라고 평가되었다. 복숭아꽃이 피는 봄철에는 선남선녀의 상춘객이 늘 붐비던 유원지였다. 또한 도성의 고관대작이 말과 가마를 타고 무리를 지어 탐미하던 곳이다.

성북둔 입구에는 시내가 흐르는 큰 바위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골짜기이다.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 양옆은 언덕이면서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인가를 이어가며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물론 복숭아나무들은 인가에서 인

공적으로 식재하고 키워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도 소나무와 상수리 등의 식재목 등을 관리하였다. 군영의 둔전이 있다고 하여 인적이 드문 광야가 아니었다. 성북둔 인근에 복숭아를 비롯한 수목들이 유지된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성북둔이 어영청의 군사 시설인 둔전임에도 주변은 도성민이 늘 휴식을 위해 탐방하던 변화한 지역이었다. 또한 성북둔에 이르는 여정에 펼쳐진 복숭아꽃의 향연이 도성민을 유도하였고, 성벽을 중심으로 인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성북둔에 인접한 도성 인근에 인가가 밀집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이유는 성벽에 포루(鋪樓)와 치성(雉城) 등의 군사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루와 치성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로막거나 외적이 엄폐(掩蔽)로 사용할 곳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성의 수성(守城)을 위해 민가를 헐어서 치워버린 결과였다. 성북둔 주변으로 흐르는 하천에 몇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인적·물적 이동에 용이한 교통시설로 활용되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둔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수로 기능하였다. 성북은 영조 대부터 어영청에서 관할하여 둔전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민인을 평안하게 하려고 한 곳이다. 도성 서쪽의 연용대(鍊戎臺)에 대응하여 동쪽에 둔전을

조성해서 한양도성 북측의 안정을 기도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한 것이다.

성북둔이 도성 인근에 있었으므로 지방 행정 조직의 간섭보다는 어영청의 관할이 용이하였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직접 성북둔의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다만 둔전 경영 방식에서 19세기로 갈수록 제기되었던 종실수세(從實收稅)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둔민들의 안정적인 소출을 유도하는 방안은 성북둔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어영청 군제가 유지되는 구한말까지 성북둔의 군영 운영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도성 내의 동부에 위치한 어영청 본영과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둔전이었으므로 그 관리가 용이하고 재원 확보는 물론 군사 훈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곳이었다.



성북천 유람과 문학

18세기에 성북동 일대는 봄꽃을 구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락지였다. 봄철 거대한 복사꽃 군락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풍광은 여타 행락지에서 볼 수 없는 이채로운 구경거리로서 봄이 되면 도성 안팎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을 찾았던 가장 큰 이유였다. 조선 왕조의 태평기에, 봄 한철 비처럼 휘날리는 붉은 복사꽃 풍광과 그 사이를 노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사이에 저녁까지 이어지던 흥겨운 음주가무는 유람의 명승으로서 성북동의 이채로운 풍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서였다. 조선 후기 다양한 문집에는 봄을 맞이하던 이들의 기쁨이 천진난만하게 표출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성북동이 묘사되었다. 풍성한 복사꽃을 매개로 매년 봄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끈 성북동의 독특한 매력은 중국 진(晉)나라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의 무릉도원(武陵桃源)

에 비유되었다. 복숭아의 붉은 자태를 묘사한 표현들에서 ‘얇은 화장의 아리따움(淡粧嬌)’, ‘뺨이 봄 햇살에 달궈지다(腮春日炙)’, ‘고운 얼굴을 하다(嫋娟面)’와 같은 묘사는 분홍 빛깔의 복숭아를 화장한 여성의 고운 얼굴에 빗댄 것이다. 춤추는 제비와 꾀꼬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수양버들과 맑은 시냇물이 붉은 복사꽃과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풍광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시대에 성북동 일대는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봄이 되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며, 그로 인해 상춘객이 많았다. 성북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교(東郊) 봄꽃 나들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성곽을 경계로 동북쪽에 있던 성북동에 만개한 복사꽃이 봄나들이의 명소였다. 당대인들의 감성에는 해화문 밖을 대표하는 공간인 성북동에는 푸른 숲 사이로 하얀 모래톱이 펼쳐진 삼선평 일대와, 그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내를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가득한 복숭아나무와 늘어선 민가의 풍경이 묘사되었다.

이외에도 성북에 선잠단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성북천 연변에서 뽕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성북동과 성곽을 두고 인접한 흥덕동, 송동, 포동, 어정



그림 3 도성 밖에서 바라본 혜화문, 1906~7년, 헤르만 산더 촬영(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동 등의 거주민이 생업으로 삼았던 농사는 인근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색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문학적 서사 중에 ‘소나무가 맑다(松晴)’, ‘벼랑의 기세가 빼어나다(崖氣秀)’, ‘모래가 희다(沙白)’, ‘물길이 평탄하다(水流平)’ 등의 표현은 모두 혜화문인 동소문을 나온 직후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혜화문은 도성을 나가는 관문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시끄러운 도회에서 전원으로 들어서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 성북동은 동소문을 나가면 마주하게 되는 지척의 풍경으로, 문인들의 시적 감상을 자아내는 대표적 경관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흰 모래와 평탄하게 흘러가는 물길은 모래가 퇴적되어 쌓였을 삼선평 일대와 성북천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도성의 문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전원의 풍광을 매개로 도회와 전원을 가르는 경계로서 동소문 및 성북천 연변의 상징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문인들의 서사적 감상은 성북천 연변에 다수의 별업(別業)과 누정(樓亭)이 자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성북동 일대에 일제 강점기에도 시인 문객들이 터전을 이루고 사는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도시화

일제 강점기 성북천 지역의 도시 변화는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이전이다. 이 시기는 인근 농경지와 성북리, 안암

리, 돈암리 등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34~1935년으로 버스노선 설정, 부동산 투기, 성북천 빈민 주거지 형성 등 도시화 초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 이후 성북천 일대가 경성에 편입되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1968년 성북천이 복개되어 아파트가 건설되던 시기까지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68~2012년으로 성북천 복개지에 도로가 설치되고, 상가아파트가 건설되던 시기이다. 다섯 번째 시기는 2012년 4호선 한성대입구역부터 청계천 합수부까지 성북천이 복원되고, 주변지역이 재개발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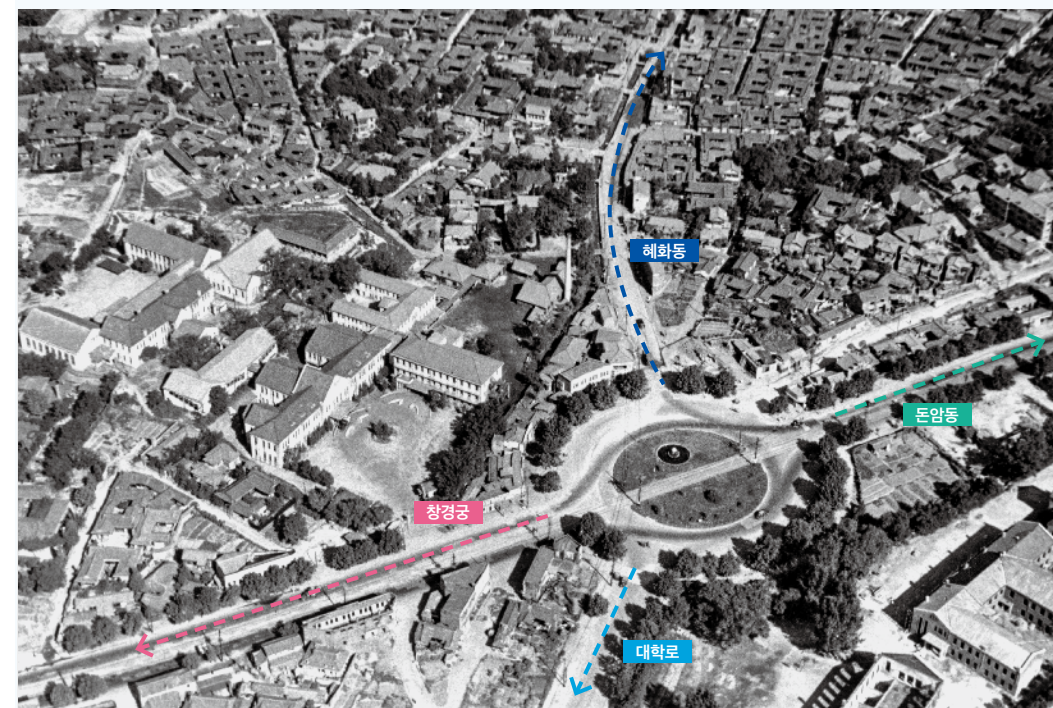


그림 4 혜화동 로터리의 진행 방향, 1954년, 임인식 촬영



그림 5 봄철 성북천의 모습, 2020년(출처: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성북천이 도시화되는 주요 계기는 일제 강점기 해화문 외부의 돈암지구 개발이었다. 돈암지구 개발의 배경은 경성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로 개설의 필요성 증대가 주요했다. 1933년 이후 버스가 개설되면서 해화문을 지나는 도시 교통선이 구축되었다. 1938년 경성 가로망 계획도에서 주요 간선도로는 보문로와 동소문로였으며 현재까지 기능하고 있다. 동소문로와 보문로의 양측은 노선상가로 성북천 지역의 개발에 영향을 주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했다. 1941년에도 교통에 큰 변화가 생긴다. 전차노선이 버스 종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화문이 훼손되었고 해화동 로터리에서 돈암지구까지 직선도로가 개설되었다. 전차는 1968년까지 운행되면서 돈암지구의 주요 교통편이 되었고 버스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돈암지구의 도시 문화는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들은 성북천 인근 미개발지에 빈민촌을 이루었고, 광복 후에 상경한 사람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등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었다. 도시 빈민들이 주요 거주지로 삼았던 곳은 상수와 하수를 활용할 수 있던 성

북천 일대였다. 삼선시장의 구성도 그 연장선상의 일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까지도 성북천 일대의 수리시설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매년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1960년대 말 성북천의 복개를 결정하였다. 동시에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도 진행하였다. 국공유지인 하천은 별도의 토지수용 절차나 수용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공사비는 시행업체가 분양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하면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천변이나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성북천을 복개한 땅 위에 건설된 삼선상가아파트는 1990년대까지 돈암지역의 시장으로 기능하였다. 건물을 짓지 않은 땅에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2000년대 들어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과 주민 생활 복지 차원에서 성북천의 복원이 진행되었고 이 사업은 2012년에 완료되었다. 다만 성북천의 상류이며, 각종 역사 문화지가 산재한 지역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북천의 복원은 서울 도심의 역사에서 수계(水界) 중심으로 진행된 공간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주요 주거 지역의 유래를 조명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성북천 인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전통문화를 생태와 환경이라는 시대적 표제로 계승시키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조선시대 ‘성북’이라는 지명, 혹은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환경에 걸쳐 이어졌다는 서사를 오늘날 재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조선시대 성북천의 역사와 하천의 역할

유승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 청계천의 제1지류, 성북천 032

2. 조선시대 성북천 주변의 모습 050

3. 성북천과 주변 지역의 역할 068

1 청계천의 제1지류, 성북천

1. 성북천의 입지 및 지형

조선시대 한성부에는 내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산의 형세를 따라 흘러내려 도성 안 명당수인 청계천의 지천을 형성하며 흐르고 있다. 청계천(淸溪川)의 지천은 도성 안으로는 삼청동천(三淸洞川), 백운동천(白雲洞川),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 흥덕동천(興德洞川), 창동천(倉洞川) 등이 흐르고 있으며, 도성 밖으로는 성북천(城北川)과 정릉천(貞陵川)의 긴 물줄기가 청계천 본류와 합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천은 서울의 북동부, 즉 한양도성 4개 소문 가운데 하나인 혜화문 밖 바로 앞으로 흐르는 긴 하천이다. 혜화문은 속칭 동소문으로 불린다. 이 소문은 1396년(태조 5) 한양도성 성곽 공사가 끝난 후 성문을 홍예 위로 누각을 둔 월단누합(月團樓閣)의 형태로 짓고 홍화문(弘化門)으로 명명하였다.¹ 그러다가 1483년(성종 4) 창경궁을 조성해 정문을 홍화문으로 하고, 중종 대 동소문을 혜화문으로 개명하였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는 “1511년(중종 6)에 혜화문으로 고쳤다.”고 서술되어 있으나,² 1509년(중종 4)에 관상감에서 우박이 내린 일을 파악하기 위해 혜화문 밖으로 나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에 동소문이 혜화문으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이러한 동소문과 혜화문, 두 개의 문 이름은 조선시대 내내 혼용

1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9월 24일(기묘).

2 『동국여지비고』 권1, 경도 성곽.

3 『중종실록』 권8, 중종 4년 5월 18일(기유).



그림 1 성북천의 모습(『동국여도』, 「도성연용북한합도」 부분, 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되었다. 혜화문을 중심으로 한 한양도성 동북쪽 성곽이 성북천의 흐름에 따라 세워진 것을 보면, 하천이 성곽 조성의 주요 경계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북천은 서울의 진산(鎭山)인 삼각산(북한산) 아래 줄기에서 발원하였다. 삼각산은 한북정맥이 의정부 북쪽의 불곡산(佛谷山)을 지나 도봉산을 만들고 다시 남하하여 우이령을 거쳐 노고산으로 빠져나갈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인수봉, 만경봉, 백운봉 등 바위 봉우리가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어 이성계가 도읍지인 한양의 진산으로 삼았다. 특히 삼각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보현봉(普賢峰)은 남쪽으로 두 줄기를 뺀어 내려 도성의 주맥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남동쪽으로 뺀 줄기가 형제봉(兄弟峰)에서 꿈틀거리며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우뚝 솟아 구준봉이 되어 도성의 후장을 이루고 있다.⁴ 구준봉은 봉우리의 모습이 개가 걸터앉은 모양과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서울 도읍 터의 지형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구진봉(俱盡峰)이라고도 했다.⁵

4 나각순,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0, 50~53쪽.

5 나각순, 위의 책(2000), 101쪽.

성북천은 이 삼각산 줄기인 구준봉 기슭에서 발원했으며,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심하며 주위에 계곡이 형성되었다. 성북천의 서북쪽으로는 백악(북악산)과 낙산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개운산(開運山)이 위치하였다. 낙산은 응봉(鷹峯) 동쪽에 서 뻗어 돌아 만든 것으로 동쪽으로 안암(安巖)과 고암(鼓巖)에 이른다. 개운산은 삼각산 자락이 보현봉과 형제봉, 보토현을 거쳐 서남쪽으로는 북악산이, 동남쪽으로는 정릉과 미아리고개가 나오는데 이 지맥의 끝에 자리하고 있다.⁶ 「도성연읍북한합도(都城鍊戎北漢合圖)」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성북천(안암천)은 남쪽으로 응봉, 흥덕문(興德門) 옛터, 혜화문(동소문) 앞을 지난 후 현재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나간다.^{그림1} 「도성연읍북한합도」에서는 청계천 본류와 성북천, 정릉천의 물줄기를 그리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성북천이 서울의 주요 하천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성북천은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과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구 용신동을 거쳐 청계천에 합류하여 중랑천에 이르고 있다. 성북천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245번지를 기점으로 청계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하천 연장 5.2km, 유로 연장 5.450km, 하천 면적 130,000㎡, 유역 면적 7.41km², 하상경사 1/288~1/35 정도의 하천이다. 유역 면적 7.41km² 가운데 90%인 6.67km²가 성북구에 포함되었고, 0.63km²는 동대문구이다.⁷

2. 성저십리(城底十里)로서의 성북천 주변

성북천이 위치한 곳은 도성 밖 성저십리 구역이다. 조선시대 서울(한성부)은 ‘경중(京中)’, ‘성중(城中)’으로 일컫는 도성 안과 ‘성저십리’라는 도성 밖 공간으로 양분되었다. ‘성저십리’는 ‘성외십리(城外十里)’, ‘도저십리(都底十里)’라고도 칭했으며, 도성 밖 4교(城外四郊), ‘경강 변(沿江)’ 등으로 구분되어 성저십리의 지역성이 분할,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성저십리’는 말 그대로 도성 밖에서 10리에 이르는 지역을

⁶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성북구』 1, 2018 A, 21쪽.

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연구」, 2004, 9~10쪽.

의미한다. 여기에는 ‘도성’이라는 기준점과 ‘10리’라는 지리적 거리가 함께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준점인 도성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양도성은 1394년(태조 3)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종묘사직과 궁궐 건설을 마무리한 후, 수도 방위를 위해 1396년(태조 5) 백악, 낙산, 목멱산(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도성을 쌓기 위해 전국의 백성 약 20만 명이 동원되어 평지는 토성으로, 산지는 석성으로 쌓았다. 이러한 한양도성은 조선 전기와 후기에 여러 차례 수축과 보수를 진행하며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도성의 완성과 함께 도성을 보호하는 배후지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성 주변의 군현을 예측시켜 성저십리를 만들었다. 이때 확정된 한성부 성저십리의 범위는 동쪽은 양주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 서쪽은 양화도 및 고양 덕수원(德水院), 남쪽은 한강, 노량진에 이르는 지역이다.⁸

송계원은 국가에서 주요 교통로의 길목에 세워 운영하던 여관의 하나이다. 이 지역 마을을 송계동이라고 했는데 현재 서울 중랑구 묵동 일대이다. 이곳은 주변에 건원릉(健元陵)이 위치해 국왕 능행 시 주정소(晝停所)로 사용되었다.⁹ 대현은 수철리 지역의 고개를 말한다. 주위의 여러 고개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에 큰고개 대현이라 했으며, 이곳에 솔과 농기구 등을 주조하는 야장(冶匠)들이 모여 살아 무쇠막고개, 무수막고개, 무시막고개라고도 불렸다. 현재 성동구 금호동 1가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송계원의 경우 실제 거리는 도성에서 13리가 넘는 데 반해, 수철리의 경우는 5리 정도이다. 성저십리의 서쪽 경계인 양화도, 남쪽 경계인 한강, 노량은 모두 도성에서 10리 떨어진 지역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성저십리는 도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자리한 하천, 강, 산의 능선을 경계로 삼았다. 10리를 한계로 했지만, 직선거리와 실제 통행 거리가 혼용되어 10리가 넘거나 못 되는 곳도 있었다.¹⁰

성북천이 흐르는 지역은 도성 밖 북동쪽에 위치하며, 상류는 북교(北郊)로, 하류는 동교(東郊)로 지칭되는 곳이다. 성북천 북서쪽으로는 혜화문에서 숙정문에 이

⁸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⁹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21일(임진);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1일(병술).

¹⁰ 유승희, 「조선시대 한성부 성저십리의 지역적 특성과 성저민의 실태」,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95~98쪽.

르는 구간의 성곽이 길게 조성되었다. 숙정문은 도성의 북문으로 도성 방어의 첫 번째 관문이다. 1396년 숙정문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숙정문으로 개칭되었다. 숙정문은 조선 시기에는 풍수상의 이유로 문을 닫아 놓았다. 이 문을 개통하면 성안 마을에 음란한 풍토가 생긴다고 한 것이 폐문의 이유이다. 그러나 세종 대에 나라에 가물이 들자 숭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기도 하였다. 이는 음기를 유지하고 양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가물 끝에 장마가 지면 다시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열었다.¹¹

혜화문은 한양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연결되는 동북 관문이다. 조선 초에는 동북 방향에 살던 여진인들이 조공을 바치러 조선으로 들어올 때 적유현(호유현)을 넘어 혜화문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왔다. 후기에는 현재 노원구 일대인 누원점(樓院店)과 연계되어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었다. 조선 시기 숙정문이 풍수상의 이유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동북쪽으로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혜화문을 통해 이동하였다. 따라서 혜화문은 소문이지만 남대문, 서대문과 같은 대문처럼 수비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대에 이르면 군사를 훈련하고 사냥, 유희를 하기 위해 금표(禁標)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혜화문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다. 이때 연산군은 다야원(多野院)·적유령(狄逾嶺)을 거쳐 성북천을 건너 동소문 밖 도로 북쪽까지 금표를 세웠다. 그리고 사을하리(沙乙河里) 동리 어귀에 경수포(警守鋪)를 만들어 사람의 왕래를 금하였다.¹²

특히 혜화문 밖 성북천 부근은 성 밖 5리 지점으로, 1929년 ‘성저5리’의 경계를 알리는 표석인 ‘성저오리정계표(城底五里定界標)’가 동소문 밖 만세교(萬世橋) 서북 방향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2** 표석의 크기는 높이 2척 5촌, 넓이 1척 4촌, 두께 8촌이었다. 성저10리나 5리의 정계표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정릉동에 세워졌던 것이 유일하다. 이 비석이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비석에 “庚口 三月 日”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앞부분이 깨어져 글자가 없어졌는데 당시 이를 본 주민들은 결락된 글자가 ‘청룡’이었다고 했다.¹³ 이를 토대로 보면 이 비석의 경우 동쪽 성저 5리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23일(갑진);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 7월 17일(무진).

12 『연산군일기』 권54, 연산 10년 7월 18일(병오).

13 「城底五里定界立標」, 『매일신보』, 1929년 2월 10일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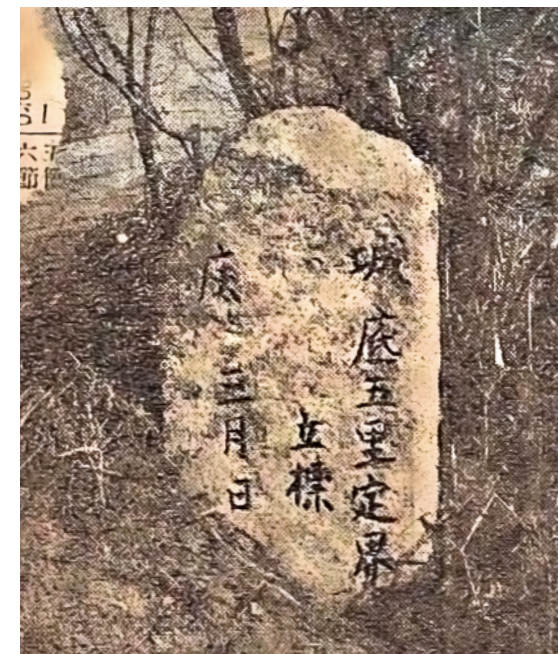


그림 2 위치가 옮겨지기 전 성저오리정계표의 모습(『매일신보』, 1929년 2월 10일,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이러한 입표(立標) 작업은 국가의 주도로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1405년(태조 5)에 한성부에 명해 오부의 방위표를 세우게 했던 것,¹⁴ 그리고 한성부에서 도성 내외의 산에 푯말을 세워 벌목과 채석을 금지한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⁵ 조선의 경우 한성부 낭관이 사산(四山)을 나누어 맡아 도성 안과 성 밖의 주산(主山)에 표를 세웠다. 동쪽의 경우는 석가점(釋迦岾) 안의 사을한(沙乙閑) 남쪽에서 적유현, 광평대군(廣平大君) 가옥, 북쪽 고개를 지나 성북천 앞 선잠제단(先蠶祭壇)에 이르는 곳과 보제원(普濟院) 서쪽 건너편에서 안암동(安岩洞)·저방동(猪房洞)·동대문에 이르는 지역에 표를 세웠다. 서쪽은 모화관 뒤에서 사현(沙峴), 사축서(司畜署) 고개를 지나 청파(靑坡) 뒤에 이르는 곳과 남대문 성 밖에서 전생서(典牲署) 뒤를 지나 벌아현(伐兒峴)에 이르고, 벌아현에서 동쪽으로 두모포(豆毛浦), 왕십리 뒷산을 거쳐 수구(水口)에 이르는 곳에 모두 표를 세웠다.¹⁶ 숙종 대 북한산성 축조 후에는 산성에서

14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4월 19일(병오).

15 『경국대전』, 공전(工典) 제식(栽植).

16 『속대전』 공전(工典) 잡령(雜令) 한성부낭관분장사산(漢城府郎官分掌四山).

성저 5리를 기준으로 표를 설치하여 진산의 소나무가 송충이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¹⁷

이처럼 성저십리로서의 성북천 인근 지역은 한양도성의 주변 공간이자 배후지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정계표를 세워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성북천의 원형

조선시대 성북천의 모습은 18세기 후반 도성을 그린 「광여도(廣輿圖)」, 「도성연융북한합도(都城鍊戎北漢合圖)」,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동국여도(東國輿圖)」, 「여지도(輿地圖)」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성도는 한양도성 내외부를 표현한 지도이다. 한양은 왕권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18세기 이후 도성의 모습이 지도로 많이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에 도성 밖 성북천과 주변의 모습이 중요하게 그려졌다.

도성도 속에는 성북천의 물줄기가 두 가지 흐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 1>의 「도성연융북한합도」나 「지승(地乘)」, 「동국여도」에서는 성북천 하천의 흐름이 주변 지형과 함께 그려져 있다. 이때 성북천은 도성 밖 혜화문 성곽을 따라 하천 본류의 흐름만 표현되었다. 하천의 폭은 청계천 본류보다는 조금 넓게, 정릉천과는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한편,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광여도」, 「사산금표도」, 「여지도」, 「조선장안도형도(朝鮮長安圖形圖)」,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한양전도(漢陽全圖)」, 「성시전도(城市全圖)」 등에는 성북천의 본류가 선잠단(先蠶壇) 좌측에서 흐르는 세천(細川)과 합류되어 안암동 앞을 거쳐 청계천 본류와 만나 중랑천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그림 3} 선잠단의 위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라고 했는데,¹⁸ 현재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지(先蠶壇址)를 말한다. 그리고 합류 지점 아래의 성북천 본류를 각종 도성도에서는 ‘안암천’으로 명명하였다.

¹⁷ 『승정원일기』 538책, 경종 2년 3월 26일(신해).

¹⁸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그림 3-1 성북천 본류와 세천(『사산금표도』 부분, 17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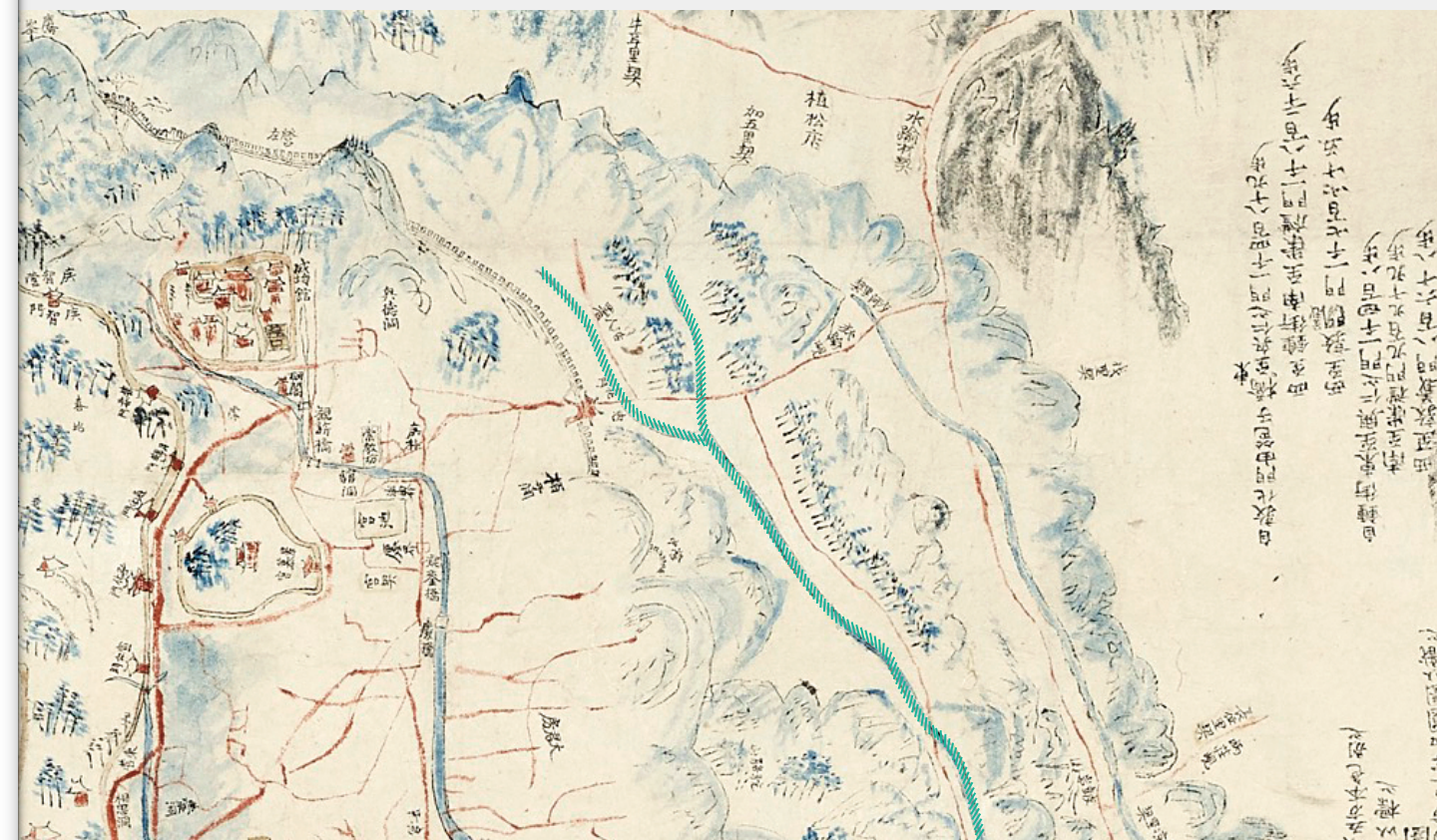


그림 3-2 성북천 본류와 세천(『한양전도』 부분, 1780년대)



그림 4 해화문 앞 성북천, 20세기 전반(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

1915년 「경성지도(京城地圖)」(1:10,000)에서도 성북천 하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성북천은 청계천 본류와 합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천의 폭을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정릉천의 경우는 성북천보다 하천의 폭이나 물줄기를 표시하고 있어 성북천보다 수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사람들이 칠월 칠석에 정릉 약천(藥泉)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성북천보다 풍경이나 수량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성북천의 물길은 하천 주변의 모래땅과 제방 표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도성도 속 선잠단의 세천 또한 물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북천이 복개되기 전까지 선잠단 옆으로 세천이 흘렀으며, 현재 성북로16길이 세천이 흘렀던 자리였다. 조선시대 도성도에서 성북천의 흐름을 본류와 세천까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북천의 경우 주변으로 구준봉, 거수봉(擧首峰) 등 높고 낮은 여러 산봉우리가 서 있으며, 보토현(補土峴), 적유현(狄踰峴, 되너미고개) 등의 고개도 많아 성북천 본류로 세천들이 합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천이 합류하여 흐르는 중하류 구

19 「七夕의 貞陵 藥泉, 칠석가절의 정릉 물터, 전일보다 더욱이 장관」, 『매일신보』, 1913년 8월 10일 3면.

간의 안암천은 수심이 꽤 깊었던 듯하다. 1937년 안암천에서 창신공보(昌信公普) 학생 형제가 목욕하다 깊은 곳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면 성북천은 쉽게 말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흙영(欽英)』을 쓴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성북천이 굽이굽이 맑은 물이긴 했지만, 작년 봄에 왔던 때보다는 가뭄으로 훨씬 못하다고 지적하였다.²¹

〈그림 4〉는 1910년대 해화문(동소문) 밖 성북천의 모습이다. 사진 속 중앙의 3층 건물은 1911년 12월 축성된 백동(栢洞)의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이며, 그 앞으로 해화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해화문을 나와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오른쪽으로는 산림이, 왼쪽으로는 과수원이 있다. 그리고 과수원 앞으로 도성 북쪽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성북천이 모래땅과 황지(荒地)로 둘러싸여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북천은 계곡을 따라 물길이 흐르는 계곡형 하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북고남저의 지세로 지형이 점점 낮아져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는 상태이다.

성북천은 조선시대 내내 준천(濬川)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자연 하천을 유지하였다. 성북천의 모습이 바뀌게 된 것은 1937년에 이르러서였다.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 과정에서 성북천의 개수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북천 개수 공사 계획은 193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36년 4월 근교 76개 동리가 경성부로 편입된 후, 경성부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신 편입 구역에 대한 첫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성북정(城北町)에서 동소문 밖으로 흐르는 성북천을 근본적으로 개수한다는 것이다. 성북천의 경우 매년 여름이면 하천이 범람하여 교통이 끊기는 폐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 지방비로 하천공사와 교량 설치를 계획하였다. 개수 공사는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 주변 전체에 돌로 제방을 쌓아 흐르는 물을 깨끗이 하면서 동시에 도로 폭을 넓히고 또 여러 곳에 다리를 놓아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었다.²²

성북천 개수 공사는 이듬해인 1937년 시작되었다. 당시 경성부에서는 돈암정과 영등포의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1938년 3월부터 이 지역의 구획정리

20 「安岩川에서 學童이 溺死 형제가 목욕중 아우가 넘어져 一時는 兄까지 危險」, 『매일신보』, 1937년 7월 11일 2면.

21 『흙영』 1786년 4월 5일: 김하라 역, 『일기를 쓰다: 흙영 선집』 2, 돌베개, 2015, 187쪽.

22 「年來, 住民의 宿望이던 城北町河川改修」, 『동아일보』, 1936년 5월 24일 2면.



그림 5 1936년 성북천 하천개수와 관련된 신문보도(『성북정하천개수』, 『동아일보』, 1936년 5월 24일, 출처: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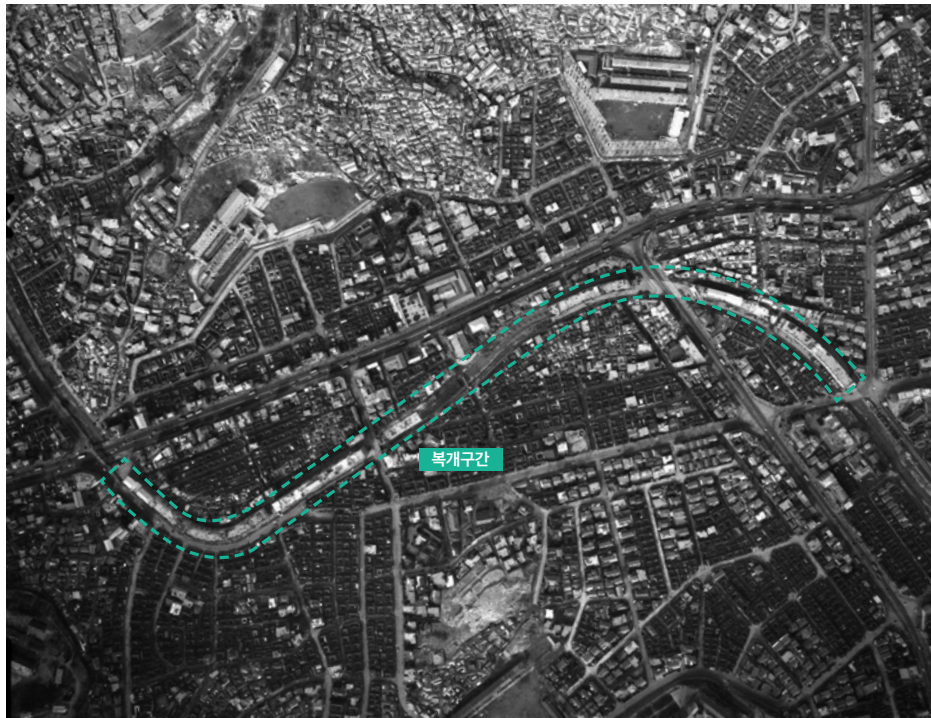


그림 6 복개되어 상가아파트가 세워진 성북천 구간, 1972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도시계획 대상인 돈암지구는 중앙에 성북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경사 구간이 많아 배수가 좋고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깨끗해 주택 지대로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 중앙의 성북천이 남쪽으로 흘러 청계천에 합류하고 있을 뿐 배수로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에 성북천의 개수는 하천 호안(護岸)공사, 굴착, 간선 배수로 작업 등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돈암지구 내의 호안 기타 일부는 경기도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에서 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하천의 폭은 18m에서 26m로 했으며, 개천 바닥은 현재보다 대략 2m에서 2.5m 더 깊게 파내어 배수가 잘되도록 하였다. 간선 배수로 공사는 지형에 따라서 그 유역을 정하여 중앙에 암거(暗渠)를 설치해 성북천에 흘러내리게 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23, 그림5}

이처럼 조선시대 도성 밖을 흐르는 성북천은 1936년까지 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하천의 제방이나 교량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돈암지구 건설을 계기로 성북천은 정비되기 시작했다. 이후 성북천의 준설은 미미했다. 광복 이전까지 서울시의 하수도는 청계천, 만초천(蔓草川) 등의 대간지선(大幹支線)과 지선에 연결되는 소하수(小下水)가 336km 정도에 달했는데, 암거 개수 공사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계천, 만초천은 하상(河床)이 높아져서 도로 면과 비슷했고, 성북천은 도로보다 높아 서울 하천 가운데 가장 심각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하천 일부에만 준설작업을 할 뿐 전반적인 하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복 이후 하수, 배수 문제가 서울시의 가장 큰 난제였다.²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북천은 급속한 변화를 거친다. 하천의 구간을 나누어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상가아파트와 도로로 탈바꿈하였다.^{그림6} 서울시는 1967년부터 1970년 초까지 복개 구간인 성북구 동소문로2길 일대에 삼선상가아파트를 건축하였다.²⁵ 1977년에는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상류 성북천에 폭 4m, 깊이 3m, 길이 180m의 암거 3개를 설치하고 그 위를 포장해 도로로 만들어 기존 도로를 확장하

23 「靑山下碧溪水邊에 天作的 住宅地區 그 위에 人工計劃의 郭岩町 土地區劃整理內容 (六)」, 『매일신보』, 1937년 4월 1일 8면.
24 「서울市下水道工事放置狀態; 현재下水道막힐지몰라憂慮; 市當局의 根本對策樹立要望」, 『대한일보』, 1947년 8월 28일 2면.
25 「삼선상가아파트」,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였다.²⁶ 복개된 성북천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하천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악취 발생,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하천의 복원사업이 논의되었다. 사업은 위치와 기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2002년 5월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성북구 구간은 2010년에 11월에, 동대문 구간은 2011년 5월에 마무리되었다. 전체 구간은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르는 3.53km의 길이이다.²⁷

4. 성북천과 안암천

성북천은 도성의 북쪽이라는 지리적 위치, 조선 후기 하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인 ‘성북동’의 동명이 하천명에 반영되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성북천’이란 명칭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해 지리지, 고지도 등 어떤 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성북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부터 도성이나 궁성의 북쪽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성황城隍에 발고發告할 때에는 ‘장차 모월某月 모일某月에 북교北郊에 단壇을 설치하고 관할 지역의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신력神力에 힘입어 불러 모아 단에 이르소서.’라고 한다. 【주·현州·縣도 동일하다. 북교北郊를 ‘성북城北’으로 바꿔서 칭한다.】²⁸

성종 대 신숙주 등이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五禮)의 서례를 정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서 도성 밖 북교 대신 성북으로 바꿔 부른 것으로 봐서 북교와 성북의 의미가 같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부터 성북천이라는 하천명이 사용될 수 있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26 「城北川 복개 着工」, 『동아일보』, 1977년 9월 1일 6면.

27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성북구』 3, 2018 B, 47~48쪽.

28 『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 축판.

조선 전기 성북천의 모습은 정사룡(鄭士龍, 1492~1570)의 시문집인 『호음잡고(湖陰雜稿)』에서 살펴볼 수 있다. 1552년(명종 7) 3월 28일 정사룡은 친구인 장자방(張子房, 1515~1583), 김인경(金仁卿, 1515~1583), 송백규(宋伯圭, ?~?), 김석지(金錫之, ?~?) 등과 수계(修禊)를 했는데, 모임 장소가 성북천이다. 이때 정사룡은 “도성 동쪽 선잠단에서 비스듬히 서쪽으로 흐르는 시냇가로 나를 초대하여 수계를 하였다.”²⁹라고 하여 성북천을 선잠단 서쪽에서 비스듬히 흐르는 시내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16세기 중반까지 성북천은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개울이었던 듯하다.

성북천과 주변 지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였다. 서울에 살았던 유만주가 그의 일기에서 “성북동의 명성은 근래에야 드러났다고 한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영조 대 혜화문 밖에 설치된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이 있었다. 성북천 주변은 어영청의 둔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황폐한 언덕에 개울물만 흐르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은 곳이었다. 다만 이 지역은 명화적(明火賊)의 소굴로, 일명 ‘도둑골’이었다. 성북동이 성균관 반촌(泮村)과 도성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므로 명화적이 이곳을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은 후 성곽을 넘어와 반촌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영대장이었던 김한구(金漢耆, 1723~1769)가 도성의 안정을 위해 어영청의 둔창(屯倉)을 설치하고 거주할 백성을 모집해 성북동이란 마을을 조성한 이후에야 성북천 주변은 도성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혜화문을 걸어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 북동北洞에 들어가니 복사꽃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노니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그렇지만 역시 작년 윤달처럼 흥성스럽지는 못했다. 굵이굵이 정처 없이 계곡을 따라가며 꽃을 보다가 바위 위에 앉아 개울물을 굵어보며 점심을 먹었다. 조금 올라가니 고운 풀들이 돌아난 언덕이 있기에 앉아 보았다. 개울물이 굵이쳐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³⁰

29 『호음잡고』 권4, 「남궁일록」, “邀余脩禊于城東先蠶壇迤西溪上.”

30 『흙영』 1785년 3월 26일; 김하라 역, 앞의 책(2015), 183쪽.

위의 자료는 『흙영』에 나타난 성북동의 3월 말 모습이다. 남대문 근방에 살았던 유만주가 친구와 함께 나귀를 타고 혜화문을 나와 성북동으로 꽃놀이 간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때 유만주는 성북동을 ‘북동’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후 친구와 함께 계곡을 따라가며 꽃을 보다가 바위 위에 앉아 개울물을 굽어보며 점심을 먹었는데, 이 개울이 성북천이다.

조선 후기 성북천 주변의 마을은 성북동 이외에 북저동, 북적동, 북사동, 묵사동 등으로 불렸다. 북사동과 묵사동의 경우 이곳에 북사(北寺)와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지명이다. 이곳은 성북천의 언덕을 따라 복숭아나무를 심어 생활했으며, 복사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늦은 봄철마다 놀러 오는 상춘객과 거마(車馬)로 가득했다.³¹

여러 동명 가운데 ‘북저’라는 명칭에 주목하면 이는 ‘북쪽 개울’이란 의미이다. 성북천은 골짜기 사이로 길게 흐르는 시내이다. 당시 사람들은 한양도성 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해서 성북동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을 ‘북저’라고 불렀고, 그 주변의 마을을 ‘북저동’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문신인 윤기(尹愷, 1741~1826)의 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산속 집이 그림처럼 아스라이 보이는데	山家如畫望依微
버들잎이 대사립에 나지막이 드리웠네.	碧柳低垂白竹扉
물 흐르는 북저에는 천연스레 물고기 놀고	北渚水流魚自戲
햇살 다순 봄 성에선 나는 듯이 말 달렸지.	春城日暖馬如飛 ³²

이 시에서 윤기는 성북천을 ‘북저’로 표현하고 물 흐르는 냇가에 놀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혜화문을 나가 북성을 따라가다 꺾어 들어 몇 리 안 되는 곳에 골짜기가 널찍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바 북저라는 곳이다.”라고 북저동을 유람한 기문에서 말하고 있다.³³ 권헌(權憲, ?~1504) 또

31 『동국여지비고』 2편, 한성부 명승.

32 『무명자집』 시고 2책, 詩「和李友景贊春日遊北渚詩韻」.

33 『변암선생집』 권35, 記「遊北渚洞記」.

한 자신의 시에서 “선방은 북저에 임하고, 이어진 계곡은 동가(東柯)에 다다르네”³⁴라고 하였다. 이때의 북저는 북저동 마을을 뜻할 수도 있지만, 마을 안 ‘북쪽 개울’인 성북천을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권헌은 스님들이 참선하는 방인 선방이 성북천 가까이에 있으며, 주변 계곡의 아름다움을 두보(杜甫)가 약조를 깨며 노년을 보내고 싶은 경치 좋은 동가 계곡에 비유하였다. 『동국여지비고』에도 북저동을 설명하면서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 생활한다.”라고 하여 성북천을 맑은 시내라 하고 있다. 조선 후기 북저동을 방문한 여러 문인의 시나 산문 속에도 성북천은 ‘산골짜기 물(澗水)’, ‘시냇물(溪水)’, ‘한줄기 길게 흘러가는 시내(一道長流水)’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 하천명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북동이라는 동명은 1786년 유만주가 ‘북동(北洞)’으로 표현한 것 외에 1805년(순조 5)에 작성된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燠造契完文節目)』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김정호(金正浩, 1804~1866?)의 「수선전도」, 「동여도」 등의 지도에 성북동으로 동명이 표기되어 있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마을의 하천을 성북천으로 호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북천의 명칭과 관련해서 『경성부사(京城府史)』의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예부터 단의 서쪽 일대는 서쪽 작은 구릉 위를 남북으로 굽는 분수령이었고, 동쪽 일대는 남북으로 흐르는 안암천 상류 기슭이었다. 남쪽 일대는 단의 남쪽을 동서로 달리는 좁다란 길이었고, 북쪽 일대는 단의 기저 경사면 끝의 분수령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넓은 구역을 보유하고 있었다.³⁵

『경성부사』에서는 선잠단 일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선잠단 앞으로 흐르는 현재의 성북천 상류를 안암천 상류로 칭하고 있다. 안암동 주변 지역으로 흐르는 현재 성북천 중·하류 구간의 경우 일찍부터 안암천(安岩川)으로 명명되었다. 「지승」, 「광여도」 등에서 보면 혜화문 위쪽의 하천을 안암천으로 표기하였다.^{그림 7}

조선시대 고지도에 안암천의 명칭이 나타나는 것은 안암이란 지형적 특징과

34 『진명집』 권5, 五言律詩「題惠上人房」.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경성부사』 3, 2015, 9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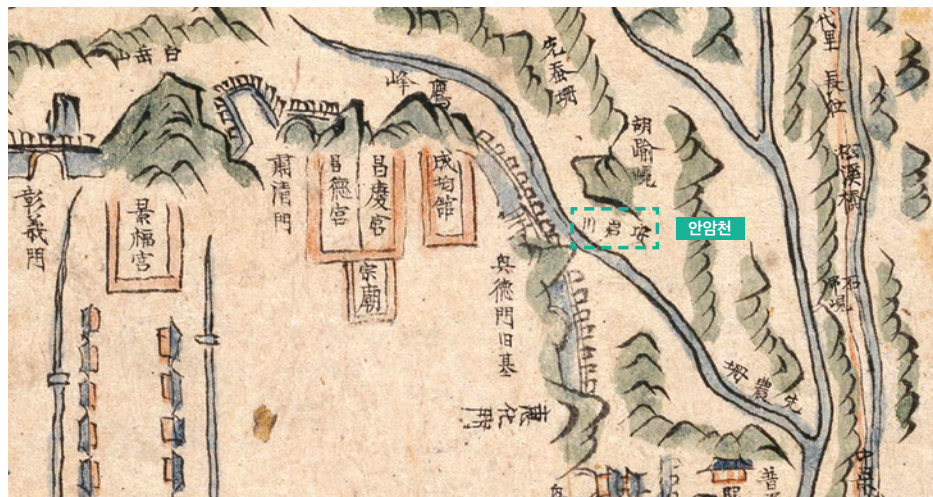


그림 7-1 안암천으로 표기된 성북천(『지승』 부분, 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7-2 안암천으로 표기된 성북천(『광여도』 부분, 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안암동이란 동명이 조선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왕의 주요 능행 교량이 있는 하천이기 때문이다. 이 교량 또한 안암천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임금이 능에 거동할 때에는 도성 안팎의 교량을 호조에서 수리 개선하는데, 동쪽의 한계가 안암천이다. 「사산금표도」, 「경조오부도」, 「동국여도」 등에도 안암천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안암천은 안감내, 안암내로도 불렸다.³⁶ 각종 도성도에 성

³⁶ 「성북천」,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북천의 본류를 안암천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과 『경성부사』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안암천 상류 기슭”에 선잠단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현재의 성북천은 조선시대에 안암천으로 지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북천의 명칭이 자료 속에 등장하는 것은 1937년 『매일신문』 기사에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돈암정 지역은 성북천이 흐르는 지대로 최상의 주택지였다. 이 지역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굴착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북천의 명칭이 나타난다. 동년 7월에는 안암천에서 형제가 목욕하다 깊은 곳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성북천과 안암천이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성북동에서 신설동까지 흐르는 현재의 성북천은 조선시대의 경우 도성 사람들에게는 ‘북쪽 개울’인 북저로, 공식 하천명으로는 ‘안암천’으로 지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894년 성북동이 ‘한성부 동서 숭신방 성외 동소문외계 성북동’의 정식 행정구역 체계로 편입된 이후 하천 구간에 따라 상류인 성북동 지역은 성북천으로, 중하류는 안암천으로 구분하여 명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 조선시대 성북천 주변의 모습

1. 조선 전기 성북천 주변

① 제향 공간의 조성: 정릉과 선잠단

성북천은 도성의 후장(後帳)인 북한산 구준봉 계곡에서 발원한 하천이다. 따라서 성북천 상류는 계곡이 깊고 봉우리가 높아 적이 침범해도 돌격해 올 수가 없는 곳이다. 구준봉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성 북쪽 지역은 어른이 아이를 안고 굽어보는 것과 같은 형세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정예 적병이 들어와도 힘을 쓸 수 없는 도성 방어의 중요 지역이었다. 따라서 숙종 대 훈련 대장 이기하(李基夏, 1646~1718)는 구준봉과 백악 사이에 4, 5개의 돈대를 설치해 방수(防守)하는 곳을 만들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⁷

이처럼 성북천 상류 지역은 도성 방어에 주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형의 특성상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국가에서 풍수상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국가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은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태종은 1405년(태종 5) 한양으로 환도한 이후 그동안 방치되었던 도성의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청계천 하상 정비와 교량 석축 공사를 포함하여 모화루 건설, 종묘 증축, 가산(假山) 조성 등이 실시되었다. 1409년(태종 9)에는 한성

³⁷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2월 15일(을유).



그림 8 서울 정릉 능침(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부 동부 정릉동에 있던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 ?~1396)의 무덤을 경기도 양주군 남사아리(南沙阿里)로 이장하였다.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가 1396년(태조 5)에 승하하자, 능호를 정릉(貞陵)으로 하고 직접 답사해 능지를 안암동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물이 솟아 나오자, 능지 선정을 철회하고 한성부 도성 안 황화방(皇華坊)에 정릉을 조성하였다.³⁸ 그런 후 조준(趙浚, 1346~1405), 김사형(金士衡, 1341~1407) 등의 건의에 따라 안평군(安平君) 이서(李舒, 1332~1410)를 시켜 능을 지키게 하였다.³⁸

1408년(태종 8)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 태종은 이듬해인 1409년 정릉을 도성 밖 동북쪽 지역인 사을한(沙乙閑) 산기슭으로 무덤을 옮겼다. 『연려실기술』에는 양주군 남사아리로 옮겼다고 하고 이를 사을한리(沙乙閑里)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동일 지역의 이칭으로 파악된다. 정릉의 천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옛 제왕의 능묘는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이 도성 안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신이 묵는 관사와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³⁹ 정릉을 사을한리로 이장할 때 제문을 쓴 변계량이 국도(國都) 안에 무덤을 둔 일이 없다는 예관

³⁸ 『연려실기술』 별집 권2, 사전전고(事典典故) 산릉(山陵).

³⁹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23일(병신).



그림 9 일제강점기 선잠단지 전경, 20세기 전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禮官)의 건의에 대소신료가 동의하여 물 맑고 산세가 좋은 도성 밖 동북 지역으로 신덕왕후를 이장했다고 하는 데에서 도성 안 능묘의 존재가 더 큰 이장의 이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장한 이후 정릉의 제사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정릉의 제사는 국가가 시행 주체가 아닌 왕후의 친족들이 하도록 하였다. 정릉이 조정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581년(선조 14) 신덕왕후의 후손인 강순일(康純一)이 국묘(國墓)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군역면제 전례에 따라 이를 요청하면서이다. 그러나 정작 조정에서는 정릉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이에 변계량이 찬술한 『정릉고천제문(貞陵告遷祭文)』 가운데 “성의 동북쪽 모퉁이로 물이 졸졸 흘러 넓고 길게 이어지고, 산은 길게 뻗어서 감싸고 둘러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서울 동북쪽 계곡 주변을 살펴본 결과 산골짜기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채 있는 정릉을 찾게 되었다. 이후 정릉은 황폐한 정자각 터에 장막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정도의 관리

40 『연려실기술』 권1, 태조조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정릉폐복(貞陵廢復).

가 이루어졌다가 1669년(현종 10) 예조에 의해 정릉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정릉은 사면의 사토가 거의 다 허물어지고, 곡장(曲牆)도 모두 퇴락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비와 함께 정자각의 신축, 석물 조성도 이루어져 왕릉으로 재조성되었다.⁴¹

한편,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예제정비를 통해 국가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길례의 제사들이 조선 초 정비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사(中祀)인 선잠단이 성북천 상류 주변에 마련되었다. 선잠은 중국 고대의 오제(五帝) 가운데 한 명인 황제(黃帝)의 부인 서릉씨(西陵氏)를 잠신(蠶神)으로 하여 신위를 배향한 것이다. 그녀가 잠신이 된 것은 처음으로 누에를 쳤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주나라에서는 선잠단을 북교(北郊)에, 한·송나라에서는 동교(東郊)에 설치하였다. 주나라 때 선잠단을 북교에 설치한 이유는 ‘순음(純陰)’이었기 때문이었다. ‘순음’은 생사(生絲)의 의미도 있었으며, 서릉씨가 여인이었으므로 음양설(陰陽說)에 따라 음의 방향인 북쪽에 단을 설치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한·송 대에 동교에 설치된 이유는 만물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⁴²

조선에 선잠단이 처음 설치되어 제사를 지낸 건 1400년(정종 2)이다. 이때에는 선잠단이 개성에 마련된 것이었다. 이후 태종 대 사전(祀典) 개정안이 마련되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선잠단이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종 환도 후 도성 북동쪽에 단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선잠단 제사에서 서릉씨의 신위는 선잠단 위의 북방에 남쪽을 향해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자리로 하였다.^{43, 그림9}

조선 초 조성된 선잠단은 축조가 허술했을 뿐 아니라 지세가 기울어지고, 토질이 나빠 뽕나무가 자라지 않는 등 입지와 제도의 문제가 세종 대 제기되었다. 따라서 잠석으로 단을 쌓아 봉토가 무너지지 않게 일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재실과 창고 역시 설치되지 못해 서릉씨의 신주를 봉상시 창고에 두었다가 제사 때에 옮기는 등 신주, 제기, 악기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잠단에서의 제사는 매년 음력 3월 첫 번째 사일(上巳日)에 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1477년(성종 8) 3월 예조에서 “3월 2일은 곧 첫 사일(吉巳)이나 뽕잎이

41 이근호, 「조선 후기 성북 지역 陵·墓 조성과 그 의미」, 『북악사론』 12, 2020, 151~154쪽.

42 임혜련, 「조선시대 先蠶祭 정비와 시행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7, 2015, 181~182쪽.

43 『세종실록』 권128, 오래 길례 서례 신위.

아직 피지 않았으니, 다시 3월 안의 사일로 날을 택하여 행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뽕잎이 피는 사일에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선잠단에서의 제사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잠업(蠶業)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잠제의 주체는 국왕이었으나 친제(親祭)가 아닌 관원을 보내 제사를 치르는 섭사(攝祀)의 형식으로 행해졌다.⁴⁵ 국왕을 대신한 초헌관은 정2품, 아헌관은 정3품, 종헌관은 종3품이 담당하였다.⁴⁶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선잠단은 어영청이 맡아 관리하였다. 성북둔 아래에 사는 대년군(待年軍) 가운데에서 단지기(壇直)를 정해 청소, 관리하도록 했고, 해당 둔의 감관(監官)이 검찰하도록 하였다. 절향(節享) 시에는 어영청의 당상 장관이 정문을 파수하였다.⁴⁷ 지속적인 식수사업도 진행해 매년 봄에 정릉 근처 산록에 뽕나무를 심기도 하였다.⁴⁸ 이러한 선잠단은 1908년 7월 이후에는 잠신의 신위를 선농단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겼다.

조선 전기 성북천 상류에는 선잠단과 정릉이 국가 주요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성저십리 지역이었다. 그러나 선잠단과 정릉의 설치로 조선 초기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종이 춘추의 두 중월(仲月)과 이름이 있는 날(有名日)에 2품관을 보내어 정릉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 선잠단 역시 매년 3월 상사일에 선잠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곳은 조선 전기 제향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② 의료와 구제기관의 설치, 동활인서

동소문 밖 성북천 주변에는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인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위치하였다. 활인서의 전신은 고려시대大悲院(대비원)으로, 태종 대 활인원(活人院)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활인서로 개명하고, 제조(提調)와 별좌(別坐), 참봉 1인을 두었다.⁴⁹

⁴⁴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祀典典故) 제단(諸壇).

⁴⁵ 임혜련, 앞의 글(2015), 181~184쪽.

⁴⁶ 『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 제관.

⁴⁷ 『어영청사례』, 자내단묘(字內壇廟); 『만기요람』 군정편3(軍政編三), 어영청(御營廳) 적간(摘奸).

⁴⁸ 『승정원일기』 1774책, 정조 21년 3월 14일(갑인); 1787책, 정조 22년 2월 12일(병오).

⁴⁹ 『세종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15일(무오).

활인서는 동소문 밖과 서소문 밖에 위치하던 의료기관이면서 구제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서울 안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이곳에 모아 놓고, 먹을 음식과 약, 의복과 이부자리를 주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다. 특히 도성 안의 모든 역병 환자를 모아 치료하였다. 도성 안에는 인가가 밀집되어 있어 한 집에서 병을 앓으면 쉽게 서로 옮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병을 앓는 일반 백성과 천례(賤隸)는 모두 동·서의 활인서에 두고 치료하도록 하였다.⁵⁰

활인서에는 의원뿐 아니라 무당, 매골승(埋骨僧), 오작인(倣作人)이 활동하였다. 조선 초기 도성의 경우 민간에 질병이 성행할 경우 의무(醫巫)를 시켜 약을 가져가서 구료하였다. 1415년(태종 15)에 활인서에 무당을 보내 병자를 치료했으며, 1436년(세종 18)에는 죄가 있는 무녀들을 활인서에 소속시켰다. 이처럼 무당을 활인서에 둔 이유는 이들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는 관념이 작용하여 병자와 빈민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의원보다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 치병굿을 행하거나 벽사의식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양반 또한 무격에게 질병과 관련한 조언이나 피접(避接)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⁵¹

매골승은 도성 안의 죽은 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는 승려이다. 국가에서는 역병으로 죽은 자는 매장하되 도성 근처에 주검을 버려두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활인서에는 한성부 내 민간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의승 내지 매골승이 있었다. 1427년(세종 9)에는 매골승을 증원하여 기존의 매골승 10명 외에 추가로 6명을 활인원에 배정하였다. 매골승을 증원한 이유는 이 시기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으며, 역질도 유행하여 도성 내외로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장사를 지내 줄 친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은 한성부에서 대신 매장해 주도록 했는데, 이 일을 매골승이 담당하였다. 매골승은 이듬해 1428년(세종 10)에 다시 4명이 추가되어 동서활인원에는 각각 10명의 매골승이 배치되었다.⁵² 매골승과 함께 오작인 역시 도성 안 시체를 조사하여 묻어 주는 일을 하였다.⁵³

활인서의 매골승 외에도 조선 초기 성북천 상, 하류 주변에는 승려들이 많았다.

⁵⁰ 『성종실록』 권43, 성종 5년 6월 4일(정사).

⁵¹ 최진아, 「조선시대 성저십리의 무속」,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381쪽.

⁵² 박선경, 「조선 초 승려 참여기구의 운영 변화 - 별와요·귀후소·활인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7, 2022, 63~65쪽.

⁵³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이는 하천 주변으로 사찰이나 암자가 형성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승려들은 역사(役事)를 면하기 위해 남산, 안암, 사울한 등지에 초막을 짓고 재(齋)를 베풀며, 사람들을 모아 소나무와 잡목들을 베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병조에서는 초막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고, 정업원(淨業院) 이외에는 산속의 여승방(尼僧房)을 금지하도록 하였다.⁵⁴

이러한 확인서는 치폐(置廢)를 반복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은 성북천 주변으로 금표를 세우고 사람의 거주 및 왕래를 금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설치되었던 동활인서를 철거하였다. 이후 연산군이 폐위되자 중종은 1512년(중종 7)에 확인서를 다시 설치하여 빈민의 의료 및 구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인 1595년(선조 28) 확인서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예조에서 전염병자의 치료 대비책을 건의해 1612년(광해군 4) 복설되었다.

확인서의 의료활동으로 성북천 주변에는 병막(病幕)이 마련되어 도성 안 노비와 빈민들이 아플 경우 이곳으로 보내져 치료가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 동소문 밖으로 12곳의 병막이 있었는데,⁵⁵ 1791년(정조 15) 동소문 밖 북적동의 병막에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 4명이 연기에 질식사하여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들에게 홀전으로 돈 2냥, 포 2필을 지급했으며, 어린아이에게는 절반인 돈 1냥과 포 1필을 지급하였다.⁵⁶ 조선 후기까지 성북천 주변에 마련된 동활인서의 위치는 현재 삼선중학교 아래 돈암장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⁷

③ 하천 주변의 모습: 한지 경영과 금표의 설치

조선 전기 동소문 밖 성북천 주변의 경우 사람이 산재해서 살고 있었으나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마을로는 사울한리, 다야원(多也院), 안암동 등이 있었다. 사울한리는 사아리, 살한리, 사한리 등으로 불리며, 동소문 밖에서 지금의 정릉동과 미아동을 아우르는 지명이다. 이 지역의 경우 넓은 한지가 많아, 세조 대에 농지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⁵⁴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9일(무술).

⁵⁵ 『승정원일기』 1691책, 정조 15년 6월 19일(임술).

⁵⁶ 『승정원일기』 1689책, 정조 15년 4월 13일(정사).

⁵⁷ 서울역사편찬원, 앞의 책(2018 A), 203쪽.

동소문 밖의 다야원 냇가에 거둥하니,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 병조 판서 김질金鎰·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참판 임원준任元濬과 승지承旨·아종兒宗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한명회에게 한지閑地를 보고 가운데를 나누어 구역을 만들고, 좌우로 수전水田 수십 무畝를 만들게 하였다. 아종과 김질에게는 명하여 그 위에 내를 막고 좌우로 개천을 열어 수전에 물을 대어서 보았다. 이후에 큰비의 피해를 받아 수전이 모두 모래에 뒤덮이었다.⁵⁸

1465년(세조 11) 세조는 직접 동소문 밖 다야원 냇가에 거둥하였다. 이때 신숙주,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대신이 세조와 동행하였다. 세조는 한명회에게 명해 한지 가운데를 나누어 논을 만들고 개울을 개수해 물을 대도록 했다. 그러나 동소문 밖의 경우 장마철이 되면 쉽게 개천이 범람해 논이 모래로 뒤덮여 농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북천 주변 농지 경영은 운수동(雲水洞)이란 마을 명의 유래에서도 살필 수 있다. 현재 성북동 60번지 부근을 운수동이라 한다. 이 마을은 계곡이어서 논이 없었으나 어떤 사람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습한 땅에 다랑이논을 만들고 살아 논골이라 부르기도 했다.⁵⁹ 조선 전기부터 이 지역의 유희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다. 연산군 대에 금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울한리 주변으로 주거지와 논밭이 많다는 표현에서 이 지역에 점차 사람들이 거주해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성북천 상류와 달리 중류 구간인 안암천 부근의 경우 안암동이라는 동명이 태조 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태조는 자신의 수릉지를 정하기 위해 산수 좋은 곳을 왕래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안암동이었다. 이후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능지(陵地)를 직접 답사하여 자신의 수릉지로 봤던 안암동을 왕후의 산릉 터로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암동은 태종 대 도성 밖 지역으로 외성을 쌓는 경계로도 지목되어 도성 밖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고, 왕의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다.

⁵⁸ 『세조실록』 권36, 세조 11년 6월 4일(경진).

⁵⁹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攷』Ⅷ, 1983, 33쪽.

⁶⁰ 『연산군일기』 권54, 연산 10년 7월 18일(병오).

안암동이 있는 동대문 밖 지역은 조선 초기부터 주거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의 인구증가로 도성 안이 포화상태가 되자, 도성 밖 지역이 거주지로 주목받았다. 그중에서도 동대문 수구문 바깥으로 주거 공간이 확장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구역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동대문 수구문 밖을 남북으로 나누어 이북 지역은 5부 가운데 동부에 부속시켜 송신방(崇信坊)과 창인방(昌仁坊) 2방을 신설하였고, 이남 지역은 예성방(禮成坊), 성신방(誠身坊) 2방을 신설하여 남부에 부속시킨 것이다. 정부의 택지 분급은 신설된 방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도성 밖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기(地氣)가 부족한 동대문 밖으로 집중되어 송신방과 창인방 지역은 어느 정도 인구가 조성되었다. 동대문 밖 안암동에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의 아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대를 이어 살았고, 그 일가를 모시는 사당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마을을 사당말이라고 했으며, 궁말·궁리·중리로도 불렸다.⁶¹ 1483년(성종 14)에는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 1418~1483)가 온천에 갔다가 행궁(行宮)에서 돌아가시어 찬궁(殯宮)으로 봉환할 때 이 집에 임시로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⁶²

연산군 대에는 성북천 주변에 금표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였다. 동소문 밖은 도성과 궁궐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요충지였다. 연산군은 군사를 훈련하고 사냥터로 이용하기 위해 성북천 주변 지역에 금표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이 지역은 지형상 구릉지에 오르면 도성 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도적이나 반란군이 숨어 있기 적당한 곳으로 파악하였다. 연산군은 혹여 있을지 모르는 반군의 발호를 염려해 동소문 밖 동구에 별도로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고 군기를 배정하며, 북쪽 정문 밖 산의 각 곳에 잡인을 금하여 이들이 산을 올라가 대궐 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였다.⁶³

아울러 궁궐을 바라보는 민가의 철거도 지시하였다. 도성 안의 경우 사삼시동(司瞻寺洞) 이문(里門)에서 흥덕동(興德洞) 어귀까지 70집, 흥덕동 어귀에서 동소문 북쪽까지 23집, 함춘원(含春苑) 담 밖에서 사삼시 남쪽 돌담까지 50집이 철거 대상이었다. 동소문 밖은 대신들이 큰길에 한계로 하면 인가와 논밭이 많으므로 보등사(寶

61 「사당말」,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62 『동국여지비고』 2편, 한성부 제택.

63 서울역사편찬원, 앞의 책(2018 B), 203쪽.

燈寺)에서 다야원(多野院)·적유령(狄逾嶺)을 거쳐 동소문 밖 도로 북쪽 변까지 표를 세우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연산군은 금표 지역의 사람들을 지금 내쫓지 않으면 이후 거주인이 증가해 금표를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철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큰길을 따라 표를 세우고 사을하리 동리 어귀에 경수소를 만들어 사람의 왕래를 금했으며, 주민들을 금표 밖으로 나가 살게 하면서 이들에게 금표를 지키도록 하였다.⁶⁴

이처럼 연산군 대의 금표 및 주변 인가 철거작업으로 성북천 일대의 주민들은 모두 생활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을하리 지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북천 주변 철거민들은 중종이 즉위한 이후에야 다시 원래 거주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2. 조선 후기 성북천 주변의 변화

① 성북천 상류 마을, 성북동의 형성

조선 후기 성북천의 모습은 1792년(정조 16) 4월에 이덕무가 지은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點綴靑林白沙嘴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短籬家家碧溪沚
금성 천부라 참으로 아름답고	金城天府儘美哉
태평성대 또한 즐겁도다	壽域春臺亦樂只 ⁶⁵

「성시전도」 속 혜화문 밖의 모습을 보면, 첫째 푸른 숲과 흰 모래밭, 둘째 북둔의 복사꽃, 셋째 푸른 시냇가와 울타리 낮은 집들이다. 조선 전기와 다른 점은 바로 북둔

64 『연산군일기』 권54, 연산 10년 7월 13일(신축): 18일(병오).

65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雅亭遺稿) 12, 응지각체(應旨各體), 「성시전도(城市全圖)」.

의 설치와 성북천 상류 주변으로 형성된 촌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성북동 마을 조성에 대한 영의정 홍봉한의 주장이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땅이 매우 평평하고 넓어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를 두어 살게 한다면, 도성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약간의 메마른 밭薄田이 선잠단 근처에 있는데, 급료를 받는 군사를 그 땅에 살게 하여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감해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가히 귀농하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지형地形을 그려 아뢰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형을 가리키며 조목조목 자세히 아뢰니, 임금이 어영청에 명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하였다.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었다. 창고가 성 밖에 있어서 한갓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거주하는 백성은 땀나뭇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 창고에 쌓아 둔 쌀로 먹여 주기를 바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심하였다.⁶⁶

도성 북쪽 지역은 산이 많은 데다 높아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는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도성의 주맥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동부 거주민들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이 황폐해질 위기였다. 성 밖으로 흐르고 있던 성북천의 긴 계곡 역시 나무가 없이 험하고 황폐해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1765년(영조 41) 조정에서는 이 지역의 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주맥의 보토 작업을 진행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거주시키려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논의의 골자는 주맥의 보호를 위해 도성 동북쪽의 빈 골짜기지만 지면이 평평하고 넓은 지형에 둔전(屯田) 및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⁶⁷ 이듬해 봄 이를 추진했던 홍봉한과 김한구가 숙정문과 혜화문 사이의 성북동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핀 후 높은 곳은

⁶⁶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⁶⁷ 『승정원일기』 1242책,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비변사등록』 147책, 영조 41년 4월 18일.

깎고 낮은 곳은 메우는 토지 조성 작업을 거쳐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도록 하였다.⁶⁸

이처럼 성북둔(城北屯)은 1765년(영조 41) 성북천 주변에 창건되었다. 둔사(屯舍)는 33칸으로 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둔감(屯監)과 함께 서원 1명, 고지기 1명, 사환군 3명이 있었다. 둔창에는 환곡미(還穀米) 4백 석과 돈 2천냥, 둔우(屯牛) 33척이 있었다.⁶⁹

마을이 조성된 이후의 양상은 다음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북둔을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반론 물리쳤으니	北墩初設攢羣言
남모르게 성황의 지극한 계책이 보존해 주었음이라.	陰雨城隍至計存
지난날엔 그저 평범하고 기다란 골짜기였을 뿐인데	往者尋常一長谷
어느새 촌가 몇 호 벌려 있구나.	居然排列幾家村
푸른 계곡의 세찬 물소리는 누가 세고 있는지	緣溪湍激誰爲葉
성곽을 등지고 밭 갈고 김매면 넉넉한 군량 얻으리라.	負郭耘耕可餉屯
다시 맑은 가을 닥치니 계곡의 물과 돌이 좋을 씨고	更得淸秋水石好
나그네 와서 지팡이 짚고 물의 근원 어디냐고 묻는구나.	客來拄杖問窮源 ⁷⁰

이를 통해 보면 성북둔을 설치할 당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반대를 물리치고 긴 골짜기만 있던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이들은 성곽을 등지며 밭을 갈고 김을 매어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북천 주변 지역은 원래 경작이 금지된 곳이었다. 숙종 대 창의문 밖 동쪽에서 응봉(鷹峰)까지의 도성 밑과 동소문 북쪽에서 응봉 동쪽까지의 성 안팎에 백성들이 밭을 만들어 조·기장·대두 등을 파종하여 경작하자, 한성부에서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⁷¹ 이렇게 경작을 금지한 것은 도성 북쪽의 지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마을을 형성한 후 주민의 생계 마련은 어려웠다. 성북동은 지리적 특성상 응봉과 구준봉 사이이며, 그 사이로 성북천이 흐르는 계곡형 지형이므로 농사

⁶⁸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⁶⁹ 『동국여지비고』 제2편 관방; 『어영청사례』 제둔(諸屯) 성북둔(城北屯).

⁷⁰ 『가암유고』 권3, 詩「再訪城北屯」.

⁷¹ 『숙종실록』 권18, 숙종 13년 3월 3일(신사).

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도성 밖 외진 곳이었으므로 시장과의 거리도 멀었다. 따라서 성북둔을 설치한 지 2년 뒤인 1767년(영조 43) 영조는 성북동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명, 베, 모시 등의 점포에서 포백(曝白)할 물건과 개경의 모시, 호조의 차일(遮日)에 쓰는 포 등을 전부 주민들에게 주어 삶아서 익히는 포역(曝役)을 하게 하였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무명은 한 동(同)당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 호조 차일에 쓰는 포는 백미 20두의 노임을 받았다.

이듬해 1768년(영조 44)에는 이곳에 메주를 쑨는 훈조막(燻造幕)을 설치하여 동리의 거주민에게 훈업(燻業)도 하게 했다. 훈조막은 5인이 1소(所)를 만들었고, 여기에 두 개의 솥을 걸어 교대로 콩을 삶도록 하였다. 콩을 삶는 노임은 1석(石)에 6전인데 쌀로 대체하여 2두(斗)를 받았다. 비변사에서는 원활한 훈조막 운영을 위해 총융청에 관문을 보내 연용대 훈조막에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북동 주민에게 가르치도록 조치했고, 주민들은 솥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35냥을 냈다.⁷²

모민(募民)을 통해 형성된 성북동의 호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도성의 동쪽으로 나가 북쪽으로 3, 4리를 가면 북적동이 있다. 북적동은 도성 곁에 있는 데다 명승지로 특히 이름난 곳이라 늦봄에는 하루라도 거리에 상춘객이 없는 날이 없다. …(중략)… 북적동 입구에는 너럭바위가 비스듬히 누워 있고, 그 위로 물이 널찍하게 퍼져 흘렀다. 물가를 따라 물고기 께미처럼 나란히 줄을 서서 올라가면서 혹은 이리저리 골라 디디거나 혹은 풀쩍 건너뛰기도 하였다. 북적동에 들어서자 널찍하던 바위는 길게 뻗어 있고 퍼져 흐르던 물은 좁게 모여 골짜기 가운데는 개울이 되고 개울 양 기슭은 언덕을 이루었다. 언덕마루 위로는 몇 리에 걸쳐 산길이 나 있고, 사이사이에 촌락의 울타리가 별자리처럼 드문드문 펼쳐져 있었다.⁷³

앞서 김귀주(金龜柱, 1740~1786)가 성북둔을 방문하고 지은 시에서 “촌가 몇 호 벌려 있구나”⁷⁴ 라고 표현했듯이 북적동을 유람한 서형수(徐瀾修) 역시 비슷한 양상을 서

72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73 『명고전집』 권8, 記「遊北笛洞記」.

74 『가암유고』 권3, 詩「再訪城北屯」.

술하였다. 그는 북적동을 유람하면서 마을의 모습을 촌락이 별자리처럼 드물게 펼쳐져 있다고 하였다. 집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성북천 주변 사람들은 포백, 훈조업 외에 복숭아 농사를 생업으로 하였다.

과실 익으면 주인은 먹지 못하지만	果熟居人不自食
복숭아나무 몇 그루면 한 집 가난 구제하네.	幾樹能濟一家貧
사는 이치는 농사 양잠하는 집과 다르지 않으니	理生不殊農蠶家
임천에 사는 사람 모습을 보여주네.	使人看作林泉民
해마다 나무 심어 이윤 점점 늘어나니	種樹年年利漸滋
오곡이 흉작인 해도 신경 쓸 일 없다네.	五穀凶歉不關身 ⁷⁵

복숭아나무 몇 그루면 한 집의 가난을 구제한다는 말처럼 복숭아 농사는 주민의 생계를 유지해 주는 수단이 되었다. 과수 농사는 곡식이 흉작이 든 해에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마다 복숭아나무를 증식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다. 박제가의 「성시전도시」에 “성북둔 주변의 풍속 가운데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으면 이를 수치로 여긴다.”는 말은 이 지역 모든 가호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조선 후기 도성 근교에서 채소, 과수 등의 상품 원예 작물이 집약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유만주 역시 성북동 사람들은 복숭아나무를 심어 생업으로 삼았는데 심은 나무가 해마다 늘어나서 수천 그루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유는 도시 사람들이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길흉사를 포함해 공적·사적 용도로 복숭아를 썼기 때문이다. 당시 도성 내 복숭아 수요가 많았으며, 주된 공급처는 성북동(북사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북동 주민들은 복숭아나무를 생명줄로 여기며 집을 붙여 더 많이 증식했고, 그 결과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수만 송이 꽃들로 북사동을 에워싸 도성 사람들의 명승지가 된 것이다. 서울 사람들은 복사꽃이 피는 봄철의 성북동도 아름답지만, 복숭아가 익을 무렵 온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둥근 복숭아 모습 또한 절경이라고 하였다.⁷⁶

75 『삼명시집』 6권, 詩「漢京雜詠北渚洞」.

76 『흙영』 1786년 4월 5일; 김하라 역, 앞의 책(2015), 188쪽.

이처럼 1765년(영조 43) 형성된 성북동은 20년 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부자 동네로 성장하였다. 1786년(정조 10) 이곳을 방문한 유만주가 “성북동의 명성은 근래에야 드러났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서울 사람들이 성북동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아무도 살지 않고 성북천만 흐르고 있던 지역에 점차 사람이 모여 사람 사는 동네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② 성북천 주변 마을의 편성

조선 전기 성북천 주변은 동부 송신방에 해당되었지만 이 일대 동명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북천 주변으로 사울한리, 사아리, 안암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를 송신방으로 편입해 한성부 행정 체제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성북천 상류 주변의 경우 사아리계(沙阿里契), 우이리계(牛耳里契), 가오리계(加五里契), 능동계(陵洞契), 수유촌계(水踰村契), 벌리계(伐里契) 등 6개의 계가 있으며, 중하류 구간으로는 안암리계(安巖里契), 신설계(新設契), 답십리계(踏十里契), 청량리계(淸凉里契), 제기리계(祭基里契), 전농리계(典農里契), 중랑포계(中浪浦契), 장위리계(長位里契) 등 8개가 된다.⁷⁷ 이들 계는 모두 방제(坊制)에 편입되지 않은 채 한성부 동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방(坊)이 없고 계(契)만 있는 무방유계(無坊有契)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 성저십리의 경우 성북천 주변 마을처럼 무방유계인 지역과 함께 방은 있으나 계가 없는 유방무계(有坊無契) 지역도 있었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이들 무방유계와 유방무계 지역에 대해 방과 계의 명칭을 부여하여 한성부 전 지역을 부-방-계의 행정 체제로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방에 편제되지 않았던 성북천 주변 지역 가운데 홍인문 밖 신설계, 안암리계, 종암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능동계, 사하리계, 벌리계, 우이리계는 송신방에 소속되었으며, 답십리계, 전농리계, 청량리계, 제기리계, 중랑포계, 장위리계는 인창방에 소속되었다. 정조 대 이들 두 방의 호구는 송신방의 경우 1,241호 3,886명이며, 인창방은 2,511호 7,683명이었다.⁷⁸

『육전조례(六典條例)』가 완성된 1866년(고종 3)에 이르면, 송신방에는 월곡리

77 『어제수성윤읍』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

78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0월 16일(갑진).

계가 신설되고, 인창방 소속이었던 장위리계는 송신방으로 편입되었다. 아울러 인창방의 경우 장위리가 송신방으로 편입되는 대신 중랑포계가 중랑상리계와 하리계로 분할되는 행정 체제의 변동이 있었다.

1894년에는 한성부 5부를 5서(署)로 개칭하는 동시에 동(洞)을 별도로 정하여 5서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성북천 주변 소속 방인 송신방은 성외(城外) 송신방과 성내(城內) 송신방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외 송신방은 동문외계(東門外契)와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 2계로 나누어 31개의 마을을 계의 안으로 편입시켰다. 동문외계에는 홍수동, 복차교, 남교, 대정동, 편교, 장평리, 미전동, 장거리, 영미동, 정자동, 신리, 대종암, 신리, 신설동, 원리, 궁리, 상리, 중리, 우산각리, 소종암, 돈암리, 삼선평 등 22개 마을이, 동소문계에는 성북동, 소정릉동, 손가정, 청수동, 미아리, 번리, 대수유리, 가오리, 우이리 등 9개의 마을이 편입되었다. 인창방 또한 동문외계, 동소문외계, 왕십리계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동문외계에는 부정동, 복차교, 남교, 장거리, 동묘동이, 동소문외계에는 마장리, 사근동, 용두리, 제기리,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회기리, 휘경원, 이문동, 월곡상리, 월곡하리, 석관리, 장위리 등이 편입되었다.⁷⁹

이러한 동부 밖 성저십리 마을의 특성은 유만주의 개인 감상에서 알 수 있다.

동쪽 성 밖에는 유독 볼만한 경치가 갖춰져 있다. 산도 빼어나지 않고 물도 빼어나지 않으며 서울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데, 긴 독길을 따라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멀리 봄날의 발두둑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 한적하게 탁트이고 아스라한 느낌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머물고 배회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며 정신을 심원하고도 기쁘게 만든다. 다만 물이 알아 모래가 많이 드러나 있기는 하다.⁸⁰

유만주가 적은 동쪽 성 밖 마을은 안암동 주변이다. 도성 밖 인근이지만 도성 안처럼 도시 풍경이 아닌 도시와 시골의 중간 정도로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봄날의 발

7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읍백년사』 1, 1977, 361~362쪽.

80 『흙영』 1779년 8월 29일; 김하라 역, 앞의 책(2015), 176쪽.

두둑이 이어져 있다는 지적에서 주변으로 평지가 많고 안암천(성북천)이 흐르고 있어 밭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만주 역시 안암에서 동관 왕묘로 가는 길에 미나리밭이 많아 4월이면 마을 사람들이 무리 지어 미나리를 뜯는 모습을 일기로 기록했다. 『동국여지비고』에는 답십리, 제기동, 중화동, 청량리 일대가 채소밭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답십리 일대에서는 미나리와 배추, 중화동과 청량리 일대에서는 미나리, 제기동 일대에서는 토란과 배추 등이 유명하였다.⁸¹ 또한 안암동, 제기리, 청량리, 고암(鼓巖), 석관(石串) 등의 마을은 장원서(掌苑署) 및 내국(內局)의 울원(栗園)이 되기도 하였다.⁸²

③ 인명원(仁明園)의 구성과 정릉의 재정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북천 주변에 조성된 것 중 하나는 인명원(仁明園)이다. 인명원은 정조의 후궁이자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누이인 원빈 홍씨(元嬪 洪氏, 1766~1779)의 무덤이다. 1779년(정조 3) 5월 7일 창덕궁 양심합(養心閣)에서 원빈 홍씨가 사망하자, 시호를 인숙(仁淑), 궁호(宮號)를 효휘(孝徽), 원호(園號)를 인명(仁明)으로 하였다.⁸³ 그런 후 묘소를 조성하기 위해 동부 사인동(舍人洞)의 안암천 주변에 있던 집들을 3만 5천 푼에 사서 철거했으며,⁸⁴ 2개월 후인 7월 3일 원빈을 장사지냈다.⁸⁵ 원빈의 묘는 동부 온수동의 해좌사향(亥坐巳向)에 조성되었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경내이다.

원빈 홍씨의 묘가 궁원의 호칭을 받은 것은 홍국영의 권세 때문이었다. 따라서 홍국영 사후 호조 참판 정술조(鄭述祚, 1711~?)는 후궁의 산소에 불과한 인명원에 궁원의 호칭을 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명(仁明)’ 두 글자 역시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휘호인데, 선왕후의 휘호를 범하는 것은 사체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정조는 인명원의 원호를 강등하는 등의 의절을 예조에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⁸⁶

81 이민우, 「조선시대 성저십리의 농업」,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449~450쪽.

82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 3월 26일(신해).

83 『정조실록』 권7, 정조 3년 5월 7일(경인).

84 『흙영』 1779년 5월 25일; 김하라 역, 앞의 책(2015), 175쪽.

85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7월 3일(을유).

86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1월 22일(정묘).

그리하여 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1738~1802)은 김영빈방(金寧嬪房)의 전례에 근거하여 인명원과 효휘궁(孝徽宮)의 호를 혁파하고 정자각과 홍살문은 헐며, 비석을 다시 새기고 호석(虎石)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조는 정자각은 배위청(拜位廳)을 없애고 정당(正堂)은 그대로 제청(祭廳)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⁸⁷ 이처럼 인명원은 대신들의 요청에 따라 원에서 묘로 강등되었으며, 1950년에 이르러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의 후궁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조선 초 방치되었던 정릉도 현종 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1669년(현종 10) 1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신덕왕후의 종묘 부묘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정릉을 정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현종은 중건청을 설치한 후 정릉의 정자각과 재실을 건설하고 정릉을 지킬 수호군 30명을 배정하였다. 이후 1770년(영조 46) 영조는 정릉에 비각을 세웠다.⁸⁸ 비각의 조성은 이 시기가 방치된 정릉을 다시 복원한 후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각 능에 신도비와 묘표 건설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정릉은 고종 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1893년(고종 30) 4월 정릉의 정자각과 재실의 향대청(香大廳)이 낡아 비가 새는 것을 수리했고, 봉분의 사초도 교체하였다. 1900년(고종 37)에는 1,602원을 들여 재실을 새로 중건했다.⁸⁹

87 『일성록』 정조 10년 11월 14일(갑신).

88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I, 2009, 200쪽.

89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09), 207쪽.

3 성북천과 주변 지역의 역할

1. 능행로(陵行路)의 주요 하천, 안암천

성북천, 특히 안암천은 국왕이 능행(陵幸)할 때 지나가는 주요 하천이었다. 호조에 서는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 어재실(御齋室)과 행궁을 비롯하여 내외(內外) 교량을 수리하였다. 이때 도성 안팎의 교량은 영선관의 보고에 따라 들어가는 물력을 계산하여 보수하였다. 보수하는 교량은 동쪽으로는 안암천, 서쪽으로는 홍제원, 남쪽으로는 강변까지로 제한하였다.

안암천의 경우 도성 인근의 선농단을 비롯해 동교에 여러 왕릉이 있어 국왕이 자주 왕래하는 하천이었다. 선농단에 나아갈 때 국왕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인화문(仁和門)과 인정문(仁政門)을 거쳐 종묘 앞길에 나아갔고, 이후 연을 타고 동대문 앞길을 거쳐 안암천교(安巖川橋)에 이르렀다.⁹⁰ 조선시대 안암천교의 길이는 60척(尺), 너비는 40척(尺)이다.⁹¹

『동국여도』 「도성도」를 보면 혜화문 앞에서 안암동 안암천을 따라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혜화문 앞길의 경우 정릉, 적유현(되너미고개)을 거쳐 하묵현(下墨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성북천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성북천 상류 내 교량은 1907년 일한서방(日韓書房)에서 간행한 1:10,000 지도인 「최신경성전도」에서 일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⁹² 이 지도의 발행 시기는 1907년이지만, 제

90 『일성록』 정조 5년 윤5월 8일(경술).

91 『교량조배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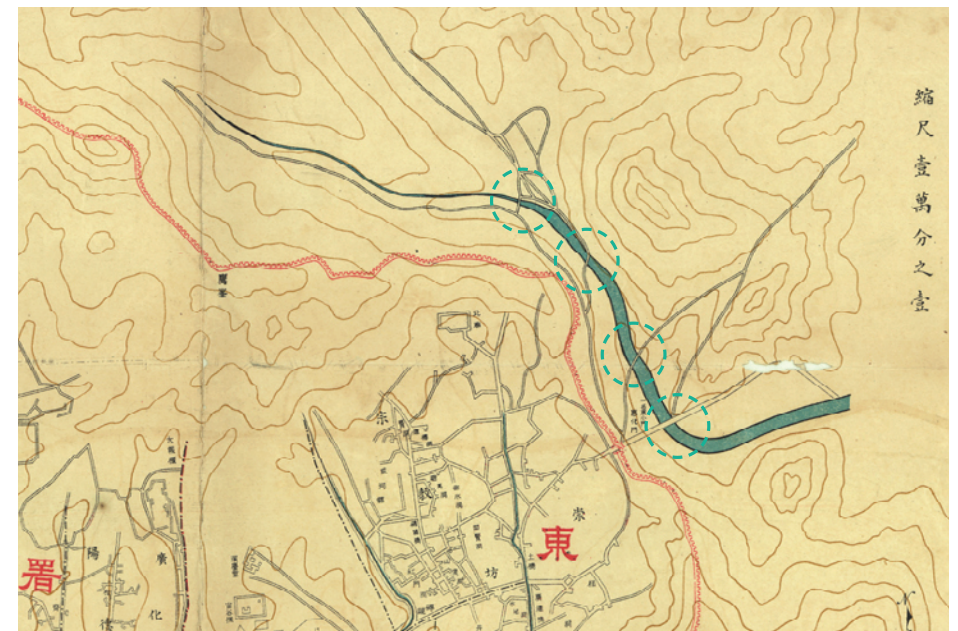


그림 10 성북천 상류에 보이는 4개의 교량(『최신경성전도』 부분, 1907년)

작 시기는 1905년이다. 지도에는 행정구역인 오서(五署)의 경계와 도성 벽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혜화문 앞에서 북쪽 성북천 상류의 물줄기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서 보면, 성북천은 구준봉에서 발원하여 성곽의 경계를 따라 흐르고 있으며, 성벽과 하천의 경계를 중심으로 도로가 형성된 모습도 살필 수 있다. 지도를 통해 혜화문 이북 성북천 상류에는 1905년 당시 4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주도 하의 성북천 교량 공사가 1937년에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성북천 상류 교량은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18세기 말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북저동을 유람한 후 쓴 글에서 “선잠단에서 100여 보를 가면 거주하는 백성이 시내에 설치한 다리가 나온다. 다리 아래에는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서 물이 소리를 내며 세차게 흐른다.”⁹² 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북천의 지천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북사동 마을 주민들이 놓은 다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릉에서 안암을 거쳐 홍인문 앞길과 연결되는 도로가 성북천(안암천)을 따라 형성되었다. 홍인문에서 시작된 도로는 동묘에서 양주, 포천, 가평, 양근의 동북

92 『변안선생집』 권35, 記「유북저동기」.

방면과 광진, 광주의 동남방면으로 나뉘었다. 동북방면은 동묘를 지나 안암천, 제기현, 고암, 사하리, 수유현을 넘어 양주 포천로로 연결되었으며, 고암에서 다시 석관천, 니사(尼舍), 천장산을 넘어 가평로와 연결되었다. 이 길은 험한 데가 없어 수레가 통행할 수 있어 대가(大駕)가 다니는 도로였다.⁹³ 아울러 홍인문에서 동묘, 선농단, 전농리, 동적전, 청량사를 지나 중랑포에 이르는 길도 마련되었다. 동남방면은 영도교를 지나 광희문에서 시작되는 도로와 만나 왕십리, 차현(車峴), 살곶이 다리를 지나 광진, 광주로 가는 길과 연결되었다. 홍인문에서 시작된 도로는 주변에 건원릉(健元陵), 정릉(貞陵), 태릉(泰陵), 의릉(懿陵)이 있을 뿐 아니라 선농단과 동적전이 있어서 왕의 주요 행행로(行幸路)이기도 했다.

안암천을 따라 형성된 도로의 경우 안암내길, 안감내길이라고 하였다. 이 천변 길은 현재 성북구 안암동 대광초등학교에서 성북구청 뒤를 지나 돈암사거리에서 이르는 폭 15m, 길이 1,670m의 2차선 도로이다.⁹⁴ 안암동 길은 간로(間路)였기 때문에 사아리 길과 번갈아서 정릉의 능행로로 이용되었다.⁹⁵ 1900년 고종이 정릉과 홍릉을 행차 시 정릉 능행구역은 홍인문-양산수석교(陽山守石橋)-동관왕묘 뒷길-안암동동구(安巖洞洞口)-정자촌(亭子村)-우산각탑골(雨傘閣塔谷)-석근암(石根巖)-삼선평(三仙坪)-안암동사거리-돈암현(敦巖峴)-불천평(佛川坪)-막차(幕次)이다. 정릉 능행 시 세 곳에 교량을 조성하였다. 홍릉에서 환궁할 때에는 능소동구(陵所洞口)-신교(新橋)-중암앞길(鍾巖前路)-제기현(祭基峴)-안감내-보제원앞길(普濟院前路)-안암동동구앞길(安巖洞洞口前路)-동관왕묘 뒷길-양산수석교-홍인문이다.⁹⁶

이처럼 안암교는 능행 시 왕이 행차하는 길목이므로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 장소가 되기도 했다. 정조 때에는 선농단으로 행행하던 정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안암교에 줄지어 엎드려 있었다.⁹⁷

93 『비변사등록』 63책, 숙종 37년 10월 3일(무오).

94 「안감내길」,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95 『일성록』 순조 19년 8월 8일 (경유).

96 『시종원등록』 권5, 1900년 5월 14일.

97 『일성록』 정조 5년 윤5월 8일(경술).

2. 군사훈련소 및 기군(騎軍)의 세마(洗馬) 장소

동대문 밖 안암천은 조선 후기 기군(騎軍)들의 세마(洗馬) 장소였다.⁹⁸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인 『기언(記言)』에는 안암천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안암 주변 산자락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고 솔숲이 울창하다. 앞으로는 잔잔히 흐르는 시내와 백사장이 있고, 그 너머 큰길에는 관왕사(關王祠)의 뽕죽한 용마루와 흰 담이 보이고, 또 그 너머에는 동지(東池)에 연꽃이 깔려 있고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다.”⁹⁹

허목이 본 안암천은 물의 흐름이 잔잔하고 넓게 모래사장이 펼쳐 있어 말을 씻기에 좋은 장소였다. 이러한 안암천이 말을 씻는 세마 장소가 된 것은 동대문에 훈련 교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1398년(태조 7) 한양을 완성한 후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올린 팔경시(八景詩)에 의하면 동대문에는 교장(教場)이 있었다. 정도전은 교장의 모습을 “종과 북은 요란하게 울리어 땅을 움직이고, 정기(旌旗)는 펄럭이며 공중에 연하였도다. 만마(萬馬)가 주선(周旋)하는 것이 한결같으니, 몰아서 전장에 나갈 만하도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조선 초부터 동대문에는 군사들의 훈련 교장이 있었다.

또한 안암천 주변에 삼선평(三仙坪)과 사아리(沙阿里)가 있고 이곳에서 훈련 도감 군마의 기예를 시험했다. 사아리는 국왕이 건원릉, 태릉, 강릉, 정릉, 의릉, 목릉 등 한성 동쪽의 능을 참배할 때 주정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능행 후 이곳에서 소규모 열무나 군사훈련이 자주 시행되었다. 효종 때에는 어영청의 습진 장소로 조성되었으나, 숙종 대 열무의 시행은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서쪽이나 북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혁파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왕릉 알현 후 교장으로 계속해서 이용되었다.¹⁰⁰

삼선평은 넓고 평탄한 지형 때문에 19세기 이후 동소문 밖의 대표적인 군사

98 『일성록』 정조 7년 8월 19일(무인).

99 『기언』 권15, 중편(中篇) 전원거(田園居[2]) 오사구동교별업기(吳司寇東郊別業記).

100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8월 3일(기미); 권17, 숙종 12년 3월 16일(경오); 권23, 숙종 17년 2월 26일(임오); 『영조실록』 권94, 영조 35년 9월 30일(정축).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군영의 훈련 및 군마의 기예 시험을 비롯해 무관들이 활쏘기 모임(射會)을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무과의 시험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858년(철종 9) 정시 문과는 경복궁에서 시행하였고, 식년 무과의 복시(覆試)는 삼선평과 모화관에서 열렸다. 경과 별시의 무일소(武一所)로 이용되었고, 훈련도감의 마병도시(馬兵都試)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고종 때에는 삼선평에서 서충대 시사와 서충대과를 거행하였다. 또한, 마필을 점고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19세기 말엽에는 친위대의 사격 연습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삼선평이 군사 훈련시설로 사용된 것은 1909년 이 지역의 관할 기관이 군부(軍部)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관립 한성고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 깔 잔디를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가져오기 위해 관할 기관인 군부와 교섭하고 있었다.¹⁰¹ 일제시기에는 서울 내 각 학교나 단체의 각종 체육행사나 집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성북천 주변 일부는 국왕이 교외로 거둥할 때 척후(斥候), 복처(伏處)이기도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종식된 후 국왕의 신변 보호는 금위영과 어영청이 교대로 맡게 되었다. 이에 왕이 도성 안을 행행하거나 교외에 거둥할 때에는 높은 산이나 고지대에 척후병을 두고 통로에는 복병을 배치했다. 지역의 동·서·남·북에 따라 각각 일정한 지점을 정하고 1개소마다 장관 1명과 군졸 4명을 두었으며, 장(將)은 국출신(局出身)으로 하도록 1790년(정조 14)에 개정하였다.

성북천 주변은 척후병과 복병을 두어 경비를 엄중히 하는 지역이었다. 정조대 능행 때 5부의 자내(字內)에 척후와 복병을 세우는 규정을 영구히 마련하여 선전관청의 각조홀기(各操笏記), 각 영의 등록(騰錄)에 모두 상세히 신게 하였다. 이때 동교(東郊)의 척후하는 처소는, 흥인문 성상(興仁門城上), 응봉(鷹峯), 북악(北岳), 안암동후봉(安巖洞後峯), 왕십리 고봉(往十里高峯), 석관 후봉(石串後峯), 사아리 후봉(沙阿里後峯)이었다. 복병하는 처소는 승례문 밖 삼거리, 돈의문(敦義門) 밖 삼거리, 벌아치(伐兒峙) 삼거리, 사아리 삼거리였다.¹⁰² 특히 혜화문 삼거리는 남쪽과 서북쪽 복병소였다.¹⁰³

¹⁰¹ 『軍部와 交渉』, 『황성신문』, 1909년 7월 3일 2면.

¹⁰² 『일성록』 정조 14년 10월 1일(무신).

¹⁰³ 『만기요람』 군정편2, 훈련도감(訓練都監) 척후(斥候) 복병(伏兵).

이 밖에 안암천 주변은 조선 후기 포도청의 순라 구역인 육강 자내(六江字內) 중 하나였다. 육강은 한강, 두모포(豆毛浦), 뚝섬(蠓島), 왕십리, 안암, 전농(典農) 구역이다. 한강 구역은 남벌원(南伐院) 서쪽에서 부엇치(夫隘峙)의 목로정(驚驚亭)까지이며, 두모포 구역은 남벌원 동쪽에서 수철리(水鐵里)까지이다. 뚝섬 구역은 신촌 및 두모포 북쪽에서 살곶이 다리의 현암(玄巖)까지이며 왕십리(往十里) 구역은 영도교(永渡橋) 아래에서 아차산(峨嵋山)의 전농리(典農里)까지이며, 안암 구역은 신설리에서 중랑포까지다. 전농구역은 청량리에서 벌리(筏里)까지이다. 육강에는 가설(加設) 군관 6명과 도장군사(都掌軍士) 9명이 순찰을 했는데, 성북천 주변인 안암 구역의 경우 가설 군관 1명과 도장군사 1명이 했다. 이들은 각각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금군 중에서 선출 임용하되, 모두 통부를 휴대하고 주간에는 사찰을 하고, 야간에는 순라를 하였다.¹⁰⁴

3. 금산 및 금표 지역으로서의 성북천 주변

국가는 산림자원의 보호, 국용 및 선박 제조에 쓸 목재의 확보, 소나무 보호를 위해 조선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금산제도를 시행하였다. 한성부의 경우 목재확보 및 송목 보호 외에 왕도의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 백악, 인왕산, 낙산, 목멱산에 금산(禁山)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산(四山) 내 식목작업뿐 아니라 벌채와 목석 채취 및 묘지 조성을 금했다. 세종 때에는 금벌 구역의 관리를 강화해 한성부에서 성저십리의 송목 금벌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성 내 사산에서 아차산까지 금산구역으로 지정해 벌채를 금하던 것을 삼각산, 청량동(淸涼洞), 중흥동(重興洞) 이북, 도봉산으로 확대하였다. 이 지역이 금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의 벌채, 벌목행위로 산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벌아현(伐兒峴) 주변도 경작 및 벌초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문종 때에는 성저십리까지 토석의 채취를 금지하였다. 동으로는 보제원(普濟院), 노원역(蘆原驛), 남으로 벌아현, 청파역, 서로는 사현(沙峴)까지였다. 이 구역은 성종 대에도 경작을 금지하고 잡목을 심어 산맥을 보호하고 있어 한성부의 주요 금

¹⁰⁴ 『만기요람』 군정편1, 포도청(捕盜廳) 순라자내(巡邏字內).

산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⁵

성저십리 내 송목 금벌 정책은 17세기 이후 사산 금표 구역의 설정과 참군(參軍)을 두는 등 강화되었다. 1666년(현종 7) 국가는 도성 안 전 지역 및 성저십리를 금표로 한정하였다. 백악의 경우 산 외곽에서부터 낙산 석가참(釋迦站) 안쪽 사을하, 적유령, 광평대군 집의 북참을 지나 선잠단에 이르는 구역과 보제원 서쪽에서 안암동, 저방동을 지나 동대문 밖에 이르는 구역을 금표로 한정하였다. 인왕산의 경우는 인왕산과 함께 모화관, 모래재(沙峴), 사축서참을 지나 청파 뒤편에 이르렀으며, 남산의 경우 남대문 밖에서 전생서를 거쳐 벌아현, 두모포, 왕십리 뒷산을 지나 수구에 이르는 지역을 금표로 한정하였다.¹⁰⁶ 이러한 사산 금표 정책은 영조 대에 이르러 더 강화되어 금표의 범위가 현종 대보다 확장되었다.

또한, 종래 한성부에서 담당하던 금송(禁松)의 일을 삼군영과 총융청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송목 투작자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산의 관원이 적간하는 데도 대낮에 마구 벌목하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이들을 위협하기도 해 사산감역관을 무인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삼군영의 금송자내를 보면, 훈련도감은 백악에서 창의문대로, 모래재, 안현, 홍제원, 양철평, 말흘산(末屹山), 가좌동, 성산리 일대인 서쪽 지역의 금송을 담당하였다. 어영청은 성북천이 흐르는 주변 지역인 광희문 북쪽에서 숙정문 일대와 혜화문과 동대문 밖, 안암, 차현(車峴), 호유현(胡踰峴), 수유현 일대의 금송을 담당하였다. 금위영은 돈의문 남쪽에서 만리창, 한강, 두모포, 원현(院峴) 일대로 남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은 북도의 금송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성북천 주변 지역은 어영청의 금송자내이기도 하였다. 어영청의 경우 1754년(영조 30) 동쪽 방면을 분담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였는데, 총 5패를 이루어 금송을 관리하였다. 1패는 광희문 안 북쪽에서 숙정문 남쪽까지이며, 2패는 혜화문 밖 남쪽에서 호유현까지이다. 3패는 홍인문 밖 북쪽에서 안암동과 차현대로까지, 4패는 안암동과 제기현(祭基峴)에서 호유현 삼거리까지이며, 5패는 소묵아(小墨兒)에서 벌리(伐里)와 수유현 동쪽까지이다. 2, 3, 4패가 성북천 주변 구역으로 패마다 금송

¹⁰⁵ 유승희, 「조선후기 한성부의 四山 관리와 松禁정책」, 『이화사학연구』 46, 2013, 225~230쪽.

¹⁰⁶ 『수교집록』 형전(刑典) 금제(禁制).

군이 2명씩인데 번을 마치고 나간 수문군과 1개월씩 교대하였다. 참군은 전적으로 산림 순찰을 담당했으며, 영에서 별도로 금송초관 1명을 정하여 3일씩 번갈아서 교대하며 내외의 산을 두루 순찰하였다.¹⁰⁷

4. 궁궐 및 기관 건설의 부석소

성북천 주변의 지형은 화강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변 마을의 지명 가운데 중암, 고암, 안암 등의 지명, 동명은 모두 돌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성북천 주변은 조선시대 궁궐 및 관사를 조성할 때 돌을 뜨는 부석소(浮石所)로 이용되었다.

북한산성 축조 시 동대문 밖 노원, 주암(舟巖) 등지와 정릉 근처 청수동(淸水洞)에서 돌을 채취하여 건설했으며, 경기도 민정으로 오군영에 속한 군병들이 돌을 운반하였다. 고종 대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삼군영의 지휘 아래 각 정전 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각처의 부석소에서 가져왔다.

부석소는 삼청동(三淸洞) 옥천암(玉泉菴), 영풍정(映楓亭), 해창위계(海昌尉契), 노원(蘆院) 납대울(納大蔚) 상계중계(上契中契), 손가정(孫稼亭), 동소문의(東小門外), 안남동(安南洞), 사월리(沙月里), 불암(佛巖), 조계(曹溪) 등 10개를 이룬다.¹⁰⁸ 영풍정은 지금의 창신동, 송인동 일대인 동대문 밖 연미정동(燕尾亭洞)에 있던 정자이며, 조계는 정릉과 삼각산 중간에 있으며, 우이천 서북쪽의 계곡이다. 해창위계는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마을로, 현종의 셋째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남편 해창위(海昌尉) 오태주의 묘가 있던 데서 마을 명이 유래되었다.¹⁰⁹ 손가정은 삼각산 동쪽 청담동(淸潭洞)에 있는 마을이다. 「도성도」, 「연용대도(鍊戎臺圖)」, 「도성연용북한합도」 등을 보면 삼각산 부근에 ‘손가장(孫家庄)’이 표시되어 있다. 손가장은 ‘손씨 집안의 농장’이라는 의미로, 이곳의 풀과 나무조차 모두 손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온 것이라 ‘손가

¹⁰⁷ 『만기요람』 군정편3, 어영청(御營廳) 금송자내(禁松字內).

¹⁰⁸ 『경복궁영건일기』 권1, 고종 2년 5월 17일(신해).

¹⁰⁹ 「해창위」,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장'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¹¹⁰ 손씨의 집성촌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성도」에 초가가 조밀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북궁 중건의 주요 부석소로 조계, 영풍정, 동소문 밖이 주로 이용되었다. 먼저 경북궁 근정전(勤政殿)의 석역(石役)을 수행하는 데에는 조계의 돌을 떼서 석재로 사용하였다. 이유는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영풍정의 경우 훈련도감에서 광화문의 홍예석 하부를 받치는 방형의 석재인 선단석(扇單石)을 떼어왔다. 이때 석재의 크기는 길이 12자, 너비 4자, 높이 3자로, 군병 725명이 끌고 왔다. 어영청 또한 영추문의 홍예 주춧돌(虹霓礎)을 영풍정에서 떼왔으며, 영건에 쓰이는 누주석(樓柱石) 1괴(塊)를 동소문 밖에서 떼서 대차(大車)에 실어 소 45마리로 운반하였다.¹¹¹

일제시기에는 이곳에 채석장이 건설되었다.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 등을 짓기 위해서 돌산이라고 불리던 곳에 채석장을 만들어 석재를 가져갔다. 종로구 창신동과 송인동이 돌산, 돌산마을, 절벽마을로 불리던 곳이다. 또한 돈암정 부근에 4개의 채석장과 종암정 부근에 1개의 채석장이 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현재 정덕초등학교 근처의 일명 '돈암 채석장'과 미아동의 '국도 채석장'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²

이처럼 성북천 주변 지역의 경우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모두 궁궐 및 각종 기관 설립에 필요한 건축자재, 특히 목재와 석재의 공급지로 이용되었다.

5. 주민의 생활공간

성북천은 성북동 주민의 생업 수단인 마전터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마전을 하던 마전터는 현재 성북구 선잠단 앞 성북천 일대를 가리킨다. 성북천의 경우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던 빨래터이기도 하며, 점포에서 받은 옷감을 삶거나 빨고 표백하는 곳이기도 했다. 조선 영조 때에 주변이 산지로 농지가 적고 시장이 멀어 생활에 불편했던 성북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도성 안 시장에서 파는 무명, 베,

110 『승정원일기』 1665책, 정조 13년 9월 19일(임인).

111 『경북궁영건일기』 권2, 고종2년 6월 15일(무신); 7월 17일(기묘); 7월 20일(임오).

112 박수진 외, 『미아리고개』, 성북문화원, 2014, 68~69쪽.

모시 등이나 개경의 모시, 호조에서 차일로 사용하는 포 등의 옷감을 삶아서 표백하는 마전의 권리를 주었다. 주민들은 마전의 대가로 무명은 동마다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 호조 차일에 쓰는 포는 백미 20두를 받았다. 이후 성북동 양쪽 골짜기의 물이 합류되는 부근의 냇가를 마전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 성북동 주민의 생업인 마전 일은 대한제국기 이후 계속되었다. 1902년에는 성북동에 표백회사가 들어서 현재 성북초등학교 자리에 마전한 광목을 말리곤 했고, 운수교 자리에는 직조공장이 있었다.¹¹³ 그러나 1909년 농상공부에서 선잠단 근처 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전터가 문제가 되었다.

동부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 기지는 수백 년 이래로 해당 동민들이 표백 영업을 하는 터인데, 일전에 농상공부로부터 한일韓日 관리를 파견해 선잠단 근처 기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성북동에 사는 주의영朱義榮, 김성종金聖鍾 등이 수백 년 전해 온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어제 농상공부에 청원하되 해당 기지를 민유지로 인허認許하여 표백 영업을 폐하지 말라 하였다더라.¹¹⁴

위의 신문 기사에서 보면 마전터의 민유지 인허 문제가 발생한 듯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마전일을 해온 성북동 주민 주의영과 김성종이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문서를 청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해 민유지로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선잠단 터에서 표백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뭄도 문제가 되었다.

성북동의 환희

동소문 밖 성북동은 호수가 70여 호에 생업되는 바는 다만 포백 장사뿐으로 날마다 문안 각 포백상에 단골을 삼아두고 포목을 가져와서 포백하는 것이 큰 생업인데 요사이 가뭄으로 인해 동리 우물 29개소나 말라버리고

113 「마전터」,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114 「蠶壇認許請願」,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3일 2면.

시냇물 또한 말라서 포백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그 업을 폐지하다시피 전부 중지하고 그 대신 짚신과 기타 미투리를 삼아서 겨우 호구하기 때문에 동민의 생활난을 부르짖는 소리가 창천하던 바 요사이로 가끔 비가 시작되어 다시 시냇물이 회복되었으므로 전과 같이 포백업을 시작하고 동민들은 매우 낙관을 하는 모양이라더라.¹¹⁵

1917년 70여 호의 성북동 주민들은 도성 안 각 포목상과 단골을 맺고 포목을 가져와서 옷감을 삶아 표백하는 일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 마을의 우물과 성북천이 말라 표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짚신을 만들어 생활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성북동 주민의 경우 표백업을 하지만 가격이 일정치 못하고 표백 방법도 다양해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자, 이러한 폐단을 막고 마전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북동에 표백조합을 설립하였다.¹¹⁶ 1918년에는 동소문 밖 성북리 외 세 곳의 표백업자 70여 명이 인창세탁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의 대표는 홍태윤으로, 인창세탁조합에서는 기존 대용량의 가성소다를 사용해 한두 번 찌서 표백한 것에서 벗어나 작은 양의 가성소다와 표백분을 사용하고, 찌는 횟수를 배가하여 옷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성북동 주민의 마전일은 직조 과정이 기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¹¹⁷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성북천의 역사는 조선 건국 후 600여 년의 한양의 역사와 함께 축적되었다. 성북천은 도성 안 청계천과 함께 서울의 주요 하천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시대 청계천은 서고동저의 지세로 도성 안 동서를 가로지르며 명당으로써의 지위와 도성 안 배수로의 역할에 충실했다. 반면, 성북천은 도성 밖 성저십리에 위치하여 계곡형 하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북고남저의 지세로 자연적으로 아래로 흐르는 직류 하천이며, 동쪽 성곽 주변 하수, 배수의 역할을 하였다.

성북천과 인근 지역은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양도성의 주변 공간이면서 배후지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선잠제, 선농제, 군사훈련 등을 행하는

국가의 공적 장소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금산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성을 보호하는 완충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북천과 인근 지역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마을이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거주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인들의 빨래터, 아이들의 물놀이터, 포목의 마전터 등으로 이용된 마을 사람들의 중심 생활공간이었다.

하천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흘렀던 조선시대 성북천은 현재까지 세 단계를 거쳐 크게 모습을 바꾸었다. 첫 번째는 1937년 경성부에 의한 하천 정비작업이며, 이때 처음으로 하천 호안공사, 굴착, 간선 배수로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성북천 복개공사이며, 세 번째 현재의 성북천 모습을 보여준 복원 공사이다. 이처럼 성북천은 복개, 복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다. 성북천의 상류 구간이 여전히 복개된 상태로 한성대입구역부터 복원이 되었지만, 현재의 성북천은 하천과 천변 공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었으며, 인근 주민의 휴식 및 산책,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조선시대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었던 과거의 성북천으로 더욱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5 「성북동의 환회, 마전질을 하게 되었다」, 『매일신보』, 1917년 7월 5일 3면.

116 「城北洞의 漂白組合, 성북동의 표백조합 조직, 일정한 규모를 지키라고」, 『매일신보』, 1913년 8월 24일 3면.

117 「인창세탁조합」,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3



조선시대 성북천변의 국가시설과 거주민의 생활상

문광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국가와 왕실 공간으로서의 성북천변 082

2. 성북천변 점유과정과 행정구역 편제 100

3. 성북천 거주민의 국역 부담과 그 실상 114

1 국가와 왕실 공간으로서의 성북천변

조선의 건국과 함께 태조는 천도를 결정하고,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한 다음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준비에 착수하였다.¹ 그리고 1394년(태조 3) 10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집단은 종묘, 사직, 궁궐, 성곽 등 수도에 필요한 건축물부터 짓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사직단과 성균관 등을 조성하였다. 경복궁은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원리에 따라 지어졌는데, 전조(前朝) 구역에는 2층 월대에 자리 잡은 5칸의 근정전과 전후좌우의 행랑과 중문, 대문, 표문 등으로, 후침(後寢) 구역에는 사정전과 연침 등으로 구성되었다. 종묘와 사직은 동묘서사(東廟西社)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동쪽에는 종묘가, 서쪽 인왕산 자락 아래에는 사직단이 배치되었다. 궁궐이 완성된 1395년(태조 4) 태조는 종묘에 나가 제사를 드린 후 백관들을 새로운 궁궐에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조선의 역사가 서울에서 시작된 날이었다.

한양의 수도 건설은 정종 대 개경 환도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태종이 궁궐수보도감(宮闕修補都監)을 설치하고,² 다시 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태종은 경복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4년(태종 4) 이궁(離宮), 즉 창덕궁 건설을 명하였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1405년(태종 5) 10월 창덕궁을 완성하였으며 이어서 도성의 입구인 남대문과 동대문, 도성의 중심지인 종루, 혜정교 등을 잇는 시전행랑

¹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9월 1일(무술).
²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9월 13일(신해).

을 건설하였다.³ 또한 도성의 성곽 수축 공사도 1396년(태조 5)에 시작되었다. 이후 자연지리적 문제, 축성군 조발의 어려움, 왕자의 난 등으로 인해 축조와 중단을 거듭하다가 1426년(세종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공되었다.

한양이 새로운 왕조의 수도가 되자 조선왕조는 1395년(태조 4)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로 승격하고, 새 수도를 관할하는 행정 기관으로 삼았다. 한성부의 영역은 도성과 성저십리로 이루어졌다. 도성은 사대문 내부의 공간이지만 넓은 영역으로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후 한성판윤)가 홀로 통치하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한성부를 5개의 부(部)로 나누고, 각 부에 방을 두어 52방으로 정비하였다. 비록 세종 대 서부의 영건방, 인지방, 취현방 등 3개 방이 철폐되어 49방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체계는 17세기까지 유지되었다. 즉, 부(府)-부(部)-방(坊)으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도성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한 것이다.^{표1}

표 1 조선 전기 한성부의 행정 편제

부명	방명	방수
동부	연희방, 송교방, 천달방, 창선방, 건덕방, 덕성방, 서운방, 연화방, 송신방, 인창방, 관덕방, 흥성방	12
남부	광통방, 호현방, 명례방, 대평방, 훈도방, 성명방, 낙선방, 정심방, 명철방, 성신방, 예성방	11
서부	인달방, 적선방, 여경방, 황화방, 양생방, 신화방, 반석방, 반송방	8
북부	광화방, 양덕방, 가회방, 안국방, 관광방, 진정방, 순화방, 명통방, 준수방, 의통방	10
중부	정선방, 경행방, 관인방, 수진방, 징청방, 장통방, 서린방, 건평방	8

한편 성저십리는 대체로 동쪽으로는 중랑천, 남쪽은 한강, 서쪽은 홍제천, 북쪽은 삼각산을 경계로 하였다. 성저십리는 한양이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제단, 창고, 역원 등이 설치된 공간이며 도성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배후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96년(태조 5) 당시에는 5부 관할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⁴ 조선 초기 성저십리가 행정제도로 존재한 이유는 고려시대 속현(屬縣)과 유사한 특별행정구역으로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중앙과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성저십리는 한성부의 행정

³ 조선 초기 한양도성 건설 과정에 대해서는 원영환, 「漢陽遷都와 首都建設考-太宗代를 中心으로」, 『鄕土서울』 45, 1988, 5~58쪽 참고.
⁴ 이상협, 「한성부의 직제와 행정 편제의 변화」, 『서울 2천년사』 13, 2013, 57~59쪽.

구역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1461년(세조 7) 한성부는 기존 성저십리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분장이 없어서 권농관(勸農官)과 이정(里正)으로 다스리도록 했지만, 이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5부에 분속시켰다.⁵ 따라서 1461년(세조 7) 이후 성저십리는 한성부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성저십리의 공간 구성은 지역별로 특성을 가졌다. 북부는 높은 지세와 산천, 북단과 망기제, 여단, 공신희맹단, 세검정과 조지서 등이 존재하였다. 서부는 도성과 용산, 서강, 마포 등의 나루를 연결하는 도로와 남대문, 돈의문, 서소문에서 나와 사현, 홍제원을 거쳐 의주로와 연결되는 공간적 특징으로 상업적 공간이자 정치외교적 공간이었다. 남부는 경복궁과 남대문을 연결하는 도성 안 도로망의 연장으로 청파역, 이태원, 전관원 등 교통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⁶

이와 달리 동부는 지형적으로 북악산의 지맥과 성북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성저십리 동부에는 경내를 상하를 가로지르는 성북천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성북천보다 통상 안암천으로 더 많이 불리었다. 성북천의 상류는 낮은 구릉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사찰이 입지하기 좋은 위치이다. 반면 하류는 평지가 발달하였고 한강과 인접한 지역의 저지대 습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들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비옥한 토질을 가지고 있다. 용두리·제기리·전농리까지 이어지는 구역에는 왕실의 적전(籍田)을 두고 왕십리·답십리·마장리·행당리에 이르는 너른 들녘, 즉 살곶이벌을 포함한 사근리와 동쪽 아차산을 경계로 하는 장안평까지의 구역(동교의 동남지역)에 국영 목장을 운영하였다.⁷ 즉, 성북천은 성저십리 동부 일대의 역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성북천변에는 어떤 국가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북천변의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북천은 북악산 줄기인 구준봉 기슭에서 발원하여 성북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을 지나 종로구 송인동과 동대문구 용신동을 거쳐 중랑천에 이르는 길이 5.1km의 하천이다. 1960~1970년대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현재 그 원래의 모습을 잃었지만, 성북동~용신동까지의 영역이 성북천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지역 일

⁵ 김경록 외,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9쪽.

⁶ 김경록 외, 위의 책(2019), 21쪽.

⁷ 박희성, 「조선 先農壇 훼손과정으로 본 東郊의 도시재편 양상」, 『郷土서울』 81, 2012, 252쪽.

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성북천변에 설치되었던 국가 시설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총 6개의 시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동방토룡단, 동활인서, 보제원 등이 그것이다.⁸ 위 시설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자.^{표 2}

표 2 조선 전기 성북천변 인근 국가시설

순번	국가시설	조선시대 위치	현재 위치
1	선농단(先農壇)	흥인문 밖 평촌	동대문구 제기동 274-1
2	선잠단(先蠶壇)	동소문 밖 사한이	성북구 성북동 1가 64-1
3	우사단(雩祀壇)	흥인문 밖 평촌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 일대
4	동방토룡단(東方土龍壇)	흥인문 밖 평촌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 일대
5	동활인서(東活人署)	동소문 밖 연희방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
6	보제원(普濟院)	흥인문 밖 3리	동대문구 제기동 979

참고 그림: 『해동지도』 「경조오부」 중 동부지역 부분, 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⁸ 정릉 역시 국가관리 시설이지만 이는 정릉천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선시대 오례 중 길례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3등급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제례 장소로 제단(祭壇)이나 사묘(祀廟)가 조성되었는데, 한성 주변의 성저십리에 많이 배치되었다. 그중 동부의 성북천변 일대에는 중사로서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소사로서 동방토룡단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선농단과 선잠단은 국가의례인 선농제와 선잠제를 치르는 공간이다. 조선시대 국왕이 적전에서 농경에 모범을 보이고 종묘의 제수를 마련한다는 명분의 친경례를 거행했다면, 왕비 역시 잠업의 시범을 보이고 제사에 사용되는 제수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국왕의 친경례와 왕비의 친잠례와 연계되어 거행하던 의례가 바로 선농제와 선잠제였다.

먼저 선농제(先農祭)는 농사일을 백성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농(神農)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선농제는 중국 한대(漢代)에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천자의 의례에서 선농제보다는 친경례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본래 신농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을 적전단(籍田壇)이라고 불렀으나, 당대(唐代)에 이르러 선농단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선농제는 친경례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선농단에서 제향이 이루어졌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려왕조에서 중시하던 불교 및 도교의 의례들은 대거 폐지되었다. 특히 한양으로의 천도는 새로운 의례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유교 의례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례는 유교의 사전(祀典)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선농제는 친경례가 중시되는 경향과 그 궤를 같이하였다. 국가 사전이 체계화되면서 선농제는 중사에 편입되어 종묘와 사직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선농제와 친경례는 국왕이 몸소 행해야 할 일로 중시되었는데, ‘예조에서 정한 바는 대개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한 것이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고 종묘(宗廟)를 받들고 귀신(鬼神)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 지극하다고 하겠다. 나는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표명한 태종의 발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⁹

친경례는 경칩(驚蟄) 이후 길한 날짜 중 해일(亥日)에 제향한다.¹⁰ 그러나 반드시

⁹ 이육, 「조선시대 친경례(親耕禮)의 변천과 의미」, 『종교연구』 34, 2004, 295~297쪽.

¹⁰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

이 날짜가 준수되지는 않았다. 친경례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선농제, 경적례(耕籍禮), 노주(勞酒) 등이 그것이다. 선농제는 중사에 속하지만, 국왕이 직접 거행한다. 친경례 당일 국왕은 축시(丑時)에 선농단의 전폐례에서 향을 피우고 폐백을 바친 후 희생의 모혈을 올리는 선농제를 지냈다. 제향을 마치고 해가 뜰 때쯤 국왕은 적전으로 자리를 옮겨 경적례를 거행하였다. 국왕이 먼저 쟁기를 잡고 5번 미는 예(五推禮)를 행한 후 친경대(親耕臺)에 나아가면,¹¹ 종친과 재신이 7번 미는 예(七推禮)를 행하고, 이어서 관서와 대간이 9번 미는 예(九推禮)를 행하였다. 왕과 신하의 쟁기 미는 일이 끝나면 적전을 관리하는 봉상시부정이 백성을 인솔하여 나머지 밭을 갈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경적례가 끝나면 궁으로 돌아와 그 다음날 근정전에서 노주를 베풀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친경례가 진행되었고, 그중 선농단에서 지내는 선농제는 경적례를 하기 전의 국왕 의례였던 것이다.¹² 하지만 친경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축제적 성격으로 인해 조선왕조 존속기간 동안 국왕이 직접 행하는 친경례는 성종 3회, 연산군 1회, 중종 2회, 명종 1회, 선조 1회, 광해군 1회, 영조 4회, 고종 1회, 순종 2회 등 총 16차례만 거행되었다.¹³

다음으로 선잠제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친 서릉씨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시대 왕비는 내외명부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잠실에 가 뽕잎을 따고 제사에서 입을 왕의 제복을 마련하는 의식인 친잠(親蠶)을 행하곤 했는데, 친잠례에 앞서 거행하는 제사가 선잠제였다. 선잠제는 중국 고대의 예서인 『예기』에 그 사례가 여러 번 나오고, 『고려사』에도 선잠제를 시행했음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선잠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400년(정종 2)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왕비가 아닌 남성 관료들이 대행한 것으로 본래 목적과 다른 취지였다. 왕비가 직접 친잠을 행한 시기는 1477년(성종 8)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왕비는 경복궁 내에 있는 채상단에서 뽕잎을 따는 의식을 치렀고, 실제 성북천변의 선잠단에서는 정1품의 관료가 선잠제를 지냈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잠단(蠶壇)이 또한 경복궁 안에도 있다’¹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왕비의 선잠례는 경복궁의 잠단에서 이루어

¹¹ 친경대는 1476년(성종 6) 선농단 남쪽의 10보 거리에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경지략』 단유 선농단.

¹² 이육, 앞의 글(2004), 300쪽.

¹³ 이육, 앞의 글(2004), 289~290쪽.

¹⁴ 『한경지략』 단유 선잠단.



그림 1-1 20세기 초 선농단의 모습(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림 1-2 20세기 전반 선잠단지의 모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유일하게 선잠제와 채상을 행했던 영조 대 정순 왕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왕비가 최초로 선잠제를 시행하지만 궁궐 밖이 아닌 경복궁 내에 선잠단과 채상단을 임시로 만들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성북천변의 선잠단은 관료들의 제사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친잠례는 성종 2회, 연산군 1회, 중종 2회, 선조 1회, 광해군 1회, 영조 1회 등 총 8회 시행되었다.¹⁵ 선잠제는 음력 9월의 길한 날 중 사일(巳日)에 제향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¹⁶ 통상 국왕의 친경례가 끝난 한 달 전후한 시점에서 친잠례가 이루어졌다.

선농제와 선잠제의 공간이었던 선농단과 선잠단은 1406년(태종 6)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러나 1413년(태종 13) '선농, 선잠, 노인성, 복고, 여제단은 비록 축조되었지만, 규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조의 보고,¹⁷ 1430년(세종 12) '선잠단은 지은 것이 매우 허술하고 치수가 제도에 맞지 않으며, 지면이 기울어지고 뭉우리들로 쌓아 올려 만들어서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봉상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정대로 축조되지 않았다.¹⁸ 이후 여러 차례 선농단과 선잠단의 축조 규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했다.¹⁹ 심지어 성종 연간에는 선잠단이 규식에 맞지 않게 축조되어 단의 바닥이 기울어지고 땅에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우사단과 선농단 인근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선잠단은 동소문 밖 사한이에 존치되어 있었다.²¹

우사(雩祀) 역시 국가사전(國家祀典) 중 중사였다. 우사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기우제 성격의 제사로, 농업사회였던 전근대 국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제사였다. 한반도에서 유교식 제사의 한 형태로 우사가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이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우사단(雩祀壇)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유교식 제사로 정식화한 것은 조선 태종 대였다. 이는 조선 초기 고려왕조의 원구제(圓丘祭) 폐지가 논의되면서 전통적인 기우(祈雨)의 관행을 계승하기 위한 조치였다.

¹⁵ 한형주, 「조선시대 선잠의례와 왕비의 친잠」, 『역사와 실학』 70, 2019, 177~181쪽.

¹⁶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

¹⁷ 『태종실록』 권25, 태종 16년 6월 8일(무진).

¹⁸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¹⁹ 장지연, 「조선시대 선농단과 선잠단의 실제 형태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45~58쪽.

²⁰ 『성종실록』 권35, 성종 4년 10월 25일(계미).

²¹ 장지연, 위의 글(2012), 58쪽.

우사단 관련 제도는 태종 대에 정립되고 세종 대에 다듬어졌다. 『세종실록』 오례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례는 중사의 하나인 ‘우사의(雩祀儀)’로,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례는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로 기록되었다.²² 태종 때 우사단의 규모는 높이가 3척이고 둘레가 33보였는데, 세종 대에 이르러 풍운뇌우단, 선농단, 선잠단 등 다른 중사의 제단과 동일하게 사방이 2방 3척이고, 높이가 2척 7촌이며, 이중 담장 구조로 바뀌었다. 그런데 우사단은 구망, 옥수, 현명, 축융, 후토, 후직 등 동일한 신격 6위를 모셨기 때문에 성종 대에 이르러 다시 제단의 크기를 사방 4장으로 확대하였다.²³ 1414년(태종 14)에 설치된 우사단은 동방토룡단, 선농단과 함께 동대문 밖, 즉 홍인문 밖 평촌(현 계기동 일대)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1755년(영조 31) 훈련도감의 ‘외남산 우사단 근처에서 호환이 있었다’라는 보고, 우사단이 남교에 있다고 수록한 『한경지략』, 1875년(고종 12) ‘남교의 우사단’이라는 기록 등을 통해 보면 성북천변의 우사단은 적어도 영조 대 이후 남교의 한강 근처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⁴

한편 동방토룡단은 기우제의 하나인 오방토룡제를 지내는 제단이다. 한강 유역에서 기우제는 1차 삼각산과 한강, 2차는 용산강과 저자도, 3차는 풍운뇌우단, 산천, 우사단, 삼각산, 4차는 북교, 5차는 종묘에서 지낸다. 비가 오지 않으면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 다시 기우제를 지내지만, 이때는 전과 다르게 주술적인 요소가 추가된다. 한강에서의 침호두(沈虎頭)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지막 12차로 다섯 방위에 흙으로 만든 용의 형상에 제사를 지내는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데, 그중 동부에는 동방토룡단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성부 동부의 성북천변에는 선농단과 적전, 선농단, 우사단 등의 농업과 관련된 제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국가의 중사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 11월 중추원부사 박연(朴堧, 1378~1458)의 상언은 이러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²² 이정희, 「궁중의 雩祀 祭儀와 음악」, 『한국음악연구』 70, 2021, 316~318쪽.

²³ 한형주,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 『서울 2천년사』 13, 2013, 170쪽.

²⁴ 김태우, 「조선시대 한강 유역 국행 의례 제장(祭場)에 대한 연구-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한 지리적 위치 고증에 대한 시도」, 『서울학연구』 73, 2018, 55~57쪽. 이 논문에서 김태우는 영조 대 이후 우사단의 위치를 용산구 보광동 산 4번지로 비정하고 있다.

향사享祀는 나라의 큰 일이고, 단묘壇廟는 신神의 의지하는 바이므로 제왕帝王은 모두 이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도읍을 정하던 초기에 여러 사당에 단壇을 설치하였으니 대개 고제古制와 같지 않았습니다. …(중략)… 만약 그 중사中祀 4단이라면, ‘풍운뢰우風雲雷雨’, ‘우사雩祀’, ‘선농先農’, ‘선잠先蠶’인데, 이것은 모두 천지의 생장과 관계가 있고 민생에 의뢰하는 것이 있으므로 옛날 제왕이 더욱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祀典에 있어서도 봄에 기도하고 가을에 보사報祀하는 제사는 성주聖主가 제명齊明하고 제사를 받들어 그 정성과 공경함이 지극한데, 신神의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으니, 어찌 사리事理의 어그러지고 온당치 못함이 이와 같겠습니까?²⁵

그의 말에 따르면 향사는 나라의 큰 일이고, 단묘는 신이 의지하는 바로 역대 국왕이 모두 중요하게 여긴 까닭에 조선왕조에서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던 초기부터 여러 곳에 단을 설치하였다. 그중 중사에는 4개의 단이 있는데 풍운뢰우단, 우사단, 선농단, 선잠단이 그것이었다. 이 중사의 단은 천지의 생장과 민생의 생계가 달려 있는 바로 역대 국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이 중 우사단, 선농단, 선잠단 등 3개의 단이 모두 성북천변에 있었던 만큼 조선 전기 성북천변은 국가 제사 공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성북천변에는 왕실의 제사 공간으로 제단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가난하고 병든 환자를 구료하기 위한 동활인서(東活人署)도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이래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던 기구는 대비원(大悲院)이었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그 유제는 계속되어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과 함께 운영되었다. 그러다 대비원이 ‘대자대비(大慈大悲)’라는 불교 교리에서 연유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1414년(태종 14) 활인원(活人院)으로 바뀌었고, 1466년(세조 12)에는 다시 활인서로 개칭하였다. 이후 연산군 금표정책, 선조 대 임진왜란 등을 계기로 활인서는 잠시 혁파되었지만, 조선 말까지 한성부의 동부와 서부 지역에 존속하였던 빈민 구제기관이었다.²⁶

²⁵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22일(임술).

²⁶ 이상협, 「朝鮮時代 東·西活人署에 대한 考察」, 『郷土서울』 56, 1996, 70~75쪽.

그중 성북천변에는 동활인서가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동활인서는 동소문 밖에, 서활인서는 서소문 밖에 있다. 도성 내의 오갈 데 없는 환자를 이곳에 모아 의식(衣食)을 제공하고 치료하며, 죽는 경우에는 오작인으로 하여금 매장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⁷ 비단 환자 치료뿐 아니라 의식까지 제공하는 기구가 활인서였다. 활인서에는 병동의 역할을 하는 병막(病幕)을 비롯하여 한증막(汗蒸幕),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병막이 부족할 때에는 환자들이 활인서 인근에 개인적으로 움집을 짓고 거주하기도 했다. 활인서에는 여러 관원이 배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활인서의 연혁에 변동이 잦았던 만큼 활인서의 인적 구성도 변화를 거듭하다가 성종 대에 이르러 종6품의 별제(別提) 4명과 종9품의 참봉(參奉) 2명으로 확정되었다. 활인서는 기본적으로 종6품 아문이기 때문에 국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조(提調)가 배치되었다. 한편 이들 관원(의원) 외에 서원(書員) 2명,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5명, 구종(驅從) 1명 등의 이예(吏隸)가 있었으며, 직제상의 인원 외에도 무격(巫覡), 한증막을 관리하는 한증승(汗蒸僧), 시신을 매장하는 매골승(埋骨僧) 등도 있었다.²⁸ 조선왕조는 이들의 급료와 동활인서 운영을 위해 토지 25결을 지급해 주었다.²⁹

동활인서의 기본 업무는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기근이 들면 전염병이 극성했는데 그중 이상기온, 즉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 결빙이 줄어들면서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백성들은 상시적인 영양부족에 따라 면역체계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빠르고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켰으며 높은 수준의 사망률에 이르게 되었다.³⁰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에는 기근이 들면 전국의 기민은 물론 병자들까지 몰려들었다. 따라서 한성부로 들어오는 주 출입로인 동소문과 서소문 인근에 활인서를 각각 설치해 두고, 병자들을 관리했던 것이다. 즉, 활인서는 도성 안팎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²⁷ 『세종실록』 지리지 경도 한성부.

²⁸ 이상협, 앞의 글(1996), 75~77쪽.

²⁹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7월 14일(을유).

³⁰ 이준호, 「조선시대 기후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 건습의 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4, 2019, 430쪽.

성북천변에 있던 동활인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동활인서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많게는 500~1,000명의 환자가 몰려들었는데, 이곳에서 이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³¹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본래의 기능인 질병 치료보다는 기민 구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일각에서는 가난한 백성이 아닌 사대부의 하인들이 구료를 받기도 했다.³² 영조가 ‘조정에서 활인서를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뜻이 융성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병이 들어 죽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거나,³³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지만, 활인서에서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진휼청당상의 발언을 통해 보면 활인서, 즉 18세기에 동활인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정약용 역시 ‘우리나라 활인서는 도성 안 병자를 구휼하는 일을 관장할 뿐, 그 직장(職掌)이 구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활인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³⁵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폐지되어 사라지고 말았다.³⁶

한성부의 동부는 서울의 4소문 가운데 하나인 혜화문을 지나 원산에 이르는 동북방 간선도로가 관통하던 지역이었다. 흥인문을 벗어나 동묘에 이르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동북쪽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보제원에 닿게 된다. 이곳에서 안암천, 제기현, 고암을 거쳐 수유리를 지나 노원역에 이르면 누원에서 시작하여 경흥서수라까지 가는 동북 제2로에 연결된다.³⁷ 따라서 이곳은 일찍부터 함경도로의 통로가 되었음은 물론 양주의 누원점과 연계되어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리 교통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성북천변에는 보제원이라는 원(院)이 일찍부터 설치되었다. 원은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 시설로, 역(驛)과 같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역원(驛院)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역보다 숫자가 많았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대로·중로·소로에 30리마다 원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³¹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4월 21일(갑신); 『현종실록』 권5, 현종 3년 6월 20일(신유).

³²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2월 10일(계해).

³³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5월 17일(계유).

³⁴ 『영조실록』 권55, 영조 18년 5월 23일(신사).

³⁵ 『경세유표』 지관호조(地官戶曹) 교관지속(敎官之屬) 육보서(六保署).

³⁶ 『한경지략』 권의각사 활인서.

³⁷ 원영환, 「조선시대 교통로와 역·원제의 고찰-서북로와 동북로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7, 1995, 7쪽.

보제원은 흥인문 밖 3리 지점에 설치되었다. 보제원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1421년(세종 3) 10월 세종이 상왕과 함께 사냥을 하다가 양주 보제원 시냇가, 즉 성북천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통해 볼 때 세종 대 이전에 보제원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세종 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제원은 양주의 관할구역이었다. 보제원에는 원을 경영하고 여행객을 접대하는 원주(院主)가 있었다. 원주는 관할 구역의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선 초기 원주 임명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1425년(세종 7)부터는 승려나 양민 중 선량한 사람을 원주로 삼고, 보제원에는 흥제원의 예에 따라 2결 50부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건물의 수리와 보수는 한성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³⁹

보제원은 한성부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 부임하거나 떠나는 관료들은 보제원에서 전별연(餞別宴)을 행하곤 했다. 조선왕조실록에 90여 개의 보제원 기사 중 대다수가 전별연 또는 접대 연회 기사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이곳에는 2층의 누대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관료들이 술을 마시던 유희 공간이었다.⁴⁰

그렇다고 보제원이 관료들의 유희 공간으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다. '보제(普濟)'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기민을 구제하는 진제장(賑濟場)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보제원에 진휼 기능이 언제부터 부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435년(세종 17) 한성부가 '동서활인원은 병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굶주린 백성들이 편안하게 머물러서 살 수 없으니, 앞으로는 동서의 보제원과 흥제원에 나누어 식량을 지급하라'라는 기사를 통해 볼 때 이후 동서활인원에서는 병자를, 동서의 보제원과 흥제원에서는 기민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⁴¹ 보제원 역시 동활인서와 같이 도성으로 빈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제원에서의 기민 구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제 1436년(세종 18)부터 보제원과 흥제원에는 진제장이 설치되었는데,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두 진제장에 몰려든 기민이 모두 2천 명에 이르렀다. 보제원에서는 이들에게 한 사람마다

³⁸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10월 11일(경자).

³⁹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1월 20일(을묘).

⁴⁰ 『한경지략』 역원 보제원.

⁴¹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8월 2일(신축).

쌀 5홉을 주고 소금과 장을 지급하여 그들을 구휼해 주었다. 1437년(세종 19)부터는 한성부의 낭청 3명이 보제원과 동활인원, 이태원과 서활인원, 한성부와 성저십리 등의 세 구역을 각각 담당하도록 했고,⁴² 1445년(세종 27)에는 기존의 진제장으로 쓰던 흙집 2칸 외에 원사(院舍)를 더 지어 기민을 수용하고, 각 진제장마다 의원을 두 사람씩 더 두어 치료하도록 했다.⁴³ 『세종실록』에는 보제원의 진휼 기능에 대하여 '사방에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났다. 주리던 백성들이 하는 일 없이 배불리 먹으며, 날이 오랴수록 기운이 씩씩하여 거의 거주민보다 낫다'라고 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⁴⁴

이와 같이 조선 전기 성북천변에는 국가사전을 지내는 제단이 위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병자와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성북천변에 이러한 시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성북천변에는 조선 초기부터 여승이 주도하던 사찰도 존재했다. 그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정업원(淨業院)과 안암사(安巖寺)이다.

정업원은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실 여성들의 출가처이자 기도처로 이용된 비구니 사찰이다. 정업원에 대해서는 고려 의종이 정업원으로 갔다는 최초의 기록이 보이고, 또한 고려 고종 대에 박훤(朴暄, ?~1249)의 집을 정업원으로 삼아 비구니들을 모아 살게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혜화궁주(惠和宮主) 이씨(李氏, ?~1408)가 죽자 소도군(昭悼君) 부인 심씨를 정업원 주지로 삼았다는 기사가 최초의 기록이다. 혜화궁주는 공민왕의 후비로, 공민왕이 피살되자 정업원의 비구니가 되었다. 혜화궁주의 뒤를 이어 정업원의 주지가 된 심씨는 태조의 막내아들 이방석의 부인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의 정업원이 조선왕조에 들어서 계속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혜화궁주가 출가할 당시의 정업원은 개정에 있었지만, 조선 초기 정업원은 한양의 창덕궁 뒤편으로 옮겨져 있었다.⁴⁵

정업원은 왕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왕과 왕실 여성들의 비호를 받으며 운영되었다. 태종이 전국의 사원전을 몰수하는 과정에서도 정업원의

⁴²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2월 9일(기사).

⁴³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1월 21일(을미); 1월 30일(갑진).

⁴⁴ 『세종실록』 권79, 세종 19년 2월 4일(갑자).

⁴⁵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조선시대 정업원의 운영실태(1)」, 『여성과 역사』 22, 2015, 105쪽.

토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세종 초에 서울과 지방의 사찰 노비를 혁파할 때도 정업원의 노비만은 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세종 대 후반에 이르면 정업원의 노비는 약 3,5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비구니 사찰로 성장하였다.⁴⁶ 정업원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성리학으로 무장한 관료들은 집요하게 정업원을 비롯한 도성 내 사찰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1448년(세종 30) 정업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혁파된 지 9년 만인 1457년(세조 3) 궁박하고 어려운 비구니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세조는 다시 정업원을 복설하였다. 그리고 노비 100구와 토지 100결을 하사하여 정업원 운영의 물적 토대로 삼게 해주었다. 이후 정업원은 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인수대비, 예종비 인혜대비 등 세 대비의 비호를 받으며 성종 대 후반까지 영향력이 막강한 사찰로 존재하였다.⁴⁷

세조가 복설한 정업원은 연산군에 의해 재차 폐지되었다. 연산군은 창덕궁 뒤편 인가를 모조리 철거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정업원에 소속된 비구니는 기생들의 대기소인 연방원 건물에 거주하거나, 한치형(韓致亨, 1434~1502)의 집으로 옮겨 살도록 했다. 이러한 수난을 겪으면서 창덕궁 뒤편에 있던 정업원은 자연스럽게 폐사되었고, 중종반정 이후에 이 건물은 유학자들의 독서당으로 활용되었다. 명종 대 문정왕후가 인수궁의 부속 불당으로 정업원을 재건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실되면서 다시 폐사되었다. 1607년(선조 40) 안일원과 정업원의 옛터에 초가집을 지어 비구니들이 살아 간다라는 기사,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의 측근이던 김개시(金介戩, ?~1623)가 정업원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가 민가로 도망쳤다는 기사를 통해 볼 때 정업원은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한편 1511년(중종 6) 이전, 동부 인창방 일대에 새로운 정업원이 설치되었다. 도성의 창덕궁 근처가 아닌 성북천변에 정업원이 등장한 것이다.⁴⁹ 연산군 대에 폐지된 정업원을 성북천변 일대에 설치한 인물은 다른 아닌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였다. 정순왕후는 1457년(세조 3)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면서 폐서

⁴⁶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1월 28일(경술).

⁴⁷ 탁효정, 앞의 글(2015), 108~109쪽.

⁴⁸ 탁효정, 앞의 글(2015), 115~117쪽.

⁴⁹ 성북구 보문동 3가 51번지에 있는 미타사(彌陀寺)를 정순왕후가 세운 정업원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서울洞의 역사-성북구』 3, 2018, 69~71쪽.

인의 신분이 되었다. 이때 정순왕후는 단종을 따라 영월로 가지 않고 한양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도성에서 나와 비구니가 되어 인창방 일대에서 불자로서 생을 살았다. 훗날 영조는 정순왕후가 정업원 근처의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정업원이 있던 인창방 일대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석을 세웠다.⁵⁰ 19세기 고지도에서 성북천변에 정업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영향이다. 현재 <정업원구기>는 종로구 숭인동 산3번지에 있는 청룡사에 있다.

정업원과 함께 안암사도 성북천변의 유명한 비구니 사찰이었다. 안암사의 창설 시기는 조선 초기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초에 도읍을 세울 때에 산과 물의 향배向背를 살펴서 사사寺社를 건립하여 산수의 부족함을 도와서 재변을 진압하고 물리쳤는데, 그 후 사찰로서 복세암福世庵·안암사安巖寺·정일암淨逸庵·향실암香室庵·수정암首頂庵·망성암望城庵·은암隱菴·일출암日出庵·대고산사大高山寺·소고산사小高山寺·입암사立巖寺·도장동사道藏洞寺·정업원淨業院과 같은 것이 세워졌습니다.⁵¹

위 사료는 1470년(성종 1) 예조가 성종에게 올린 계목이다. 이 사료에 따르면 수도를 천도할 때 한양의 풍수를 살펴 사찰을 건립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안암사였다. 도성 내외의 사찰들은 1411년(태종 11) '정업원 이외에는 산속의 여승방(尼僧房)을 철거'하라는 병조의 계에 따라 상당수 훼손되었지만,⁵² 그럼에도 안암사는 존치되었다. 그러나 1470년(성종 1) 성북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경작금지(禁耕), 식목사업(植木)으로 인해 관청에서 건축한 것이 아닌 사찰은 대부분 철거되었다.⁵³ 이 조치로 인해 안암사도 철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암사가 복설된 것은 훼손된 지 14년이 지난 1484년(성종15)이었다. 당시 덕종(의경세자)의 후궁이었던 귀인 권씨는 안암사가 도성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사찰이라고 하면서 성종에게 중창하기를 요청하였다. 권씨의 요청에 대해 성

⁵⁰ 탁효정, 「조선시대 淨業院의 위치에 관한 계검토 - 영조의 淨業院舊基碑 설치를 중심으로 -」, 『서울과 역사』 97, 2017, 53~60쪽.

⁵¹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 9월 26일(신축).

⁵²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9일(무술).

⁵³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 9월 26일(신축).

중은 ‘옛터에 중창하는 것(古基重創)’은 『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안암사의 복설을 승인하였다.⁵⁴ 이 결정에 대하여 홍문관 등 삼사는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 사찰을 세우는 것은 사체가 부당하고, 정도를 숭상하는 것에 위배되며, 안암사 중창은 국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⁵⁵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수대비는 ‘안암사를 중창하는 것은 승려들을 거처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니승(尼僧)은 도성 안에 거처할 수 없는 까닭으로 거주하도록 함이다’라면서 삼사를 설득했다.⁵⁶ 이를 통해 보면 안암사 역시 니승, 즉 비구니 중심의 여성 사찰로써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수대비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안암사가 복설되었다. 하지만 안암사 역시 연산군 대에 이르러 도성 인근의 민가를 철거하면서 같이 훼손되었고, 이곳에 소속된 비구니들은 정업원의 니승과 함께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졌다.⁵⁷ 이후 사료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안암사는 중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성북천변에 존재했던 여성 사찰은 조선 후기에 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659년(효종 10) 사대부의 부녀들이 남산 잠두, 삼청동, 니사 등지로 몰려다니며 유람한다는 보고, 1661년(현종 2) 도성에 이원(尼院)이 있는 것은 극히 부당하니 혁파해야 한다는 상소, 1704년(숙종 4) 동교의 멀지 않은 곳 10리 안에 6곳이 비구니가 몰려있는 곳이라는 사간원의 계 등을 보면, 조선 후기 도성 밖 성북천변 일대에는 비구니의 공간인 니사(尼舍)가 다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⁸ 이는 19세기 성북천변 일대를 그린 지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

〈그림 2〉의 고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성북천, 즉 안암천 중류에는 니사 또는 승방(僧房)이 기록되어 있다. 니사와 승방은 비구니 즉, 여승이 기거하는 처소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 성북천 인근에 니사와 승방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에 여승 사찰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조선 전기 성북천변에는 국가 제사 관련 단묘(壇廟)와 여성 사찰 등 국가 및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존재하였다. 국가사전(古基重創) 시설의

⁵⁴ 『성종실록』 권163, 성종 15년 2월 24일(신사).

⁵⁵ 『성종실록』 권163, 성종 15년 2월 24일(신사); 2월 26일(계미); 2월 27일(갑신).

⁵⁶ 『성종실록』 권164, 성종 15년 3월 2일(기축).

⁵⁷ 『연산군일기』 권54, 연산 10년 7월 23일(신해); 7월 29일(정사).

⁵⁸ 『승정원일기』 156책, 효종 10년 4월 18일(무신);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1월 4일(갑인); 『승정원일기』 421책, 숙종 30년 10월 28일(을미).

그림 2 19세기 고지도에 보이는 성북천변과 승방·니사

『수선전도』 부분, 184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동여지도』 부분, 186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방여전도』 부분, 19세기 중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여도』 부분, 19세기 중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우 국왕의 거동이나 고위 관료가 치제(致祭)할 경우에만 사용되었지만, 성북천 일대의 정업원, 안암사 등 사찰은 비구니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 니사가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찰의 영향이었다. 성북천변에는 병자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시설로 동활인서와 보제원도 설치되어 있었다. 동활인서가 설치되었던 것은 도성 밖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제원은 강원도나 함경도로 가는 교통시설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전별연이나 연회를 베푸는 장소, 혹은 동활인서와 함께 기민을 구제하는 진제장으로도 활용되었다.

2 성북천변 점유과정과 행정구역 편제

조선 전기 성북천변에는 제사 시설, 교통시설, 진흥기관 등의 국가 시설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성북천 일대는 국가 시설과 왕실과 관련된 사찰의 영역이었던 만큼 이곳에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428년(세종 10) 성저(城底)에는 약 1,600호에 6,000여 명이 거주하였으나,⁵⁹ 성저십리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중에서도 교통시설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세종 때까지 성저십리가 한성부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⁶⁰

세조 대에 이르러 성저십리를 한성부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였으나, 여전히 도성 사람들은 도성 밖에 거주하기보다는 도성 내부의 산지나 고지대로 들어가 집을 짓고자 했다. 도성 밖 동부는 도둑의 소굴로 어두운 밤에는 인마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실제 왕십리에서는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강도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도성 밖의 공간은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⁶¹

그리고 성종 초반 도성 주변, 특히 동부 일대의 경관을 정리하는 정책도 성북천변 일대에 백성들이 모여들지 못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9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기축).

60 원영환, 「한성부연구(1)-행정제도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술』 39, 1981, 106~107쪽.

61 유승희, 「15~16세기 漢城府의 주택 문제와 정부의 대응」, 『사학연구』 94, 2009, 56~57쪽.

표 3 성종 대 동부 일대 경관 정비 정책

1. 광평대군(廣平大君) 집의 북쪽 고개에서 주산(主山)에 이르기까지, 노원역(蘆原驛) 모퉁이에서 벌아현(伐兒峴)에 이르기까지, 우장산(牛場山) 및 사현(沙峴)에서 청파역(靑坡驛)의 북쪽 고개 산등성 마루에 이르기까지는, 다 경작을 금지하고 잡목을 심어서 산맥을 보호하게 하소서.
2. 침장고(沈藏庫) 모퉁이에서 동대문 밖 성밀에 이르기까지 잡인(雜人)들이 많이 침점(侵占)하여 밭을 갈았는데, 이 때문에 구덩이가 생겨서 물이 고여 흐르지 못하므로 성의 기초가 침윤(浸潤)되고 있으니, 지금 마땅히 경작을 금하고 나무를 심게 하소서.
3. 개천가 좌우에 아직 석축하지 못한 곳은 큰물을 만나게 되면 점점 허물어질 것이니, 지금 마땅히 버드나무를 심게 하소서.
4. 노원역(蘆原驛) 모퉁이에서 보제원(普濟院) 서쪽의 큰 길에 이르기까지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게 하소서. (후략)...⁶²

〈표 3〉은 1470년(성종 1) 도성 밖에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어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조가 성종에게 올린 조목이다. 예조는 청계천, 성북천 등 천변과 노원역, 청파역, 보제원 등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평대군 집의 북쪽에서 주산인 북악산까지, 노원역에서 벌아현까지, 우장산 및 사현에서 청파역 북쪽 고개까지, 침장고부터 동대문 앞 성저까지는 경작을 금지하고 잡목을 심도록 했다. 또한 노원역에서 보제원 서쪽 큰길까지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도록 했다. 아울러 개천의 좌우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홍수에 대비토록 하였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로 그의 집이 현재 안암동 3가 지역에 있었다는 점,⁶³ 노원역에서 벌아현, 보제원까지가 주로 성북천 일대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1470년(성종 1)의 동대문 밖 성북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도로 정비 및 식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민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는 성북천변 일대가 국유지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일례로 1494년(성종 25) 한성부 사람들이 보제원 앞에 집을 짓는 일이 생기자 앞으로 공전(公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⁶⁴ 이러한 정책 기초 아래 조선 전기 성저십리는 금산(禁山)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표식을 해

62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 9월 26일(신축).

63 서울역사편찬원, 앞의 책(2018), 244쪽.

64 『성종실록』 권25, 성종 3년 3월 2일(무술).

두어 입산을 금지하였다.⁶⁵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운영하였다.⁶⁶

연산군 대 실시된 도성 내외의 가옥 철거와 금표정책은 성북천변의 인구 증가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성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도성 내외의 가옥 철거는 1503년(연산군 9)부터 본격화되었다. 연산군은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집은 철거하고, 백성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 전교에 따라 북악산, 인왕산, 사직산의 출입을 금지하고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출입 금지 지역이 북악산과 동대문 부근의 언덕으로 확대되었다.⁶⁷

이듬해인 1504년(연산군 10)에는 금표정책을 추진하였다. 금표란 정부가 사냥, 군사 훈련, 산림 보호의 목적으로 일정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식이다. 연산군은 중국 고대 문왕의 고사를 들어 정사에 피곤해진 심신을 사냥으로 풀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도성 인근에 금표를 세웠다. 물론 세조나 성종의 경우에도 성북천변, 특히 안암동 일대에서 강무를 행하곤 했다.⁶⁸ 그러나 연산군은 강무, 즉 사냥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금표를 설정하고 구역 내로 들어오는 백성들은 처벌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금표비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금표의 면적은 30~40리, 60~70리, 100리로 점차 넓어졌다.⁶⁹ 금표가 설정되면 그 공간에 있는 건물은 허물어지고,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금표는 도성을 중심으로 사방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동부 성북천변도 상당한 영역이 금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연산군은 동소문 밖으로 미아리고개, 다야원과 이회양(李淮陽, ?~?)의 무덤 뒷산을 걸쳐 보등사(寶燈寺)까지 금표를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살하리 동리 어귀에 경수포를 만들어 사람의 왕래를 감찰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금표 밖으로 내보냈다. 안암사는 이때 훼손되었다.⁷⁰ 1504년(연산군 10) 8월, '황부(黃阜)로부터 동적전(東籍田)의 북쪽 고개까지, 제단(祭壇: 선농단) 옆을 지나 보제원 앞 내에까지, 또 안암(安庵) 북쪽 산 중턱을 지나 도

65 『성종실록』 권272, 성종 23년 12월 25일(신유);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5월 12일(계묘).

66 『대전속록』 공전 잡령, '都城以旁近居人分授看直 人家隔遠處 則四山監役官 令山直分掌考察'.

67 신동훈, 「연산군대 禁標의 설치와 도성 경관의 변화」, 『동국사학』 71, 2021, 140~142쪽.

68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9월 19일(기사); 『성종실록』 권123, 성종 11년 11월 18일(갑오).

69 정동일, 앞의 글(1996), 125쪽 <표1>참조.

70 신동훈, 위의 글(2021), 147~148쪽.

성까지 금표를 세우라'라는 연산군의 발언을 통해 볼 때 당시 성북천변 일대에는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⁷¹

1592년(선조 25)에 발생한 임진왜란은 도성인 서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왜군의 한성 함락으로 인해 궁궐을 비롯한 종묘와 사직이 불에 탔고, 도성에 거주하던 백성들도 상당수 피난하였다. 국가통치 시스템의 마비였다. 한성을 수복한 직후인 1593년(선조 26) 10월에서야 비로소 수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해 정부는 환도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각처에서 하던 것을 전례대로 시행한다면 거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민이 그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임진왜란 이전의 제도 복구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 이후 도성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란 이후 소실된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 중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도성 안팎으로는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도성 밖의 성저십리의 공전과 공공 재원에 대한 왕실구성원과 중앙 각사의 사점(私占)이 본격화되었다.⁷² 사점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이 위계와 권력으로 공전이나 사전을 점유하는 행태를 지칭한다. 국방이라 불리는 왕실구성원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수(折受)라는 방식을 통해 토지를 지급받았지만, 이외에도 사점을 통해 토지를 늘려갔다. 일례로 한강의 한강진, 노량진, 광진 등 여러진도(津渡)에는 국가가 건조한 진선(津船)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1602년(선조 35) 윤원도정(雲原都正) 이요(李撓, ?~?)와 의원감 이력(李穰, ?~?)은 광진에 배속된 선박을 강제로 매입하여 행인들로부터 과도한 뱃삿을 요구하기도 했다.⁷³

궁방의 사점은 성북천변 일대에서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연령군방과 창 의궁은 각각 온수동과 탑동에 있는 니사에 사사로운 금표, 즉 사표(私標)를 세워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지했다. 한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이러한 궁방의 사표 설치를 비판하며 즉각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왕인 경종은 근래 새롭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실의 최고 지존으로서 궁방의 편에서 그들의

71 『연산군일기』 권55, 연산 10년 8월 24일(신사).

72 17세기 이후 궁방과 사대부들의 사점에 대해서는 김선경, 「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73 문광균, 「조선시대 한강의 津渡體系와 津船 관리」, 『조선시대 '경기' 연구』, 서울역사편찬원, 2019, 321쪽.

입장을 옹호해준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사관은 ‘사표(私標)를 세웠으면 사산(四山)의 감역도 혁파해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각사와 궁방의 사점을 비판하였다.

연령궁방, 창의궁과 함께 명선공주방도 도성 밖의 토지 점유에 적극적이었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지난번 정호평 등이 동고 종암鍾巖 근처에 대대로 경작해 오던 두 섬지기 남짓의 논을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 빼앗겼다고 한 상언으로 인하여, 이 일은 상호간의 소송이므로 문안을 가져다 살펴보고 공정하게 처결할 것을 비변사에서 복제하여 본부에 계하啓下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문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정호평 등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순치順治, 1643~1661와 만력萬曆, 1573~1620 연간의 것으로 다 관청의 증명을 거쳤으니 전해 내려온 것이 분명하지만, 명선공주방의 궁임宮任이 제출한 문서는 정묘년1687, 숙종 13 내수사에 보고한 수본手本인데 양안量案에 묶은 논으로 되어 있는 주인 없는 곳을 대신 받기를 청한 것입니다. 종암 근처는 성곽 부근의 기름진 땅이니 정묘년에 결코 주인이 없는 황무지였을 리가 없으며, 과연 비어 있는 황무지였다면 도성과 지척인 땅을 41년간 버려두고 찾지 않았으니 매우 괴이하고 의아합니다.⁷⁴

위 기사는 1727년(영조 3) 명선공주방과 종암동에 사는 정호평 사이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분쟁이다. 명선공주(明善公主, 1660~1673)는 현종의 첫째 딸로 1660년(현종 1)에 태어나 1673년(현종 14)에 사망한 인물이다. 명선공주방은 1687년(숙종 13)에 성북천변인 종암리에 있던 정호평의 토지가 주인이 없는 땅으로 묶은 논이라면서 입안(立案)을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내수사는 명선공주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안을 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이 지난 1727년(영조 3)에 불거졌다. 이때 명선공주방에서 정호평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40여 년 전 자신들이 입안을 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정호평은 만력제 연간과 순치제 연간에 작성된

⁷⁴ 『승정원일기』 649책, 영조 3년 11월 5일(경사).

문서를 관청에 제출하며 명선공주방이 자신의 땅을 억지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하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한성부에서는 종암 근처의 땅이 도성 근처의 기름진 땅으로 1687년(숙종 13) 당시 주인이 없을 수 없을 뿐더러 명선공주방이 40년이 지나도록 도성 지척의 땅을 버려둘 리 없다면서 정호평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사는 이를 문제 삼았지만, 국왕 영조는 정호평의 승소를 확정해주었다. 이를 통해 보면 비록 명선공주방, 연령궁방, 창의궁 등의 사례이지만 17세기 성저십리, 성북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궁방의 토지 사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왕조는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통할하는 보편적이고, 일원적인 형태의 지배원리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원리를 구현하는 중심에 국왕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국왕은 사심이 없는 공적 지배의 주재자로서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역대 국왕은 왕실 구성원의 절수나 사점 등에 관대한 면모를 보였고,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실의 재산 축적을 대변해주기도 했다.⁷⁵ 따라서 궁방의 사점에 대하여 정식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료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18세기 이후 관료들은 국왕에게 꾸준하게 ‘궁부일체(宮府一體)’를 강조하며 왕실 재정 운영업무를 대거 국가재정의 중추인 호조가 흡수하거나 통제함으로써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내수사의 운영을 정규 행정기구와 밀착시켜 자의성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다.⁷⁶

그런데 도성 주변의 토지를 점유하는 행태는 비단 궁방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궁방의 사점을 비판하는 중앙각사와 군문도 성저십리 일대의 토지를 점차 점유해가고 있었다. 1722년(경종 2) 한성부판윤 심단(沈檀, 1645~1730)의 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성의 10리 주위는 한성부에서 관할하는 금산禁山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감역관監役官을 설치하고 금송禁松을 살피게 한 것은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래 장원서掌苑署 및 내국內局에서 새로 울원栗園을 정하여 안암·제기·청량·고암·석관 등의 마을을 모두 소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온수

⁷⁵ 송양집,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2015.

⁷⁶ 송양집,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 『대동문화연구』 76, 2011 참조.

동의 니사尼舍는 연령군방延齡君房에 소속시키고 탑동의 이사는 창의궁彰義
宮에 소속시켜 각각 구획을 정하고, 사사로이 금표禁標를 세워 산지기로 하
여금 감히 출입하지 못하게 하니, 거주하는 백성들이 남벌濫伐하여 조금도
꺼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새로 정한 울원을 혁파하고 연
령군방과 창의궁의 사표私標 또한 철거하라고 명하시어, 모두 당도當道로
하여금 勾管하게 하소서.⁷⁷

앞서 살폈듯이 도성의 10리, 즉 성저십리는 한성부가 관리하는 금산 영역으로 이곳
에서는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돌을 켤 수 없었다. 금산에는 금표가 세워져 있었고,
한성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감역관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심단의 말에 따르면 18
세기 전반 성저십리의 금산은 중앙각사에 의해 점유되기 시작했는데, 동부 성북천
변의 경우 장원서와 내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 장원서와 내의원은 안암·제기·청
량·고암·석관 등지에 울원, 즉 밤나무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이곳의 백성들을 밤
나무를 관리하고, 밤을 채취하여 상납하는 역에 동원하였다.

성저십리에 장원서의 울원이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
만, 17세기 후반 이미 도성 인근에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76년(숙종 2)에 윤휴(尹鑄, 1617~1680)는 백자전(柏子田)을 조성한다면서 현재 강북
구 우이동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성암(道成庵) 근처의 땅을 장원서로 소속시
켰다.⁷⁸ 그리고 1682년(숙종 8)에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 한 말에 따
르면 역시 우이동에 장원서의 울원 7곳이 존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
면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 장원서의 울원과 백자전 등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⁷⁹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장원서는 곳감, 황율, 생율, 대추, 배, 유자, 은행,
모과, 호두 등을 공물로 받고 있었는데,⁸⁰ 황율과 밤의 물품을 이곳에서 공급받고 있
었던 것이다. 내의원 역시 마찬가지였고, 호조의 공인인 염계(染契)인이 동교에서 누

77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 3월 26일(신해).

78 『승정원일기』 277책, 숙종 6년 8월 3일(기미).

79 『승정원일기』 291책, 숙종 8년 6월 16일(임진).

80 『만기요람』, 재용편1(財用編一) 각공(各貢) 선혜청57공(宣惠廳五十七貢).

대 동안 사포서의 위전을 경작하며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경작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⁸¹ 즉, 중앙각사가 공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성저십
리, 그중에서도 인적이 드물고 산지와 평지가 있는 성북천변 일대의 토지와 인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766년(영조 42)에는 성북천에 어영청의 둔전이 설치되었다. 당시 영의정 홍
봉한(洪鳳漢, 1713~1778)은 북한산성을 보호하고, 어영청의 도성 방비를 강화하기 위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영조에게 제시하였다.

북한산성의 주맥主脈에 보토補土를 하는 공역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연
용대鍊戎臺 한 지역을 총용사에게 계속 심력을 다하게 한다면 우려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나 지세로 말한다면 연용대가 북악산의 서북쪽에 있음으
로 하여 숙정문廡靖門의 북동쪽을 관리할 수 없어 동촌東村의 무지한 나무
꾼들이 임의로 오가므로 하여 벌거숭이산이 되었으니 그지없이 놀랍습니
다. 더구나 그 일대의 긴 계곡은 성 밖에 끼어 있어 행하니 황폐하여 보기
에 걱정스럽습니다. 전부터 백성을 모집하여 거주시키려는 논의가 있었
으나 여태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원려遠慮에 소홀하여 여사餘事
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바로 어영청御營廳에서 나누어 받은 곳이
기 때문에 어영대장이 깊이 우려한 나머지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제는
친히 가서 두루 살펴보고는 현재 대략 조치하려 하는데 이는 백성을 불러
모아 폭 싸인 평지에 살게 하되 근처의 둔전을 사 주고 약간의 창곡倉穀을
설치하여 생활하며 편히 살게 하고, 조정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 다만 군
문에서 계획을 세우되 일이 새로운 창설인 만큼 홀로 결정하기 어려워 신
에게 협의하므로 신이 과연 힘써 협찬하려 합니다. 이는 도성을 돌려 지키
려는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실로 연용대와 안팎으로 성세를 돋우는 이익
이 있습니다. 제때에 조치하여 다급할 때에 서로 의지가 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⁸²

81 『승정원일기』 328책, 숙종 14년 3월 12일(을유).

82 『비변사등록』 147책, 영조 41년 4월 18일(계해).

홍봉한은 성북천 일대 긴 계곡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있음을 보고, 이곳에 대한 경영 방략을 고민하였다. 이 시기 홍봉한은 안암동에 별서(別墅)를 설치해 둔 만큼,⁸³ 성북천변 일대의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어영청이 성저십리의 동부를 관할하고 있고, 어영청이 분급받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둔전을 개설한다면 도성과 북한산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 이때 성북천변에 어영청이 분급받은 토지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데, 어영청이 인조반정 이후 설치된 중앙군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홍봉한이 설치하려고 하는 둔전 지역은 17세기 어영청이 새롭게 점유한 토지였던 셈이다. 영조가 홍봉한의 의견을 수락함으로써 이듬해 봄인 1766년(영조42) 성북천변에 둔전이 설치되었고, 인근의 백성이 어영청의 둔전을 경작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과 중앙각사의 점유가 확산되자 사대부들도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누차 언급하지만 조선 전기부터 성저십리의 사산은 금산 영역으로 일반 백성들이 멋대로 출입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이는 법전에 명시된 조항이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금산과 금표는 이미 사문화된 상태였다. 권력과 명망을 가진 사대부를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은 금산을 무시하고, 사산에 입산하여 벌목과 채석을 일삼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722년(경종2)에 있었던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창업은 집안이 본시 부유한 데다가, 또 김창집의 세도를 빙자하여 별서(別墅)를 동교(東郊)의 밖에 크게 지었고, 10리나 되는 금경지(禁耕地)를 개간하여 천백(阡陌)을 연금(連亘)하였으며, 백 년 동안 기른 소나무 산을 점거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전리(箭里)의 열무(閱武)하는 장소를 차지하려고 그의 형을 종용하여 드디어 공지(空地)를 백성에게 허여한다는 뜻을 연중(筵中)에서 아뢰고는 비옥한 토지를 죄다 그의 소유로 만들었다. 김창집이 패망하자, 대관(臺官)이 논계(論啓)하여 도로 진폐(陳廢)하는 일을 청하니, 한성부에 내렸는데, 이에 이르러 한성부에서 낭관을 보내어 살펴본 뒤에 아뢰기를, “열무장(閱武場) 안과 장대(將臺) 아래에 김창업이 독을 쌓고 개간한 곳

83 『승정원일기』 1222책, 영조 39년 9월 8일(임술).

이 많이 있는데, 절반은 수해로 황폐화되었고, 절반은 이제 바야흐로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불천(佛川)의 하류에는 전부터 솔밭이 있었는데, 소나무가 해충으로 손상되었다고 핑계를 대어 또한 개간하였으며, 청량산(淸涼山)의 한 골짜기도 여러 해 동안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한 곳인데 제멋대로 개간하여 만든 전지가 면적이 매우 넓고 크다 합니다. 군사들이 열무(閱武)하는 장소와 금표(禁標)하여 양송(養松)하는 땅이 이 어찌 사가(私家)의 경작하는 곳이 되겠습니까?”⁸⁴

김창업은 숙종 대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동생이다. 김창집과 김창업은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의 증손으로 부친 역시 숙종 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다. 이들 장동 김씨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명문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김창업은 형인 김창집과 김창협이 관료로 나아가자 동교의 송계(松溪: 현재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농장을 만들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숙종 사후 그의 형인 김창집이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으로 신임옥사에 연루되어 사사되자 소론 측에서는 장동 김씨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창업이 숙종 대 조성한 동교의 별서에 대하여 문제 삼았다. 한성부는 김창업이 그의 형인 김창집의 위세를 빌미로 동교 밖에 별서를 짓고, 전리(箭里)의 열무장(閱武場)과 청량산의 금표 지역을 점유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창업의 별서 점유에는 정치적인 공세가 내포되어 있지만, 당시 장동 김씨가 동교의 별서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여러 문인들과 교류한 사실은 분명하다.⁸⁵ 그만큼 도성에서 가까운 성북천 일대가 별서 즉, 별장의 입지로써 사대부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영조 대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의 남편인 월성위 김한신(金漢薰, 1720~1758)도 동교의 정안동에 별서를 지었다.⁸⁶

그렇다면 성북천변에 어떤 인물들이 별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중 재상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4 『경종실록』 권10, 경종 2년 11월 11일(임진).

85 구본현, 「老稼齋 金昌業의 東庄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14, 2008, 149쪽.

86 『영조실록』 권65, 영조 23년 7월 14일(임인).

표 4 17~18세기 성북천변 별서를 소유했던 재상가

동명	별서 소유자
전농리	김수항, 유척기, 조현명, 이천보
안암리	이유, 김재로, 홍봉한, 이은, 한익모, 김상철, 김종수
청량리	이창의
제기리	이단하
종암리	김상복
고암리	최석정, 오탈주

〈표 4〉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숙종~정조 대 전농리, 안암리, 청량리, 제기리, 종암리, 고암리 등 6개 동리에 별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성북천변에 별서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총 16명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재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료에서는 〈표 4〉와 같은 인물들이 확인된다. 그 인물들을 보면 김수항, 최석정, 유척기, 이유, 김재로, 홍봉한, 김상철, 한익모, 김종수 등 숙종, 경종, 영조, 정조 대 정승들의 이름이 보인다. 특히 이들은 성북천변 중에서도 안암리와 전농리 일대에 별서를 가지고 있었다.

성북천변의 사점은 비단 궁방과 각사, 사대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 백성들 역시 이곳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벌목이 금지된 성북천변의 금산에서 소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다. 1665년(효종 6) 동도(東道) 감역관(監役官)의 보고에 따르면 제기리 사람들이 소나무 두 바리짐을 싣고 가다가 산적에게 발각되었고, 1669년(효종 10)에는 영리정상암(永離亭裳巖), 안암삼성당(安巖三城堂) 일대의 소나무를 작별하고, 소나무껍질을 벗겨가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었다.⁸⁷

심지어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무덤을 금산에 투장하기도 했다. 『수교집록(受敎輯錄)』에 따르면 ‘성저십리 내에서 무덤을 쓰는 일은 일체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⁸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의 입장(入葬)은 비밀비재하였고, 일부 중인층들은 조상들을 판서나 참판으로 증직시키고 분묘를 쓰기도 했다.⁸⁹ 1700년(숙종 26) 한성부는 법전의 도성에서 10리를 한계로 표식을 세워 입장을 철저히 막겠다

⁸⁷ 『승정원일기』 136책, 효종 6년 7월 22일(갑진); 156책, 효종 10년 4월 8일(무술).

⁸⁸ 『수교집록』 형전(刑典) 금제(禁制).

⁸⁹ 『영조실록』 권37, 영조 10년 1월 15일(임진).

고 천명했지만,⁹⁰ 이후 이곳으로 몰려드는 일반 백성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17세기 이후 성저십리는 개간과 입장이 계속되었지만, 18세기 초까지 심각한 양상은 아니었다. 한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도성 10리 내에 사산금표를 정하고, 금표 지역의 개간을 엄단했기 때문이었다. 1732(영조 8) 안암동에 별서를 가지고 있던 김재로(金在魯, 1682~1759)가 ‘동교는 여염집이 매우 드물다’라는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⁹¹ 그러나 1746년(영조 22) 만리현과 서빙고 등지의 여러 산이 개간되었고, 1758년(영조 34)에는 권농정책의 시범 구역이었던 잠실도 개간되어 농지나 마을로 변해 갔다. 또한 성북의 둔전 및 외남산의 금산도 대거 개간되었으며, 탕춘대 남쪽의 산허리도 18세기 후반에 개간되었다.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민들이 몰래 토지를 개간하여 이미 십수 년간 경작하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어려웠다.⁹²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 성북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성저십리에는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상을 감지하고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그의 저서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양주, 고양 등 성저십리에 포함된 땅을 모두 전부 한성부에 포함하여 민호와 전세를 한성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⁹³

성저십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성부의 행정구역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 5부 49방체계는 17세기 중엽까지 유지되었지만, 18세기 중엽에는 43방으로 줄어들었다. 방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부의 용산방과 서강방, 남부의 둔지방, 두모방, 한강방 등 이전에 없었던 방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이들 용산, 서강, 둔지, 두모포, 한강 등은 한강변에 있던 성저십리 영역이었다. 수로 교통의 발달과 상업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서부와 남부에 5개의 방이 신설된 것이었다.

성북천이 있던 동부도 마찬가지였다. 동부는 조선 전기 12개의 방이 있었으나, 18세기 중엽 송교방, 창선방, 건덕방, 연화방, 송신방, 인창방 등 6개의 방으로 줄어들었다. 1788년(정조 12)에는 경모궁방이 신설되어 18세기 후반 이후 7개의 방으로

⁹⁰ 『승정원일기』 392책, 숙종 26년 7월 25일(병진).

⁹¹ 『승정원일기』 755책, 영조 9년 1월 30일(임자).

⁹²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57~158쪽.

⁹³ 양보경,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 1994, 51~53쪽.

운영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방의 변화뿐 아니라 종래 계는 있으나 방에 소속되지 않은 ‘유계무방(有契無坊)’, 방은 있으나 그 밑에 계가 없는 ‘유방무계(有坊無契)’ 등의 행정구역이 정리되었다는 것이다.⁹⁴ 성북천변의 마을의 경우 ‘유계무방’인 곳이 많았으나, 1788년(정조 12)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모두 송인방과 인창방으로 소속되었다.

18세기 후반 송신방과 인창방에는 각각 11개의 계가 소속되어 있었다. 송신방에는 송신동계, 신설계, 종암리계, 벌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안암동계, 능동계, 사하리계, 어창계, 우이계, 인창방에는 인창동계, 왕십리1계, 왕십리2계, 사계, 청량리계, 답십리계, 제기리계, 장위리계, 중랑포계, 전농리계, 마장리계가 있었다. 즉, 성북천변이라고 할 수 있는 종암리, 안암동, 신설동, 송신동, 창동, 청량리, 제기리, 마장동, 전농동이 모두 송신방과 인창방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농리계의 경우 양주의 경내로 인식되고 있었으나,⁹⁵ 1788년(정조 12) 조치로 인해 인창방으로 편입되었다.

표 5 18세기 후반 한성부 동부의 방계 편제

방명	계명	계수
연화방	종묘동계, 분육계, 종로계, 김중계, 연지동계, 연1계, 연2계, 연3계, 천변계, 북이계	10
경모궁방	1계, 2계	2
송교방	성균관계	1
건덕방	건덕방계, 어의동계	2
창선방	창선방계, 창선동1계, 창선동2계, 동학동계, 동학동내계, 소천변계	6
송신방	송신동계, 신설계, 종암리계, 벌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안암동계, 능동계, 사아리계, 어창계, 우이계	11
인창방	인창동계, 왕십리1계, 왕십리2계, 사계, 청량리계, 답십리계, 제기리계, 장위리계, 중랑포계, 전농리계, 마장리계	11

출처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342쪽 <표 7-5> 재인용.

〈표 5〉에서 보이듯이 방별 계의 구성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계가 한성부 등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구획에 의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직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는 주민 집단의 형성에 따라 시기마다 방역(坊役)을 응역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⁹⁴ 양보경, 앞의 글(1994), 56~57쪽.

⁹⁵ 『승정원일기』 1087책, 영조 28년 10월 15일(임인); 1118책, 영조 31년 4월 6일(기유).

따라서 계는 방의 응역기구로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 창설되기도 했고, 응역자가 줄어들면 소멸되기도 했다. 1788년(정조 12)의 338계가 19세기 초 332계로 줄어들었다가 1866년(고종 3) 340계로 다시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계는 동일한 직업과 직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동질의 주민 집단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를 창설하기가 용이하였다. 주거 지역의 동일성이라는 요소는 계를 5부-방-계로 체계화된 한성부의 행정 단위로 기능하게 하였다.⁹⁶

⁹⁶ 고동환, 앞의 책(2007), 346~351쪽.

3 성북천 거주민의 국역 부담과 그 실상

조선 후기부터 성북천변의 백성들은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있었다. 기본 식량인 쌀과 콩 등의 곡물은 지방에서 운반되어 오는 세곡과 지주들의 농장에서 거둔 지대로 충당되었으나, 채소와 과일은 원거리 운송이 불편하여 대개 도성 근교에서 조달되었다. 또한 음식 조리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땔감도 근교에서 조달되었다. 북악산 구준봉에서부터 청계천과 중랑천에 이르기까지의 성북천변에서는 채소와 과일, 땔감 등을 마련하기 용이하였다.

그중 성북천변의 상류와 하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따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 1696년(숙종 22) 이조판서 박태상(朴泰尙, 1636~1696)의 발언은 성북천변 백성의 삶을 잘 보여준다.

왕십리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채소를 팔아 살아가고, 동교東郊의 백성들은 땔감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년의 기근이 매우 혹심하여 채소를 전혀 수확할 수 없어서 근처의 말라죽은 나무를 팔았더니 땔감의 값이 매우 낮아져 이 무리들의 생업이 모두 끊어져서 연명할 수 없었습니다.⁹⁷

그의 말에 따르면 왕십리의 백성은 채소를 팔아서, 동교의 백성들은 땔감을 팔아서 각각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 이때 동교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⁹⁷ 『승정원일기』 363책, 숙종 22년 2월 14일(경자).

없지만, 땔감을 구해야 하는 사실을 보면 성북동 일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왕십리는 성북천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청계천과 중랑천을 끼고 있는 충적평야지대인 만큼 성북천 하류의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중 성북천변의 상류, 즉 지금의 성북동과 돈암동 일대의 백성들은 땔감과 과일 판매로 생업을 유지하였다. 18세기의 저명한 학자인 성호 이익(李瀾, 1681~1763)이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경기는 토지가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동북지역에는 배·밤·뽕나무·숯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⁹⁸ 즉, 이 지역에 산지가 있었던 만큼 도성에서 필요한 배와 밤 등의 과일, 뽕나무와 숯 등의 땔감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왕실과 중앙각사 등 도성 내 공적인 부문에 필요한 땔감은 기인(其人)이라는 공인, 도성 인근에 설정된 시장(柴場), 용산, 한강, 두모포 등의 한강변에 위치한 시목전(柴木廛)을 통해 조달되었지만,⁹⁹ 도성 내 관료와 백성들이 쓸 땔감은 도성 인근의 땔감 상인을 통해 공급받았다.

땔감과 함께 배와 밤 등의 과일도 성북천 상류에서 생산되었다. 성북동 골짜기에는 복숭아, 앵두 등의 과일이 생산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이를 재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한경지략』에 따르면, 이곳에는 맑은 계곡과 높은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이름도 홍도동, 도화동, 복사동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성북동 복숭아꽃 꽃구경은 ‘한양십경’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길음동의 큰 돌산 앞에는 앵두나무, 배나무가 많아 앵두나물골, 또는 뱃골(梨洞)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장원서가 사점한 울진 때문에 이곳에서는 밤도 많이 재배되었다.¹⁰⁰

이와 달리 특히 성북천 하류 또는 중랑천 합류 지점인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중화동, 묵동 지역은 비교적 넓은 평야를 갖춘 비옥한 지대로서 농경에 적합하였다. 도성 안에도 집집마다 텃밭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무, 배추, 파, 마늘, 미나리 등의 채소는 거의 성저십리에서 공급되었다. 특히 지형조건이 개천에 인접하면서 평평한 저습지에서는 채소의 재배가 용이하였다. 연희동의 배추

⁹⁸ 『성호사설』 권8, 인사문(人事文) 생재(生財).

⁹⁹ 최주희, 「17~18세기 왕실·정부의 연료 소비 증대와 땔감 조달 방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94, 2014; 여민주, 「조선후기 서울의 땔감 유통」, 『서울과 역사』 106, 2020; 여민주, 「조선시대 중앙관사의 연료 조달 방법과 변화 양상」, 『역사와 경계』 122, 2022.

¹⁰⁰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1994, 225~226쪽.

밭, 영은문 주변의 무밭, 왕십리의 배추밭, 양재역의 호박밭, 제기동의 토란밭, 청파동의 미나리밭은 당시 이름난 채전(菜田)이었다. 그중에서도 제기동, 용두동, 중화동의 저습 지대는 미나리, 배추 등 채소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조선 후기 문인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도성안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이 동부지역의 채소와 칠패(七牌)의 생선이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동부, 즉 성북천변의 채전은 당시 상당히 유명했다고 볼 수 있다.¹⁰¹

그런데 성북천변의 채전이 조선 후기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왕실의 식단에 매일 제공된 채소밭으로서의 채전은 조선 전기부터 조선왕조가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 채전을 운영하던 부서는 침장고(沈藏庫)였으나, 1466년(세조 12)부터는 사포서(司圃署)로 개칭하였다. 사포서의 채전은 동교와 서교를 비롯하여 개성, 풍덕 등지에 존재했는데, 중앙에서는 사포 1원과 별제 6원을 두고 이 채전을 관할하도록 하였다.¹⁰² 그중 동교의 채전은 안암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었다.¹⁰³ 따라서 안암동에 거주하던 백성은 사포서의 채전을 경작하고, 이를 납부하는 국역(國役)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 성북지역의 다른 마을과 달리 안암동(安巖洞)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이유는 국역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65년(고종 2) 사포서가 낭청을 파견하여 동부, 서부, 남부 등지에 산재한 채전의 경계를 정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북천변에 있었던 사포서의 채전은 한말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⁴

한편 성북천 하류 또는 중랑천 합류 지역의 백성들은 동적전 경영이라는 국역을 부담해야 했다. 국초부터 동적전이 설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의 백성들이 동적전의 농사를 담당하고 있었음은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전기는 자료의 한계상 구체적인 동적전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동적전식례(東籍田式例)』라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조선 후기 동적전이 어떤 형태로 경작되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3, 105}

¹⁰¹ 최완기, 앞의 책(1994), 143~160쪽.

¹⁰² 『승정원일기』 355책, 숙종 20년 1월 15일(계축).

¹⁰³ 『단종실록』 권14, 단종 3년 윤6월 6일(경술).

¹⁰⁴ 『승정원일기』 2690책, 고종 2년 윤5월 12일(을해).

¹⁰⁵ 이하 동적전의 운영 실상은 박범, 「동적전의 운영구조와 『동적전식례』의 자료적 가치」, 『소강유물자료집 9 - 동적전식례』, 서울역사박물관, 2018에서 발췌·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3 『동적전식례』, 1793년 이후, 33.8 × 20.8cm

동적전은 제기동에 있었고, 이곳에는 동적전을 관리하기 위한 공해(公廨)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청인 필분각(苾芬閣)을 비롯하여 적전의 수확물을 보관하는 자성고(棗盛庫), 적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환곡을 보관하는 환자고(還上庫), 동적전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사고(私庫), 동적전 관원들이 묵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방(上房), 고직방(庫直房), 서원장방(書員長房) 등이 대표적이다. 적전 운영은 본래 봉상시의 관할 업무였는데, 동적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도서 밖에 공해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분봉상시(分奉堂寺)라고 불렀다.

동적전의 전답은 기본적으로 위전(位田)이다. 위전은 국역을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한 수조권(收租權)으로, 봉상시는 위전인 동적전에서 거둔 소출로 제향을 지내는데 필요한 물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동적전 경작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동적전이 선농단이 있었던 제기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국왕이 직접 친경하는 친경전(親耕田)과 친경답(親耕畓)은 제기동에 있었다. 그러나 동적전은 제기동 외에도 전농동, 동소동, 청량원, 답십리, 고암원, 동산원 등 29곳에 설정되어 있었다. 동적전이 분포한 29곳을 보면 제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등 성북천, 청계천, 중랑천 일대에 자리했다. 즉, 국왕이 직접 농사의 모범을

보이는 친경례는 제기동의 친경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국가제례에 필요한 제수 품은 제기동 인근의 성북천, 중랑천 일대에 있는 동적전에서 조달했던 것이다.

성북천과 중랑천 일대에 분포한 동적전의 경작지는 다름 아닌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적전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서 10결당 부(夫) 1명을 내어 3명의 농부가 적전 1결을 경작하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공부(貢賦) 이외에 잡다한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경작이 여의치 않자 결국 봉상시 노비를 경작에 투입하여 적전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조선 후기에 들어서 50호를 정하여 경작하였다.

50호가 개성에 있는 서적전과 제기동에 있는 동적전을 경작하는 모든 호수의 합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적전식례』에는 동적전 부근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5호를 모민(募民)으로 정하고 한성부에 보고하여 잡역을 면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적전의 모민들은 각 호당 논 10마지기와 밭 반일경(半日耕: 소가 만나질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지급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살았다. 혹 모민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지거나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로 채워서 동적전의 전답을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적전 전답의 수확과 세금 납부를 위한 관리자는 모민 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매년 가을 봉상시의 관료들이 모민 중에서 부지런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골라 차출하였다. 관리자로는 수작자(首作者) 1명, 소임(所任) 3명, 고지기 1명 등이 있었다. 수작자는 친경전의 경작을 오롯이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동적전의 전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는 친경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농사를 잘 짓는 1인을 선발하여 명칭도 수작자라고 붙였다. 소임은 동적전 전답의 농사 작황을 감독하고 신척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고지기는 수확해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전수(典守)하는 임무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급료 명목으로 부역전(赴役田) 16일경 중에서 수작자에게 1일경, 3명의 소임에게 각각 1일경, 고지기에게 1일경을 주어 면세하고 경작하여 먹고 살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성북천변 인근 동적전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국역을 이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성북천변의 사람들은 국왕의 행행(行幸)에 따른 도로와 교량을 닦는 국역도 수행하였다. 행행은 종묘의 제사, 능행(陵幸), 원행(園幸), 열무(閱武), 강무(講武),

사냥 등을 거행하기 위해 궁궐 밖을 나가는 의례를 지칭한다. 국왕이 궁궐과 도성을 비운다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볼 때 정치, 군사적으로 큰 사안이었지만, 유교적 통치 체제에서 국왕 그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음을 감안할 때 행행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대민통치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 후기 인조부터 정조까지 약 170년 동안 국왕이 궁궐 안팎으로 거동한 횃수는 2,169회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년 평균 약 12.7회에 이른다. 이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인조는 연평균 4.5회, 효종은 10.9회, 현종은 5.6회, 경종은 9.6회, 영조는 17.5회, 정조는 25.3회이다.¹⁰⁶ 시기가 내려올수록 행행의 횃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특히 성북천변은 왕릉에 행행하기 위한 능행로에 있었다. 능행은 현 국왕이 선왕들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으로 조선왕조 내내 행하던 의식이었다. 태조의 왕릉인 건원릉이 조성된 이후 도성을 기준으로 100리 이내에는 여러 능이 조성되었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양주, 광주, 고양, 김포, 수원, 여주, 영월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도성의 동북쪽에는 건원릉을 비롯하여 현릉[문종], 광릉[세조], 강릉[명종], 목릉[선조], 송릉[현종], 원릉[영조], 경릉[헌종] 등 일명 동구릉과 양주와 같은 능행 방향에는 정릉[신덕왕후 강씨]과 의릉[경종]이 있었다. 즉, 국왕만을 기준으로 볼 때 27개의 왕릉 중 1/3에 해당하는 9개의 능이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도성 동북쪽에 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인조 대 이후 철종 때까지 국왕의 능행 횃수는 총 313차례이다. 그중 동북쪽에 있는 9개의 능에 행차한 횃수는 무려 174회이다.¹⁰⁷ 이는 능행으로만 평균 3년에 2번 동북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행의 노정, 즉 능행로는 능의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표 6>과 같다.¹⁰⁸

표 6 서울 동북지역 소재 왕릉의 능행로

돈녕부 앞길 → 파자전 석교 → 종묘 앞길 → 판전 앞길 → 연지 석교 → 어의동 앞길 → 동교 → 흥인문 → 양산수 석교 → 동관왕묘 뒷길 → 보제원 앞길 → 송방천(안암천?) → 제기현 → 종암 앞길 → 사하리 → 대원천 → 냉천 → 우장현 → 독산우 → 의릉 앞길 → 소송계 → 대송계 → 묘동 → 주정소 → 신방축천 → 태릉 화소외 → 사고개 앞길 → 망우리현 → 여석현 → 인근리 → 불고개 → 독음삼거리 → 능동구 → 능소

¹⁰⁶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동길」, 『서울학연구』 30, 2008, 36~37쪽.

¹⁰⁷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140~141쪽의 [표 III-1] 참조.

¹⁰⁸ 김지영, 위의 글(2008), 49~50쪽.

위 행로에서 성북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보제원 앞길~사하리까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의 제기동에서 정릉동까지의 길로 성북천변 지척에 있는 마을에 해당한다. 능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능행로의 정비, 수치역(修治役)이 필수적이었다. 능행로의 정비는 도성 내외를 막론하고 이루어졌지만, 도성 밖의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도성 안은 종묘와 사직, 문묘, 사묘 등의 행행이 자주 거행되어서 대규모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도성을 벗어나는 능행은 통상 30리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수치가 필요하였다. 행차가 농경지나 산림, 하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¹⁰⁹

능행로의 정비에 동원된 백성들은 인근 30리 이내의 거주민이었다. 능행로의 정비는 국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넓이를 감안하여 정해졌는데, 교외와 성내의 도로가 다르기는 했지만, 통상 좌우 30보의 넓이를 만들어야 했다. 이는 그만큼 성북천변 거주민의 도로수치역의 부담이 컸던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 능행을 비롯한 국왕의 행행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교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 마련 방식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능행 시에는 『도로마련등록(道路磨鍊騰錄)』이라는 책자가 작성되어 능행로를 닦는 일을 계획했지만, 이 또한 항구적인 정식에 의해 마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25년(순조 25) 호조판서 정만석의 발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능원(陵園)에 행행할 때 동·서·남 등 삼도(三道)의 교량은 으레 목물(木物)로 깔았는데, 다만 규제(規制)가 정해지지 않아 수용이 한정이 없고, 대소목물(大小木物)을 많이 수송함에 간소한 속임수가 거듭 생겨나서 공비(公費)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비록 운송하는 값으로 말하더라도 예전에 100여 석이 지금은 700~800석에 이르니 이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더할 것이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삼도(三道)에 있는 교량은 모두 일일이 조사한 후 들어가는 재목과 간소한 짓을 막는 조건(條件)을 만들어 내어 영구히 준행하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¹¹⁰

¹⁰⁹ 이왕무, 앞의 책(2016), 237쪽.

¹¹⁰ 『승정원일기』 2193책, 순조 25년 7월 25일(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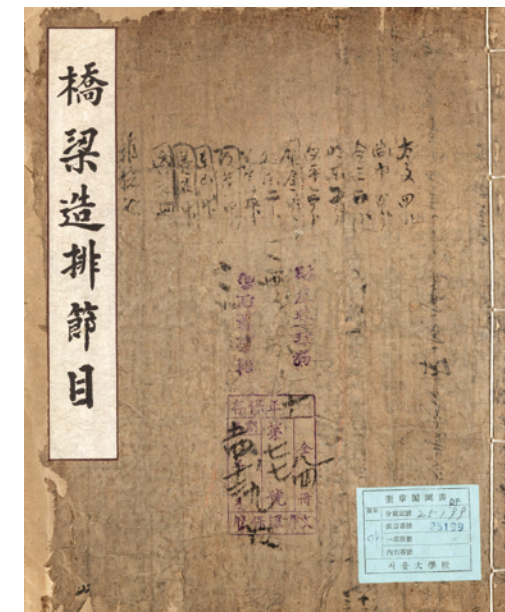


그림 4 『교량조배절목』, 조선 후기, 34.5 × 2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의 말에 따르면 왕릉과 원에 행차할 때 동도, 서도, 남도 등에 있는 교량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점차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는 30년 전 원행 시 교량을 만들 때 목재의 운반비가 100석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700석, 올해는 800석으로 점차 늘어났다면 능행에 따른 교량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¹¹ 이에 따라 도성의 동도, 서도, 남도 등의 능행로에 대한 교량 수치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량조배절목(橋梁造排節目)』이다.^{그림4}

이 절목은 총 20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성 내외의 각 교량의 규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목재의 수와 교량을 만드는 방식을 정해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사용할 재목을 마련하여 정한 후 낙인을 찍고, 옛 수어청에 보관하고, ‘교량목물고(橋梁木物庫)’라 칭할 것, ② 재목의 폭은 40척을 기준으로 하되 지형에 따라 조절할 것, ③ 교량마다 정(井)을 설치하되 물살에 따라 조절할 것, ④ 다리 위에 까는 초과자(草把子)는 1면에 4부를 까는 것을 정례로 할 것, ⑤ 교량의 목재를 운반가를 지급하는 도성 바깥의 교량의 리수는 20리에서 15리로 정할 것, ⑥ 여러 교량의 명

¹¹¹ 『교량조배절목』, 범례.

청, 길이, 폭의 척수, 축대의 정수, 목물의 수효를 정례를 갖추어 보관할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동도능행시(東道陵行時), 동도원행시(東道園行時), 서도능행시(西道陵行時), 남도능행시(南道陵行時) 등 네 영역, 이를 다시 내교량(內橋梁)과 외교량(外橋梁)으로 각각 구분하여 교량별 규격과 필요한 목재의 수량을 적어두었다. 예를 들면 안암천교의 경우 길이 그 교량 규모는 60척, 너비가 45척이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정은 5정으로 총 소요되는 후정 목재는 240립이고, 보관은 200립이었다.¹¹²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량 정비라는 국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다. 이 절목에서는 선공감(繕工監)과 군계(軍契)를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선공감은 도성의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상설아문이고, 군계는 선공감에 소속된 공인으로 특정한 역에 일꾼을 대어 주는, 즉 순수하게 노동력 조달을 목표로 형성된 공계로 영선군계로 불리기도 했다. 영선군계가 언제 창설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741년(영조 17) 즈음으로 보인다.¹¹³

영선군계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부문에 막대한 고군(雇軍)을 조달해 주었는데, 이 고군은 확실히 않지만 주로 그 공사가 있는 지역의 거주민들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북천에서 국가적 토목공사가 있을 경우 성북천변 백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실제 영선군계에 소속된 고군들은 북방(卜房)이라는 집꾼 노동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동대문과 수구문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양주와 광주 의 행상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일대 지역의 백성들이 영선군계의 고군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왕의 행행에 따른 국역은 성북천변의 백성, 나아가 성저십리 백성들에게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입역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능행을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이용하는가 하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받으려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¹¹⁴ 즉, 도성 내외 백성들이 국역에 응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상업이나 물류 유통에 대한 이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¹¹² 『교량조배절목』 실입. “安巖川橋 長陸拾尺 廣肆拾尺 伍井每井枕次厚正捌立 排次厚正補板各肆拾立 合厚正 貳百肆拾立補板貳百立.”

¹¹³ 김미성, 「18~19세기 노동력 조달 전문 군계공인(軍契貢人)의 형성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310쪽.

¹¹⁴ 이왕무, 앞의 책(2016), 235~239쪽.

1766년(영조 42) 어영청의 둔전 설치에 국역 부담에 대한 보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성북천변에 어영청의 둔전이 설치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때 홍봉한은 직접 성북동에 행차하여 백성들을 둔전에 안집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홍봉한은 종래 포백계가 담당하던 무명, 베, 모시 등 세 가지 물건의 포백 이권을 성북동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768년(영조 44)에는 다시 성북동에 훈조막(熏造幕)을 설치하고, 북한산성의 연용대에 있는 훈조 전문가 한 명을 성북동으로 보내 거주민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즉, 홍봉한은 어영청 둔전 경작이라는 국역과 도로 정비라는 국역에 대한 대가로 성북동 거주민을 공계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 계가 ‘포백훈조계’이다.

포백(曝白)은 직물의 가공 과정에서 직조된 그대로의 직물을 흰색 직물로 만드는 과정에 해당된다. 즉, 옷감인 직물을 삶거나 빨고 표백하는 일을 포백이라고 하는데, 일명 마전으로도 불린다. 훈조(熏造)는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원래 잡곡전이라는 시전의 물종이었으며, 왕실에서 쓰는 훈조는 사도시와 내자시의 공인들이 담당하였다.¹¹⁵ 포백과 훈조를 담당하는 사람들, 즉 포백계와 훈조계는 18세기 전만 서울 도성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포백계는 남부에 사는 거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훈조는 북한산성의 탕춘대와 연용대, 남대문 밖 청파(靑坡) 지역에 훈조막이 있었음으로 보아 이곳에서 메주를 만들었던 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북동 일대의 백성들도 이러한 포백계, 훈조계 등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1747년(영조 23) 영조가 탕춘대에 거둥했을 때 이 지역의 백성들은 포백, 훈조, 창미(倉米) 등 3가지 일을 자신들이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역에 계가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탕춘대 백성의 민원은 수렴되지 못했다.¹¹⁶ 하지만 성북구 거주민은 어영청 둔전이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결국 포백계와 훈조계의 권리를 받아냈던 것이다.

성북동 포백훈조계의 설치와 연혁, 그리고 공계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 曝白熏造契完文節目)』에 수록되어 있다.^{그림 5-1}

¹¹⁵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270쪽.

¹¹⁶ 김미성, 「18~19세기 직물 가공업자의 공인화(貢人化)와 직물 시전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9, 2018, 343~344쪽; 김미성, 「조선 후기 貢契의 등장과 도고상업: 折草塵·熏造契·靑藍契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8쪽.



그림 5-1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1805년, 44.0 × 27.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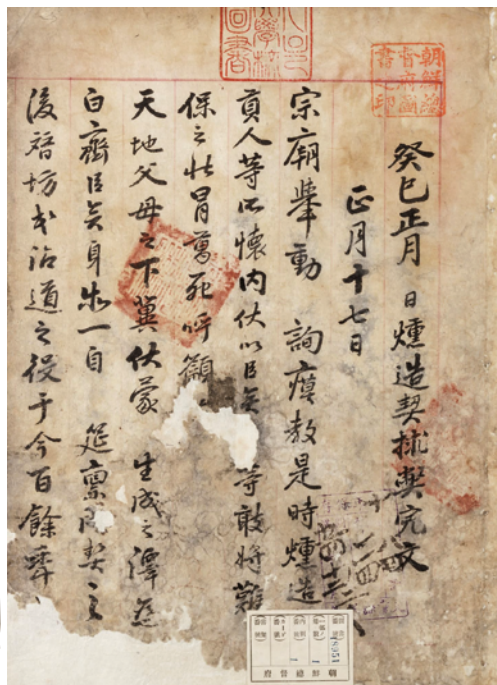


그림 5-2 『훈조계구폐완문』, 연도 미상, 43.0 × 3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표 7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중 절목 내용

1. 무명, 베, 모시 등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개성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 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시전(市廛)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2. 무명, 베, 모시를 포백하는 사람의 고가(雇價)는 무명의 경우 매 동(同=50필)마다 4냥이고, 베는 6냥 5전이고, 모시는 10냥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 준 예에 따라 받되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3. 호조의 차장(遮帳)에 쓰는 포(布)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고, 고가는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白米) 20두를 지급한다.
4.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써 물건을 나르게 하고, 본 계(契)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5.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을 1소(所)로 만들어 두 개의 술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않는다.
6. 길을 닦을 때에는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괭이를 가지고 내계(內契)와 함께 응역한다.
7. 술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냥을 내계(內契)로 수송하여 도로를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 한다.
8.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고가(雇價)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9. 이자 없이 빌린 돈(無邊錢)은 본 훈조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성북천변인 성북동 백성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절목의 내용을 전재하면 <표 7>과 같다. 성북동에서 포백계와 훈조계가 설치된 시점은 1766년(영조 42)과 1768년(영조 44)이다. 따라서 이 절목에도 포백계와 훈조계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포백계에는 1~4조항이, 훈조계에는 5~9조항이 각각 해당된다.

먼저 포백계에 대해 살펴보면 성북동의 백성들이 담당하는 포백의 물종은 무명, 베, 모시 등이다. 절목을 통해서는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비변사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시전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납품에 필요한 짐말(卜馬)은 우선 어영청의 말을 빌려서 쓰도록 했다. 백성들은 포백하여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고가, 즉 인건비를 달리 받았는데 무명의 경우 1동(50필)당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이었다. 소재의 가격에 따라 포백의 가격도 비례하였다. 한편 이들은 시전에 납부하는 포백 이외에도 호조의 차장(햇빛 가림용 장막)도 포백하였다. 이 경우 호조의 규정에 따라 1동당 백미 20두를 받았다.

훈조계는 5명으로 1소를 조직하여 운영되었다. 훈조계에는 내계(內契), 외계(外契)가 있었는데, 이때 성북동계(城北洞契)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다.¹¹⁷ 훈조막 1소에는 2개의 술이 구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납품하였다. 이때 메주 1석당 고가는 6전이나, 실제로는 쌀 2두를 지급해 주었다. 훈조막에 있는 술에는 부세(釜稅)가 연간 35냥 부과되었고, 내계는 도로를 닦을 때 이 재원을 활용하였다. 내계는 훈조막에 있는 5명을 역군으로 징발하여 행행 시 도로를 닦았다. 한편 성북천 백성은 훈조계 설치 시 어영청으로부터 돈을 대부하여 출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성북동의 포백훈조계는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은 <표 7>의 4, 9조항이 1805년(순조 5) 절목을 재작성할 때 ‘짐말을 되돌려 주고 지금은 없다’, ‘이자는 다 갚고 지금은 없다’라는 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30년이 채 안 된 1833년(순조 33) 훈조계의 재정 상황은 그리 녹록치 못했다. 그것은 육상궁과 경우궁을 비롯한 궁방들이 훈조계를 침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훈조계는 순조가 종묘에 행행할 때 ‘자신들이 계를 만들고 치도지역

¹¹⁷ 『훈조계구폐완문』.

(治道之役), 즉 도로 정비라는 국역을 담당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근년 이래 여러 궁방이 매년 콩 수백석을 주고, 그 이상의 메주를 받아간다'고 하소연하였다. 이로 인해 훈조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다시 도로 정비의 미비로 이어졌다. 결국 비변사는 훈조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궁방의 침탈을 근절하고자, 내수사를 비롯한 18개의 궁방 책임자로부터 다짐을 받고 『훈조계구폐완문(薰造契糾弊完文)』^{그림 5-2}이라는 완문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훈조계는 국역에 응하면서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찾게 되었다.

요컨대, 조선 후기 성북천변 백성들은 국역으로 배정한 여러 역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조선 전기부터 내려오는 채소밭의 경작, 성북동 일대의 울원 등 과수

원에서의 과일 재배, 동적전에서 농지 경작 등이 대표적인 그들이 삶을 영위하던 방식들이었다. 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하여 성저십리에 늘어나는 인구는 도성의 행정체계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성북천변의 마을을 송인방과 인창방의 행정동리로 편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북천변 마을이 한성부의 정식 방-계로 편제되고, 이곳이 국왕 행행의 주요 경유지가 되면서 이들이 부담해야 할 국역은 더 늘어났다. 이러한 국역에 대한 보상으로 성북천변 백성은 직물의 포백이나 메주 판매 등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다.



범바위 어린이공원 부근의 성북천, 2017년, 박수진 촬영(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4



도성 방어와 어영청 둔토

이왕무(경기대학교)

1. 18세기 한양의 삼군영 배치와 성북의 방어 체계 130

2. 어영청의 성북 지역 주둔과 군사 시설 150

3. 성북 지역 어영청 둔토의 운영과 변천 162

☆ 18세기 한양의 삼군영 배치와 성북의 방어 체계

1. 한양도성의 군사 체제

한양도성의 수사적 해설은 조선 왕조 수도의 성(castle)이라는 의미이다. 한양도성은 왕조의 권력과 중앙의 군사력이 결합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산물이며, 군사적 기능과 왕조 통치의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성곽이 군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도성 안팎 사람들에게 왕조의 통치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메타포로 작용한 것이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족이 거주함으로써 이미 통치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더욱 구체적인 시각화 수단으로 도성의 성곽과 문을 활용했다. 조선 왕조가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은 것을 도성의 문 이름에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정령의 출입이 일정한 동선에 따라 도성 내부와 외부로 전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통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 왕조에서 도성은 국가 수장인 국왕의 거처이자 정부 조직과 관료들의 거처와 활동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성은 왕실의 의례를 행하고 관료 및 학자들을 육성하는 행사들이 열리는 정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성이라는 단어에는 조선 왕조의 역대 정치 체제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왕조 국가의 전통과 기억은 대부분 궁궐과 도성에서 창조되고 전파된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시기에 북경이 수도로 지정되면서 화북과 만주, 몽골이 주요한 역사적 장소로 변화하였고, 일본에서는 동경이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며, 동북 지방이 일본의 주요 물산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양이 수도로 지정되면서 조선 왕조의 궁궐이 위치한 한양도성이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한양도성은 표면적으로는 왕조의 수도를 위해 세워진 군사 시설이었지만, 사실 외적과의 전투를 정식으로 치른 적은 없었다. 조선 왕조 시기에는 외적이 도성을 점령한 적은 있었지만, 한양도성의 군사적 기능이 문제가 되어 외적에게 함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도성이 전투를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왕조의 정체를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정체는 한양도성에 주재하는 국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권력이었으며, 한양도성은 왕조 국가의 중앙 집권 체제를 외부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었다. 따라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성벽 위에 배열된 전쟁용 성곽과 같은 전투 용도를 넘어선 존재였다.

한양도성이 전쟁 이상의 목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는, 전형적인 왕조 국가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성을 정치적 중심지로 설정한 결과물이었다. 왕과 지배 세력은 왕조 국가의 전 지역을 이동하며 통치하는 대신에 지방에서 인재들을 중앙에 모아 정치적인 힘을 집중시킨 중심체였다. 한양도성은 임시적인 군사 시설이나 외적 방어를 위해 지어진 ‘벽’으로서 기능하면서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건축물들의 배열이 있었다. 도성의 중심부에는 국왕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궐, 행정 관서와 관료들의 거주지,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과 상인들의 주택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한양도성은 중앙집권 정치 체제의 핵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특징은 도성 내부에 자리한 관서의 배치에 잘 나타난다. 종묘와 사직 같은 동북아시아 왕조의 상징적인 건물들은 국가의 표상이기도 했다. 조선 왕조의 통치 시기에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궁궐보다도 종묘와 사직을 먼저 보호하고 관리했다. 종묘와 사직은 한양도성에 존재하는 공간이었고, 국왕만이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주관하는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국왕을 출발로 하여 종묘와 사직, 그리고 한양도성까지 이어지는 동심원적인 정체성의 형상이 한양도성에 담겨 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건국 시조부터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곳으로, 왕실의 개인적인 사당이 아닌 국가에서 경외하고 제사를 지내는 판테온과 같은 공간이었다. 종묘가 잘 보존되어야 선대 국왕들이 왕토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종묘의 제사는 왕족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주요 참석자로 참여하여 국가 제사로서의 공적인 기능을 보여 주었다.

사직은 농업 국가의 토대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천지자연의 주재자를 모시는 국가 제사의 기능을 나타낸다. 국왕이 거주하던 궁궐은 왕조 정치 체제의 핵심이었다. 궁궐은 국가의 정령이 반포되는 곳이자 현재의 국왕만이 아니라 후대의 왕손이 탄생하고 생활하는 왕조 국가의 온상이었다. 사직은 자연의 주재자가 머무는 곳이며, 종묘는 왕조의 선대 조상이 있는 곳이고, 현재 왕토를 통치하는 국왕이 있는 곳은 궁궐이다. 따라서 한양도성은 왕조 국가의 정치 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와 사직, 그리고 궁궐을 외부에서 상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한양도성은 궁궐, 종묘, 사직, 정부 조직 등의 건축물과 국왕, 왕족, 관료 등의 인물들에 대한 정치적 집결체를 외부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행위의 연관이 도성의 잠재력을 높여주었다. 도성은 왕조 국가의 주재자인 국왕이 거주하는 궁궐을 중심으로 종묘, 사직, 그리고 정부 관서 등의 건축물을 위해 존재하며, 왕조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인 수도, 국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한양도성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정부 관서가 한성부였다. 한성부는 현재의 시청(Cityhall)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한양도성의 또 다른 명칭인 ‘한성’이라는 용어의 배경이 되었다.

한양도성의 행정 조직이자 운영 기구인 한성부는 국가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도성의 중심적인 정치와 행정 조직이었다. 한성부는 왕조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한양도성의 지리적 경계와 범위를 구분했다. 한양도성은 성곽에 일정한 공간에 물리적인 시설이 배열되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는 도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과도 연계되었다. 한양도성은 남쪽과 서쪽으로 한강 연변까지, 북쪽으로 북한산까지, 동쪽으로 중랑천까지를 외부 지역으로 구분했다. 왕조 시기에는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성저십리’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도성 밖으로 4킬로미터 단위 지역까지 도성의 관할 구역이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도 유사시에는 한양도성의 안위에 관여하는 대상임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한양도성에 왕실과 왕조 정부 조직이 위치한 것은 국가의 정치 체제의 중심을 보여준다. 왕조의 지배 권력은 왕실, 궁궐, 정부, 도성, 성곽으로 연결되

는 동심원 구조의 다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500여 년 동안 존재한 한양도성은 성곽이라는 군사적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고, 왕조의 중앙집권 체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현재의 관점에서만 한양도성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성곽과 방어 시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왕조 사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도성은 왕궁과 정부 관서들이 내외를 연결하는 동선상에 있어서 왕조의 정치 체제가 상징적으로 작용하는 기념물임을 알 수 있다.

한양도성의 18세기 모습은 군영이 다수 배치되어 군사도시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1700년대에는 한양도성이 군민(軍民)이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군사 방어 체계로 전환되었다.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수도의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이는 군사 도시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한양도성은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교외 지역의 군사 시설과 자연 지형만을 고려해도 충분한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도성을 살펴보면, 북쪽에는 임진강과 북한산성, 남쪽에는 한강과 남한산성, 서쪽에는 강화도와 서해, 동쪽에는 북한강과 중랑천 등 자연 지형과 인공 구조물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요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 시설은 왕대별 정치적 사안에 따라 조성된 것이나 군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조성되었던 결과였다. 임진강은 국초부터 개경과 한양 사이의 경계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수도 방어의 최북단 거점으로 기능했다. 북한산성은 한양도성의 확장된 성곽으로, 유사시 도성민들의 보장처였다. 한강은 도성의 남쪽을 가로막는 대형 방어선이었고, 남한산성은 남한강과 여주대로를 지키내는 도성의 보호구역이었다. 강화도는 한강 수로를 통해 도성과 남한산성을 연결하는 보장처였다.¹

2. 도성의 방어 수단

한양도성은 수도 방어에 중점을 둔 도성으로, 공격적인 군사 전술을 고려하여 조성된 성곽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의 도성은 유럽, 중국, 일본의 성곽과는 다르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성의 요새 기능을 상대적으로 갖추지 않았다. 조선 전기

¹ 『승정원일기』 416책, 숙종 30년 1월 29일(기사).

에 왜구와 여진을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화포나 대형 무기들이 배치될 수 있는 돈대와 포루, 그리고 군사 지휘를 위한 장수의 업무 공간은 성벽에 없었고, 대문의 누각 위에 전망할 수 있는 공간만이 있었다. 한양도성은 왕조의 신민들을 공격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조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건축물이었다. 동시에 도성 내부의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왕조의 수도에 위치하는 궁궐과 신전들을 보호하는 도성의 기능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방향이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양도성은 일반적인 군사 기능 위주의 성곽이 아닌 왕조의 표상인 수도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양도성의 동북인 혜화문 좌우의 현전 하는성벽들을 보아도 왕조 수도 방어의 기본 바탕이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양도성의 주요한 방어 수단은 성벽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의 중심부를 사방으로 둘러싼 산악지대에 조성된 성벽은 평지로 통하는 대문을 제외하고는 공격자에게 큰 난관이 되었다. 한양도성의 방어는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성벽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악지대에서는 파괴될 수 없는 군사적 장애물이었다. 20세기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기계를 활용한 건축술을 도입하여 도성



그림 1 성북의 도성 성벽

을 훼손하기 이전에도 성벽이 존재한 상황을 보면, 한양도성의 주요 방어 수단이 성벽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양도성의 성벽은 오랜 시간 동안 왕조가 다양한 지역에서 효율적인 축성술을 도입하여 구축했기 때문에 인력으로만 돌파하기 어려운 구조물이었다. 동시에 도성의 대문에는 옹성과 치성이 설치되었으며, 문루가 없는 곳에는 누각을 올리고 수구문을 정비하여 방어 수단을 강화했다. 한양도성이 외관상으로 화기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들이 설비되지 않았음에도 유지하였던 군사사적 배경이다.

3. 방어 체제의 변천

한양도성은 전술상 방어적 형태를 추구했지만, 동시에 방어술의 개발과 수비군의 육성도 추진하였다. 한양도성의 성벽과 성문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이 일을 담당한 주체는 도성 내부에 주둔한 군병들이었다. 한양도성의 수비군은 왕조의 전 후기에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갖추었다. 전기에는 동대문 근처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도성의 수비군을 육성했다. 도성의 다른 지역보다 평지인 동대문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훈련과 방비에 집중했다. 동대문 근처에 있던 창덕궁에는 국왕과 왕족이 장기 거주하였는데, 이 역시 대규모 병력이 주둔한 배경이었다. 국왕은 군대의 사열과 훈련이 용이한 거리에 있었으며, 동대문 외부는 중랑천에 이르기까지 저지대로 형성되어 외적이 접근해도 방어할 지형이 없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는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방어하기에 필수적인 공간이었다.

왕조 후기에 도성 주둔군의 대표적인 군대는 군영(軍營)이었다. 군영은 1592년 왜군의 침략기에 설립되었다. 왕조 후기에 도성의 수비를 담당한 군영은 3개였다. 3개의 군영군은 도성 성곽의 실제적인 수호자면서 관리자였다. 도성에 주둔하던 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의 오군영이 대표적이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개 군영은 도성 내부에 주둔했다. 이들을 도성 삼군문이라고 통칭했다. 이외에 도성의 방어를 강화하던 남쪽 요해처인 남한산성을 전담하는 수어청, 북쪽 요해처인 북한산성을 전담하던 군영이 총융청이었다.

군영군은 소속 부대에 따라 도성 성곽의 담당 구역이 분할되어 지정되었다.

성벽의 성가퀴를 헤아려 파수하는 법, 성벽 위에서 연락하는 분수와 형명의 제도 등은 해당 군영에서 임의대로 주관하였다. 또한 성벽 위에 치(雉)와 포(鋪), 군화(軍火), 기계, 복병로 등의 군사 시설의 설치도 해당 군영에서 담당하였다. 도성 성벽의 방어 구역을 분할하여 해당 군영에서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군영군은 해당 구역 내에 가족과 장기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자연적으로 퇴락되거나 훼손된 성곽을 수시로 보수하고 유지하였다. 한양도성 성벽이 산악 지형을 위주로 축성하였으므로 계절 변화에 따라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성벽이 훼손되면 군영병이 임시로 경비를 서면서 무너진 체성과 여장을 보수하였다. 군영군은 도성 외부에서 석재를 운반하여 공사하였다. 군영군이 장기 주둔하며 수비하고 보수하던 도성의 성곽은 그들의 운명공동체였다. 영조 대 도성사수론이 정착된 배경에는 군영군의 장기 주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군영은 20세기 초까지 도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장기 주둔하던 대규모 군부대였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조선 왕조의 군영처럼 수도에 군부대가 동일한 장소에 장기적으로 주둔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군영의 군병은 도성 인근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독특한 군인 문화를 양산하는 집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도성에 장기 주둔하던 군병들이 기존 시장 질서를 변화시킬 정도의 상업 및 수공업 행위를 하여 왕조 후기의 도성 경제에 변화를 유발하였다. 삼군영이 위치하던 장소 인근에는 대형 시장이 상설되어 군병들의 생산 및 수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판매 물화는 군병의 급료였던 포목과 자체 제작의 모자 등에서부터 총포와 군복에 이르는 군기까지 취급할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또한 수천명의 군병과 그 가족들이 소비하는 물품도 도성 경제의 큰 부분이었다. 한양도성이라는 군사 시설물이 인간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도성 방어의 핵심

한양도성의 수비 체제를 담당한 것이 군영이기는 하였으나 왕조의 후기로 갈수록 실질적인 방어의 핵심에는 군영군과 함께 거주하던 부대 인근의 민인들도 포함되었다. 부대 인근의 민인들은 대부분 군영군의 가족이면서 도성민이었다. 도성 내부에 주둔하던 삼군영에서는 구역별로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민인들을 군영의 통제 조직에 포함시켜 주거와 생활을 지도하였다. 18세기의 국왕들이 도성민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며 수시로 성곽을 순시하면서 도성을 사수한다는 윤음을 반포하기도 한 것이 수도 방어에 대한 열의를 정착시킨 주된 배경이었다. 한성부 소속의 도성민은 군영에 소속되어 방어에 임하도록 했다. 영조 대 삼군영의 대표적 군부대인 훈련도감에 소속된 한성부 민호가 8,500여 호 이상이었으므로 수만 명의 민인이 군영에 소속되어 한양도성 관리에 동원되었다. 군영의 병사들과 가족, 도성의 일반인들이 향토방위의 차원에서 민방위 대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민인들의 조직적인 방어 참여와 함께 수도방어의 핵심은 국왕이었다. 국왕이 궁궐을 거점으로 도성의 사수를 주장한 것이다. 18세기 영조가 반포한 수성 설명서인 「수성절목(守城節目)」에는 도성 방어에 동원되는 인원의 범위가 한성부 소속 거주민의 대부분이었다. 노약자와 아녀자 등 집을 지키는 사람을 제외한 인원은 거주 구역별로 성곽의 방어를 담당하는 총동원체제였다. 특히 왕조 사회의 근간이었던 신분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하도록 한 수성 설명서였다.

동시에 왕조 후기로 가면서 한양도성은 정치 군사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상업과 유통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왕조의 기념비적인 구조물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산들이 한양도성에 집중되기 시작한 결과였다. 남대문과 동대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운집한 세금과 재화들은 도성 인근의 창고에 보관되었다. 국왕이 왕조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의 안위를 방치할 수는 없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왕조 국가 후기로 갈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서, 국왕이 왕조의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반포하고 도성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공동체적 안보 의식이 한양도성 방어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군사적인 정변 내지는 충돌보다는 문치적인 통치로 소통하면서 갈등

구조를 약화시킨 조선 왕조의 독특한 정책과도 연관된다. 그 정책을 유지하고 관철시키는 중심이 국왕이었다.

5. 삼군영 체제의 구축과 도성 방어의 강화

18세기의 도성 내부는 군영을 중심으로 방어 체제가 정비되었다. 청국이 대륙의 패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준가르와 오삼계 등의 반발 세력을 제압하지 못한 역학 상태에서는 이른바 동북아시아의 '화이질서(華夷秩序)'를 좌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제질서의 흔들림은 조선 왕조의 국정에도 여파를 주어서 외적이 침략을 하거나 재차 도성이 함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증폭되었다. 국왕과 관료들은 이러한 시대적 풍설에 흔들리는 정국을 도성 방어 및 강화라는 안건으로 돌파구를 열기 시작했다. 안건의 중심은 도성에 주둔하던 삼군영이었다.

먼저 1704년(숙종 30) 12월, 이정청(整廳)에서 「오군문개군제절목(五軍門改軍制節目)」이 논의되면서 삼군영으로 도성 방어가 개편되기 시작했다. 이정청에서는 다소 무질서했던 군제의 편제 및 군역의 부과를 정리하였으며, 그 대표적 결과가 삼군영 중심의 도성 방어체제였다.² 「오군문개군제절목」은 기존 5군영의 정비와 함께 도성을 삼군영이 방어하는 군사 체제를 표방한 것이다. 도성 외부의 군영인 충융청과 수어청의 군제는 삼군영 체제로 재편하였다. 충융청의 좌영(左營)은 수원, 중영(中營)은 남양, 우영(右營)은 장단(長湍)으로 하고 중영은 3부, 좌우영은 각각 2부로 하였다. 부는 각 2사, 매사는 각 5초로 하되 각 초는 125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여러 군종을 합하여 23,157명으로 편성하였다.

1704년 이전까지 전, 후, 좌, 우의 4영과 좌, 우, 중부에 속한 군병은 모두 합쳐 39,589명이었다. 1704년의 개편으로 3영, 2부 체제로 하고, 매 영은 각 5사, 매 사는 각 5초, 각 부는 아병 각 16초, 마병 각 3초로 하며,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소속되었던 마군, 보군, 친아병(親牙兵) 등을 합하여 정군은 16,500명으로 하였으며, 표하군과 군

²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62쪽; 이태진, 「18세기 왕정과 산군문 도성수비체제 및 친위군영」,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25~232쪽.

수노보(軍需奴保) 등 여러 군병까지 32,350명으로 편성하였다. 「오군문개군제절목」에 따라 도성의 세 군영 중 훈련도감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어영청과 금위영은 편제가 5부 25사의 제도로 통일되었다. 이전까지 어영청은 5부에 각각 5개 사와 별3사를 두고 각 사에 각 5초, 별중초 1초가 있는 등 각종 군병과 보인을 합하여 102,270명이었다. 어영청의 편제는 금위영에도 적용되어 매 사에 각 5초와 별중초 1초가 있어 총 136초로서 91,696명이었다. 「오군문개군제절목」을 통해 어영청과 금위영을 5부로 통일하고 각 부는 5사, 각 사는 5초, 매 초는 127명으로 편성하였다. 두 군영의 군역도 어영청 86,953명, 금위영 85,274명으로 하였다.

이 절목에서 훈련도감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어영청과 금위영을 두어 도성의 방위를 담당하도록 명시하였다. 도성 주위의 충융청과 수어청은 경기의 남쪽과 북쪽 일대를 나누어 관할하는 군영이 되었다.³ 이러한 중앙 정부의 논의는 절목으로 정리되어 1705년 1월 초에 공표되었다.⁴

도성의 방어가 삼군영 중심으로 정착되는 것은 도성의 북측인 북한산성의 개축을 완료하는 영조 대이다. 영조 대 탕춘대를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군사 요충지로 신설하면서 도성의 준천과 성벽의 개수를 거치며 삼군영 중심의 방어망을 완결하게 된다.

6. 삼군영 체제의 방어망

삼군영이 본격적으로 도성의 방비를 전담하게 되는 것은 영조 대이다. 1745년(영조 21) 7월 재차 삼군영에게 도성을 분담 수축하여 방비하도록 하였다. 1746년 7월에 수축 공사가 정리되었는데, 수축된 도성은 모두 40여 곳으로서 전면적인 도성 개축 이라기보다는 숙종 대 후반 이루어진 도성 수축 작업에 약간의 보수를 더한 정도였다. 당시 도성 수축에 있어서 삼군영이 분담한 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훈련도감은 숙정문(肅靖門) 동쪽의 무사석에서 돈의문(敦義門) 북쪽까지 4,850보이고,

³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⁴ 『숙종실록』 권41, 숙종 31년 1월 3일(무술).

금위영은 돈의문에서 광희문(光熙門)까지 5,042.5보이며, 어영청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5보로서 모두 14,935보였다.

이렇게 전체 도성을 삼군영에서 분담하여 수축과 수비를 맡게 되었다. 이 시기 삼군영 주도로 도성을 분담한 것은 도성 수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어 구역까지 명시함으로써 도성 방어의 핵심 체제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46년(영조 22) 7월 도성 수축이 일단락되자 그해 연말 영조는 어영대장 구성임(具聖任, 1693~1757)에게 도성의 5부 방민을 나누어 소속시켜 도성을 방어하는 방략인 수성절목을 속히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울러 성 밖의 창고를 모두 도성 안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듬해 2월 구성임에게 명하여 도성의 5부 주민은 진신사족(摺紳士族)을 제외하고 오위장에게 나누어 소속시키도록 하는 「수성절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⁵ 「수성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5부의 민호를 원근에 따라 3영에 나누어 소속시킨다.
- ㉡ 3영이 나누어 받은 성첩은 모두 5개 정(停)으로 나누어 전, 좌, 중, 우, 후의 차례를 정한 다음, 둘에 글자를 새겨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훈전(訓前), 훈좌(訓左), 훈중(訓中), 훈우(訓右), 훈후(訓後)로 표시하고, 금위영과 어영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 ㉢ 각 군문(軍門)이 지킬 성첩을 다섯으로 나누되 만약 1영으로 지킬 수 있으면 다섯 부로 나누어 5정을 만들고, 1부로 지킬 것 같으면 5사를 나누어 5정을 삼으며, 1사로 지킬 것 같으면 1초를 나누어 5정을 삼는다.
- ㉤ 5부의 각 계첩(契帖)은 모두 조그마한 기를 만들되,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황색, 금위영은 청색, 어영청은 백색으로 하고 깃발에 아무 부, 아무 계라 쓰고, 또 훈전, 훈좌 등의 글자를 써서 표시를 삼는다. 해당 군영에서만 들어서 해당 부에 지급하되, 평상시에는 본영에 간직하여 둔다.
- ㉥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호(戶)마다 집을 지키는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을 지키도록 하되, 동서 양반의 현직과 전직 관원,

5 『승정원일기』 1011책, 영조 22년 12월 6일(경묘).

유생(儒生), 출신(出身), 잡과(雜科), 한산인(閑散人)까지도 모두 성첩에 올라가서 힘을 합쳐 성을 지키도록 한다.⁶

이와 같은 「수성절목」의 작성과 함께 도성 삼군영의 구체적인 도성의 수비 편제를 위해 별도로 「오부분속삼영절목(五部分屬三營節目)」이 마련되었다. 이 절목에 따르면 훈련도감은 숙정문에서 돈의문까지, 금위영은 돈의문에서 남소영까지, 어영청은 남소영에서 숙정문까지의 구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성절목」과 「오부분속삼영절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숙종 후반기부터 영조 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도성 방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한성부 주민을 도성 방어의 핵심으로 삼아 방어하도록 한 것이었다.⁷

이후 『수성책자(守城冊子)』 반포 시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1747년(영조 23)의 수성절목이 완성된 이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751년(영조 27)에는 『수성책자』를 간행하고 반포함으로써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삼군영과 도성민 중심의 도성 수비 계획이 일단락되었다. 이 『수성책자』는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과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 「수성절목」을 합하여 편찬한 것이다.⁸

「도성삼군문분계지도」는 도성의 자연환경과 궁궐, 종묘 등 중요한 건물 및 성곽, 문루, 도로, 개천, 행정구역 등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도성 삼군영이 방어를 담당할 도성의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이다. 즉,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책임지고 수비하여야 할 도성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각 군영의 방어 구역은 각각 5개의 단위 구역인 정(停)으로 나누었다.

어영청은 좌로부터 영전(營前), 영좌(營左), 영중(營中), 영우(營右), 영후(營後)의 순으로 표시하여 배치하며 숙정문에서 광희문 사이를 방어하게 하였다. 금위영의 5개 정은 금전(禁前), 금좌(禁左), 금중(禁中), 금우(禁右), 금후(禁後)로 표시하여 배치하며 광희문에서 돈의문 사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훈련도감도 동일하게 훈전(訓前), 훈좌(訓左), 훈중(訓中), 훈우(訓右), 훈후(訓後)의 순으로 5개 정을 배치하고 돈의

6 『어제수성윤음』.

7 『승정원일기』 1015책, 영조 23년 4월 16일(을해).

8 나각순, 「서울 한양도성의 기능과 방위체제」, 『향토서울』 8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2.

문에서 숙정문 사이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유사시 삼군영이 담당하고 있는 도성에 배치되어 수비할 도성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와 방(坊), 계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수성절목」에 의하면 각 군영은 담당 구역을 전, 좌, 중, 우, 후의 5개 영으로 나누고 각 영은 5부, 1부는 5사로 나누었다. 1영으로 도성을 방어할 때에는 5부가 5정으로, 1사가 방어할 때에는 5초가 5정을 각각 이루는 체계로서 도성 내의 모든 방민은 모두 계로 편성되어 각 군영의 5개 영에 나누어 소속하도록 하였다.

훈련도감이 담당한 숙정문에서 돈의문까지의 구역에는 모두 109계가 배치되어 호수(戶數)는 14,587호였고, 금위영이 분담했던 돈의문에서 광희문까지의 도성 구역에는 모두 136계가 배치되어 호수는 14,768호였다. 어영청이 분담했던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의 구역에는 모두 81계가 배치되어 호수는 14,587호로서 유사시에 담당구역을 책임지고 수비하게 하였다. 각 군영에는 거의 균등한 호수가 배치되었는데, 총 호수는 43,942호로 호당 2명 이상의 도성민이 배당되어 도성방어를 담당하는 주민은 모두 10만 명에 달하고 있다.⁹

「수성절목」에는 국왕의 뜻을 받들어 일심협력하여 도성을 수비할 것을 약속하고 도성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사항 9개 조목이 기록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1747년의 「수성절목」 내용을 포함하되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9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 ㉠ 도성을 수비하려는 대제는 성상聖上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또 백성들이 수성절목의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야 국가가 위급함을 당하였을 때 백성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한성의 5부민에게 수성절목을 반포하는 것이니 우리 신민들은 일심협력하여 성상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
- ㉡ 5부 민호民戶를 현재의 호수戶數대로 가까운 삼군영에 분배하되 대략 배당한다.
- ㉢ 삼군영에 분배하는 민호는 경오식년庚午式年, 1750년(영조 26)의 호수에 의하여 분배하되 한성의 각 부에서는 식년마다 호적을 작성하고 삼군영에 분속된

9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삼군영』, 2019, 42~44쪽.

방계坊契의 호구 총수總數를 성책成冊하여 해당 군영과 병조에 보고한다.

- ㉣ 삼군영에 분속된 성타城塔는 모두 전정前停, 좌정左停, 중정中停, 우정右停, 후정後停의 다섯 정으로 나누고 순서대로 훈전訓前, 훈좌訓左, 금중禁中, 금우禁右 등의 글자를 새긴 돌을 세워 도성의 수비 구역을 표시한다.
- ㉤ 매 군이 지켜야 할 성타는 이미 5구간으로 나누었으니 만약 1영 전체가 해당 도성을 수비한다면 5부의 군병이 5정에 나뉘어서 수비하며, 만약 1부가 해당 군영에 해당하는 도성을 지키다면 5사의 군병이 5정에 나뉘어서 수비하고, 만약 1사가 해당 군영의 도성을 수비한다면 5초의 군병이 5정에 나뉘어서 수비하되 군문의 부·사의 제도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편리한 대로 적당히 분배한다.
- ㉥ 각 군문에 나누어 준 성의 경계를 평상시에 분명히 알아두게 하고, 유사시에 각기 지켜야 할 곳의 한계를 표시한 작은 그림을 만들어 한성부의 5부와 방에 나누어 준 곳도 상세히 기록하여 반포한다.
- ㉦ 한성 5부의 각 계는 모두 작은 깃발을 만들되 훈련도감에 속하는 계는 황색기, 어영청에 속하는 계는 백색기, 금위영에 속하는 계는 청색기를 만들고, 깃발에는 모부某部, 모계某契, 훈전訓前, 훈좌訓左 등의 글자를 써서 표시한다. 기는 해당 군문에서 만들어 한성 5부에 나누어 주되 평상시에는 본영에서 보관하고 유사시에 나누어 준다.
- ㉧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해당 군영에서 소속 부로 명령을 전달하고, 해당 부에서는 휘하의 호정戶丁을 대동하고 성에 올라 성을 지키되 해당 부의 관원이 군령을 잘 거행하지 않을 때는 군법으로써 다스린다.
- ㉨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매 호마다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동반과 서반, 유생, 출신, 한산인을 막론하고 모두 성에 올라 힘을 다하여 성을 지킨다.¹⁰

이와 같은 도성 방어를 위한 한성부 백성들의 도성 배치 및 실행 사항에 준하여 삼군영이 해당 지역에서 수비체제를 구축했다. 훈련도감은 북부를 중심으로 서부와

10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 9월 21일(갑신).

중부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위영은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중부와 서부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어영청은 동부를 중심으로 중부, 서부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7. 어영청의 성북 방어 체제

군영의 방어 구역을 지도로 제작하여 반포한 것은 도성민이 방어의 주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그림 2>는 「수성절목」 6항에 따라 작성되었던 삼군영이 분담한 도성의 방어 구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그림 2>를 통해 보면 삼군영에서 성북의 방어는 어영청이 담당하였다. 어영청의 도성 순찰 구역은 8패로 구분되었다.



그림 2 한양도성의 삼군영 방어 지역(『삼군문오부분계지도』, 연도 미상, 37.5×46.0cm,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패는 오간수문 북쪽에서 대광통교(大廣通橋)과 삼청동(三清洞)까지, 2패는 오간수문 남쪽에서 대광통교와 남대문 안까지, 3패는 돈의문 안 북쪽에서 종각(鍾閣) 사거리의 북쪽까지, 4패는 돈의문 안 남쪽에서 종각 남문 안의 서쪽까지, 5패는 서대문 밖 아현(阿峴)에서 모화관(慕華館)과 홍제원(弘濟院)까지, 6패는 동대문 밖에서 왕십리(往十里)·뚝섬(纛島)·제기동(祭基洞)·종암동(鍾巖洞)까지, 7패는 남대문 밖에서 청과동(靑坡洞)·서빙고(西氷庫)·마포(麻浦)·용산(龍山)까지, 8패는 대현(大峴)에서 웅막(瓮幕)·서강(西江)·양화도(楊花渡)까지이다. 따라서 성북의 방어는 어영청의 1패와 6패의 범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어영청은 인조 대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국왕의 호위를 위해 긴급히 편제된 부대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는 충청도 공주까지 몽진하였는데, 연평부원군 이귀(李貴, 1557~1633)가 공주에서 인근 군현의 산포수(山砲手)를 군대로 편성하여 어영군의 기초를 다졌다. 그들이 이괄의 난에서 인조를 호위한 역할은 새로운 군영을 설립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¹¹ 인조의 호위를 담당할 친병을 양성하기 위해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무예를 지니고 있으면 구성한 것이다. 당시 선발한 4,000여 명은 포(砲) 쏘기를 원하는 자는 포 쏘기를 시험하고 활쏘기를 원하는 자는 활쏘기를 시험하고 힘이 센 자는 모래주머니와 돌을 들게 하여 그 힘을 시험한 뒤에 뽑아 처음에는 어영 군병이라고 불렸다.¹²

이괄의 난으로 도성이 함락되고 국왕 호위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어영군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어영군은 겨울철 관서지방에 부방하는 훈련도감군을 대신해 번상하여 입역하기로 결정되었다. 1,000명의 어영군은 500명씩 선운(先運)과 후운(後運)으로 나누어 10월 초~2월 말 동안 각각 2개월 반씩 입번했다. 입역 비용은 조선 전기처럼 보인을 지급하여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감군처럼 호조에서 급료를 지급하여 충당했다. 정묘호란 직후에는 후금의 재침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의 아병(牙兵) 920명을 흡수했으며 3,000명의 군병을 추가로 모집했다. 1,000명에 불과했던 어영군은 1629년(인조 7) 3,600명에 이르렀으며 병자호란 직전인 1635년(인조 13)에는 6,170명까지 증가되었다.

11 이태진, 앞의 책(1985), 92~98쪽;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2007, 23~25쪽.

12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6월 29일(기사).

이처럼 어영군 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조 반정 이후 중앙군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묘호란을 전후로 이서(李曙, 1580~1637)를 어영청 제조에, 구인후(具仁厚, 1578~1658)를 어영대장에 임명하고 1국(局) 규모의 어영청을 창설하면서 어영군 모집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경기와 강원도민은 도성으로 직접 오게 하여 어영청에서 적합한 자를 뽑았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하삼도에서는 해당 도의 병사(兵使) 주재 하에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모집된 군병들에게 조정에서는 갖가지 혜택을 부여했다. 1627년(인조 5)에는 양인 어영군에게 입역을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보인(保人) 1정(丁)을 확보하게 했으며, 임란 이후 군역을 부담하기 시작한 사천에게는 보인을 지급했던 전례가 없었으므로 스스로 경작하는 토지 중 1인당 50부(負)까지 복호(復戶)해 주었다. 1629년(인조 7)에는 공천 어영군의 노비 신공을 면제하여 신역 부담을 가볍게 해주었다. 또한 중앙에서는 어영군에 입속한 자들을 본래의 신역에서 제외해 한 사람이 여러 신역을 지는 일을 방지하였다. 어영군과 보인에게 잡역(雜役)이나 속오군역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민인들이 상대적으로 군역 부담이 가벼운 어영군으로 투속하기 시작했다. 1643년(인조 21) 어영군 병력은 10,000명에 도달했으며, 1651년(효종 2)에는 16,000명으로 증가되었다. 어영군 보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많았다. 조정에서 급보제를 실시했지만 관에서 보인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어영군 스스로 자신의 입역을 조력해줄 보인을 찾아야만 했다. 어영군 보인에게도 갖가지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양인 어영군은 이왕이면 자신의 친인척을 보인으로 지정하였다. 1652년(효종 3) 9월 어영군 보인은 23,320명에 이르렀다.

어영군의 병종 구성과 부대 편제는 삼수기법과 속오분군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임진왜란기 도입된 삼수기법은 포수, 살수(殺手), 사수(射手)를 말하며, 분군법은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 순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영군은 초기에 포수만 모집하였다가 이괄의 난 이후에는 사수도 함께 모병했다. 정묘호란을 거치면서는 기병과 살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여러 전투 경험을 통해 조총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어영군은 점차 포수 위주로 되었다.¹³

¹³ 김현동, 「17세기 어영청(御營廳) 창설과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의 성립」, 『한국사연구』 192, 2021, 126~132쪽.

표 1 17세기 어영군의 군액 추이¹⁴

시기	정군	보인	총액
1623년(인조 1)	260		260
1624년(인조 2)	1,000		1,000
1630년(인조 8)	3,600		3,600 이상
1635년(인조 13)	6,170		6,170 이상
1639년(인조 17)	7,009		7,009 이상
1643년(인조 21)	10,000		10,000 이상
1651년(효종 2)	16,000	20,200	36,200
1652년(효종 3) ~1655년(효종 6)	17,000	23,320 이상	40,320 이상
1659년(현종 즉위년)	20,000		43,320 이상
1660년(현종 1)	20,000	50,000	70,000
1669년(현종 10)	20,000	60,000	80,000
1684년(숙종 10)	20,051	58,475	78,526
1704년(숙종 30)	19,006	56,926	75,932

〈표 1〉에서 어영청 정군의 규모는 17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군이 증대된 것은 군제 개편과 관계가 있다. 어영청이 본격적으로 개편된 것은 효종 대이다. 효종 대 어영청의 개편은 군액 증강과 보인제의 개편이 주요 골자이다. 어영군의 향군 호수를 21,000명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각각 보인 3명을 편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수가 편제된 보인의 역가를 모두 수취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인이 납부하는 역가(役價) 중 일부는 어영청의 재정으로 활용되었다.¹⁵ 효종은 별마대(別馬隊)와 별과진 등 부대를 창설할 때도 호수와 보인제를 활용하여 호수의 입역 비용과 어영청의 운영비용을 같이 마련하였다. 어영청은 호수와 보인제의 확립을 통해 독자적인 재정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어영청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호조가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효종 연간 조정에서는 어영군 1명에게 배속된 보인의 숫자를 늘려, 이들에게서 받은 역가의 일부를 어영청 재정에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했다.

¹⁴ 김현동, 앞의 글(2021), 131쪽.

¹⁵ 이태진, 앞의 책(1985), 165~168쪽.

표 2 어영청의 인원 구성과 군총

	속병장도설 (1749, 영조25)		만기요람 (1808, 순조8)	
도제조	1원(員)	시원임대신겸(時原任大臣兼)	1	
제조	1원	병조판서겸(兵曹判書兼)		
대장	1원		1	
낭청	2원	군색1 문, 향색1 무	종사관3	
중군	1원	종2품	1	
별장	1원		기사별장1	
천총	5원	정3품	5	
기사장(騎士將)	4원	종4품	3	
파총	25원	종4품	5	
초관	125원		41	
교련관	12원		12	
기패관	10원		11	
도제조군관	5원		5	
본청군관	15원		15	
별군관	10원		10	
출신청군관(出身廳軍官)	18원		21	
별부료군관(別付料軍官)	3원		권무군관50	
가전별초무사(駕前別抄武士)			52	
침의(鍼醫)	1원			
약방(藥房)	1원			
마의(馬醫)	1人		1	
별무사	30인		30	
숙위기사(宿衛騎士)	14번(番)		금송참군1	
기가표하군	6초(哨)			
각색표하군(各色標下軍)				
별파진	15번			
경기치중복마군(京畿轡重馬軍)				
보군	125초		125초	16,300명

이후 어영청의 재정은 효종 때 마련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영종진이나 강화 유영(留營) 등 분영진(分營鎭)들이 생기면서 재차 규모가 증가되었다.¹⁶ <표 2>는 18세기 중후반의 어영청 인원과 병종을 정리한 내용이다. 영조 대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과 순조 대 『만기요람(萬機要覽)』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 대를 거치면서 어영청의 구성과 군총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어영청이 상번군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하던, 1초의 130여 명인 보군 125초 16,300명은 존속되고 있었다. 훈련도감 및 금위영과는 달리 마군, 표하군 등은 편제되지 않았다. <표 1>에서 1704년(숙종 30)에 정군이 19,006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순조 대 보군 125초의 16,300명은 어영청 군제 개편이 지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6 송기중, 「17세기~18세기 전반 어영청 재정의 운영과 변화 -『御營廳舊式例』를 중심으로-」, 『군사』 101, 2016, 340~342쪽.

☆ 어영청의 성북 지역 주둔과 군사 시설

성북 방어의 핵심 군사 기지인 어영청은 도성의 중심지에 위치하였다. 한양도성의 방위상으로는 홍인문에 인접한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어영청이 위치한 곳은 종묘, 창덕궁, 창경궁, 경모궁, 어의궁 등의 왕실의 신성한 기념비적 공간과 왕족의 거주지가 지근한 거리에 있었으므로 도성 내부의 어느 곳보다도 군사적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 곳이었다. 어영청 본영은 종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창덕궁에서 출발하던 국왕의 행차를 대비하고 호위하던 역할을 하였다.^{그림 3} 성북을 방어하던 어영청은 당대의 최고 군사 집단이면서 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혜화문 외부의 둔전인 북둔(北屯)이었다.

1. 어영청의 편제와 구성

어영청은 인조의 왕권 보위를 위해 창설된 만큼 그 어원도 의미심장하다. 어영은 제왕(帝王)이 친정하거나 행행할 때 주필하는 장소를 의미했으며, 그곳의 수위(守衛) 책임자를 어영사(御營使)라고 불렀다. 남송 건국 직후에는 어영사(御營司)라는 기관이 최고 군사기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인조 대 어영청 군병은 어영대장-중군(中軍)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아래 부-사-초-기-대를 두었으며 부는 천총(千總)이 사는 파총(把總)이 초는 초관(哨官)이 대는 대총(隊總)이 통솔했다. 그런데 훈련



그림 3 18세기 어영청의 도성 내 위치(『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도감군이나 속오군과 달리 번상병으로 운영되었던 어영군은 상번했을 때만 부대에 편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인조 연간 어영군의 번상은 특정 부대가 아닌 특정 인원을 상번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인원이 도성에 도착하면 점검을 거친 뒤 부대 편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속오분군법은 거주지 중심의 편성 및 훈련 시행을 통한 장관과 군병 사이의 명확한 지휘체계와 연대책임을 강조한 군사 편제였다. 훈련도감군과 속오군에 속오분군법이 도입된 것도 장수와 병사가 분리되어 지휘체통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조 대 어영군은 속오분군법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군인들이 번상하면 그때마다 새롭게 부대 편제를 실시하고 지휘관을 정하는 조선 전기의 중앙군 편성방식과 지휘체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1655년(효종 6)부터 어영군 편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듬해에 겸파총(兼把總)을 설치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우선 어영청은 1부=5사라는 원칙 아래 6도의 어영군을 5부-25사-125초로 편성했으며, 편제하고 남은 군사들로 15초 규모의 별삼사(別三司)를 조직했다. 따라서 어영군은 5부-28사-140초로 구성된 셈이다. 이를 계기로 하변한 군인들도 모두 특정 부대에 속하게 되었으며 번상도 부대단위로 이루어졌다. 어영군 편제는 1660년(현종 원년)에 재편되었다. 이때의 재편성은 이웃한 지역의 군사를 하나의 부로 포괄하여 유사시에 군병들을 신속히 소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도성과 가까운 경기지역의 고을과 충청좌도의 몇몇 고을, 그리고 황해도 초면관(初面官)에 거처하는 병사들을 중부로 편성하여 유사시에 이들을 즉시 소집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전부는 경상좌도와 경상우도, 좌부는 경상우도 및 연접한 전라좌도, 우부는 전라도 및 충청우도, 후부는 충청도 병사들로 조직되었다. 별삼사는 황해도와 강원도, 충청좌도의 고을 중 도성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부대 규모는 140초로 효종 대와 같았으며, 1부=5사의 원칙도 준수됐다. 이때의 편제는 1704년(숙종 30년) 이정청(釐正廳)이 오군영 군제를 개편할 때까지 유지됐다. 편제에 따르면 어영청은 천총 5명, 파총 28명, 초관 140명을 차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영청은 부대마다 지휘관을 두지 않았다. 어영청은 도성에는 어영대장 이하에 중군 1인, 천총 5인을 임명하되 파총은 5명, 초관은 상황에 따라 인원을 증감하도록 했다. 파총과 초관은 군병 영솔 여부에 따라 영군장관(領軍將官)과 무군장관(無軍將官)으로 구분되었다. 평시에는 영군장관이 상변한 자들을 통솔했으며 사변이 발생하면 무군장관을 추가로 투입하여 소집한 군병을 지휘하도록 했다.¹⁷

¹⁷ 김현동, 앞의 글(2021), 134~136쪽.

2. 어영청의 도성 내 전담 구역

어영청의 성역(城役)을 구역별로 나누어 보면, 낙산(駱山) 고봉(高峰) 이남과 성북동, 안암동, 수유현, 혜화문 대로 이남이 모두 어영청의 소관 분계였다.¹⁸ 어영청이 도성 내부의 방어 구역을 전담하게 된 것은 1747년(영조 23) 한성부의 오부(五部)를 삼군영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절목의 시행이 배경이었다. 삼군영 분속 절목에 따라 어영청에 배정된 도성의 성벽은 남소영(南小營)에서 숙정문(肅靖門)까지 1,449타였다. 그 내부의 소관 민호는 동부(東部) 5,691호, 남부(南部) 8,239호로 13,930호였다. 한성부에서는 식년 성책(成冊) 외에 동서반의 실직(實職)과 전직(前職), 유생·출신·잡과·한산인(閑散人) 등을 지정한 곳에 따라 모두 지정된 도성 성벽에서 지키도록 했다. 배정한 호정(戶丁)에서 맹인·독녀(獨女) 등은 면제되었다.¹⁹

또한 어영청의 금송자내가 위치하여 광희문 안 북쪽부터 숙정문 남쪽, 혜화문 밖 남쪽부터 호유현(胡踰峴), 홍인문 밖 북쪽부터 안암동과 거현(車峴) 대로, 안암동과 제기현(祭基峴)부터 호유현 삼거리, 소목아(小墨兒)부터 벌리(伐里) 및 수유현 동쪽에 이르는 지역이 순찰되었다. 도성의 동북부는 어영청이 직영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할 업무가 많았다.²⁰ 어영청이 전담한 도성 내부의 공간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도성에서 어영청이 전담해서 방어할 구역은 어영청 본영이 위치한 동부 지역과 홍인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혜화문이 위치한 동북이 해당되었다. 지리적으로는 도성 북측 성벽 외부의 응봉과 구준봉, 동측의 낙산, 남측의 남산에 이르는 공간이다. 또한 그 사이에는 청계천과 종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물론 어영청의 핵심적인 방어 공간은 종묘와 궁궐들이었다. 다만 그곳들은 도성 내부의 시설이므로 성벽 분담 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장소였다. 어영청의 분담 진영이 성벽을 기준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5>에서 보듯 어영청 중영(中營)은 중어물전(中魚物廩) 일패계(一牌契)와 이패계, 관인방(寬仁坊) 대사동(大寺洞) 일패계·이패계·삼패계·사패계, 충훈

¹⁸ 『어영청성역등록』 己卯十一月二十二日.

¹⁹ 『비변사등록』 117책, 영조 23년 4월 19일(무인).

²⁰ 『만기요람』 군정편 3, 어영청 금송 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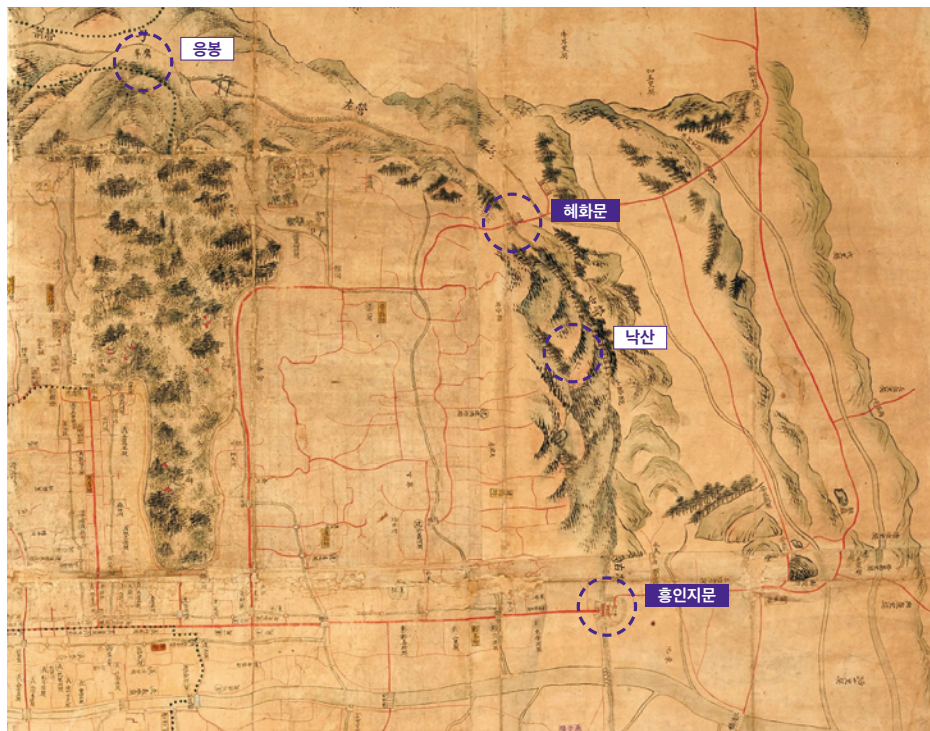


그림 4 어영청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부(忠勤府) 내계, 경행방(慶幸坊) 시전계(市廛契), 한원서변계(漢源西邊契), 한원동변계, 궁내계(宮內契), 오순덕계(吳順德契), 사거리계(四巨里契), 정선방(貞善坊) 비로전계(非老廛契), 임기손계(林己孫契), 김만년계(金萬年契), 수문동계(水門洞契), 고병조계(古兵曹契), 둔녕부 상계(敦寧府上契), 둔녕부 하계, 과자전계(把子廛契), 하미전계(下米廛契) 등의 중부, 천변계(川邊契)·분륙계(分六契)·연 이계·창선 이리계(彰善二里契)·동학내계(東學內契)·소천변계(小川邊契), 송신방(崇信坊) 송신방계, 인창방(仁昌坊) 인창방계 등의 동부를 담당했다. 남부는 두모방(豆毛坊) 중촌리계(中村里契), 신당리계(新堂里契)이다. 성외에는 신설계(新設契), 답십리계(踏十里契), 마장리계(馬場里契)이다.²¹

〈그림 5〉는 어영청 중영의 방어 구역이다. 중영은 우측의 낙산에 있는 성벽을 중심으로 구획되었다. 〈그림 5〉에서 동부의 주요 행정구역인 관인방, 경행방, 정선방, 김만년계, 과자전계, 송신방, 인창방 등이 보인다. 흥인문과 혜화문 사이의 낙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그림 5 어영청 중영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산을 가로 지르는 도성 성벽에 중영이라고 표식하여 어영청의 관할임을 나타내었다. 중영의 관할지는 낙산 성벽에서 창덕궁 돈화문 앞의 김만년계에 이르는 공간이다. 그 사이에는 종묘와 어의궁, 어영청 본영 등의 도성 내의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중영 이외의 그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영청의 도성 분할 구역과 전후 좌우 중영의 구분은 종묘와 어의동 사이에 위치한 어영청 본영을 기준으로 동쪽 방위에 따라 가운데가 중, 그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 상하가 전후 영으로 구분되고 있다.

한양도성의 흥인문을 기준으로 하는 동쪽 성벽의 대부분을 어영청에서 방어하고 있으며, 그 내부의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형태이다. 어영청의 맞은 편에는 한성부의 행정 조직인 동부가 자리하고 있어서 관할 지역 민인들의 동원과 관리를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흥인문과 혜화문을 중심으로 도성 동쪽의 성벽들을 관리하던 군사 방어 체제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어영청 전영이 응봉의 줄기를 근거로 자리하고 있고, 중영은 낙산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혜화문과 흥



그림 6 어영청 전영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인문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6〉에서 어영청 전영은 응봉을 중심으로 배치된 성벽들이 좌우로 전개되었다. 응봉의 하단에는 궁궐과 성균관이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숭교방(崇敎坊) 성균관계(成均館契), 숭교 일계(崇敎一契), 연화방(蓮花坊) 연화동계, 북 이계(北二契)의 동부를 담당하였다. 성외(城外)에는 제기리계(祭基里契), 전농리계(典農里契), 벌리계(伐里契), 중량동계(中梁洞契), 능동계(陵洞契), 가오리계(加五里契), 장위리계(長位里契), 안암동계(安岩洞契), 우이계(牛耳契), 미아리계(彌阿里契), 청량리계(淸涼里契), 수유촌계(水踰村契) 등이다.²²

〈그림 6〉에서 어영청 전영은 숭교방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도성 내부와 제기리계, 전농리계, 중량동계, 장위리계, 안암동계, 우이계, 미아리계, 청량리계, 수유촌계 등의 혜화문 외부에서 중랑천에 이르는 공간을 관할하고 있다. 제기리계, 전농리

²²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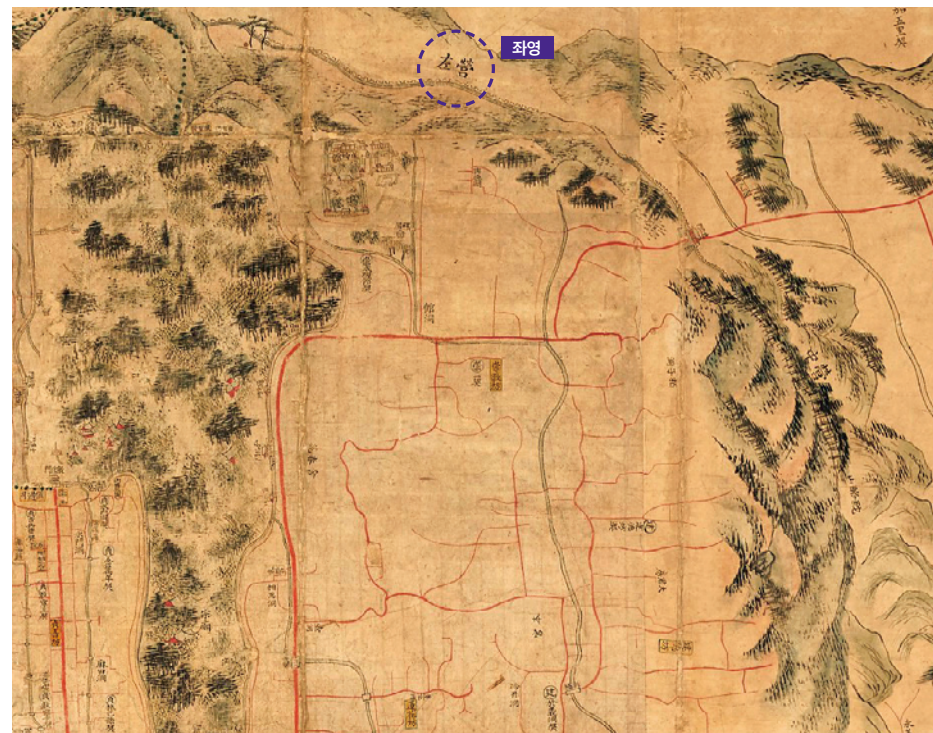


그림 7 어영청 좌영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계, 장위리계, 안암리계, 우이리계 등은 1788년(정조 12)에 한성부에서 명칭을 정한 곳이다.²³ 어영청 전영은 응봉의 좌측에 있어서 북한산성을 위로 하고 아래로는 창덕궁을 겸하는 금중의 방어 구역이다. 도성 외부의 구역은 좌영이 담당할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임에도 전영이 관할하고 있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그러나 도성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와 동선을 보면 전영과 좌영이 관할하는 성외 지역이 성북천과 적유현을 경계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성의 방위별 방어 구역에 동원되는 민인과 장병의 이동 및 배치를 지역의 지형에 맞추어 지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면에서 좌영이 관할하는 도성 외부 지역은 다른 영보다 소규모이다.

〈그림 7〉에서 어영청 좌영은 종묘동계(宗廟洞契), 연일계(連一契), 연삼계, 금중계(金衆契), 중로계(中路契), 건덕방(建德坊) 어의동계(於義洞契), 건덕방계, 창선방(彰善坊) 창선방계, 동학동계(東學洞契)의 동부를 담당하였다. 성외로는 왕십리역계(往

²³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0월 16일(갑진).

十里驛契)가 있다.²⁴ <그림 7>에서 어영청 좌영은 종묘와 건덕방, 창선방 등의 성북 성벽과 종로대로 사이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창선방에는 계의 이름이 없다가 정조 대에 1계·2계로 정해져 나뉘었다.²⁵ 다른 구역에 비해 공간이 넓어 보이지만, 공묘가 포함된 곳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반면 방어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배경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외는 왕십리역계만 소속되었다. 중영과 후영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왕십리역계가 좌영에 소속된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국왕의 행차와 연관시키면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정조 대에 홍인문을 통해 도성 동쪽으로 능행을 할 경우 배치하던 5부(部) 구역의 척후(斥候)와 복병(伏兵) 규정을 보면, 홍인문 성벽 위·응봉·북악·안암동 뒷봉우리·왕십리의 높은 봉우리 등이다. 낙산에서 응봉과 왕십리를 연계하는 방어망을 고려한다면 왕십리역계가 군사적 이유로 포함되었다고 추정된다.²⁶ 이점은 홍인문을 관할하던 우영이 왕십리와 연계하던 것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그림 8>에서 어영청 우영은 홍인문을 중심으로 좌우의 성벽을 기준으로 구역을 담당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왕십리 사계(私契)의 동부, 와유두리계(瓦有豆里契), 연성위계(蓮城尉契), 명철방(明哲坊) 수구문내계(水口門內契), 어영창계(御營倉契), 전관(箭串) 일계, 전관 이계 등의 남부가 구획되었다.²⁷ <그림 8>에서 어영청 우영은 홍인문 외부 지역과 남산 인근의 명철방에 이르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홍인문 인근 수구문을 기준으로 왕십리와 살곶이에 이르는 도성과 중랑천 사이의 공간이다. 명철방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동원령(洞源嶺)이 도성 동쪽 봉화로 제1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군사적 요충지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성벽을 기준으로 방어 담당 구역이 방위에 따라 도성의 내부 및 외부에 구획되고 있다. 이점은 후영이 한강으로 그 방위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그림 9>에서 어영청후영은 광희문을 기준으로 홍인문과 남산에 이르는 좌우의 성벽이 중심 구역이다. 진소리계(眞梳里契), 왜관동계(倭館洞契), 남소문동계(南小門洞契), 쌍이문계(雙里門契), 청녕위계(靑寧尉契), 신촌리계(新村里契), 수철

²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²⁵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0월 16일(갑진).

²⁶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10월 1일(무신).

²⁷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²⁸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26일(정축).



그림 8 어영청 우영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그림 9 어영청 후영의 도성 방어 구역(『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리계(水鐵里契), 두모포계(豆毛浦契), 한강방(漢江坊) 몽궐정계(夢賚亭契), 한강계, 주성리계(鑄成里契) 등의 남부를 담당하였다.²⁹ <그림 9>에서 어영청 후영의 관할 지역은 남산 인근의 남부 지역이다. 특히 한강 주변의 공간인 신촌리, 수철리, 두모포 등이 포함되어서 도성과 한강 사이의 공간이 방어 구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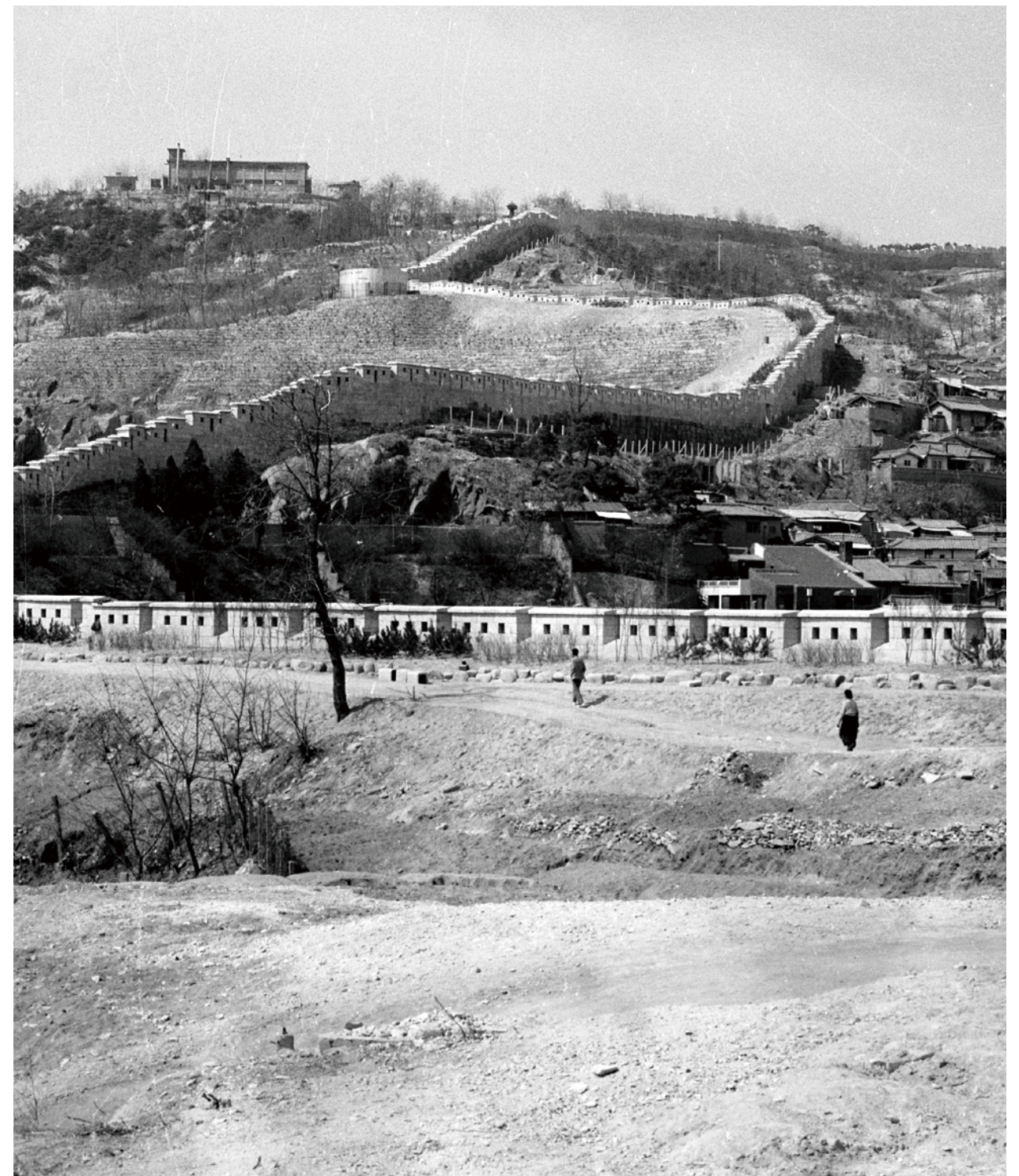
어영청 방어 구역에 거주하던 방민들은 분속 절목에 따라 성벽의 성가퀴를 헤아려 배정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분수(分數) 형명(形名)의 제도는 지역별 해당 영에서 각각 편의에 따라 마련하되, 각문의 파수와 각 도로의 순라 등은 미리 정하지 말고 때에 임해서 거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영청이 담당하던 도성 성벽의 위에는 치(雉)와 포(鋪)를 설치하고, 군화(軍火), 기계(器械), 복로(伏路), 현등(懸燈) 등을 해당 영에서 각각 담당하게 했다.³⁰

어영청 군병이 담당하던 도성의 방비는 영조 초기 무신난이 발생했을 때 어영청 군병이 배치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무신난이 발생하였던 1728년(영조 4) 봄에 도성의 어영청 담당 성북 지역 성곽의 수비 배치를 보면, 군병 3~4초(哨)가 창의문에서부터 동소문에 이르기까지 편의대로 파수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남산 구의봉으로부터 북쪽 창의문 앞까지 장교(將校)를 정해 파수 군졸을 세웠는데 거의 200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도성의 동쪽은 지대가 낮아 방어의 강화를 위해 동포(銅砲)를 미리 성벽 위에 배치하였다. 동포는 69좌가 설치되었고, 장교 80명과 군졸 300여 명이 담당하였다. 1730년(영조 6)에는 궁성과 도성 내외의 순라를 삼군영에서 분경(分境)하여 순찰하도록 했다. 어영청에서는 해당 지역을 2시간에 1회 순라하는 형태였다. 도성 외부에도 군병이 숙직하는 곳을 두어서 장교를 각각 1명씩 별도로 선정하여 보내고 군병 중 5명을 뽑아 이들을 인솔하여 규찰하게 했다. 순라를 담당하던 어영청의 장병들은 별순라패(別巡邏牌)를 만들어 패용하였다.³¹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30 『비변사등록』 117책, 영조 23년 4월 19일(무인).

31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 3월 24일(갑술).



북원동 성북지구 성곽 전경, 1978년(출처: 서울시정사진)

3 성북 지역 어영청 둔토의 운영과 변천

1. 둔전의 군사적 배경

둔전이란 변경이나 군사 요지 부근의 한광지(閑曠地)를 개간, 경작하여 군자에 충당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후대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 및 영진(營鎭) 등 지방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국둔전(國屯田), 후자는 관둔전(官屯田)이라고 하였다.³² 둔전의 설치는 전시 상황에서 군량의 보급 없이 현지에서 생산된 군량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해처를 점거하여 백성을 취합하는 거험취민(據險聚民)하는 의도로서 인민의 단합, 요해처의 방어, 곡식의 비축, 정병(精兵)의 양성이라는 다목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대대로 둔전의 설치는 군제 개혁과 군수 확보에 있어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되었다.³³

18세기 정조 대에도 둔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병사(兵事)와 농사(農事)가 둘로 나누어진 뒤부터 군사 양성에 관한 법은 그 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둔전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오늘날 화성의 군병 제도가 옛 법에 다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둔전의 유의(遺意)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⁴ 정조가 화성에 장용영을 설치하면서 둔전을 설치한 배경이었다. 국가 재원을 투여하지 않고 임시로 군사 시설을 확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둔전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사실이다.

32 이장희,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1996, 155쪽.

33 『승정원일기』 377책, 숙종 24년 3월 14일(기축).

34 『홍제전서』 권169, 일득록(日得錄) 9, 정사(政事) 4.

조선 왕조 초기부터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변방에 주로 설치되던 둔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로 국가적 정책으로 적극 시행되었다. 훈련도감 등의 군영을 임시로 설치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둔전의 설치는 군영 운영의 필수적인 기반이었다.³⁵ 양난 이후 전개된 군영의 둔전은 대개 전쟁으로 인한 농민의 유리유망과 이에 따른 무주지, 진황지의 대량 발생이라는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설치·경영되는 형태였다. 둔전은 군영의 사적 소유지로서 매득(買得)이나 축언(築堰) 등을 통해 성립되었고 영작둔전(永作屯田)으로 불렸다.³⁶

둔전의 실질적 관리와 경영은 둔전 감관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둔전의 과정에서 추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할 감독하는 둔전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군영에서는 둔초관(屯哨官), 교련관(敎鍊官) 등을 파견하여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는 한편 둔민(屯民)을 부대로 편성하여 군사 훈련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17세기 후반인 현종부터 숙종 초기에 접어들면서 일련의 국방 강화책 추진을 배경으로 유민작대(流民作隊)를 통한 정병 양성책이 대두되면서 둔전의 감관에 대한 군사적 임무가 더욱 강조되었다. 군영이 독자적으로 감관을 파견하여 둔전을 설치 경영하는 현실은 국가 재정 운영이 다지적(多岐的), 할거적(割據的)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⁷

17세기 중반 군영에서 둔민을 정병으로 양성하는 것은 일반적 양상이었다.³⁸ 그런데 둔전의 경영 형태는 군사를 동원한 경작, 유민을 모집하여 경작에 투입하는 방법, 일반 백성에게 병작(並作)을 주는 방법으로, 군사와 유민에게 농량(農糧), 종자, 경우(耕牛)를 주어야 했다. 입번 군사의 둔전 경작 동원은 예속 노동력의 활용이었다. 군역 부담과 관련하여 둔전 경작에 징발된 것이다.³⁹ 종자와 식량을 제공할 경우, 2만 석이면 5천 석은 종자이고 1만5천 석이 경작할 때의 식량이었다.⁴⁰

35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22일(경유).

36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32~133쪽.

37 『승정원일기』 468책, 숙종 38년 5월 30일(임자); 『비변사등록』 46책, 숙종 18년 3월 4일(계축); 송양섭, 위의 책(2006), 31~55쪽.

38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5월 26일(갑신).

39 송양섭, 위의 책(2006), 55~56쪽.

40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2월 8일(경자).

그런데 둔전 경영은 도성의 보장처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17세기의 둔전 경영은 농지의 개간과 유민 안집을 통한 군정의 확보라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반면 선조 대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부역제적 둔전 경영은 둔민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지 못해 낮은 생산성과 경영의 불안정을 야기했다. 더욱이 16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신역의 물납화도 농민들의 생산 활동을 예측시켜 관리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⁴¹

그럼에도 18세기 도성의 군영에서 둔전을 경영하게 된 것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조선 왕조의 군역제는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한 번상입역제(番上立役制)로 운영되었다. 상번제는 농민이 식량과 피복 등을 스스로 마련하여 입역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련도감과 같은 장번(長番)의 급료병으로 구성된 전문 군인 집단인 군영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했다. 어영청의 경우 번상제로 운영되어 재정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도성에 장기 주둔 군사 시설 및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했다. 조선 왕조의 재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각사자판(各司自辦)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군영이 도성에 장기 주둔하는 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농업 경제가 기반이었던 당시에 경작지에서 소출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경작지에서도 면세인 둔전이야말로 군영에서 운영하기에 최적인 재원이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군사 재정에서 군보(軍保)를 활용한 방법 징포(放番徵布)가 일반적이었던 상황에서 둔전의 경영은 재정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더욱이 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은 유학적 소양을 옳다고 여기던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다. 경지가 둔전으로 치전(治田)되는 것이 리(理)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황무지라고 이해하였다. 상업은 인위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종자를 잘 기르면 식량이 확보되는 자연의 순리와 같은 것이 경작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확보책은 무엇을 새롭게 바꾸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방치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경제적으로도 용이했다. 더욱이 도성 인근에는 황무지가 많았다. 성북천을 비롯한 연변에는 경작에 필요한 도랑이

⁴¹ 송양섭, 앞의 책(2006), 58~80쪽.

나 수로를 조성하지 않아도 경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더욱이 도성 인근이었으므로 인분 등의 비료 확보도 용이하였다.⁴²

2. 삼군영 둔군의 운용

1709년(숙종 35) 한양도성의 내외에서는 농경이 금지되었지만, 도처에서 농경이 진행되어 궁성(宮城)이 지척인 땅이나 현관(賢關)이 밀접한 곳도 기간(起壘)한 데가 많아서 전야(田野)와 같은 모습이었다.⁴³ 1730년(영조 6)에는 도성 안에서 채전(菜田)을 경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벼농사만은 금지되었다.⁴⁴ 둔전의 개간이 왕조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닌 상황에서 전개된 결과였다.

도성의 삼군영은 자체적인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할하는 둔전을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둔군의 액수도 정액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성의 삼군영 둔군의 정액화는 숙종과 영조 대를 대비하면 잘 나타난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1704년(숙종 30)과 1748년(영조 24)의 둔군 액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1704년(숙종 30) 오군영의 둔군 액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계
액수	600	640	600	4,580	1,630	8,050

출처: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64쪽

표 4 1748년(영조 24) 오군영의 둔군 액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계
액수	572	590	251	4,098	3,521	9,032

출처: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64쪽

<표 3>과 <표 4>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숙종 대에서 영조 대까지 45년 사이 오군영 둔전의 둔군 액수는 1,000여 명의 차이를 보인다. 1748년(영조 24)에 100여 명이 증가되었다. 삼군영은 1,840명에서 1,413명으로 400여 명이 축소되었다. 1704년

⁴² 『풍석전집』,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 권12, 策, 擬上經界策.

⁴³ 『숙종실록』 권47, 숙종 35년 5월 5일(을해).

⁴⁴ 『영조실록』 권28, 영조 6년 10월 11일(병오).

(속종 30) 삼군영의 둔군은 오군영 전체에서 35% 정도이며, 1748년(영조 24)에 20% 대로 줄어들었다. 어영청의 경우에는 640명에서 590명이 되어 50명이 축소되었다. 물론 삼군영 둔군의 액수는 도성 내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성에 연관해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다만 18세기 중반에 삼군영의 둔군 수치가 하강세를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성 거주민의 증대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도성 내외 거주 둔민의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추론에 불과하다. 18세기 도성 내외에 군영의 군인과 식솔이 다수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둔민이 증가될 수도 있겠으나, 확인할 수 없다.⁴⁵

그런데 도성 내외 삼군영 둔군 액수의 하강 추세는 경작 형태의 변화와 관련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둔전은 대개 병작반수의 분반타작 형태의 수취 체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결수나 석지기(石落只)에 따라 정수출세(定數出稅)하는 형태였다. 일종의 정액 지대인 셈이다. 17세기 전반에는 개간 장려와 유민 안집이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에서 낮은 수준의 지대가 책정되었다. 둔전 설치 초기의 낮은 토지 생산성과 경작민의 불안정을 감안한 종략정세(從略定稅)의 액수가 관행이었다.⁴⁶ 둔전을 관리하던 둔감은 지대 납부를 거부하는 전호들을 보고해 처벌하거나 태만한 둔민을 교체하거나, 재해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둔감 휘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령, 권농 등이 있었다.⁴⁷

둔전 농민은 둔군(屯軍), 모군(募軍)으로 지칭되었는데, 본질적 차이는 없었다. 둔전 경작자는 통상 지역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역으로부터 면제되었다. 둔전 경작자에 대한 면역의 혜택은 둔전 경작 자체가 역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인한 유민의 유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고 군역의 폐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1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둔전은 모민설둔(募民設屯)의 취지와는 달리 군역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민인들의 피역처가 되었다.⁴⁸ 둔전이 임시로 민인의 생업을 안정시키면서 전쟁 복구라는 차원에서 국가 재정 문제로 전이된 변화상을 나타낸 것이다.

⁴⁵ 이왕무, 「조선 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군사』 90, 2006.

⁴⁶ 송양섭, 앞의 책(2006), 134~137쪽.

⁴⁷ 송양섭, 앞의 책(2006), 218~222쪽.

⁴⁸ 『승정원일기』 314책, 숙종 12년 4월 1일(을유); 송양섭, 앞의 책(2006), 153~155쪽.

더욱이 영조 대 둔전의 출세(出稅) 방침에서도 군영의 경우에는 군수 확보라는 명분이 강조되어 면세 정수(定數)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다만 독립적 재정 운영 체제를 갖춘 군영 등에서 토지와 인민을 관장한다는 것은 자칫 수탈에 무방비가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특히 군현제적 지배방식이 아닌 지역적 할거를 방지하는 결과는 물론 국가 재정의 만성적 결핍과 운영상의 난맥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었다. 이에 호조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둔전을 관할한다는 전관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귀결되지 못했다. 호조는 재원의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지역의 수령을 통해 둔전에 세를 부과하고자 했다. 수령들도 수령 수취제로 둔전을 통제하고자 했다. 지역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중앙 재정기관의 조처에 대해 군영에서는 별장을 파견하여 직접 통제하고자 하여 양자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다.⁴⁹ 이러한 시대적 변화상이 삼군영의 도성 내 둔군의 정액화와 감소세를 나타내게 된 배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 말에도 둔전을 통한 재원의 운용은 매력적이었다. 둔전이 구획된 공간에 지정된 인원이 배치되어 계획적인 영농 아래에서 소출을 양산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둔전의 한 구역마다 농업에 능숙한 자가 전농관(典農官)이 되어 종자의 재배부터 관개시설의 유지, 수차를 통한 모내기와 시비 등은 항상적인 소출이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었다. 도성의 경우 둔전의 소출을 위기 때의 대비곡으로 비축한다는 것이 큰 명분이었다. 예컨대 도성의 서북둔(西北屯) 소출은 북한산성, 동남둔은 도성 내부의 창고에 보관하자는 것이다. 특히 삼군영 소재 도성의 둔전은 경둔(京屯)이라고 하였다. 어영청 등의 군영에서는 돈으로 전지를 구입하여 가옥과 창고를 세운 뒤 10년 주기로 대비곡을 저축하자고 하였다.⁵⁰

이런 둔전에 대한 시대적 논의에서 제안된 것이 어영청의 성북 둔전이었다. 1765년(영조 41)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1713~1773)이 성북 둔전 정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

⁴⁹ 송양섭, 앞의 책(2006), 181~205쪽.

⁵⁰ 『풍석전집』, 금화지비집 권12, 策, 擬上經界策.

여 민동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人家를 두어 살게 한다면, 도성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 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 근처에 있는데, 군사의 늪료廩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지형地形을 그려 전달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점하며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자세히 하매, 임금이 어영청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었다. 창고가 성외城外에 있어서 한갓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거민居民들은 땀나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창고의 저축미로 먹여 주기를 바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막심하였다.⁵¹

위의 사료는 도성 성북의 둔전이 어영청 소속임을 나타내고 있다. 홍봉한이 영조에 게 그림을 그려서 지목한 장소는 한양도성 동북쪽 성곽 외측의 빈골짜기로서 지면이 평평한 곳이다. 이곳은 나무꾼의 벌채로 인해 나무 하나 없는 평지였으며 선잠단 인근으로 거친 농경이 진행되던 곳이었다. 영조는 도성 외부에 창고를 설치하여 민인의 안집을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그 창고가 어영청의 성북창(城北倉)이었다. 다만 성북창의 관리와 경작민의 안돈을 위해 비용이 소용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 비용이 어영청에서 담당하는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선잠단 인근은 조선 초기부터 토질(土質)이 척박하고 모래와 자갈이 쌓여서 뽕나무를 심어도 잘 되지 않는 지대였다.⁵² 어영청에서는 응봉에서부터 정릉 인근의 산지에 상수리 등의 종자를 파종하고 심기도 하였다.⁵³ 혜화문 인근까지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어영청과 같은 군영이 민인을 배속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농지로서 소용하기에 한계점이 많은 곳이었다.

51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52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53 『일성록』 정조 24년 2월 29일(임자).

3. 성북 둔전의 존재 양상

어영청에서는 한양도성의 동북 성곽 외부인 혜화문 북측에 공식적으로 둔전을 설치하고 북둔(北屯)이라고 하였다.⁵⁴ 도성 내에 위치하던 각사의 제액(題額) 중에 ‘성북둔’은 예서에 능했던 노운(老耘) 윤동철(尹東哲, 1722~1789)의 글씨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성북둔을 관리하던 관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영조와 정조 대의 문신인 가암(可庵) 김귀주(金龜柱, 1740~1786)는 성북의 도성 외부가 심산장곡(深山長谷)이라서 외적이 잠입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그곳 형편을 상세히 묘사한 지형도를 구비하고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모군을 거처하게 해 불의에 대비하자고 했다. 모군들에게는 생활 자금을 주는 것과 동시에 훈조전(燠造廩)을 두게 해서 상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수년 만에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그곳이 바로 성북둔이라고 하였다.⁵⁶

북둔은 성북둔이라고도 불렸다. 현전하는 기록상으로는 영조 대인 1765년(영조 41)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지리지에서 거론하던 성북둔 인근의 지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혜화문 밖의 북측에 북저동北渚洞이 있고, 그곳에는 북송아나무를 줄지어 심어서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서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桃花洞이라 부르며, 어영청의 성북둔이 위치한다. 북저동은 복사동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묵사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묵사동墨寺洞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북송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거마車馬가 가득 찬다.⁵⁷

54 『승정원일기』 1452책, 정조 3년 11월 3일(계미).

55 『임하필기』 권30, 춘명일사(春明逸史), 제액(題額).

56 『가암유고』 권36, 유사(遺事) 「선고유사(先考遺事)」. “凡於國家陰雨之備 無不盡心 軍器歲加辦備 充積府庫 嘗以京城北靑門 近接深山長谷 恐爲賊蔽 屢往看審 圖其形便 稟于筵中 棚設一鎭 募軍出居者 各厚給錢米 又許設燠造廩 以通買賣 未數年成大村 擇勤幹將校 領而守之 所謂城北屯是也.”

5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어영청 성북둔이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성에서 야유회나 휴식을 위해 인파가 모이던 유락지(遊樂地)였다. 성북둔 인근의 민인들이 생활을 위해 복숭아나무를 심은 것이 지명의 이칭으로도 불렸으며 도성민들이 계절의 탐미를 위해 찾던 곳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추사 김정희도 성북둔의 복숭아 꽃나무를 찬미하며 구경하였다.⁵⁸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 1741~1793)도 도성의 풍경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성북둔의 복숭아꽃을 묘사하였다.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點綴靑林白沙嘴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短籬家家碧溪沚 ⁵⁹

이덕무가 묘사한 성북둔의 인근은 성북천이 흐르는 사이로 모래밭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중에 성북둔이 있고, 주변에 복숭아꽃이 붉게 만발하고 있었다. 성북둔 인근의 계곡에 흐르는 개천 연변에는 인가가 조성되어 있었다. 18~19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문인들이 복숭아나무가 천만 그루라고 할 정도로 도화가 장관이었다.⁶⁰ 혜화문의 평지에서 산악으로 올라가며 펼쳐지던 봄철 꽃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도성 제일의 풍광이라고 할 만한 탐미였다.

이러한 성북둔 인근의 풍광 묘사에 대해서는 사대부들의 유람기에도 잘 나타난다. 영조와 정조, 순조 대의 대표적 문인이었던 서형수(徐瀾修, 1749~1824)가 성북둔의 풍광을 기록한 다음의 유람기를 보면 잘 나타난다.

도성의 동쪽으로 나가 북쪽으로 3~4리를 가면 북적동이 있다. 북적동은 도성 곁에 있는 데다 명승지로 특히 이름난 곳이라 늦봄에는 하루라도 거리에 상춘객이 없는 날이 없다. 나는 본래 우쭐(愚拙)하여 문을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다. 문을 나서는 경우는 반드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때뿐이다.

58 『완당전집』 권9, 시 「북둔간도화」.

59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 12, 응지각체, 「성시전도」.

60 『은송당집속집시』 권3, 「아배출성북둔간화(兒輩出城北屯看花)」.

이날은 객이 길을 나서자고 하도 졸라대기에 함께 작반(作伴)하여 천천히 거닐어 북적동에 이르렀다. 북적동 입구에는 너럭바위가 비스듬히 누워 있고, 그 위로 물이 널찍하게 퍼져 흘렀다. 물가를 따라 물고기 께미마냥 나란히 줄을 서서 올라가면서 혹은 이리저리 골라 디디거나 혹은 풀쩍 건너 뛰기도 하였다. 북적동에 들어서자 널찍하던 바위는 길게 뻗어 있고 퍼져 흐르던 물은 좁게 모여 골짜기 가운데는 개울이 되고 개울 양 기슭은 언덕을 이루었다. 언덕마루 위로는 몇 리에 걸쳐 산길이 나 있고, 사이사이에 촌락의 울타리가 별자리처럼 드문드문 펼쳐져 있었다. 울타리 밖으로는 언덕에서 산까지 복사꽃 나무가 그득히 서 있었다.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질붉은 것도 있고 연붉은 것도 있었다. 또 정정한 소나무와 늘어진 버드나무가 일산처럼 펼쳐져 있고 휘장처럼 드리워져 있어 아련한 비와 열은 안개처럼 서로 어울려 어리비쳤다. 이따금 떨어진 꽃잎이 개울로 들어가 개울물이 온통 꽃빛으로 물들었다. 촌락에 업무(業武) 김 아무개가 있는데 나와 구면이다. 개울에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꺾어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지나 그의 집을 찾아갔다. 초가를 없어 지은 집이 호젓하고 정갈하여 인간 세상의 살림집 같지가 않았다. 주인은 우리에게 마루를 내주고서 몸소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조금 있자니 벼슬아치들이 탄 말과 수레가 길을 메우고 왁자하게 문 앞을 지나가는데, 술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느라 날리는 먼지가 자욱하였다. 내가 주인에게 말하였다. “할아범이 이곳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젊은 시절을 거쳐 늙을 때까지 이 골짜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처럼 북적였겠군그래?” 주인이 말하였다. “사방의 교외에서 명승지로 이름난 곳 중에 동교(東郊)가 최고입지요. 북적동은 이 동교에서도 더욱 빼어난 곳입니다요. 한창 고운 꽃이 향기를 뿜고 수려한 경치가 자태를 뽐낼 때면 도성의 남녀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미어터지지 않는 날이 없습지요. 그러다 꽃이 지고 물이 줄어 봄 산이 텅 비게 되면 이따금 오가는 이들이라곤 푸닥거리를 하는 박수 노인이나 빨래하는 할멈뿐이라 썰렁하니 마냥 똥합지요.”(후략)…⁶¹

61 『명고전집』 권8, 기, 「유북적동기」.

서형수의 유람기에서 성북둔 인근은 혜화문 외부의 명승지로 동교에서도 수선(首善)이라고 평가되었다. 복숭아꽃이 피는 봄철에는 선남선녀의 상춘객이 늘 붐비던 유원지였다. 도성의 고관대작도 말과 가마를 타고 무리를 지어 탐미하였다. 성북둔의 입구에는 시내가 흐르는 큰 바위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골짜기였다.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 양 옆은 언덕이면서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인가를 이어가며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흥분한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소나무와 버드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촌락이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복숭아나무들은 인가에서 인공적으로 심고 키워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⁶² 또한 국가에서도 소나무와 상수리 등의 식재목 등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⁶³ 군영의 둔전이 있다고 하여 인적이 드문 광야가 아니었다. 성북둔 인근에 복숭아를 비롯한 수목들이 유지된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북둔 인근 지리에 대한 평가는 체제공도 동일하게 유람기로 기록하였다. 체제공이 성북둔이 있는 북저동의 복숭아 꽃을 감상하고 돌아와 기술한 북저동기(北渚洞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친구들과 명승 탐방을 위해 혜화문을 나가 성북의 수리를 올라가 북저北渚에 도달했다. 그곳은 선잠단 인근으로 100여보 정도의 제단을 둘러보고 하천을 흐르는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는 하천의 물이 모이는 곳이었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다리의 남쪽 계곡 양측에 펼쳐진 도화꽃들을 보며 위로 직선 길을 올라가다가 다리를 건너니 어영청의 둔전에 이르렀다. 도화꽃들은 둔전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둔전의 경작을 위한 도랑과 창고들이 정비되어 있었다. 도성의 여항민들이 거마를 이용해서 노니는 곳으로 국가의 안녕을 볼 수 있는 장소였다. 도성의 성벽을 의지하여 4~5칸 정도의 가옥들이 있으며 그곳에서 음주와 탐미를 하였다. 도성에서 단시간에 탐방하여 즐길 수 있는 단거리에 위치한 명승이었다.⁶⁴

62 『여와선생문집』 권5, 시 「공회유북둔(公會遊北屯)」.

63 『일성록』 정조 24년 2월 14일(정유).

64 『변암선생집』 권35, 기 「유북저동기」.

체제공의 기문에 따르면, 정조 대 성북둔은 어영청의 경작지이면서 창고가 있는 군사 시설이었다. 둔전의 경지가 도랑이 설치되어 잘 구획되어 있고, 창고 등의 시설이 구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북둔이 어영청의 군사 시설인 둔전임에도 주변은 늘 휴식을 취하거나 유람을 하기 위한 도성민들로 변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북둔에 이르는 여정에 펼쳐진 도화 꽃의 향연이 도성민을 유도하였고, 성벽을 중심으로 인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성북둔에 인접한 도성 인근에 인가가 밀집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이유는 성벽에 포루와 치성 등의 군사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루와 치성이 기능을 위해 시야를 가로막거나 외적이 엄폐로 사용할 곳을 사전에 방지한 결과이다. 도성의 수성을 위해 민가를 훼손한 결과였다.⁶⁵ 19세기에 성북둔 인근에 초가집이 조출하게 마을을 이루고 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성북둔 주변으로 흐르는 하천에 몇 개의 교량이 있어서 인적·물적 이동에 용이한 교통 시설이 정비되어 있었다. 계곡의 수량은 둔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되었다. 성북은 영조 대부터 어영청에서 관할하여 둔전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민인을 안집시키려고 한 곳이다. 도성 서쪽의 연용대(鍊戎臺)와 상대하여 동쪽에 둔전을 조성해서 한양도성 북측의 안정을 기도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한 것이다. 어영청 성북 둔전은 민인을 모아서 경작하는 동시에 아병(牙兵)에게 잡역을 제외시키고 경작하게 하였다.⁶⁷ 따라서 체제공이 목격한 성북둔의 시설과 인가는 영조 대 도성의 안녕을 위해 어영청의 물력을 동원한 결과물이었다. 영조 대 설치된 성북둔의 운영은 인근에 유람을 했던 사대부들에게도 자주 목격될 정도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⁶⁸

위의 기록들을 근거로 어영청 성북둔의 위치를 지도에서 비정한다면 다음의 <그림 10>과 같다.

65 『승정원일기』 1015책, 영조 23년 4월 16일(을해).

66 『완당전집』 권9, 시 「북둔간도화」; 권10, 시 「북둔상화출곽구호」;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 12, 응지각체, 「성시전도」.

67 『승정원일기』 1242책,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68 『가암유고』 권3, 시 「제방성북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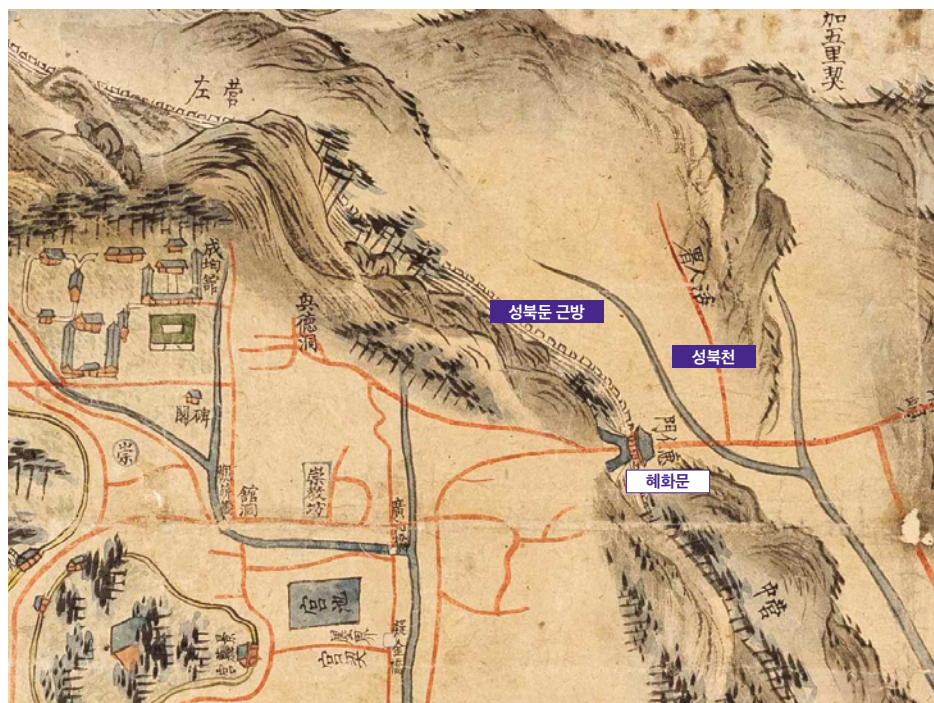


그림 10-1 heohwamun 밖 성북천과 성북동의 위치
(『도성도』 부분, 18세기 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0-2 heohwamun 밖 성북천과 성북동의 위치
(『동국여도(東國輿圖)』 중 「도성연용북한합도」 부분, 19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0-3 heohwamun 밖 성북천과 성북동의 위치
(『도성대지도』 부분, 1753년 이후)



그림 10-4 heohwamun 밖 성북천과 성북동의 위치
(『대동여지도』 부분, 186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10-5 해화문 밖 성북천과 성북동의 위치(『광여도』부분, 연도 미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앞서 살펴본 <그림 10-1>부터 <그림 10-5>까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성북동의 위치는 해화문을 지나 왼쪽 성북천을 올라가 선잠단 아래 혹은 좌측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선잠단 아래에 흐르던 성북천의 위에 있었으며 도성 북쪽의 성벽과 구준봉 능선 사이의 공간이다. 성북천은 호유현에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합해져 안암천으로 명명되고 있다. 구준봉은 도성의 후장(後帳)으로 큰 번폐(藩蔽)로 여겨지던 천연의 요새지였다. 구준봉 인근은 계곡이 깊고 봉우리가 높아서 적병이 돌격하여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곳이다. 이에 성벽 위에 3~4개의 둔대(墩臺)를 설치해서 방수(防守)를 강화하자고 한 곳이다.⁶⁹ 구준봉 인근에는 호랑이가 출몰하여 어영청 군병이 사냥을 할 정도였다.⁷⁰ 따라서 성북동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 공간은 평소에 일반인의 주거도 많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람기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

⁶⁹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2월 15일(을유).

⁷⁰ 『일성록』 순조 10년 1월 28일(계미).

북천의 교량을 건너 선잠단을 지나 도착한다는 여정을 참조한다면, 이 공간에 성북동이 위치하였던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곳은 민간인의 접근이 많지 않던 곳이었으므로, 둔전과 같은 경작지만이 아니라 군사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정조 대 경모궁을 수치하며 인근을 개발하면서 해화문을 통해 유통망을 활성화시키게 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해지는 계기도 있었다.⁷¹

실제로 어영청 북둔은 군사 시설이었으므로, 경작만이 아니라 진법을 연습하는 군사 훈련과 활을 쏘는 습사(習射) 및 사예(射藝)를 거행하던 다용도 공간이었다.⁷² 성북천에서는 어영청의 기마들을 세마(洗馬)하던 곳이었다.⁷³ 또한 창덕궁에 근무하던 선전관청에서 수시로 습각(習角)을 거행하던 장소이기도 하다.⁷⁴ 정조는 문신들의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삭시사(朔試射)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성북둔에서 연습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⁷⁵ 이에 어영청에서는 정조의 지시에 따라 초계문신들의 습사를 주관한 후에 상승한 성적을 보고하였다.⁷⁶ 성북둔은 18세기에 어영청이 도성에 인접한 곳에 운영하던 유일한 둔전이었다. 다음의 <표 5>는 18세기 이후 어영청의 둔전 분포 상황이다.

표 5 19세기 어영청의 둔전 분포⁷⁷

	둔전명	설치	소재	운영자
1	왕제둔(汪濟屯)	1659(현종 즉위년)	장연	별군관
2	양주둔(楊州屯)	1678(숙종 4)	양주 철원	별무사
3	태탄둔(苔灘屯)	1751(효종 2)	장연	교련관
4	원봉둔(元峰屯)	1751	적성	별무사
5	성북둔(城北屯)	1765(영조 41)	해화문 외	교련관
6	인천둔(仁川屯)	1773(영조 49)	인천	출신군관
7	고부둔(古阜屯)	1773	고부	본관
8	봉산둔(鳳山屯)	1773	봉산	교련관
9	양화둔(楊花鎭)	1754(영조 30)	한강	별장
10	강화유영(江華留營)	1680(숙종 6)	강화	교련관

⁷¹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2월 13일(신사).

⁷² 『승정원일기』 1695책, 정조 15년 10월 2일(계묘); 10월 27일(무진).

⁷³ 『일성록』 정조 7년 8월 19일(무인).

⁷⁴ 『선전관청일기』 권11, 壬申 二月二十一日.

⁷⁵ 『일성록』 정조 15년 10월 2일(계묘).

⁷⁶ 『일성록』 정조 15년 10월 27일(무진).

⁷⁷ 『만기요람』 군정편 3, 어영청.

〈표 5〉에서 어영청 둔전은 대부분이 18세기에 새로 설치되었다. 또한 다양한 장교들이 둔전의 관리에 파견되고 있어서 군영이 둔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성북둔에는 앞서 군영의 둔전 운영에서 언급하였듯이 교련관이 파견되고 있다. 둔전 인근에 인가를 조성한 것은 전례가 있다. 양주의 흥복산 인근의 대탄 남쪽과 서쪽에는 어영청 둔전을 경영하는 둔촌이 있었다.⁷⁸ 양주 둔전은 연천(漣川)부터 남쪽의 영평(永平)까지 길이 30리, 넓이 50리에 이르는 규모였다.⁷⁹ 양주 둔전은 효과가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민인의 모속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125명으로 정액되었다.⁸⁰ 반면 바다를 접한 곳의 염전이 있는 곳 인근에 궁방이 있는 경우에는 둔전 외곽에서 과외의 징세는 물론 침해를 받기까지 하였다.⁸¹

성북둔에는 자체적으로 둔감이 있었다. 또한 환곡미(還穀米) 400석과 돈 2천냥 가량, 소 33쌍을 구비하게 하여 자체적인 농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⁸² 성북 둔전에 감관이 배치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어영청의 성북둔식(城北屯式)이 설립되었다. 성북둔식에 의하면 1765년(영조 41)에 감관 1명, 서원 1명, 고직 1명, 사환군 3명, 아기수(兒旗手) 1명 등이 배치되었다.⁸³ 성북 둔전의 둔감은 인근 선잠단의 유무를 살피는 적간도 담당하였다.⁸⁴

성북둔이 도성 인근에 위치하였으므로 지방 행정 조직의 간섭보다는 어영청의 관할이 용이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국왕의 지시에 따라 직접 성북둔의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⁸⁵ 다만 둔전 경영 방식에 있어서 19세기로 갈수록 제기되었던 종실수세(從實收稅)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둔민들의 안정적인 소출을 유도하는 방안은 성북둔에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⁸⁶ 어영청 군제가 유지

78 『부제일기』 10월 13일.

79 『어영청등록』 권24, 甲午九月十三日備局甘結.

80 『어영청도등록』 권3, 己丑正月二十四日備局甘結.

81 『어영청등록』 권43, 己未七月日.

8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동국여지비고 제2편.

83 『어영청식례』 권1, 성북둔식. “監官 1員 加料三斗 木1疋 饌價3兩 柴油價木1疋 白紙1卷 白筆1柄 小節眞墨1斗 柴油價錢2兩 炭1石 所騎馬喂養穀草自策應所上下而青草價 四分式自本屯上下 書員 1名 加料3斗 木1疋 柴油價錢1兩 白紙1卷 白筆1柄 小節眞墨1斗 所居家蓋草價依養魚直例自策應所上下庫直 1名 加料3斗 木1疋 柴油價錢1兩 所居家蓋草價依養魚直例自策應所上下 使喚軍 3名 2名料各6斗以本屯耗米上下 1名料6斗以本屯兒旗手代自餉色上下 保布9疋以本屯兒旗手1名 保布受出於軍色 使喚軍3名各3疋分食每年破年軍服具戰帶各一年式以木布軍服輪回上下.”

84 『만기요람』 군정편3, 어영청, 적간.

85 『일성록』 정조 24년 2월 14일(정유).

86 송양섭, 앞의 책(2006), 268~269쪽.

되는 구한말까지 성북둔의 군영 운영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도성 내의 동부에 있는 어영청 본영과 최단 거리에 있는 둔전이었으므로 그 관리가 용이하고 재원 확보는 물론 군사 훈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영청 둔전인 성북둔은 19세기 이후 개항기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종 대에 성북둔이 위치한 지역은 홍인문 외부에 위치한 동부(東部) 숭신방(崇信坊)의 성북동계(城北洞契)에 소속되었다.⁸⁷ 정조 대부터 숭신방에는 어영청 군병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므로 성북둔이 고종 대까지 유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⁸⁸

1905년에도 면우 곽종석이 고종에게 둔전의 설치를 주장하던 것을 보면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둔전의 존재는 가능했다. 다만 어영청의 성북둔이라는 군사 시설로 존재한 것은 고종 대 군제의 변화와 관계된다. 어영청은 1881년(고종 18) 충융청 및 금위영과 합쳐져 장어영(將禦營)이 되었으며, 1884년에는 총어영(總禦營)으로 바뀌었다. 갑오개혁기인 1894년에는 군영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성북둔이 적어도 대한제국 이전까지 군영의 소관으로 존재했고,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황폐화되었다고 추정된다.

87 『승정원일기』 2951책, 고종 23년 8월 7일(병인).

88 『승정원일기』 1548책, 정조 8년 1월 7일(계사).

5

1. 조선 후기 봄꽃 나들이의 랜드마크, 성북동의 탄생 182

2. 봄날 복사꽃 만개한 성북동 경관과 그 기록의 흔적 198

3. 성북동 일대에 자리했던 여러 누정에 관한 이야기 222



조선 후기 성북동 일대의 봄꽃 나들이와 누정 이야기

류인태(고려대학교)

1. 조선 후기 봄꽃 나들이의 랜드마크, 성북동의 탄생

1. 성북, 도성 인근 봄나들이의 명소

조선 후기 문신 권상신(權常愼, 1759~1824)은 1784년 윤3월 1일 도성 안에 살던 몇몇 벗들과 함께 정릉으로 유람을 다녀왔다.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릉유록(貞陵遊錄)」이라는 글로 남겼는데, 글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급이 보인다.

…(전략)버들은 흥인문이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미 다 보았고, 살구꽃은 유란동이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벌써 다 보았으며, 복사꽃은 복사동이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장차 다 볼 것이며, 진달래는 아직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정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어떤 이는 다백운루를, 어떤 이는 석양루를, 어떤 이는 영미정을, 어떤 이는 정릉을 이야기했다. 한참 상의를 하고나자 다들 정릉이 좋겠다고 말했다.(후략)…¹

흥인문은 늘어선 버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행락지였다. 유란동은 지금의 종로구 청운동에 있던 마을로,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성 내에 살구꽃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은, 유란동 외에 또 필운대(弼雲

¹ 『서어유고』 5책, 「정릉유록」. “…(전략) 柳於興仁門最盛, 吾輩已盡之矣, 杏花於幽蘭洞最盛, 吾輩已盡之矣, 桃花於北寺洞最盛, 吾輩將盡之矣, 杜鵑花, 尚未賞盛處, 奈何? 於是, 或言多白雲樓, 或言夕陽樓, 或言永美亭, 或言貞陵. 良久議, 乃同曰貞陵(후략)…”

臺)가 있었다. 다백운루는 영조의 딸 화평옹주와 결혼해 금성위(錦城尉)에 봉해진 박명원(朴明源, 1725~1790)의 교외 별장으로 동대문 밖 신흥사(新興寺) 인근에 있던 누각이다. 석양루는 그 이름처럼 해질 무렵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곳으로, 동대문 근처 낙산 아래에 있던 인평대군의 집이다. 영미정은 동망봉(東望峯) 아래에 있던 누정으로 풍광이 수려해 많은 문인들이 찾았던 곳으로 짐작된다.² 이와 같이 이름난 여러 장소 가운데서도 진달래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정릉을 합의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정릉유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권상신 일행이 방문한 신흥사[흥천사(興天寺)]의 진달래 군락은 더없이 풍성하고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으니 ‘복사꽃은 복사동이 가장 아름답다(桃花於北寺洞最盛)’는 문장이 그것이다. 복사동은 지금의 성북동으로, 조선 후기 성북동 일대가 서울 곳곳의 여타 명승과 함께 봄꽃을 구경하는 대표적 행락지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봄철 거대한 복사꽃 군락이 만들어 내는 분홍빛 아름다운 풍광은, 여타 행락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이채로운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봄이 되면 복사꽃 군락의 장관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성북동을 찾아왔을 상춘객들의 들뜬 표정과 분주한 손짓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다. 요즘으로 보자면 4월의 여의도 윤중로가 그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양편에 늘어선 벚나무와 그 사이로 바람 가득 휘날리는 벚꽃 잎 풍경을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행락객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예나 지금이나 겨우내 웅크려 있던 나무가 꽃으로 그 생명력을 발산하는 봄날 특유의 울긋불긋한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성북동의 아름다움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도 확인된다. 아래는 「성시전도」에서 도성 바깥, 소위 사대문 밖 ‘성저십리(城底十里)’를 대표하는 명승지로서 지금의 성북동인 북둔을 언급한 부분이다.³

서울 안의 아름다운 풍광은 이미 다 썼으니
다시 교외로 나가 한 번 품평을 해볼까

京中物華已題了
復從郊垌一評批

² 『노주집』 권27, 「연보」. “六月, 遊永美洞. 永美洞在東郭外東望峯下, 有泉石之勝.”

³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 12, 응지각제 「성시전도」.

승례문 바깥으로는 무엇이 보이는가	崇禮門外何所見
십리 길 강가 창고에는 곡식이 억만 섬이요	十里江廩粟億秭
이내 낀 물결 사이 끝없이 보이는 삼남의 배들	煙波極望三南舶
백백이 들어선 돛대들 만 척이나 정박해 있네	簇簇帆竿萬艘艤
돈의문 바깥으로는 무엇이 보이는가	敦義門外何所見
봄날 교외 창 춤 추고 말달리며 묘기 부리네	舞槍春郊猿騎駛
반송지蟠松池 물빛 푸르려 물들 것만 같은데	蟠松池水綠可染
푸른 연잎 흔들리는 물결에 백지白芷도 잠겼네	演漾青荷涵白芷
흥인문 바깥으로는 무엇이 보이는가	興仁門外何所見
적전籍田의 농부들 푸른 따비를 잡고 일하네	籍畝農人秉青耜
저 멀리 화양정華陽亭에 석책石柵은 남았는데	華陽亭迥石柵古
하늘 닿은 파란 풀밭에 준마들이 뛰어 노네	碧草粘天騰駿騏
혜화문 바깥으로는 무엇이 보이는가	惠化門外何所見
이어지는 푸른 숲에 하얀 모래톱이 보이네	點綴青林白沙嘴
북둔의 복사꽃은 세상에서 가장 붉은데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 집집마다 올라리 나지막하네	短籬家家碧溪汊

승례문 밖으로는 용산에 자리하고 있던 경창(京倉)과 그 일대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한강 뱃길을 통해 경상도와 충청도 등 남쪽 지역에서 세곡을 운반해 온 수많은 배들과 곡식을 가득 쌓아 둔 창고의 모습이 그려진다. 돈의문 밖으로는 경기감영 일대와 일명 ‘서지(西池)’로 불린 반송지(蟠松池, 般松池)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창으로 춤을 추고 마상재(馬上才)를 부리는 감영의 군인들과 함께 푸른 연잎과 백지(白芷)가 뒤섞여 있던 연못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흥인문 밖으로는 적전(籍田)에서 한창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과 화양정(華陽亭[지금의 광진구 화양동 110번지 근처]) 및 일대의 목장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힘찬 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소위 사대문으로서 승례문, 돈의문, 흥인문 등과 나란히 혜화문 밖을 대표하는 공간이 묘사되어 있으니 바로 지금의 성북동이다. 혜화문 너머 곧장 이어지는 푸른 숲 사이로 하얀 모래톱이 펼쳐진 삼선평 일대와, 그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내

를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 가득한 복숭아나무와 늘어선 민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이덕무가 「성시전도」를 지으며 혜화문 바깥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성북동을 거론한 것은, 복사꽃이 만발하는 일대의 봄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 후기 도성 인근 상촌의 명승으로서 성북동에 관한 기록은 여타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아래는 『한경지략(漢京識略)』과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 기록되어 있는 성북동에 관한 내용이다.

북사동. 혜화문 밖에 있다. 옛날 목사가 있었기에 목사동이라고도 한다. 또 어영청의 북쪽 창고가 여기에 있었으므로 북둔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냇물 양쪽 언덕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숭아를 심어서 생업을 하므로, 매년 늦은 봄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수레와 말들이 산골짜기를 가득 메운다. 깨끗한 집들도 많다. 정유(貞蕤) 박제가(朴齊家)의 「성시전도(城市全圖)」시에 “성 북쪽 창둔 일대의 풍속을 가장 사랑하나니, 복숭아를 심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네(最憐城北屯邊俗, 不種桃花以爲耻)”라는 표현이 이런 것이다.⁴

북저동. 혜화문 밖 북쪽에 있다. 마을 안에 복숭아나무를 온통 심어 봄철에 복사꽃이 한창 피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이라 부르며, 어영청의 성북둔이 있다. ○ 북사동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동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수레와 말이 가득 찬다.⁵

두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 후기 성북동에는 ① 어영청의 북둔이 있었고, ② 목사라는 절이 있었으며, ③ 주민들 대부분이 복숭아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④ 봄마다 복사꽃을 구경하러 오는 상춘객들로 봄볏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성북동은 불과 250여 년 전만 해도 ‘북저동’, ‘북

⁴ 『한경지략』 권2, 명승조.

⁵ 『동국여지비고』 권2, 명승조.



그림 1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중 선잠단 일대의 모습, 20세기 전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동, ‘목사동’, ‘도화동’, ‘북둔’ 그리고 ‘북적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해서 조선 전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북동은 1471년(성종 2) 설치된 선잠단(先蠶壇)으로 인해 제향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확인될 뿐 거주 공간, 즉 동촌(洞村)으로서의 모습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⁶ 그림 1 한편 일반민의 거주 여부와 별개로 전원(田園)으로서 성북동 일대의 풍광은 본래부터 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근거로 조선 전기의 문신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이 남긴 칠언율시「음력 3월 28일 동갑인 하원군(河原君) 자방(子房) 장언량(張彦良), 참판 인경(仁卿) 김익수(金益壽), 동지중추 백규(伯圭) 송○○, 첨지중추 석지(錫之) 김○○가 나를 맞이해 도성 동쪽 선잠단의 서쪽으로 이어진 냇가에서 계모임을 했는데, 늦은 오후 비를 만나 옷이

6 선잠단은 양잠의 신 서릉씨(西陵氏)에게 누에농사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3월 첫 번째 사일(巳日)에 명부(命婦)들을 거느리고 가서 의식을 행하던 제향 공간이다.

젖었으나 벗지 않고 그대로 앉아 저녁에 이르러 그런대로 읊시 2수를 기록해 여러 공의 한바탕 웃음으로 삼다」를 참고할 수 있다.⁷

신령한 제단 우뚝 솟아 돌아가는 개울 굽어보는데	靈壇高峙俯回溪
승경을 가려 찾아와 놀다보니 해가 서쪽에 기우네	選勝來游到日西
여린 풀 이미 어우러지며 꽃 피는 일 쇠퇴하니	嫩綠已交花事退
지는 봄도 얼마 남지 않아 상춘의 마음도 희미하네	殘春無幾賞心迷
산음의 멋진 모임에 함께한 이들은 어디에 있나	山陰勝集人何在
삼진날 향기롭던 난초는 잎이 이미 가지런하네	上巳香蘭葉已齊
시끄러운 생황과 노랫소리 조금도 그치지 않는데	鼎沸笙歌殊未艾
한쪽 편에는 돌아가라며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半邊還送雨淒淒

제목에 언급된 김익수(金益壽, 1491~?)가 참판의 자리에 오른 것은 1546년(명종 원년)이다. 이로써 볼 때 이 시는 아무리 일러도 16세기 중엽 즈음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가운데 5, 6번째 구를 통해 중국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상사일(음력 3월 3일)에 산음(山陰) 난정(蘭亭)에서 가졌던 계회(契會)에, 자신들의 모임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진날 향기롭던 난초는 잎이 이미 가지런하네”라는 표현이 음력 삼월 말경임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승경을 가려 찾아와 놀다(選勝來游)’, ‘꽃 피는 일 쇠퇴하니(花事退)’, ‘지는 봄도 얼마 남지 않아 상춘의 마음도 희미하네(殘春無幾賞心迷)’와 같은 표현을 보면, 선잠단 인근의 계곡은 16세기 무렵에도 봄꽃을 완상하는 곳으로 명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전원의 아름다움과 별개로 일반민이 성북동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다. 1765년(영조 41) 영조의 명에 의해 북둔을 설치하면서 거주민을 모집한 것이 동촌(洞村)으로서 성북동의 본격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7 『호음잡고』 권4, 남궁일록, 「暮春下旬八日, 同庚張河原子房·金亞卿仁卿·宋同樞伯圭·金僉樞錫之, 邀余脩禊于城東先蠶壇迤西溪上, 晡時遇雨, 沾服不散, 堅坐至夕, 聊記二律, 用博諸公一笑」.

2. 18세기 중엽 북둔의 설치와 성북동의 탄생

1765년(영조 41) 영조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의견에 따라 지금의 성북동 일대(성북초등학교 인근으로 추정)에 어영청의 둔창(屯倉)을 설치하고,⁸ 둔전을 경작할 백성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래 『영조실록』 1765년 4월 17일 자 기사에 나와 있다.

영의정 홍봉한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북성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땅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해서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人家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 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 근처에 있는데, 급료를 받는 병사들을 그 땅에 살게 해서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줄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면, 가히 귀농하게 하는 실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상이 지형을 그려 아뢰도록 하자,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상세히 하였다. 이에 주상이 어영청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지금의 성북창이다. 창고가 도성 밖에 있어서 헛되이 도적에게 물건을 내어주는 장소가 되었으며, 거주하는 백성들은 땀나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갈 도리가 없어서 창고의 저축미를 얻어먹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심했다.⁹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성북동 일대는 ① 땅이 매우 평평하고 넓었으며 ② 나

⁸ 북둔의 위치를 성북초등학교 인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해당 일대가 둔전이 있었으리라 짐작할만한 평지이기도 하지만, 그 근거가 될 만한 정보가 조선 후기 조정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문집 『정유각집』에 수록된 시에 있기 때문이다. 「혜화문을 나와서 성곽을 따라 서쪽으로 2리를 가면 성북둔이라는 둔창이 있다. 거주민이 모두 복숭아를 심어 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데, 언덕을 사이에 두고 부서진 절이 있어서 소위 북사동이라고도 한다(出惠化門, 循城而西二里, 有倉曰城北屯, 居民皆種桃, 紅霧蒸成, 隔岡有破寺, 所謂北寺洞者)」라는 칠언율시가 그것인데, 지금의 혜화문 우측에서 성곽 터를 따라 2리(약 800~900m) 가량 되는 곳이 바로 성북초등학교 일대다.

⁹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임술). “領議政洪鳳漢奏曰: ‘北城主脈東北邊, 有一空谷, 地甚夷曠, 樵採亂入, 童濯無餘. 今若置數十戶人家, 可以捍衛都城. 且有薄田如干頃, 在於先蠶壇近處, 使軍士食料者, 居其地許耕其田, 而減其稅, 俾冀其生, 則可有歸農之實效也.’ 上命圖形以陳, 鳳漢以手指點, 條奏之頗詳. 上命御營廳, 設倉募民, 卽今之城北倉也. 倉在城外, 徒爲齎盜之所, 而居民非樵利則無以聊生, 仰哺倉儲, 糜費反甚焉.’”

무꾼들에 의한 주변의 벌목이 심했고 ③ 주변에 인가(人家)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④ 선잠단 근처에 경작지로 개간할만한 일부 거친 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땅이 평평하고 넓다는 표현은 성북동 전체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도 지금의 성북초등학교 인근의 지형적 특성을 짚어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벌목에 관한 언급은 성북동에만 한정된 사안으로 보기보다도, 17세기 이후 도성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이어진 한양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양란 이후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땀감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났다. 도성 인근에서 마구잡이식 벌목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이 헐벗고 그로 인해 토사가 하천까지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잦았다. 하천에 토사가 계속 퇴적되면서 하상(河床)은 점차 높아졌고, 이 때문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청계천이 범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⁰ 지나친 벌목이 토사 유출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하천의 유량 조절 기능이 망가짐에 따라 청계천이 넘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조선 후기 도성의 벌목과 하천의 준설 문제는 조정에서 논의된 골치 아픈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관련된 여러 기록 가운데서도 성북동에 관한 내용으로 『승정원일기』 1800년 2월 14일자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가산嘉山の 백성 김석태金錫泰가 서계書啓하였다. …(중략)… 이번달 11일에 성 북둔에 나아갔는데 둔 내부에는 탈이 없었지만, 산허리에 심은 상수리 열매橡實가 자란 것이 2, 3치가량이니, 숲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는 그다지 들지 않았습니다. 뿌려놓았던 솔씨松子是 이따금 떨기로 무성했으니, 본 바로는 상수리 열매보다 낫습니다. (후략)…¹¹

소나무는 결이 곱고 강도가 높아 뒤틀림이 적었기에 여러 방면에서 재목으로 활용되어 소위 ‘금송(禁松)’의 대상이었으며, 상수리나무의 경우 그 자체로는 큰 쓸모가 없었지만 열매인 도토리가 대표적인 구황 식량으로 이용되었기에 종자를 파종

¹⁰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20, 159쪽.

¹¹ 『승정원일기』 1818책, 정조 24년 2월 24일(정미). “嘉山民金錫泰書啓 …(중략)… 十一日詣城北屯是白乎, 則屯內無頃, 而山腰上所植橡實, 長可二三寸者, 姑無成林之望是白乎矣, 所播松子則往往叢生, 而所見勝於橡實是白乎旃. (후략)…”

해 숲으로 조성하고자 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민둥산에 가까웠던 성북동 일대에도 북둔을 설치한 이후로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숲 조성을 위한 파종 및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노력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큰 실효성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한 단서로 『승정원일기』 1877년 1월 25일 자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최응李最應이 아뢰었다. “...〔전략〕 북악의 보토補土한 곳은 어영청의 관할 구역 안인데도, 민둥산의 모습을 면하지 못하여 해마다 사태沙汰가 납니다. 보수하여 쌓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 담당 군영이 이 일로 인해 그 형편이 쇠잔해지고 있다고 하니, 일이 놀랍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의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제 조그마한 집도 성북동에 있습니다. 노속奴屬이 만약 이 금령을 범하더라도 해당 군영의 책임자가 안면과 사정을 두지 않고 해당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어찌 청탁의 폐단을 근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히 송림松林이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이 말했다. “북악의 보토는 과연 열성조列聖朝 이래로 더욱 돌보며 유념했던 땅이다. 그래서 고쳐서 축조하는 절목이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병국이 아뢰었다. “사방 산의 소나무가 울창한 연후라야 사토沙土가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니, 하천을 준설하는 일을 말하는 것도 다소 쉬워질 것입니다.”¹²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형이다. 그는 아마도 1870년대 성북동에 별업(別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최응은 무분별한 벌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격한 법률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분과 권력이 얹혀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와 같은 엄정한 법질서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¹² 『승정원일기』 2834책, 고종 14년 1월 25일(신사). “最應曰: ‘...〔전략〕 且北岳補土之地, 則御營廳字內, 而山樣未免童濯, 年年沙缺, 其所補築, 不可廢者, 而該營因此役, 而營樣凋殘云. 事之駭然, 莫此爲甚. 雖以臣言之, 臣之小屋, 在於城北洞, 而奴屬若犯此禁, 該將臣, 不顧顏私, 另施當律, 則何患乎請囑之弊也? 松林自然茂密矣.’ 上曰: ‘北岳補土, 則果爲列聖朝以來, 尤加顧念之地, 故修築之節, 與他有異矣.’ 炳國曰: ‘四山松木鬱密然後, 沙土可不流下, 雖以濬川之役言之, 亦可稍易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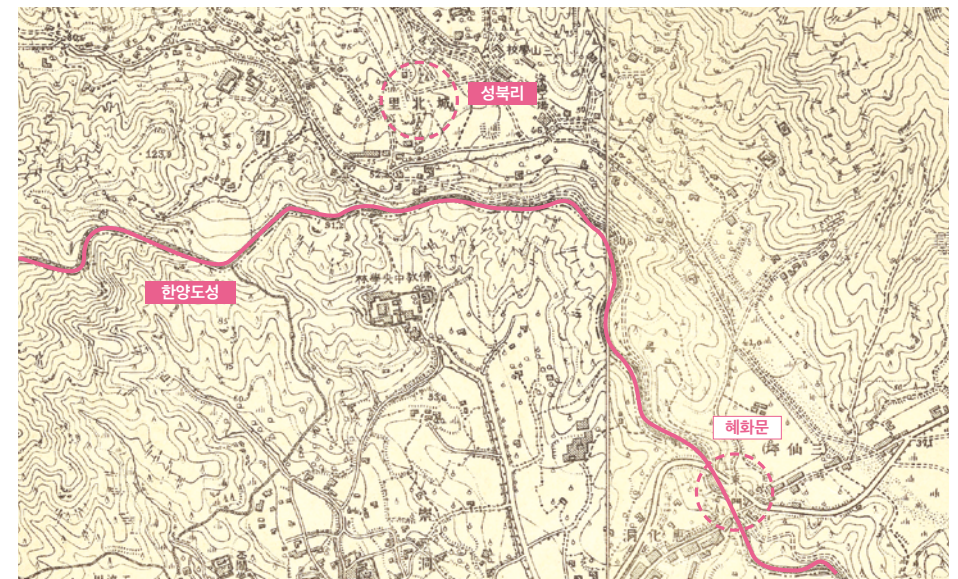


그림 2 1915년 지도에서 추정된 성북동 일대의 모습(『경성지형도』(1:10,000), 1915년 축도, 1921년 수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앞서 『영조실록』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거주하는 백성들은 뭇나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도리가 없었기에(居民非樵利, 則無以聊生)’ 그와 같은 생존의 조건에서 풍부한 식생(植生)의 조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주변에서 벌목이 자행되었던 것과 별개로 지형이 평평하고 넓은데다가 거칠지만 나뭇 경작할 만한 전토가 있다는 조건은, 영조에게 군병들을 먹일 둔전(屯田)을 이곳에 개발토록 한 동인(動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성을 지키던 삼군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가운데서도 어영청에 둔전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은 도성의 동쪽 일대가 어영청의 순찰·관리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2}

둔전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관할 군영의 군사를 직접 동원하거나, 유민을 모집해 투입하거나, 일반 백성에게 병작을 하게 하는 3가지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군영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경작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지(田地)를 개간하게 하거나, 안집 정책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유민 그리고 도성의 빈민을 둔전 경작에 예속시키는 방식은 소위 ‘군사경작(軍士耕作)’, ‘모민경간(募民耕墾)’으로 표방되는 군량 및 군역 자원의 동시 확보를 의미했다.¹³

¹³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삼군영』, 2019, 198~199쪽.

이와 관련해 18세기 후반 서울에 머물던 군병들의 생활 조건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에 큰 여유가 없었기에 급료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시장의 물가 변동에 따라 곡식이 아니라 돈이 급료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군병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후로 복돈을 포함해 도성 곳곳에 개간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도성 내에서 문제로 여겨지던 군병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또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이처럼 어영청의 둔전을 성북동에 설치한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차원 등 여러 맥락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나 도성을 방어하기(捍衛都城) 위한 목적이 일순위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래 『숙종실록』 1704년 2월 15일 자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전략)(어영대장) 윤취상이 아뢰었다. “도성 북쪽은 나지막하고 평평하여,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마치 어른이 아이를 안고 굽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적병이 웅거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보루堡壘와 기습할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2019), 317쪽. “훈련도감 군병들은 급료로 쌀을 식비로 사용하고, 의복은 보인에게서 받은 보포로 충당했다. 쌀과 보포는 상평통보가 통용되기 이전에는 현물 화폐였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각종 생활 자료를 구입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이와 같은 군병들의 급료 수준은 가족까지 부양하며 한양에서 생활하기에는 적은 액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흉년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는 쌀 대신 콩으로 급료를 지급할 때도 많았다. 보포도 보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흉년이 들어 도성 안 쌀값이 급등하면 면포 1필로 단지 6~7승의 쌀을 살 수 있을 뿐이어서 상경한 군병은 급료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삼군영 군병의 임금도 당시 관청의 품팔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2두부터 9두까지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편은 아니었다. 군병들의 급료는 일반 토목 공사에 고용되는 숙련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기본적인 생활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더구나 처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함께 살 경우 군병 한 사람의 급료로는 살 아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훈련도감 군병들은 늘 급료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양에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한 데다 무엇보다도 훈련과 업무가 고되다 보니 처우가 부족하다고 여겼다.”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2019), 319쪽. “훈련도감 군병들 중에 승호군으로 상경한 자들은 한성부에서 집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 달 쌀 9두의 급료만으로는 가족들의 식료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훈련도감에서는 상경한 승호군에게 집터를 마련하는 정책을 펼쳤다. …(중략)… 그러나 이처럼 훈련도감에서 집터를 주선하여 거주하는 승호군은 매우 대우를 잘 받은 경우였다. 대부분의 승호군은 개천 변에 불량 가옥을 지어 거주하거나 또는 만리현, 남산 등의 개간이 금지된 곳을 불법 개간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래 한성부에서는 도성 십 리 내에 사산급료를 정하고, 급료지역의 개간을 금하였지만, 외부에서 물려든 인구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의 개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개간이 지속되었지만, 적어도 18세기 초까지는 산지에 대한 개간은 심각한 양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1746년(영조 22)에는 만리현, 서빙고 등지의 여러 산이 개간되었고, 1758년(영조 34)에는 국도의 안산이었던 남산도 개간되었다. 그 뒤 정조 때에는 산허리 이상 개간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에는 한성부 내 사산 지역이 대부분 개간되기에 이르렀고, 개간의 결과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개천이 범람하여 개천 변에 거주하는 군병이나 빈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760년(영조 36)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펼치고 나아가 준천소를 정식 기구로 출범시켰던 것이다.”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힘을 쓸 데가 없을 듯하니, 이곳은 반드시 정취해야 하는 곳입니다. 구준봉과 백악 사이에 4, 5개의 돈대墩臺를 줄지어 설치한다면, 안팎으로 서로 돕는 형세가 있어 적병에게 압박당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후략)…”¹⁶

당시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 1646~1718)와 어영대장 윤취상(尹就商, ?~1725)이 도성 일대의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 숙종에게 올리며 진달(進達)한 의견 가운데, 성북동 일대와 관련된 언급이다. 적병이 지금의 성북동 일대에 웅거할 시 그에 응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어 목적의 돈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구준봉은 성북동 북서쪽에 있는 봉우리로 구진봉(俱盡峰)이라고도 한다. 구준봉에서 능선을 따라 지금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봉우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가량 된다. 그 사이에 4, 5개의 돈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약 300m 간격으로 군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는 도성 방어에서 성북동 일대가 요지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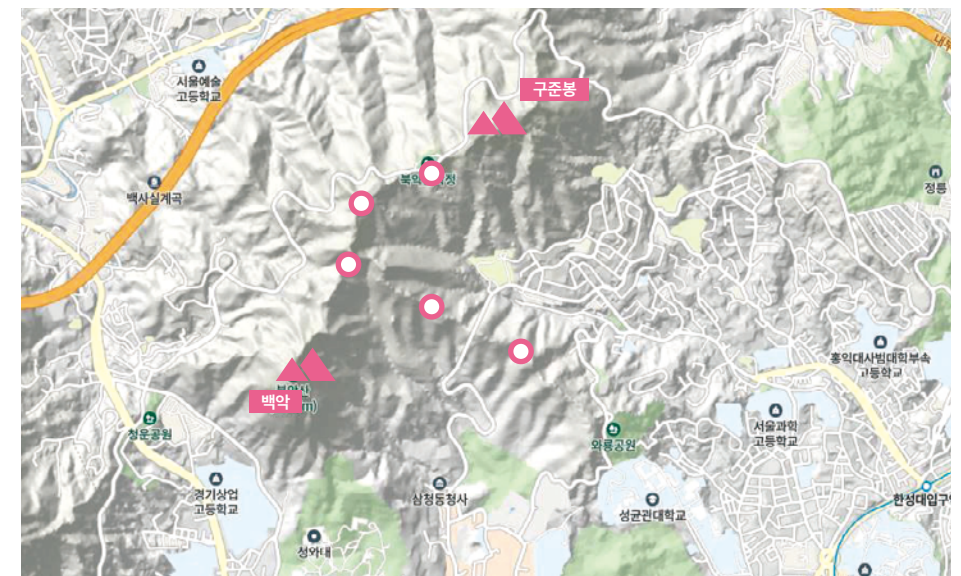


그림 3 구준봉과 백악 사이에 제안된 돈대의 추정 위치(네이버 지형지도 재가공)

16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2월 15일(을유). “…(전략) 就商曰: ‘城北低平, 高峰下壓, 比如壯者抱兒俯瞰者. 苟爲賊兵所據, 則雖有高壘奇兵, 恐無所施力, 此爲必爭之地. 若於狗躡白岳之間, 列置四五墩, 則表裏有相助之勢, 賊兵無壓臨之患’ (후략)…”

이와 관련해 성북동 일대가 적병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의견은 일종의 가설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유만주(兪晩周, 1755~1788)가 남긴 일기 『흙영(欽英)』에는 그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듣기로 성북동의 명성은 근래에 비로소 드러났다고 하니, 대개 옛날에는 그저 황량한 언덕에 어지러운 시냇물이 흐르던 곳이었을 뿐이다. 사는 사람이 없었으며, 반촌(汧里)과 그저 성안과 밖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명화적 무리가 이곳을 소굴로 삼고 때때로 성을 넘어와 반촌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국구(國舅) 오흥부원군(龜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耆)가 어영대장으로 있을 때, 특별히 어영청의 둔창을 설치하고, 또 들어와 살 백성을 모집했다. 그리고 빨래(汧澗)와 메주 쪼기(爇造) 두 가지 일을 나누어 주어 먹고 살게 하였다. 이로부터 비로소 사람이 살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또 복숭아나무 심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달마다 늘어나고 해마다 더해져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수천 그루로 많아졌다.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신분이 높은 낮은 누구나 길흥사에 복숭아를 사용했기에, 모두 여기서 복숭아를 사갔다. 그러므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복숭아를 명줄(性命)로 여기며 온전히 보호하고 접을 붙여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꽃들이 마을을 에워싸 마침내 도성사람들이 감상하는 승경(勝景)이 되었다고 한다. 전하기로 꽃이 필 때가 참으로 아름다움이 지극하지만, 또 늦여름 무렵 같은 때에도 복숭아 열매가 익어 푸른 잎 사이로 둥근 열매가 온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모습 또한 몹시도 보기 좋다고 한다.¹⁷

인용한 부분의 ‘명화적 무리가 이곳을 소굴로 삼고 때때로 성을 넘어와 지금의 성균관 인근 반촌에서 노략질을 하였다(明火輩視此地爲藪, 時時踰城掠汧)’는 기록이 그

¹⁷ 『흙영』 1786년 4월 5일자 일기. “聞北洞之名, 近始顯焉, 蓋古則止是荒岡亂流而已, 無人居而汧里止隔城內外, 故明火輩視此地爲藪, 時時踰城掠汧. 國舅鰲興在將任時, 特設御營屯倉, 又募民入居, 而割授汧澗爇造二業, 使之資生. 自是以後, 始有人, 人又以種桃爲業, 月增歲加, 至于今數千之多. 都人公私上下吉凶用桃, 皆于此乎市易. 故居人以桃爲性命, 護完移接, 益以增多. 於是乎, 萬花周遭, 遂爲都人之勝賞云. 傳花時固佳至, 若復季夏之間, 桃子爛結, 翠葉圓顆, 渾樹累累, 又甚合賞.”

것이다. 이를 통해 성북동 일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명화적 무리의 근거지가 되었는데 관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명화적 출몰에 관한 내용이 성북동의 과거 상황을 전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해당 내용은 어떠한 사실을 특정하는 정보로 기술된 것이라기 보기보다도, 도성의 지척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주민 없이 오랜 기간을 지속한 성북동이 필연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적 특질을 강조하는 표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가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된 공간’으로서 성북동에 대한 인상은 18세기 후반의 문신 김귀주(金龜柱, 1740~1786)가 남긴 칠언율시 「다시금 성북돈을 방문하다(再訪城北屯)」에도 남아 있다.¹⁸

북돈을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반론을 물리쳤으니	北墩初設攢羣言
암울하던 성황(城隍)에 지극한 계책 갖추어졌네	陰雨城隍至計存
지난날에 그저 평범한 긴 골짜기였는데	往者尋常一長谷
어느새 여러 집들 늘어선 마을이 되었네	居然排列幾家村
냇가에서 씻는 것을 누가 나뭇잎으로 여기랴	緣溪汧澗誰爲葉
성곽을 뒤로 농사 지어 둔영의 먹거리로 삼네	負郭耘耕可餉屯
다시금 맑은 가을이라 전원 풍광 아름다우니	更得清秋水石好
나그네 지팡이 짚고 무릉도원 어딘지를 묻네	客來拄杖問窮源

김귀주는 북돈이 설치될 당시의 어영대장 김한구의 아들이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의 오빠다. 추측컨대 그는 북돈이 설치되기 전 성북동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둔전의 조성과 함께 형성되었을 촌락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었을 때 다시금 성북동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언급된 ‘여러 반론을 물리치다(攢羣言)’라는 표현을 보면 성북동에 둔전을 설치할 당시 반대하는 여론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지극한 계책 갖추어졌네(至計存)’라는 표현을 보면 성북 일대의 둔전 조성은 도성의 북쪽 방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둔전 설치 전후 당시의 여론을 일부나마 참고할 수 있는 정보라 하겠다.

¹⁸ 『가암유고』 권3, 「재방성북돈」

내용 가운데 ‘지난날에 그저 평범한 긴 골짜기였다(往者尋常一長谷)’는 시구는 앞서 유만주가 일기에 남긴 ‘옛날에는 그저 황량한 언덕에 어지러운 시냇물이 흐르던 곳이었을 뿐이다(古則止是荒岡亂流而已)’는 표현과 그 말맛이 일치한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북동을 바라보는 상전벽해의 심정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냇가에서 씻는 것을 누가 나뭇잎으로 여기랴, 성곽을 뒤로 농사 지어 둔영의 먹거리로 삼네(緣溪潁誰爲葉, 負郭耘耕可餉屯)’라는 시구는 당시 거주민의 생업으로서 빨래(曝白의 일환)하는 일과 둔전 경작이 일대에서 흔하게 보이던 풍경임을 알려주는 단서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초 성북동 거주민의 생활을 세세한 묘사로 담아낸 시가 한 편 있으니, 조선 후기의 문신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의 「북저동(北渚洞)」이 그것이다.¹⁹

도성 동쪽 혜화문 밖 5리에 있는데, 在城東惠化門外五里,
거주민들은 복숭아나무 심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居人種桃爲業

동쪽 교외 버들은 나루에 푸르게 비치는데 東郊楊柳綠映津
북저동 복사꽃 수만 그루가 봄을 맞았네 北渚桃花萬樹春
절고 열은 복사꽃 개울과 함께 길게 늘어서고 桃花深淺與溪長
몇몇 집들 밥 짓는 연기가 절로 이웃을 이루네 數家烟火自作鄰
신선이 아니라면 이곳에 은거할 수 없을지니 不是神仙不是隱
개개가 꽃 가꾸고 과수 심는 사람들이라네 箇箇栽花種果人
꽃이 피면 거주하는 사람 혼자서만 보지 않으니 花發居人不獨看
온 도성 거마 꽃향기 쫓아와 먼지 일으키네 滿城珂馬蹴香塵
과일 익으면 거주하는 사람 자기만 먹지 않으니 果熟居人不自食
몇 그루가 능히 한 집안의 가난을 구제한다네 幾樹能濟一家貧
생계를 꾸림은 농잠가와 다를 것이 없는데 理生不殊農蠶家
사람들에게는 은거한 백성으로 보인다네 使人看作林泉民
해마다 나무 심어 이익 점점 불어나니 種樹年年利漸滋

19 『삼명시집』 6편, 「북저동」.

오곡이 흉년 들어도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네 五穀凶歉不關身
탁군(涿郡)에서 채소 심던 이가 진정한 영웅이러니 涿郡種菜眞英雄
도성 동쪽에서 돼지 치는 것도 천하경륜이라네 城東牧豕亦經綸
지사(志士)와 고인(高人)은 쉽게 등용되지 않으니 志士高人未易用
자신이 초야의 신하가 된다 한들 상관이 없네 不妨身作草莽臣

‘개개가 꽃 가꾸고 과수 심는 사람들이라네(箇箇栽花種果人)’, ‘과일 익으면 거주하는 사람 자기만 먹지 않으니, 몇 그루가 능히 한 집안의 가난을 구제한다네(果熟居人不自食 幾樹能濟一家貧)’, ‘생계를 꾸림은 농잠가와 다를 것이 없는데(理生不殊農蠶家)’, ‘도성 동쪽에서 돼지 치는 것도 천하 경륜이라네(城東牧豕亦經綸)’ 등의 표현을 보면, 복숭아 농사를 짓는 가운데 꽃을 가꾸고 누에를 치거나 돼지를 기르며 살아가던 당시 성북동 주민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해마다 나무 심어 이익 점점 불어나니(種樹年年利漸滋)’와 같은 표현은 당시 성북동에 살던 주민들이 복숭아를 매개로 한 과수업과 관광업을 통해 얻던 수익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비록 과거에는 도성과 지척이면서도 사람이 살지 않아 도적 무리의 소굴이 되기도 했던 공간이지만, 유만주의 일기 및 김귀주와 강준흠의 시에서 드러나는 내용처럼 둔전이 조성된 이후 성북동 거주민은, 둔전의 경작(耘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빨래(潁)와 메주 쪼기(燠造) 그리고 복숭아 농사를 아울러 행하여 생업의 규모와 질을 꾸준히 확대·개선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가운데서도 복숭아 농사는 과일로서 복숭아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대규모 복사꽃 군락이 조성됨으로써, 관광업이라는 예기치 못한 효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을 경계로 인적이 없던 골짜기에서 동촌(洞村)으로 새롭게 탄생한 성북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교(東郊) 봄꽃 나들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봄날 복사꽃 만개한 성북동 경관과 그 기록의 흔적

1. 성곽을 두고 마주한 흥덕동(興德洞)의 흔적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도성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뚫린 성문이 동소문 외에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흥덕문(興德門)이다. <그림 4>는 전국 각도 군현의 지도를 모아 놓은 조선 후기 회화식 지도책 『지승(地乘)』에 수록된 ‘경성’ 지도에서 현재의 명륜동과 성북동 일대를 확대한 것이다. ‘혜화문’ 위의 ‘흥덕문 구기(興德門舊基)’라는 표기와 함께 우측 상단에 문처럼 묘사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흥덕문이라는 이름은 동부 12방 중 하나인 연희방에 있었다고 기록된 흥덕사와, 그리고 그 인근의 마을을 흥덕동이라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조선 전기 지금의 명륜1가(서울과학고등학교 인근)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흥덕사에 관한 기록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확인된다.

흥덕사는 예전에 동부 연희방에 있었다. 공정왕恭靖王(정종)이 잠저에 있을 때 옛집의 동쪽에 덕안전德安殿을 별도로 지었는데 희사喜捨해 절이 되었다. 이 절은 교종敎宗이 되었으나, 뒤에 절이 없어지면서 민간 마을이 형성되었다.²⁰

²⁰ 『동국여지지』 권1, 경도. “興德寺, 舊在東部燕喜坊, 恭靖王於潛邸, 舊第之東, 別構德安殿, 捨爲寺. 是爲敎宗, 後寺廢爲閭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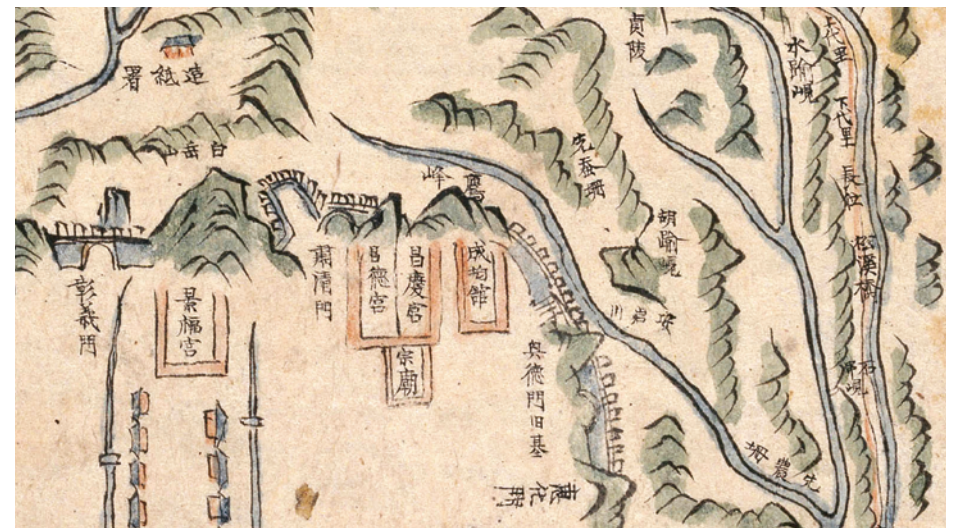


그림 4 혜화동과 성북동 일대(『지승』 중 「경성」 부분,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아마도 절이 없어지면서 주변에 형성된 민간 마을(閭閻)이 흥덕동이 된 것으로 보인다. 흥덕동 북쪽에 있던 흥덕문은 현재 그 터가 남아 있지 않기에, 조선시대 지도에 표시된 것을 근거로 지금의 서울과학고등학교 북쪽 성곽 어딘가로 그 위치를 대략 추정할 뿐이다. 인근 동소문의 기능과 비교할 때 흥덕문의 기능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를 매개로 조심스레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도성 안쪽에서 그 바깥에 있던 성북동의 선잠단을 곧장 연결하는 일종의 지름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선 후기의 문신 윤기(尹愷, 1741~1826)가 남긴 「반중잡영(泮中雜詠)」에는 흥덕동을 포함한 성균관 동북쪽 일대의 모습이 유려하게 묘사되어 있다.²¹ 지금의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 그리고 혜화초등학교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이 그에 해당한다.

반촌 동북쪽 산골에는 기이한 경관이 많다. 송동宋洞, 포동浦洞, 어정동御井洞 같은 곳들은 모두 후미지고 굽이졌는데, 두루 복사꽃을 심었다. 이따금 인가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선계인 듯하여, 이 때문에 봄철이면 구경나온

²¹ 『무명자집』 시고 2책, 「반중잡영」.

상춘객들이 많다고 한다. 泮村東北山谷間, 多奇境, 若宋洞, 浦洞, 御井洞等處, 皆幽邃屈曲, 遍種桃花. 時有人家, 望若仙界, 故春日多遊賞之客云

반촌의 동북쪽에 기이한 곳이 많으니	泮村東北境多奇
바위골짜기 숲과 샘물이 곳곳에 어우러졌네	巖洞林泉處處宜
봄이 오면 온통 복사꽃 빛깔로 가득한데	春來遍是桃花色
이따금 인가의 가는 대울타리 보이네	時露人家細竹籬

반촌 동쪽 산기슭 밖에 흥덕동이 있는데, 평평하고 넓으며 호젓하고 깊어서 절로 하나의 골짜기를 이루었다. 복사꽃 붉고 버들잎 푸르러 마을을 뒤덮어 가렸으며 너른 발 사이로 뿔뿔이는 사람 그저 한가로우니, 마치 산골짜기에 숨어사는 그런 부류인 듯하다. 泮村東麓之外, 有曰興德洞, 平曠幽深, 自作一洞. 桃紅柳綠, 掩映村間, 而十畝之間, 桑者閑閑, 殆若山峽之中隱遯之流矣

흥덕동 깊숙이 한 언덕을 사이에 두었는데	興德洞深隔一原
멋진 전원의 풍광이 동소문 가까이에 접했다네	煙霞近接小東門
무수히 피어난 복사꽃과 휘늘어진 버들 속에	無數夭桃垂柳裏
성긴 울타리 앞은 우물의 두세 마을 있다네	疏籬瘦井兩三村

내용 가운데 이채로운 점을 하나 꼽자면 당시 흥덕동을 포함한 반촌 동북 지역 일대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봄이 되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며, 그로 인해 상춘객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성곽을 경계로 동북쪽에 있던 성북동 또한 만개한 복사꽃이 봄나들이의 명물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성곽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인접한 성안과 바깥 마을이 모두 복숭아나무를 대규모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특히 성곽 바깥 지척에 선잠단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흥덕동에서 뽕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또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성북동과 성곽을 두고 인접한 흥덕동, 송동, 포동, 어정동 등의 거주민이 생업으로 삼았던 농사는 인근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색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동소문 너머 성북동 초입의 경치

조선시대 한양도성에서 성북동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필수 관문이 있으니, 바로 도성의 사소문 가운데 하나인 동소문(東小門)이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동소문의 옛 이름은 홍화문인데, 1483년에는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문이라 하면서, 이름의 혼동을 피하고자 1511년에 지금의 혜화문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동소문은 사소문 가운데 하나였지만 북쪽 대문인 숙정문이 늘 닫혀 있었으므로, 도성에서 함경도 등지의 북방으로 통하는 경흥대로의 실질적인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여타 사대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여겨졌다. 아래 작품은 동소문을 화폭에 담아낸 검재 정선의 그림이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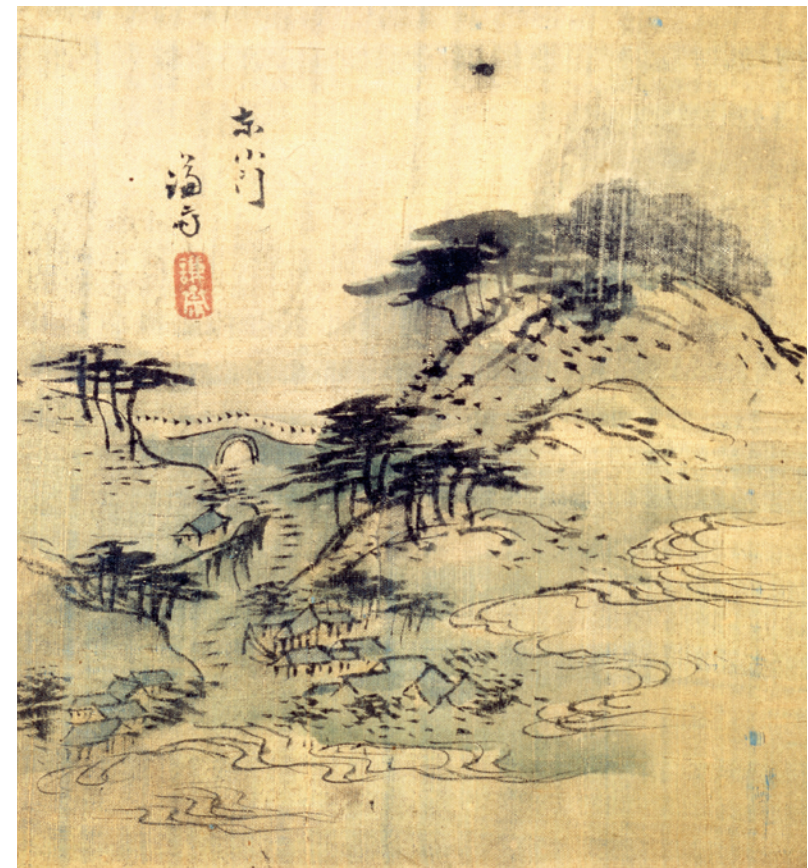


그림 5 정선, <동소문>, 18세기, 비단에 채색, 16.7x18.1cm(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도성을 기준으로 동소문 바깥이 아니라 도성 안쪽에서 바라본 풍광을 담고 있는 위의 그림은 지금의 혜화문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촌락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성루가 없는 혜화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그림은 문루 없는 동소문의 원래 모습을 남기기 위해 그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겹재 정선이 동소문의 옛 모습을 회상하며 그렸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²² 『한경지략』의 내용에 따르면, 동소문의 성루는 1744년 8월 영조의 명으로 어영청에 의해 세워졌으며, 당시의 명필 조명리(趙明履, 1697~1756)가 현판을 썼다.^{그림 6}

동소문은 도성과 외부의 대로를 잇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성 내부와 동쪽 교외를 나누는 경계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소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도회를 벗어나 전원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그림 7} 조선 전기의 문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남긴 오언율시 「동소문 바깥을 노닐다」에는 동소문을 나와 도성 밖에서 봄을 즐기는 흥가분한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다.²³

봄 경치도 어느 듯 다해가니, 구십일을 헛되이 보냈구나
 春事將已闌, 九十其虛過
 여러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성문을 나서니 그윽한 흥취가 많네
 諸君執我手, 出城幽趣多
 길 멀어 귀환을 서두르면서도, 또한 송라를 남겨두지 않네
 路遠欲徑還, 亦未遺松蘿
 상춘객의 소매는 나부끼고, 계곡물은 잔물결로 찰랑거리네
 飄飄賞春袂, 溪水翻輕波
 흐르는 물에 임해 서성이고, 자리 갖추어 푸른 잔디에 앉네
 臨流此踟躕, 設筵坐青莎

²² 이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최완수, 『겹재의 한양 진경』, 현암사, 2018, 191쪽. “혜화문이라는 문액을 쓴 조명리는 별호別號를 도천道川이라고도 했는데 겹재의 집우執友인 사천樓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6촌 처남이고 담헌澹軒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외사촌 아우다. 그러니 이 그림은 이 시기에 문루 없는 동소문의 원 모습을 남기기 위해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작품이 70대 이후의 만년작인 것으로 보아 혹시 그 이후에 옛 모습을 회상하며 그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²³ 『하서전집』 권2, 「유동소문의」.



그림 6 <혜화문 현판>, 1744년 이후, 나무, 61.0 × 160.0cm(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중 도성 안에서 바라본 동소문 일대의 모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 당겨 작은 표적을 쏘고, 술과 음식 어지럽게 앞에 벌였네
 張弓射小的, 酒羞紛前羅
 서쪽 해 돌아가란 말 없는데, 취한 얼굴 꽃과 다들 만큼 붉네
 日西未言歸, 醉面花爭酡
 전원엔 참으로 내 뜻 있으니, 일에만 힘쓴들 끝내 무엇 하랴
 林泉固吾志, 役役終奈何
 그저 하루를 즐길 따름이니, 이처럼 봄 유람 노래를 짓노라
 做却一日歡, 作此遊春歌

도회를 벗어나 전원에서 봄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이 잘 묘사된 가운데, ‘송라를 남겨두지 않네(未遺松蘿)’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송라’는 깊고 높은 산속 소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로, 은자가 숨어사는 깊은 산림이나 그들이 마시는 차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은자가 사는 깊은 전원을 모두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아마도 하서 김인후에게는 동소문 바깥에 은거한 친우가 여럿 있었을지도 모른다.

동소문 밖 전원의 풍광은 조선 후기의 문인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작품에도 담겨 있다. 아래는 김창업이 도성을 떠나며 동소문 바깥에서 바라본 풍경을 묘사한 「동소문을 나오며(出東小門)」라는 오언율시다.²⁴

가을 산 띠처럼 마을을 둘렀는데, 곳곳에 저녁 햇빛 눈부시네
 秋山帶墟落, 處處夕陽明
 시골 노인 홀로 채마밭 바라보고, 나무꾼 노래 다투어 성으로 드네
 野老獨看圃, 樵歌爭入城
 소나무 맑고 벼랑의 기세 빼어나며, 모래는 희고 물길은 평탄하네
 松晴崖氣秀, 沙白水流平
 오래도 머문 시끄러운 풍진 속이러니, 돌아올 마음이 두려운 듯하네
 久滯塵喧裏, 歸來意若驚

²⁴ 『노가재집』 권2, 「출동소문」.

내용 가운데 ‘소나무가 맑다(松晴)’, ‘벼랑의 기세가 빼어나다(崖氣秀)’, ‘모래가 희다(沙白)’, ‘물길이 평탄하다(水流平)’ 등의 표현은 모두 동소문을 나온 직후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흰 모래와 평탄하게 흘러가는 물길은 모래가 퇴적되어 쌓였을 삼선평 일대와 성북천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시의 말미에서 도성 안에서의 생활을 ‘시끄러운 풍진 속(塵喧裏)’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문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전원의 풍광을 매개로 도회와 전원을 가르는 경계로서 동소문의 상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김창업의 시 말미의 ‘오래도 머문 시끄러운 풍진 속이러니, 돌아올 마음이 두려운 듯하다(久滯塵喧裏, 歸來意若驚)’는 표현은 도성을 벗어나 전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묘사가 18세기 초의 문인 일암(一庵) 이기지(李器之, 1690~1722)가 남긴 작품에도 남아 있다. 이기지는 노론 사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좌의정을 역임한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아들로서 신임사화 때 아버지와 함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은 인물이다. 아래는 그가 남긴 오언율시 「동소문을 나오며」라는 작품이다.²⁵

노새를 타고 동소문을 나서서, 눈 안 가득 봄 산을 맞이하네
 騎羸出東郭, 滿眼對春岑
 고운 햇살은 들판을 지나가고, 산들바람은 바위 숲에 쉼다네
 麗日行原陸, 微風憩石林
 화초는 벌판에 넓게 이어지고, 연기는 마을을 깊숙이 휘감네
 芳菲連野闊, 煙火抱村深
 뜬세상에 시름을 견뎌왔는데, 긴 여정에 한번 회포를 풀어낸다네
 浮世堪愁思, 長途一散襟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푸른 숲과 그 너머의 계곡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알록달록한 들판 너머로 밥 짓는 연기가 가득한 촌락의 봄 풍경이 평화롭게 다가온다. 도성을 빠져나와 마주한 전원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뜬세상에 시름을 견

²⁵ 『일암집』 권1, 「출동소문」.



그림 8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중 도성 밖에서 바라본 동소문 일대의 모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더왔다(浮世堪愁思)’고 표현한 작자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도회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전원엔 온몸을 맡긴 ‘긴 여정(長途)’의 묘한 설렘이 느껴지는 듯도 하다.

이와 같이 동소문은 도성을 나가는 관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끄러운 도회에서 전원으로 들어서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림 8 그 가운데 성북동은 동소문을 나가면 마주하게 되는 지척의 풍경으로, 여러 문인의 시적 감상을 자아낸 대표적 경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18세기 후반의 문신 목만중(睦萬中, 1727~1810)이 쓴 「동소문을 나와서 짓다(出東小門有述)」라는 칠언율시다.²⁶

여윈 말로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거둬 건너는데	瘦馬峻嶺屢渡川
검은 두건과 흰 겹옷에 마음은 홀가분하네	烏巾白袷意飄然
집에서 근심어린 머리칼 온통 백발이었건만	閉門愁髮千莖雪
도성을 나오자 맑은 회포 먼 하늘에 가닿네	出郭澄懷萬里天

²⁶ 『여와집』 권5, 「출동소문유술」.

연하긴 동쪽 길에서 이틀 묵기로 했으니	東道烟霞期信宿
복사꽃 오얏꽃 핀 북둔의 지난해 기억나네	北屯桃李記前年
병든 몸 일으킨 주인에게 전원의 그윽함 많아	主人病起多幽事
명아주 지팡이 짚고서 국화 주변을 거닌다네	藜杖相須菊樹邊

앞서의 여러 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집에서 근심어린 머리칼 온통 백발이었건만, 도성을 나오자 맑은 회포 먼 하늘에 가닿네(閉門愁髮千莖雪, 出郭澄懷萬里天)’라는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의 공간 도성에서 빠져나와 한적한 전원을 거니는 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도회를 나와 전원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장소로서 동소문의 이미지가 확인된다.

시의 내용 가운데 ‘복사꽃 오얏꽃 핀 북둔의 지난해가 기억나네(北屯桃李記前年)’라는 구절을 통해, 목만중은 이로부터 1년 전 동소문을 나가 성북동을 유람했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1784년 윤3월 번암 체제공 등과 함께 목만중이 성북동을 유람한 기록이 전하는데, 해당 기록만을 근거로 이 작품이 1785년에 창작되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²⁷ 그리고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이틀간의 유숙지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북둔을 방문했던 지난해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보아, 동소문 인근 지금의 성북동 초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동소문을 나오면 좌측으로 곧장 펼쳐진 성북동은, 도성 인근 봄철 나들이의 대표적 공간으로서 조선 후기 문인들이 봄이 되면 빼놓지 않고 찾은 상춘의 중심지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북동은 봄철 유락의 경험을 문예의 차원으로 연장하는 매력적인 소재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곳곳을 분홍빛으로 물들인 복사꽃은 문예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중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려(金鑣, 1766~1822)가 남긴 「늦봄의 유람(晩春游覽)」 칠언절구 12수 가운데 한 수는, 동소문과 성북동 그리고 지금의 정릉 인근 신흥사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늘어선 복사꽃 군락이 당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을지를 짐작케 한다.²⁸

²⁷ 『번암집』 권35, 「유북저동기」.

²⁸ 『담정유고』 권1, 「만춘유람」, 제8수.

지난밤 봄이의 한 줄기 바람 불더니	昨夜封姨一陣風
꽃 핀 동산의 봄빛이 한순간 다하였네	芳園春色片時空
동소문 하루 종일 꽃향기가 바다와 같고	靑門盡日香如海
자욱한 붉은 꽃비 십리에 걸쳐 있네	紅雨濛濛十里中

북저동에서 동소문까지, 동소문에서 신흥사 동구까지 온통 복사꽃이다.
自北渚洞至東小門, 自門至新興寺洞口, 總是桃花.

3. 조선의 무릉도원, 성북 도원의 봄나들이 풍광

조선 후기 성북동을 방문한 문인들은 저마다 시를 써서 복사꽃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 아래는 그 가운데 복사꽃을 묘사한 다채로운 표현을 발췌한 것이다.

어린 복숭아와 어린 버들 마을마다 아름다운데	夭桃嫩柳村村好
돌아온 제비와 새끼 피고리가 곳곳에 날아다니네	舊燕新鶯處處飛

『영재집』 권5, 「북둔도화(北屯桃花)」 2수.

골짜 안은 복사꽃 만발하고	洞裏桃花滿
마을 속에는 시내가 달리네	村中澗水馳

『무명자집』 시고 3책, 「상사유북저동(上巳遊北渚洞)」.

복사꽃 눈에 가득 펼쳐지는데	桃花滿眼舒
푸른 버들로 빛깔을 꾸민다네	色之以綠柳

『무명자집』 시고 2책, 「북저동(北渚洞)」.

북저동에 붉은 복사꽃 수없이 피어나서는	北渚緋紅千萬樹
늦봄에도 열은 화장 아리따움을 지킨다네	晚春猶保淡粧嬌

『담정유고』 권1, 「만춘유람(晩春游覽)」 절구 12수 중 제7수.

복숭아 뺨 봄 햇살에 달긋지는데	桃腮春日炙
수많은 나무가 작은 정자 서편에 있네	千樹小亭西

『소정고』 권1, 「북저상도(北渚賞桃)」.

복사꽃 따뜻한 햇살에 곱기도 고운 얼굴이요	桃花日暖嬋娟面
수양버들 살랑거리는 바람에 나긋한 자태라네	楊柳風輕約綽容

『대산집』 권1, 「赴朴社阜(承輝) 約遊北渚洞 路上口吟」.

무성한 붉은 빛 다투어 들며 복사꽃 피었는데	繁紅競入桃花發
싱싱한 푸른빛만 보이는 소나무는 홀로 섰네	蒼翠但看松樹孤

『박옹시초』 권7, 「陪楓阜·竹里諸公遊北屯作」.

복숭아의 붉은 빛깔을 강조한 비유적 표현들이 인상적이다. ‘열은 화장의 아리따움(淡粧嬌)’, ‘뺨이 봄 햇살에 달긋지다(腮春日炙)’, ‘곱기도 고운 얼굴이요(嬋娟面)’와 같은 묘사는 복숭아의 분홍빛 자태를, 화장한 여성의 고운 얼굴에 빗댄 것이다. 춤추는 제비와 피꼬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수양버들과 맑은 시냇물이 붉은 복사꽃과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풍광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을 찾았다. 아래의 여러 시구는 봄꽃 구경을 위해 성북동으로 나선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다.

종일토록 생황가락과 노랫소리 도회에 이어지고	盡日笙歌連紫陌
봄나들이 가는 수레와 말은 번화한 거리에 넘쳐나네	遊春車馬漲紅塵

『순암집』 권2, 「北寂洞桃花盛開 遊客填咽 克卿亦與季兒淵常往賞 爲賦一絕」.

좁은 길 갈라져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데	細路丫難辨
유람하는 사람 넘쳐나도 모두 받아들이네	遊人萬可容

『영재집』 권5, 「北屯看花學兒有作次其韻」.

노는 이들로 저물녘에도 시끄러우니

遊人喧日夕

모두가 태평한 시대를 즐겨워하네

俱是樂平時

『무명자집』 시고 2책, 「북저동(北渚洞)」.

처음에는 주민들이 기뻐하며 별업을 열었는데

始喜居民開別業

최근에는 한가한 객들로 붐비는 나루와도 같네

近因閒客似通津

『극원유고』 권1, 「敬步楓丈北渚韻」.

도성을 진동하는 수레와 말들 비는 날이 없고

傾城車馬無虛日

온 골짜기 변화하여 마치 요지의 나루와도 같네

一洞繁華似要津

『존재집』 권4, 「陪竹里學士賞桃北渚共賦」.

성문을 나서도 한가한 날 아니라네

出門非暇日

숲속에 살아도 되레 저자 소리 들리네

林居還市聽

『해장집』 권1, 「북저(北渚)」.

생황 가락과 노랫소리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성북동 일대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장소가 유명해지면 그곳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다. 신석우의 시 「북저」에 ‘숲속에 살아도 되레 저자 소리 들리네(林居還市聽)’라는 시구가 나타나듯이, 19세기 초중반 소위 상춘의 명승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성북동 일대가 얼마나 떠들썩했을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 봄 경치를 완상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은 혼한 광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음주와 가무를 묘사한 표현도 여러 시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속세 기미 끊어지니 새가 내려앉으려 하는데

已息塵機禽欲下

호젓함을 이기지 못해 술에 취하길 자주하네

不勝幽事酒頻中

『여와집』 권5, 「與文初·公會遊北屯」.

마지막에 이르러 거나하게 마시니

未至猶深酒

술 취한 노래에 맞추어 해가 기울네

酣歌倚日斜

『금석집』 권2, 「北寺洞次諸人韻」.

시에 진실한 사람을 어느 곳에서 만날까

真箇詩人何處得

술 마실 수 없는 자는 이 가운데 없다네

不能飲者是中無

『영재집』 권5, 「北屯草堂次斗室學士韻」.

해질 무렵의 가장 멋진 광경은

最是夕陽光景絕

흰 모래 독 저편으로 취해서 돌아오는 이라네

白沙堤外醉歸人

『정유각이집』, 「出惠化門循城而南…二里 有倉曰城北屯居民皆種桃紅霧蒸成 隔岡有破寺所謂北寺洞者」.

자리 오래되면 다시 옮기고

坐久還移席

술병 비면 다시 술을 부르네

壺乾更呼酒

『무명자집』 시고 3책, 「上巳遊北渚洞」.

꽃 사이 오솔길에 처음으로 돌아온 나그네요

花間細路初歸客

소나무 아래 남은 술통에 반쯤 취한 사람일세

松下餘樽半醉人

『풍고집』 권3, 「同竹里·江右·滄濱(履會)三叔·申仲立·兒子適根賞北渚桃花僕實初至淵泉叔忽追躡共宿倉舍」.

자는 곳 향기로운 풀은 물에 젖고 또 어린데

眠處芳蕪沾更嫩

술잔 속 푸른 봉우리는 있다가 다시 없어지네

酒中青嶂有還無

『박옹시초』 권7, 「陪楓阜·竹里諸公遊北屯作」.

덧없는 인생 하는 일 없이 천년을 걱정하는데

浮生無事憂千歲

기우는 해가 다정하게 한 동이 술통을 비추네

斜日多情照一樽

『소재시』 권4, 「북저동(北渚洞)」.

도성 북쪽 복사꽃이 천만 그루나 되나니	城北桃花千萬株
나들이 당일 술항아리 얼마나 끌어당겼나	冶游當日幾提壺
『은송당집』 권3, 「兒輩…出城北屯看花」.	

복사꽃 꽃 아래 보슬비 내리는데	桃花花下雨微微
뜻밖에 서로 만나 취해서 돌아왔네	忽漫相逢到醉歸
『중암고』 1책, 「북저취귀(北渚醉歸)」.	

일찌감치 동소문 향하며 다투어 술병 차고서는	早向城門爭佩酒
다시 흐르는 물 따라가며 자세히 음률을 논하네	復從流水細論琴
『유현집』 권1, 「與社友入北渚洞」.	

친구는 가득한 술독을 부질없이 저버리는데	故人空負盈壺酒
복사꽃 핀 골짜기 입구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네	谷口桃花白日西
『미산집』 권2, 「城北洞賞桃花陪家大人賦詩三客及兩兒偕焉李竹樵士亨景錫留約不至」.	

얼큰하게 술에 취해 마치 분홍빛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졌을 문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하다. 봄바람 따뜻하게 살랑거리고 복사꽃 점점이 날리는 가운데 펼쳐졌을 음주의 현장은 꽤나 정겨웠으리라. 풍류를 논하는 자리에 술은 늘 빠지지 않는 구색 가운데 하나였으니, 아래 19세기 초반의 문신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봄날 북저에서 취해 돌아왔는데, 다음날 원리(元履)[민치복(閔致福, 1766~1814)]가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왔기에 감사의 뜻을 부치다」²⁹라는 칠언율시는 성북동 봄나들이 가운데 이루어진 낭자한 술자리의 여파를 묘사한 대표적 작품이라 하겠다.

북쪽 산 봄 경치 구경하며 술 취해 혼미하니	北山春賞醉昏昏
촌 막걸리 모조리 기울이고 전원의 술로 이었네	傾盡村醪繼野樽

²⁹ 『금릉집』 권2, 「春日北渚醉歸 明日元履有書相問 寄謝」.

꽤 후에도 대나무 길에 자던 생각 여전한데	覺後尙思眠竹徑
돌아올 때 누가 소나무 문을 나와 전송했던가	歸時誰送出松門
좌중의 게으른 노인은 예의 없음에 너그러웠지만	座中慢老寬忘禮
길에서 만난 사람은 증언부언을 괴이하게 여겼으리	路上逢人怪疊言
다음날 숙취에서 깨어나 서로 안부를 부치니	明日解醒相寄問
친구의 정과 뜻이 한 자의 편지 속에 있으리라	故人情意尺書存

봄 한철 비처럼 휘날리는 붉은 복사꽃 풍광과 그 사이를 노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저녁까지 이어지는 흥겨운 음주 가무는 그야말로 유락의 명승으로서 성북동의 이채로운 풍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이들의 기쁨이 천진난만하게 표출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성북동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풍성한 복사꽃을 매개로 매년 봄마다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끈 성북동의 독특한 매력은,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의 소위 ‘무릉도원’에 곧잘 비유되었다. 아래는 성북동을 무릉도원에 비유한 표현들이다.

꽃이란 꽃은 모두 물을 덮었으니	有花皆覆水
어디에서 무릉도원을 찾을 수 있으랴	何處可尋源
『변암집』 권16, 「甲辰春同幼選·公會·季受及諸兒輩…賞花北渚洞仍宿屯舍」.	

복숭아꽃 절로 독을 이루었으니	桃花自成塢
명아주 지팡이로 곧장 무릉도원을 찾네	藜杖直窮源
『여와집』 권5, 「與樊巖公會 游北屯」.	

황홀하게 무릉도원에 들어서니	悅入武陵源
내 자신이 어부인가 여겨지네	自疑是漁叟
『무명자집』 시고 3책, 「上巳遊北渚洞」.	

산에 비치는 건 복사꽃 물가 절반은 모래라	山暎桃花水半沙
-------------------------	---------

나그네 찾아오니 완전히 무릉도원의 집과 같네
客來全似武陵家
『삼명시집』 8편, 「북저간화(北渚看花)」.

돌우물과 조각 노을에 빼어난 시구 따르고
石井片霞追傑句
무릉도원 흐르는 물에 어부를 생각하네
武陵流水憶漁人
『존재집』 권4, 「陪竹里學士賞桃北渚共賦」.

현도관의 도사는 참된 곳을 찾아 떠나고
玄都羽客尋眞去
무릉 협곡의 고깃배도 물 따라 옮겨 갔네
武峽漁舟逐水移
『중산재집』 권1, 「與安洞諸友賞景慕宮蓮池往遊北寺洞終日而歸抽次白洲集韻相和」.

무릉도원에서 신선의 개가 짖을까 두려우니
恐被武陵仙犬吠
노니는 흔적 드러나지 않게 밤중에 찾아가네
遊踪不露夜中尋
『성재집』 권3, 「共卯君夜訪北渚洞」.

시내를 따라 도원 가는 길 혹시 있을까 했는데
緣溪疑入桃源路
새소리 들으니 오히려 태고의 소리가 전해오네
聽鳥猶傳太古音
『구에집』 권1, 「偕泮留諸友遊北渚洞」.

미륵사 앞쪽 길을 지나서
彌勒寺前路,
칠성봉 아래 마을에 이르렀네
七星峯下村
두건 벗고 그대로 바위에 누웠다가
脫巾仍臥石,
나막신 끌고 다시 도원을 찾네
躡屐更尋源
『역암집』 권1, 「北渚村歸後拙構五七各一律 求和同遊諸丈人」.

마지막 강진규의 작품에는 성북동을 무릉도원에 빗댄 표현과 함께 ‘미륵사’와 ‘칠성봉’ 등 19세기 중엽 이후 성북동 일대의 지명으로 추측되는 장소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 그 가운데 미륵사는 짐작컨대 근대기 지형도에서 ‘미륵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는 곳, 즉 지금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리에 있던 사찰로 추측된다. 그리



그림 9 1915년 지도에 보이는 청룡사, 미륵당 일대의 모습
(『경성지형도』(1:10,000), 1915년 축도, 1921년 수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 칠성봉은 아마도 구준봉과 보토현(補土峴)일대의 어느 봉우리를 가리킨 명칭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림 9}

수많은 문인들이 무릉도원에 비유할 만큼 아름다웠던 성북동의 봄 풍경은 앞서의 여러 운문들뿐만 아니라 몇 편의 산문에도 그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아래는 봄철 성북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18세기 후반의 문신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북저동 유람기」 가운데 일부다.

…(전략) 혜화문을 나와 북쪽 성곽을 돌아 길을 꺾었다. 몇 리 못 가서 골짜기가 입을 벌리듯 열려 있으니, 이른바 북저이다. 잠시 골짜기로 들어서자 계단(선잔단)이 있었다. 남쪽을 바라보고 사면에 계단을 두었으며, 나지막이 담장을 두르고 홍살문을 사면에 세웠다. 매년 봄 3월에 이곳에서 양잠을 처음 시작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100보쯤 가자 거주민들이 그 개울에 다리를 놓았다. 다리 아래는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 물소리가 뽕뽕했다. 다리 남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복사꽃이 마치 등글게 비단 장막을 이룬듯하며, 개울가 양쪽 언덕까지 온

통 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기이함이 있다고 여겼지만, 잠시 생각을 놓아 두고 반듯한 길을 따라갔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다리를 건너 어영청 성북동에 닿았다. 들과 건물이 제법 넉넉했고, 둔 밖에 있는 작은 연못은 돌담을 둘렀다. 만들새가 비록 간소했지만, 꽃이 물속에 거꾸로 비치며 꽃 그림자가 흔들거렸다. 조금 경사진 암벽이 활처럼 굽어서 병풍 같고 장막 같았다. 바위 밑에는 향부자와 모래가 반반이었다. 내키는 대로 가거니 앉거니 하면서 아래쪽을 굽어 보니, 촌가가 산기슭에 점을 찍은 듯하다. 대부분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는데,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은 간혹 창문의 절반이나 처마의 모서리다.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관리에서부터 민가의 서민들까지 뒤편 질세라 노닐며 구경하였다. 수레와 말울음 소리가 요란하고, 노래 소리가 번갈아 일어나며 간간이 생활과 통소 소리가 들렸다. 나라의 백 년 태평한 모습이 전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서 소란스럽고 들뜨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제군들과 함께 왔던 길을 도로 취해서, 곧바로 교남곡橋南谷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골짜기는 고요함을 유지하며, 물은 더욱 맑고 꽃은 더욱 무성했다. 춤을 추는 듯 두 다리가 가볍게 들려, 노쇠하고 병든 줄도 알지 못했다. 여러 차례 아슬아슬하게 개울을 지나 성곽 밑에 이르러 멈추었다. 너댓 칸의 초가집이 있는데, 쓸쓸하면서도 깨끗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마침 집주인이 막 술을 빚어 밖으로 향기가 번졌다. 공회가 몇 잔을 사서 마시더니, “맛있다”고 매우 칭송했다. 얼마 뒤 성안에서 떡과 밥이 이르러, 절벽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아서 먹었다. 식사를 마치니 해가 이미 신시쯤(오후 3시~5시) 되었다. (음식을 가져온)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와 세 사람이 각각 시 한 수씩을 지었다.

산 기운이 석양에 물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창문으로 돌아왔다. 놀던 사람들은 돌아가고 흰 달만이 텅 빈 하늘에 홀로 떠 있었다. 연못가에 앉아

즐거워하며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다. 달이 빛나고 꽃이 향기로워, 눈에 머무는 것과 코에 닿는 것 중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은지도 알지 못하였다. 공회는 매우 흥이 나서 도포를 저당 잡히고 술을 사서 마셨다. 또 각자 시 한 수씩을 지었는데, 시간이 밤 3, 4경 무렵이 되어서야 함께 창사로 돌아가서 묵었다. 잠자리가 마치 극락정토에 있는 것만 같았다. (후략)…³⁰

채제공은 1784년 윤3월 하순경 목만중 등의 친우들과 함께 성북동을 유람하고 이 기록을 남겼다. 성북동 곳곳을 다닌 흔적을 담담한 필치로 써 내려간 것이 인상적이다. 혜화문에서 선잠단으로 다시 다리를 건너 북둔으로 갔다가 재차 돌아와 소위 ‘다리 남쪽 골(橋南谷)’을 구경하고 다시금 북둔으로 돌아와 하룻밤 유숙을 취한 과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정의 내용을 현대의 위치로 정리해 보자면, 혜화문을 나와 좌측으로 길을 꺾어 지금의 성북동 주민센터 인근을 지나 물길을 따라 오르다가 선잠단에 도착해 잠시 구경을 한 다음, 성북파출소 앞 인근에 놓여 있던 다리를 지나쳐 조금 더 가서 성북초등학교 남서쪽 모퉁이 어딘가에 있던 다리를 건너 곧장 북둔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둔은 지금의 간송미술관 남쪽 성북동 삼거리 일대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다리 남쪽 골’에 관한 언급이다.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 보건대 이곳은 현재 최순우옛집이 자리한 성북로15길과 그 뒤편 성곽으로 이어지는 창경궁로35다길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모두 복개가 되어 확인이 어렵지만 조선 후기 성북초등학교 앞으로 흘렀던 물길은 여러 갈래였을 것이다. 그중 한 줄기가 지금의 성북로15길과 창경궁로35다길 인근을 지나 흐르며, 복숭아나무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 『변암집』 권53, 「유북지동기」. “…(전략) 出惠化門, 循北城以折. 未數里, 洞呀然以開, 卽所謂北渚也. 纔入洞, 有壇. 面南四出陞. 繚以短牆, 其門形四之. 每歲春三月祭先蚕云. 行可百許步, 居人橋其川. 橋下衆水所會, 水汹汹有聲. 橋之南有谷, 不知淺深. 桃花園作錦障, 兩厓通紅. 心以爲必有異也, 然姑捨之. 取直路行. 無幾又度橋, 抵御營屯. 庭宇頗寬, 屯之外小塘瑩以石. 制雖略繁, 花倒水, 其影不定. 稍進巖壁巖然, 如屏如障. 巖之下莎與沙半之. 意行意坐俯視之, 村家點點分麓. 大抵以桃花爲藩籬, 隱約露出者, 或隄之半, 或簷之角也. 都人士, 自達官, 至閭巷民庶, 遊賞如不及. 車馬殷殷轟轟, 歌呼迭作, 間以笙簫. 國家百年昇平之象, 盡在是矣. 余靜者, 不耐鬧熱. 與諸君選取來路, 尋向所稱橋南谷者. 谷窈以容, 水益清花益盛. 僂僂然兩腳輕舉, 不知衰且病也. 屢度溪危, 及城根而止. 有茅茨四五間, 蕭灑可愛. 主人方釀酒, 香聞于外. 公會買數盞飲, 亟稱曰美哉. 已而, 餅飯自城中至, 鋪席崖松下, 列坐以食. 食訖, 日已晡矣. 送兒輩還, 余與三子者, 各賦詩一篇. 待山氣向曠, 復還倉屯. 遊人歸, 獨素月在空. 坐池上, 熙熙然忘寢. 月以色花以香, 目之所寓, 鼻之所觸, 未知其孰多孰少也. 公會興甚, 典其袍, 買酒以飲. 又各賦詩一篇, 時夜可三四鼓, 相與歸倉舍以宿. 枕席如在衆香國矣. (후략)…”

채제공이 성북동을 방문한 해로부터 1년 뒤인 1785년 3월에 성북동을 찾은
이가 있으니 바로 유만주다. 그의 일기 『흙영』의 기록에 따르면, 유만주는 1784년 윤
3월 9일과 1785년 3월 26일 그리고 1786년 4월 5일 꽃구경을 위해 성북동을 방문했
다. 그중에서도 아래는 1785년 3월 26일 자 일기의 내용 가운데 일부다.

…(전략) 혜화문을 걸어 나가서 왼쪽으로 발길을 돌려 북동으로 들어가니,
복사꽃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시간이 아직 이른데도, 놀러온 사람들이 끊
이지 않았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작년 윤달(1784년 윤3월)만
큼은 아니었다.

푸른 시내를 따라 꽃을 감상하며 굽이굽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바위 위에
앉아 시내를 굽어보며 점심을 먹고, 당시唐詩와 김성탄貫華堂의 관화외서
貫華外書를 품평했다. 조금 올라가 고운 풀들이 돋아난 언덕을 차지해서 앉
으니, 산골짜기 물이 굽이쳐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우측으로는 푸른 숲이
우거져 짙은 그늘을 드리웠는데, 한 그루 붉은 복숭아가 농염한 빛을 도드
라지게 드러내고 있었고, 버드나무 바깥의 짧은 다리에는 놀러 온 사람들
이 오가고 있었다. 시골 초가집이 점점이 이어지는 것이 복사꽃 만발한 가
운데 드러나는데, 밥 짓는 연기가 간혹 피어올랐다. 그 위치와 품격이 흡
사 그림 속인 듯했다. 오래도록 앉아서 감상하며 의견을 나누고는, 그대로
언덕에 올라 내려다보니 온 골짜기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이 죄다 그 모
습을 드러내어, 마치 노을과 눈이 어지러이 뒤섞인 듯하니 또한 이것도 꽃
을 감상하는 하나의 격조일 것이다.

언덕에서 내려와 다시 짧은 다리를 경유해 성북돈을 구경했다. 성북돈은
군영에 속한 창둔의 이름이다. 성북돈 뒤쪽으로 올라가 시내를 따라 걷는
데, 이따금 암벽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촌락을 만나기도 했다. 놀러 온 사
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는데, 흑자는 조용한 것을 편하게 여기고 흑자는 시
끄럽게 떠드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노는 법도 대체로 동일하지가 않다.
복사를 찾아가던 도중에 절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것을 듣고 결국에는 다

시 시내를 따라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고 갑자기 흐려지면서 비가 올 것 같
았다. (후략)…³¹

혜화문을 나와 지금의 성북동 누들거리 일대를 거닐다 다리를 건너 북둔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채제공의 유람 경로와 비슷하지만, 그다음 북둔 뒤편으로 올라갔다가 그 길
로 복사를 찾아간 것은 채제공 일행의 동선과는 다른 흔적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무
렵 이미 복사가 훼손되었다는 언급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과거 성북동을 ‘북사동(北
寺洞)’으로 부른 근거로서 복사는 1785년 3월 무렵 이미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780년대 중반 채제공과 유만주가 성북동을 찾은 시기로부터 대략
30~40여 년이 흐른 뒤인 19세기 초반 봄철 성북동을 유람한 기록이 남아 있으니, 조
선 후기 문신 서형수(徐瀼修, 1749~1824)의 「북적동 유람기」가 그것이다. 아래는 그에
대한 전문이다.

도성 동쪽으로 나가 북쪽으로 3, 4리를 가면 북적동이 있는데, 골짜기가
도성 곁에 있어 명승으로 유달리 소문난 곳으로, 늦봄에는 일찍이 하루도
거리에 사람이 없는 날이 없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 문밖으로 나서기를 좋
아하지 않으며, 문을 나서는 것은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에만 나간다. 이날
은 객이 길을 나가보자고 몹시 졸라서, 이에 옷깃을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
어 골짜기에 이르렀다.

골짜기 입구에는 너럭바위가 누워 있고 그 위로 물이 널찍하게 퍼져 흘렀
다. 천변을 따라 줄지어 가면서, 땅을 골라 밟기도 하고 때로는 건너뛰기
도 하였다. 골짜기에 들어서자 널찍한 바위가 끝나고, 퍼져 흐르던 물이
모여 흐른다. 골짜기 가운데는 시내고, 시내 양 기슭은 언덕이다. 언덕 마

31 『흙영』 1785년 3월 26일자 일기. “…(전략) 從惠化步出, 左轉而入北洞, 滿眼桃花. 時尙早爾, 遊人不斷, 而亦不及昨聞之
盛. 綠岡賞花, 屈曲無定, 坐石上臨流, 食午飯, 評訂唐詩貫華外書. 稍上而得芳草之岸阜, 坐焉, 澗水曲折有聲而已. 右邊
靑林叢翳濃陰間, 以一樹紅桃, 越顯光艷, 柳外短橋, 遊人去來. 村籬草屋點綴, 在桃花中, 炊煙或起, 其位置品格, 宛是畫
裏也. 坐久賞議, 仍陟岡麓以下臨, 滿洞繁花全體呈露, 霞雪交迷, 又是觀花一格也. 從岡而下, 更由短橋, 觀城北屯. 城北
屯者, 軍營倉屯之名也. 從屯後逕上, 綠岡而行, 或逢岩壁, 或值籬落. 遊人在在群聚, 或以從容爲便宜, 或以喧鬧爲能事,
遊之法, 蓋亦不一也. 將尋北寺途, 聞寺已毀, 遂更沿溪而下, 日旰忽陰有雨意. (후략)…”

루에는 산길이 몇 리나 이어지고, 사이사이에 촌락의 울타리가 별자리처럼 드문드문 늘어서 있다. 울타리 밖으로는 언덕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복사꽃이 뽀뽀이 들어섰는데, 그 빛깔이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으며, 질 붉은 것도 있고 연붉은 것도 있다. 또 곳곳한 소나무와 늘어진 버드나무가 일산처럼 펼쳐지고 휘장처럼 드리워져 있다. 여우비와 아지랑이가 서로 어울려 비치고, 이따금 떨어진 꽃잎이 시내에 들어가 시냇물이 꽃 빛으로 물들었다.

마을에는 김씨 성의 업무(業武, 무관 집안의 서자)가 있는데, 나와는 예부터 아는 사이라, 시냇가에서 방향을 꺾어 동쪽으로 향해서,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뚫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띠 풀을 덮어 얹은 집이 매우 호젓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숙인(主人)의 살림살이 같지가 않았다. 주인은 우리에게 마루를 내주고서, 직접 술과 안주를 마련해 정성스레 대접했다. 조금 있자니 벼슬아치가 탄 수레와 말이 왈차지껄하게 문 앞을 지나는데, 술 취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날리는 먼지가 자욱했다.

내가 주인에게 물었다. “어른께서 이곳에 살면서 어린 시절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노년에 이르셨는데, 골짜기의 변화함이 하루도 오늘 같지 않은 날이 없었지요?” 주인이 말했다. “동서남북 교외에서 명승으로 이름난 곳이 동교가 최고이며, 북적동은 이 동교에서도 유독 빼어난 곳이니, 바야흐로 예쁜 꽃이 향기를 뿜고 고운 경치가 아름다움을 다투면 도성의 사인(士人)과 부녀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참으로 도성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꽃이 지고 물이 줄어 봄 산이 텅 비면, 이따금 오가는 이들이라곤 산신에 제사를 지내는 박수노인이나 솜옷을 빨고 행구는 할멈뿐이어서, 애초에 사람들로 넘쳐나던 것이 마치 부적절한 일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나는 객을 돌아보며 말했다. “한 해 가운데 땅에서 일어나는 성쇠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한 평생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나? 이와 같은 것이 또한 누군가 꾀어내고 또 빼앗아서 그런 것이겠는가?” 한숨을 쉬며 배회하다가 날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번 행차에서 시를 잘하는 이

들이 모두 시를 지었으나, 나만 혼자 짓지 못했다. 마침내 그날의 일을 기록해 책머리에 얹는다.³²

이 작품이 언제쯤 창작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북둔이 조성된 것이 1760년대 후반이며, 김씨 성의 업무(業武)가 이곳에서 유년과 장년을 보내고 노년에 이르렀다는 표현으로 보아, 아마도 1820년 무렵에 가까운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추측컨대 김씨 성의 업무는 초기 북둔을 설치했을 때 모집된 군병의 자식이나 손자일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을 안에 자리한 업무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인지, 앞서 체제공이나 유만주가 북둔을 찾아갔던 것과는 달리 서형수는 북둔을 찾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붉은 복사꽃이 푸른 소나무, 버들과 함께 어우러져 계곡 일대를 장식한 그림 같은 풍경과 한편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공간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글의 말미에 작자인 서형수가 객에게 이야기한, “한 해 가운데 땅에서 일어나는 성쇠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한 평생에는 어떠하겠나(一歲之中, 地有盛衰如此, 況於百年乎)?”라는 말은 봄 한철 잠깐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사라지는 화려한 복사꽃의 덧없음을 떠올리게끔 한다. 수십 년간 성북동에 거주하며 그와 같은 무상함을 매년 반복해서 느꼈을 김씨 업무의 쓸쓸함이란 또 어떠한 것이었을까. 여러 기록에 묘사된 내용에 근거할 때 성북동이 봄철 조선을 대표하는 소위 무릉도원과 같은 명승이었을지라 하더라도, 정작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느끼던 감정과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방문객이 아니라 거주민의 입장에서 본 조선 후기 성북동의 지역성이란 과연 무엇이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2 『명고전집』 권8, 「유북적동기」. “出國東城而北行三四里, 有北笛洞, 洞在都傍, 以名勝特聞, 暮春者, 未嘗一日巷無人焉. 余故拙不喜出門, 卽出門, 必不得已而出, 是日也, 客有迫之起, 乃連袂接袵, 緩步至洞, 洞之口, 有磐石偃臥, 水漫漫布流其上. 緣邊魚貫, 或擇蹈或距躍, 既入洞, 石之盤者亘, 水之布者澹. 中洞爲溪, 夾溪爲岸, 岸峙爲山徑幾數里, 間有邨籬, 落落如星羅. 籬以外自岸至山, 桃花簇立, 有白有紅, 有深紅有淺紅. 又有亭松弱柳, 如華蓋如屏帳, 暈雨縹煙, 相與暎帶, 往往落花入溪, 溪流爲之色蘸. 邨有金姓業武者, 余與有舊, 自溪上折而東, 穿林下一線路, 爲訪其居. 覆茅結構, 窈深潔觀, 不似煙火家計. 主人讓余廳事, 躬自具酒肴以款之. 頃之, 冠帶車馬, 闐咽過門, 醉呼歌舞, 遊塵合沓. 余問主人曰: ‘翁之居於此, 幼而壯而老, 洞之繁華, 無一日不如今也乎?’ 主人曰: ‘四郊之以名勝聞者, 東郊爲最, 而洞於東郊爲尤特, 方其嬌芳吐香, 麗景爭妍, 都人士女, 固無日不傾城. 及夫花去水落, 春山一空, 時往時來者, 卽祝釐之翁, 泚澁統之媼, 而未始不漚然如失也.’ 余顧謂客曰: ‘一歲之中, 地有盛衰如此, 況於百年乎? 若是者, 又孰誘而孰奪之?’ 徘徊太息, 及日而還. 是行也, 能詩者皆有韻語, 余獨無以應. 遂記其事, 以弁諸卷首云.”

3 성북동 일대에 자리했던 여러 누정에 관한 이야기

1. 해장(海藏) 신석우(申錫愚)의 성북동 우거와 유람

문장과 글씨로 이름을 떨친 조선 후기의 문신 해장(海藏) 신석우(申錫愚, 1805~1865)는 봄철 성북동을 찾아 유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성북동에 집을 마련해 머무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 그의 문집 『해장집(海藏集)』에 실린 「윤달 봄이 단 하루 남았는데 마음이 몹시 슬퍼 가마를 타고 혜화문을 나가 성북동 백씨(白氏)의 초당을 방문했다. 생질 학여(學汝)와 어린 조카들 및 여러 생(生)이 함께 왔다」와 「가을에 성북동 작은 집에 우거하다」라는 두 편의 작품에 담겨 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칠언율시 4수로 구성된 첫 번째 편의 작품이다.³³

꽃긋한 솔과 우뚝한 돌이 서로 가려 이지러졌는데	矯松峙石互虧遮
길 돌아간 성 북쪽에 간소한 외나무다리 기울었네	路轉城陰略徇斜
큰 길이 절경과 이웃한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未信亨衢隣絕境
맑은 나무그늘이 남은 꽃 가리는 것은 이미 보았네	已看清樾翳殘花

³³ 『해장집』 권7, 「閏春只餘一日 意甚招恨 肩輿出惠化門 訪城北屯白氏草堂 甥姪學汝及兒姪輩及諸生同來」.

흐르는 구름이 첩첩한 봉우리 안에는 빈 곳이 없는데	流雲疊嶂中無地
떨어지는 폭포수가 선회하는 개울가에는 집들이 있네	飛瀑迴溪上有家
만약에 띠 풀 집을 가지고 그 가치를 논한다면	若把茆茨論價值
서늘한 바람 소리가 만금의 값을 더하리라	冷然風籟萬金加

움푹 파인 언덕은 풍진(風塵)을 제대로 막지 못해	掘堞風塵不任遮
동쪽 산으로 수레 모니 네모난 두건 기울어지네	東山命駕角巾斜
봉우리 구름에 습기 많아 어제 밤 비 내리더니	峰雲濕重昨宵雨
산간 개울에 떠오르는 것은 어느 곳의 꽃이런가	澗水浮來何處花
나는 시를 짓고 싶어 이 장소를 찾았는데	我欲賦詩尋此境
공은 잠에서 깨어 그대의 집을 찾겠다고 말하네	公云罷睡訪君家
평소 험한 바위너덜에서 길이 살 것을 꾀하나니	平生長往巖巖計
잠시 동안 배회하더라도 궁색함은 더하지 않으리	聊且徜徉窘莫加

복사꽃으로 열린 오솔길 기른 복사꽃이 가로막는데	因桃開徑養桃遮
담장과 집 편리함 따라 반듯하고 또 기울어졌네	垣屋隨便整復斜
늙어가니 정과 회포도 술에 의지하지 못하는데	老去情懷無賴酒
근래에는 바람과 비가 꽃을 쉬이 재촉하네	近來風雨易催花
사대부는 걸림 없이 주인이 되어 유람하는데	士夫不障遊爲主
형제는 살곳 마련함에 집이 수수하기를 꾀했네	兄弟營居計拙家
찌든 창자를 씻어내는 샘물이 맛있고 차가운데	洗濯塵腸泉味冽
어찌 죽순 말린 것에 음식 더하기를 권하겠는가	何須筍脯勸餐加

침실과 문간방 절로 보호하고 가리는데	寢室門堂自護遮
동쪽 끝머리 작은 시령을 남사라 부르네	東頭小架號廊斜
자리 가운데 늙은이 천 가닥 머리칼 새하얀데	座中叟白千莖髮
성북 둔영의 수많은 나무에는 꽃들이 붉네	城北屯紅萬樹花
오래된 괴석을 이웃삼아 바야흐로 땅을 얻고	石丈爲隣方得地
늙은 소나무 심긴 가옥을 내 집으로 삼았네	松翁之屋我爲家

그대와 함께 여름 보내며 새로운 사귀을 이루니	同君結夏成新契
침상에서 머리에 발을 더한들 무슨 상관이라	眠榻何妨頂跣加

백씨(白氏)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형제는 살곳 마련함에 집이 수
수하기를 꾀했네(兄弟營居計拙家)’라는 시구를 통해 백씨 형제가 함께 성북동에 집
을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산간 개울에 떠오르는 것은 어느 곳의 꽃이런가(澗水浮
來何處花)’, ‘복사꽃으로 열린 오솔길 기른 복사꽃이 가로막는데(因桃開徑養桃遮)’, ‘성
북 둔영의 수많은 나무에는 꽃들이 붉네(城北屯紅萬樹花)’ 등의 표현에서 봄철 성북
동 특유의 복사꽃 풍광에 관한 묘사가 확인된다. 그 가운데 줄박하게 자리한 백씨의
집은 더욱 운치가 넘친다. 띠 풀로 지은 작은 집이지만 침실도 있고 문간방도 있으
며 작은 시렁도 있다. 게다가 오래된 괴석을 이웃하고(石丈爲隣) 늙은 소나무가 있
으며(松翁之屋), 샘물과 죽순 말린 것으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이따금 부는 서늘한 바
람 소리를 만금의 값으로 여기고 있다(冷然風籟萬金加). 그 호젓한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나는 시를 짓고 싶어 이 장소를 찾았네(我欲賦詩尋此境)’라는 작자의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아래는 신석우의 또 다른 작품 「가을에 성북동 작은 집
에 우거하다」라는 칠언율시 6수다.³⁴

성곽 뒤쪽이 낙엽 지는 가을을 먼저 차지하니	背郭先占聶聶秋
바람에 샘물 날아 떨어지는 돌구유가 호젓하네	風泉飛落石槽幽
거듭 와도 산이 폐부와 같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重來不辨山如肺
빌려 묵으니 집에 머리가 부딪친들 어찌 꺼리랴	借宿何嫌屋打頭
절절하게 우는 벌레 서글픈데 서리 기운 이르고	切切悲虫霜氣至
분분히 비치는 달빛 서늘한데 이슬 빛이 흐르네	紛紛涼月露華流
이웃들은 제각기 멋진 동산과 연못을 갖추고선	隣人各具園池勝
사립문에 물 뿌리고 비질해서 내 유람을 기다리네	汎掃柴門待我遊

산은 황혼으로 바뀌고 골짜기는 가을로 바뀌니	山易曛黃洞易秋
--------------------------	---------

34 『해장집』 권7, 「秋寓城北小舍」.

성곽의 그늘과 돌 기운은 절로 깊고 그윽하네	城陰石氣自幽幽
반쯤 취해 비교해 보니 단풍이 뺨을 기만한듯한데	半酣欲較楓欺頰
만년 절조 함께 돌아감은 국화 머리에 가득한 이라네	晚節同歸菊滿頭
복숭아나무 길에는 현도관 전에 왔던 객이 많지 않고	桃陌無多前度客
『다경』은 이렇게 흐르는 샘물을 몇 번째로 하였나	茶經第幾此泉流
구름 낀 봉우리 이지러지고 가려져 서로가 비슷하니	雲峰虧蔽渾相似
내일은 다시금 어제 노닐던 곳을 찾아 가리라	明日還尋昨日遊

올해도 또 이렇게 가을에 돌아가지 못하고	今年又是未歸秋
무슨 일로 그윽한 이곳을 이리저리 배회하나	何事徊徨此地幽
한 가닥 길 속세에 발 헛디딘 것을 탄식하고	一路紅塵嗟失腳
세 봉우리 백악을 향해 머리 돌리며 슬퍼하네	三峰白岳悵回頭
달빛은 그믐으로 향하며 새벽 숲에 돋았는데	月痕向晦依林曙
샘물 소리 밤새도록 돌을 안고 흐르네	泉語通宵抱石流
굳은 습관에 문장 꾸미는 일 없애기가 어려워니	結習難除文字役
이번 행차는 즐겁게 노닐이 그리웠다 잘못 말했네	茲行錯道戀遨遊

앞쪽 봉우리와 뒤쪽 언덕 두루 다 다니는데	行遍前峰與後岡
도래하는 그윽한 경치는 시냇가 집이 제일이네	到來幽致揀溪堂
나는 늙어 갈지라도 몸은 오히려 건강하리니	吾將老矣身猶健
그대의 말 없는 폐부도 역시나 청량하리라	君勿言之肺亦涼
이곳에 인연이 있어 환해의 괴로움에 초연하고	是處有緣超海苦
남은 삶에 복이 많아 향기로운 샘물 마시네	餘生多福食泉香
한낮 창가에서 희헌(曦軒)의 태평함을 직접 보건대	午窓親見羲軒語
술 취한 황홀경은 끝내 꿈에서나 접하리라	酒國終知接睡鄉

피해서 온 집 담장이 지켜 온 언덕을 접했는데	避來牆接守來岡
모든 것을 동쪽 숲으로 향하게 해 이 집을 지었네	俱向東林管此堂
통달한 선비는 앞에 말미암아 진퇴를 편안히 하는데	達士由知便進退

평범한 사람은 쫓기고 쫓겨야만 세태를 안다네 居人漸遭識炎涼

당시 재상이 바야흐로 별서를 지었는데, 時宰方營別墅
주민들이 마치 달리듯이 공역工役에 나아갔다. 居民赴工如驚

띠 풀 베어 뜻을 다듬으니 집안은 청결하고 誅茅意匠房櫺潔
국화잎 먹는 생애에 일곱 보케 향기롭네 餐菊生涯七簋香
온갖 일 모두가 그저 그렇고 또 그러하니 萬事都爲聊復爾
처하는 곳마다 거침없이 내 고향이라 부르네 寄傲隨處喚吾鄉

구준봉 이어진 곳에 준강隼岡이 자리 잡아 蹲狗峯連坐隼岡
여러 공이 장차 이 동산의 집으로 나아오리라 諸公將就此園堂
마을을 찾다가 곧장 그침은 그대의 게으름이고 徵村旋撤君其倦
침상을 빌려 그대로 거처함은 나만의 청량함이네 借榻仍居獨也涼
석종유로 진결眞訣의 뜻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鍾乳共談眞訣旨
꽃 경단에 궁궐의 향기를 나누어 보냈네 花糕分送內家香

이웃의 별제別提 안씨가 단약 조제 비결을 말하는데, 석종유를 복용하는 음식물 중의 상품으로 여겼다. 사알司謫 하씨가 결내의 물품인 꽃 경단을 보내왔다 隣有安別提, 能談脩煉之訣, 以石鍾乳爲服食之上品, 河司謫以內品花糕見遺

어찌하면 밤낮으로 공과 함께 술을 마시라 那能日夕同公飲
거나하게 취하면 어느 마을인줄도 모르리라 沉醉不知何處鄉

작자인 해장 신석우는 군(君) 또는 공(公)이라 호칭하는 지인의 성북동 집을 찾아와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가을의 서늘한 풍광이 작자의 복잡한 심경과 어울려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봄에는 복사꽃이 가득했던 성북동도 가을이 되자 ‘구슬피 우는 벌레(悲虫)’와 ‘서리(霜氣)’ 그리고 ‘서늘한 달빛(涼月)’ 아래 ‘붉은 단풍(楓欺頰)’과 ‘국화(菊)’로 그 풍광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작자의 성북동 우거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이자 휴식이라 판단된다. ‘한 가닥 길 속세에 발 헛디딘 것을 탄식하고(一路紅塵嗟失脚)’, ‘이곳에 인연이 있어 환해의 괴로움에 초연하고(是處有緣超海苦)’, ‘온갖 일 모두가 그저 그렇고 또 그러하니(萬事都爲聊復爾)’, ‘거나하게 취하면 어느 마을인줄도 모

르리라(沉醉不知何處鄉)’ 등의 표현은 현실 공간으로서 도성을 떠나 전원인 성북동에 머무르며 삶을 돌아보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백씨 형제의 집과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친우의 집에 머물렀을 때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앞의 두 작품과 별개로, 신석우는 또 다른 때에 성북동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력 8월 날이 갓 개어 삼송 어른과 성북둔 유람을 약속하여, 도승지의 작은 정자를 빌려 기장밥을 짓고 술을 시켜놓고서 운자에 맞추어 시를 지었다」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2수는 앞의 두 작품과 달리 머무른 곳을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³⁵

정자 이름이 ‘무환無喧’인데 보아하니 과연 그러해 亭曰無喧見果然
이 집은 오히려 편안히 잠 붙이기에 족하다네 此軒猶足着高眠
벼슬의 뜻 종이처럼 얇어 산새들을 가까이하는데 宦情薄紙幽禽近
가을 꿈은 고치실처럼 길어 저물녘 귀뚜라미가 이끄네 秋夢如繅暮蜚牽
억지라도 이 몸을 속세 밖으로 빼내고자 하건만 強欲超身輒紅外
도리어 작은 술집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還須踏跡小青邊
띠 풀로도 덮지 못하게 완전 대머리 되었지만 把茅未蓋頭渾禿
계획이 졸렬하니 십만 냥을 허리에 두드리 計拙纏腰十萬錢

집집마다 나를 보고 사립문 빗장을 여는데 家家見我啓柴關
도성 북쪽 새와 물고기도 내 얼굴을 알리라 城北禽魚亦識顏
돌에 기대어 한가히 두 줄기 물소리를 듣고 倚石閒聽雙股水
창문 열고 평안히 한 방산을 받아들이네 開窓平納一房山
아우는 금수와 옥병 사이 우두정 위로 돌아가고 弟歸金玉牛頭上
금수와 옥병 사이에 우두정이 있다. 金水玉屏之間 有牛頭亭

남들은 수레와 깃발 속 왕의 행차 사이에 있네 人在鑾旂豹尾間
석농과 진제는 왕을 호종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했다. 石農晉齋以扈蹕 不得相會

35 『해장집』 권8, 「仲秋新晴 三松丈約遊城北屯 借知申小亭炊黍命酒 拈韻賦詩」.

갈림길에서 주저하며 시름없이 바라보노라니

歧路躊躇堪悵望

머물러 잘 수 없고 돌아올 수도 없다

不成留宿不成還

행차에 함께한 소위 ‘삼송 어른(三松丈)’은 조선 말기 여러 판서 자리와 좌참찬 벼슬을 역임한 김보근(金輔根, 1803~1869)으로 짐작된다. 왕을 호종해야 하는 임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석농(石農)은 이조판서와 대사헌 등을 역임한 이종우(李鍾愚, 1801~1862)로 보인다. 석농체(石農體)라는 독특한 필체로 이름이 났던 인물이다. 진재(晉齋)는 경기도관찰사와 홍문관제학 등을 지낸 조재응(趙在應, 1803~?)으로 여겨진다. ‘도승지(知申)’라 표현한 인물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로써 볼 때 이 작품은 그 창작 시기를 늦추어 잡는다 하더라도 186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의 시와 마찬가지로 봄이 아니라 가을에 찾은 성북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의 첫 구절을 통해 도승지를 역임한 모 인물의 작은 별업이 성북동에 있었으며, 그 정자의 이름이 ‘무환정(無喧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환(無喧)은 ‘시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飲酒)」 시구 ‘내 귀에는 시끄러운 거마 소리가 안 들리오(而無車馬喧)’에서 따온 말이다. 도성 바깥에 마련한 전원의 공간으로는 더없이 어울리는 이름이라 하겠다. 19세기 중반 무렵까지 성북동에 자리하고 있었을 무환정은, 여태껏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오래된 문헌에 남은 작은 흔적이 되었다. 무환정과 마찬가지로 옛 문헌에 남아 있으나 익히 알려지지 않은 조선 후기 성북동 일대의 누정들이 적지 않다. 도성 인근에서 아름다운 경치로 손꼽히던 명소가 성북동임을 생각해본다면, 18세기 후반 이후로 유력한 양반들이 이곳에 별업을 조성하고 향유했을 한가로운 전원생활과 그 배경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2. 지금은 잊힌 조선 후기 성북동의 정원과 별업

아래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이순(李爾淳, 1754~1832)이 쓴 「정릉에서 발길을 돌려 북저동에 이르러 돌아오는데, 최성회(崔聖會) 령(令)이 장난스럽게 시를 읊으며 ‘아직

도 출세할 꿈을 9할이나 가진 사람이다’는 시구로 놀리기에, 원래의 운자를 사용해 화답해 보이다」라는 제목의 칠언절구다.³⁶

꽃을 보며 나막신 신고 도성의 풍진 털어내는데

看花行屐拂城塵

정릉 길 다 걷고 나니 북저동 골짜기는 봄이라네

踏盡貞陵洞裏春

돌아오는 길에 백운정사에 들렀나니

歸路白雲精舍過

신선의 인연이 십분 가득한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네

仙緣自謂十分人

북저동에 띠 풀로 이은 정자가 있는데, 백운정사라고 이름 부른다. 北渚洞, 有茅亭, 名白雲精舍

최성회 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작자와 함께 동교 나들이를 나선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최성회 령이 작자를 가리켜 ‘아직도 출세할 꿈을 9할이나 가진 사람이다(猶是靑雲九分人)’라며 깃갯게 표현하자, 작자가 최성회 령을 향해 ‘신선의 인연이 십분 가득한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네(仙緣自謂十分人)’라는 농담 섞인 구로 대응한 맥락이 재미있게 다가온다. 시구를 주고받는 가운데 확인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옛날 성북동에 ‘백운정사(白雲精舍)’라는 띠 풀로 엮은 정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백운정사에 들렀을 때 ‘선연(仙緣)’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백운정사는 마치 선계에 있는 듯한 멋진 풍광을 지닌 곳으로, 당시 성북동 내에서도 익히 알려진 명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운정사의 사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듯이, 18세기 후반 이후로 성북동은 도성 일대에서 북사꽃으로 제일가는 명승이었기에, 조성된 정원과 누정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이 적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송씨 집안의 정원이다. 충청도관찰사와 대사간, 대사헌 등의 벼슬을 역임한 조선 후기의 문신 김정균(金鼎均, 1782~1847)은 어느 봄날 송씨 집안의 정원을 방문하고 시를 한 편 썼으니, 「북저동의 송씨 집안 정원(宋家園)에 모여 봄날을 보내다」라는 제목의 칠언율시가 그것이다.³⁷ 아래는 2수 가운데 두 번째 시다.

³⁶ 『후계집』 권1, 「自貞陵轉至北渚洞而還 崔令聖會戲誦 猶是靑雲九分人之句 以嘲之 步韻見答」.

³⁷ 『서어유고』 1책, 「送春日會北渚洞宋家園」.

수많은 집의 복숭아와 오얏꽃 봄별에 고운데	萬家桃李艷春陽
푸른 나귀 타고 성문 나서니 밝은 해가 길구나	出郭青驢白日長
말발굽과 수레 자국 흔적 수풀 아래 자주 보이고	蹄轍多看林下跡
개울과 산에는 술잔의 향이 다하질 않네	溪山不盡酒中香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은 모두 한가한 일이건만	花開花落皆閑界
사람이 가고 사람이 오는 것은 필경 한바탕 꿈이라네	人去人來竟夢場
전날 밤 고승高僧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나니	靜聽高僧前夜話
동남쪽에는 맑고 그윽한 수운향水雲鄉이 끝이 없네	東南無限水雲鄉

시의 내용에서는 송씨 집안 정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짐작할 만한 묘사나 구체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날 밤 정원을 찾았을 고승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는 사실 정도가 이채롭게 다가올 뿐이다. 한편으로 그곳에서 꽃을 구경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여타 별업에 못지않은 풍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씨 집안 정원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작품이 또 하나 있으니,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쓴 「영야(寧野)와 함께 북저동으로 나가 함께 읊다」라는 제목의 오언율시다.³⁸ 해당 작품에는 당시 김조순이 북저동을 방문하며 들른 것으로 보이는 송씨 집안의 정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다. 아래는 해당 오언율시 2수 가운데 두 번째 시다.

송씨 노인은 이곳을 어느 해에 축조했나	宋老何年築
복사꽃 정원이 한 마을에서 제일이네	桃園甲一村
살면서 특별히 주관하는 일 없어도	起居無別幹
먹고 입는 일 절로 바탕을 이루었네	衣食自成根
돌 개울의 정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石澗情今古
구름 낀 봉우리 자태는 아침저녁으로 같네	雲巒態曉昏
돈이 있다면 응당 이곳을 사리니	有錢應買此
책 읽으며 거문고와 술 함께 하리라	書卷伴琴樽

³⁸ 『풍고집』 권6, 「與寧野出北渚同吟」.

제목에서 언급되는 영야는 서준보(徐俊輔, 1770~1856)다. 19세기 초 어느 무렵 두 사람은 북저동으로 함께 봄나들이를 갔던 것으로 보인다. ‘송씨 노인은 이곳을 어느 해에 축조했나, 복사꽃 정원이 한 마을에서 제일이네(宋老何年築, 桃園甲一村)’라는 표현을 통해, 송씨 집안 정원(宋家園)은 ‘송씨 노인(宋老)’으로 불리는 인물이 조성하고 관리했던 곳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갑(甲)’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북동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살면서 특별히 주관하는 일 없어도, 먹고 입는 일 절로 바탕을 이루었네(起居無別幹, 衣食自成根)’라는 구절은, 복숭아를 가꾸어 버는 수입과 찾아오는 유람객들이 제공하는 선물이나 유숙(留宿)의 대가 외에 딱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알려준다. 풍고 김조순은 이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으며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돈이 있다면 응당 이곳을 사리니, 책 읽으며 거문고와 술 함께 하리라(有錢應買此, 書卷伴琴樽)’와 같은 표현을 남겼을까. 요즘으로 치자면 유명 관광지의 최고급 숙박 시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백운정사와 송씨 집안 정원 외에도 여타 이름난 별업에 관한 기록들이 보인다. 아래는 조선 후기 여항문인 장혼(張混, 1759~1828)이 쓴 「북저동을 유람하는데 골짜기 서북쪽 부성(附城)의 북쪽에 새로 지은 정자가 있어, 편액을 ‘오로(吾老)’라고 하였다. 매우 맑고 깨끗했으며 붓을 달리듯이 벽 위에 썼다」라는 제목의 칠언율시다.³⁹

한 줄기 물이 만 그루 소나무를 끼고 흐르는데	一流水夾萬株松
몇 리를 지나가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네	數里行過人未逢
연기 피어오르는 몇몇 집들 어느 곳에 숨었나	烟火幾家隱何處
천 길 높이 성 망루는 외로운 봉우리 의지했네	城譙千仞倚孤峰
피꼬리와 나그네는 띠 풀 정자를 좋아하니	黃鸝遊子茅亭好
푸른 잎과 한가한 구름에 한낮 경치가 질구나	綠葉閑雲午景濃
평상시에 그 누가 한가로운 생각을 알겠는가	鎮日誰知濠濮想
성곽 문의 수레와 말들이 다투어 서로를 쫓네	郭門車馬競相從

³⁹ 『이이엄집』 권7, 「遊北渚洞 洞西北附城陰 有亭新構 扁曰吾老 甚精灑 走題壁上」.

북저동 서북쪽의 부성(附城)이 지금의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시 내용 가운데 ‘천길 높은 성 망루(城譙)’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지대가 아주 높았다는 것 정도만 짐작할 수 있다. 오로정(吾老亭)은 그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꼬리와 나그네는 떠돌 정자를 좋아한다(黃鸝遊子茅亭好)’는 표현을 통해서 보건대 아마도 초가 정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만수(李晩秀, 1752~1820)의 작품 가운데 「오로정」이라는 제목의 칠언율시가 있으니, 장흔의 시에서 언급된 오로정과 동일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는 해당 작품이다.⁴⁰

골짜기 입구에 열은 구름 피고 작은 정자 깊숙한데	洞門晴靄小亭深
푸른 소나무 아래 말을 맨 후 채찍을 메고 읊조리네	繫馬靑松負策吟
산간 개울은 동서로 흘러가며 꽃이 점점이 떠나고	澗水東西花點點
새들이 울어대는 높고 낮은 나무들 그림자 질네	禽聲上下樹陰陰
한가한 중에 홀연히 언제 어딘지를 잊은 듯하니	閑中忽似忙時境
늙어 가는데도 젊은 날의 마음 너무나도 많다네	老去偏多少日心
멋대로 여러분들 잔뜩 취할 정도는 되지 말게나	莫謾諸君沉醉度
남은 봄 한 식경이 천금의 가치를 갖는다네	殘春一刻直千金

앞서 장흔의 시와 마찬가지로 오로정의 풍광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작은 정자가 깊숙하다(小亭深)’는 표현 정도가 전부다. ‘깊숙하다’는 말은 아마도 오로정이 골짜기 안쪽에 있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오로정의 물리적 외형에 관한 묘사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오로’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세련된 운치를 보여준다. 내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임을 밝히면서, 행여 젊은 기분에 너무 도취해 지금 나 자신의 처지를 잃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누구나 늙는 것을 싫어하지만,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인생의 말미에서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퇴한 이들이 별업을 짓고 은거하는 공간으로서의 모습 또한 성북동의 내포 가운데 하

⁴⁰ 『국원유고』 권1, 「오로정」.

나임을 고려할 때, 성북동과 오묘하게 어울리는 명명이 아닐까 싶다.

조선 말기의 문신 오형묵(吳宏默, 1834~1906)의 문집 『총쇄(叢瑣)』에도 성북동에 자리했던 여러 별업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아래의 글은 그 가운데 「성북동천석정병인(城北洞泉石亭并引)」이라는 작품이다.

성북동 천석정에서 용재容齋 윤의정(尹議政, 윤용선)을 배알하고 물러갈 것을 아뢰자, 상공이 내 지팡이 짚는 것을 잡고 늘어졌다. 전원의 승경을 함께 완상하며 그림 같은 경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정자의 북쪽 편액은 만송와萬松窩이고, 물가의 누각은 불영각不盈閣이라 하였다. 누각 앞에는 커다란 돌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데, 10여 칸 정도 되었다. 돌 남쪽에는 거대한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높이가 몇 장이나 되고 넓이도 6~7칸 정도 되었다. 바위 위에는 늙은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크기가 몇 아름은 되고 길어도 수십 장은 되었다. 가지와 줄기가 넓게 뻗어 돌 표면을 완전히 덮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 따위가 온갖 소나무 사이에 섞여 있고, 누각 아래 시내가 흐르는데 물이 돌 틈으로 통했다. 쟁강거리는 물소리와 더불어 생황과 비파를 합주하는 듯한 술바람 소리가 그야말로 별세계의 선경洞天이라 하겠다.⁴¹

도성 가까운 곳에 무릉도원이 펼쳐졌으니	城闌咫尺闢桃源
승상이 은거해서 여기에 더 잡고 산다네	丞相菟裘爰處爰
한 줄기 폭포 소나무 밑으로 나오고	一道飛泉松底出
무리지어 우는 새들은 돌 머리에 시끄럽네	千羣啼鳥石頭喧
노년에 뜻대로 물러나는 기한을 따랐지만	桑榆縱趁懸車限
해바라기 오히려 임금의 은덕을 그리워하네	葵藿猶應戀闕恩
이 땅이 성대해지게 된 것을 경하 드리니	爲賀茲區遭遇盛

⁴¹ 『총쇄』 11책, 「城北洞泉石亭 并引」. “城北洞泉石亭, 謁容齋尹議政. 告退. 相公挽執携筇, 同翫泉石之勝, 指點景槩. 亭之北扁萬松窩, 水閣曰不盈閣. 閣之前, 大石平鋪, 可十餘間. 石之南, 詎巖特立, 高數丈, 廣可六七間. 巖之上, 老松二株, 大可數抱, 長亦數十丈. 枝幹廣達, 全覆石面. 杜鵑躑躅之屬, 雜錯於萬松之間, 閣下溪流, 水通石罅. 鏗錚之韻, 與松籟合奏笙簧琵琶之聲, 眞別洞天也.”

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천석정은 조선 말기 의정부 의정(議政)을 역임한 용재 윤용선(尹容善, 1829~1904)의 별업이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윤용선이 성북동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는 1899년 8월이다.⁴² 이로써 볼 때 1900년이 되기 전부터 윤용선은 성북동에 머물렀으며, 천석정은 아마도 그 별업의 중심 건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커다란 바위와 돌 틈으로 시내가 흐르는 가운데 높이 솟은 푸른 소나무들이 붉은 진달래, 철쭉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오형묵의 작품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순국지사로 알려진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성북동 별업에 관한 시가 그것이다. 「성북동 상서 민영환의 계정(桂庭) 별업은 지역이 시원하게 띄어 있어, 당시 대신들이 와서 노닐며 시를 지었다」라는 제목의 칠언율시로서, 아래는 해당 작품의 내용이다.⁴³

이름난 정자 경물들 창성한 시절 맞으니
맑은 운치로 오는 이는 뛰어난 사람들이네
고목에 감긴 푸른 등나무 밝은 해 가리고
맑은 노래에 묘한 춤은 푸른 봄을 꾸미네
시절 태평하니 벼슬아치들 틈을 얻기 쉽고
지세 빼어나니 누대는 주인이 자주 바뀌네
밤새도록 돌아가지 않고 보아도 부족하니
해가 서쪽으로 달리도록 질책하지 말게나

名亭雲物屬昌辰
蕭致能來是可人
古木蒼藤掩白日
清歌妙舞媚青春
時平冠冕偷閑易
地勝樓臺遞主頻
竟夕忘歸看不足
莫教羲馭叱西輪

계정은 민영환의 호이기도 하다. 당시 성북동 별업이던 계정을 자신의 호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지세 빼어나니 누대는 주인이 자주 바뀌네(地勝樓臺遞主頻)’라는 표

⁴² 『승정원일기』 3112책, 고종 36년 8월 9일(갑신). “秘書院丞鄭寅星書奏, 臣於陰曆八月初八日戌時量, 敬奉聖諭, 馳往傳諭于城北洞議政府議政尹容善所住處, (후략)…”

⁴³ 『충재』 1책, 「城北洞閔尙書泳煥桂庭別業 地界通敞 時宰來遊因賦詩」.



그림 10 1936년 신문에 실린 음벽정 광고
(『특별안내 - 연회장신축낙성』, 『조선신문』, 1936년 6월 6일 7면)

현을 통해 해당 누대의 풍광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로 인해 그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성신문』 1906년 4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⁴⁴ 민영환의 별업은 ‘음벽정(飲碧亭)’이라는 명칭으로 확인되는데, 아마도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음벽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기록에 의하면 1905년 11월 민영환의 죽음 이후 누정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로는, 해당 별업 일대가 계속 음벽정으로 호명된 것으로 보인다. 민영환이 살아 있을 때도 자신의 별업을 음벽정이라 칭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후로 음벽정은 여러 소유자를 거치다가 1930년대 이후로 요리 주점(요정)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은 『조선신문』 1936년 6월 6일자 특별안내란에 수록된 음벽정 광고다.

⁴⁴ 「興校春色」, 『황성신문』, 1906년 4월 23일 3면. “興校春色 昨日曜日に 壽洞興化學校에서 校長以下教師諸氏が 學員七八十名을 引率하고 東小門外故忠正公閔泳煥氏亭榭飲碧亭으로 春期大運動을 舉行하였던 體操競走競跳唱歌等諸般壯快한 氣像이 可謂春風花柳好時節에 一大盛舉가되야 觀光者로 讚頌不已깃더라난디 校長林炳恒氏와 外他教師諸氏が 演說賞賛하야 學徒의 活氣를 暢新케하고 下午六時에 歸校하였더라.”

과거 성북동 일대에 큰 요정들이 성황을 이루고 공간을 매개한 상업 행위가 성행했던 것은 아마도 조선 말기 유명한 행락지로서의 성북동의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엘리트 권력층이 별서를 영건하여 운영한 것이 근대에 이르러 문화적·경제적 뿌리로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요 몇 년 전 있었던 성락원에 관한 논란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성북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어느 한 관점으로만 해당 공간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 성북동이 분화해 온 여러 맥락의 지층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삼인대(三人臺)와 품석정(品石亭) 그리고 노시산방(老柿山房)

오형목의 『총쇄』에 실린 글 가운데 성북동의 누정을 다룬 작품이 또 있으니 「혜화문 밖 성북동의 삼인대는 곧 김 판부사의 별장인데 물과 돌이 몹시 빼어나다. 상공께서 그 고즈넉함을 아끼시어 물러나 쉬신 지 이미 여러 해다. 그리하여 시를 한 편 짓다」라는 제목의 칠언배율이 그것이다.⁴⁵ 아래는 해당 작품의 내용이다.

담쟁이덩굴 침입한 벽에 붉은 수레 걸렸는데	綠蘿侵壁懸朱轂
바람이 흰 머리에 불어 검은 천 모자 빼딱하네	風吹華髮烏紗歛
상공은 이곳 시내와 산의 빼어남을 사랑하니	相公愛此溪山勝
지난해 물러날 것을 고하고 누워서 점을 치네	前季告退臥蓍龜
조정의 으뜸 된 한 사람으로 시문이 풍부했는데	朝端一人韓范富
책상 위 세 물건일랑 거문고와 책과 바둑이라네	案上三物琴書棋
화자華子 언덕 앞에 목란으로 울타리 두르니	華子岡前木蘭砦
망천鵬川이 이곳보다 꼭 좋지만은 않으리라	鵬川未必賢於斯
도성 안 저자 가까움이 지척인 줄도 모르니	咫尺不知城市近
그늘진 숲과 나무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네	翳然林木心融怡

⁴⁵ 『총쇄』 3책, 「惠化門外城北洞三仁臺 卽金判府事別庄 水石絶勝 相公愛其幽閑 退休已有年矣 因賦一詩」.

녹야綠野의 누대는 점점이 단장하여 아름답고	綠野樓臺粧點好
평천平泉의 꽃과 돌들은 널리 펼쳐져 기이하네	平泉花石排鋪奇
숲에 바람 한번 불어 향기 사방으로 퍼뜨리니	林風一動香四播
푸른 오얏은 찾는 새들로 흐드러지게 떨어지네	靑李來禽爛垂垂
동산의 수풀은 혼자서만 즐기기 어렵다는 것을	可是園林難獨樂
멀리서 바라보는 도성 안의 하류배조차 안다네	加額城中走卒知

김 판부사(判府事)는 충청도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조선 후기의 문신 의석(宜石) 김응근(金應根, 1793~1863)을 가리킨다. 김응근은 은퇴한 이후의 삶을 성북동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삼인대가 그 자체로 김응근의 별장이었다기보다 삼인대와 지척에 김응근이 머무르는 별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한 내용이 조선 말기의 문신 조면호(趙冕鎬, 1803~1887)가 쓴 「제삼인대 병서」라는 작품에 서술되어 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내용이다.

삼인대는 성북동 품석산방品石山房 뒤에 있다. 벽에 ‘삼인대’ 세 글자를 새겼는데, 옆에는 ‘신해(辛亥, 1791)’ 두 글자가 있다. 전하는 말로는, 정조 임금 때 새로 벼슬에 오른 학사 세 사람이 여기서 글을 읽으며 각자 이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에 ‘삼인’으로 누대 이름을 삼아 새겼다고 한다. 동산은 지금 의석宜石 김 상서金尙書(김응근)의 별장이다. 임술년(1862) 가을, 의석공이 해장海藏(신석우)과 나(조면호)를 맞이해 이곳 천석 사이에서 노닐었는데, 내가 그것을 좇아 글을 짓는다.⁴⁶

성곽 가까워도 티끌이 이르지 않아	近廓塵無到
산에 들어오니 처지가 더욱 새롭네	入山境愈新
주인 어른과 해장 노인께서	主翁與海叟
나를 마주해 세 사람이 되었네	對我成三人

⁴⁶ 『옥수집』 권8, 「題三人臺 并序」. “臺在城北洞品石山房之後, 壁鐫三人臺三字, 傍有辛亥二字. 傳說正廟時有新進學士三人, 讀書于此, 各欲占宅於此, 未乃以三人名臺而刻之云. 圖今爲宜石金尙書別業. 壬戌秋”宜石公邀海藏及冕, 徜徉泉石之間, 冕率題焉.”

윗글에 따르면 삼인대는 품석산방(品石山房) 뒤에 있으며, 품석산방이 곧 김응근의 별업임을 알 수 있다. 품석산방의 정확한 명칭은 품석정인데, 그에 관한 내용이 조면호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던 신석우의 「품석정기」에 남아 있다. 아래는 임술년(1862)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품석정기」의 내용이다.

의석공(김응근)이 혜화문 밖 성북둔 기슭에 누정을 마련해 관리했다. 서까래는 다듬지 아니하고 띠 풀로 지붕을 덮었는데, 난간은 아주 좁고 정원은 활처럼 굽었다. 꽃나무가 사방에 펼쳐지고 샘물줄기는 햇빛에 띠처럼 비치는데, 깨끗하고 심원하여 속인이 사는 곳과 아득히 떨어졌다. 공은 한가로운 때 복건(幅巾)에 지팡이와 비단 신을 신고 그사이를 거니셨다. 정자의 모든 것이 공의 뜻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공은 오직 그중에서 가장 빼어난 돌을 가려 잡아 그 정자의 이름을 품석이라 하고, 단구자(丹邱子)에게 기문을 구하였다. 단구자가 공을 위해 도성 서쪽에 있는 품천정(品泉亭)의 기문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어언 수십 년이 되어, 머리가 새고 치아도 빠져, 또 공의 품석정 기문을 짓게 되었다.

공은 나보다 12살 많은데, 얼굴은 늘 청춘이요 귀밑머리도 쇠하지 않았다. 거문고를 울리고 바둑을 즐기며, 시를 읊조리고 역사를 음미한다. 산을 우러르고 물소리를 들으며, 안개와 구름을 드시니, 거의 신선과 같다. 품평하던 것이 샘이었는데, 지금은 또 돌로 옮겨갔으니, 그 흥취와 생각을 붙이는 것이 세속에 사는 사람이 엿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는 인척 집안의 젊은이로서 공을 익숙하게 안 지가 오래되었다. 공은 선비의 바탕으로 청환(淸畵)의 벼슬을 지냈으며, 성품이 담백하여 진기하고 기름진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간략한 일처리로 못사람들의 꺼림을 해소하였으며,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신의 도움을 누리셨다. 어진 말아들이 집안을 다스리며, 여러 자식들은 빼어나고 아름답다. 공은 올해 고희(古稀)가 되었는데, 공의 아우 판중추부사 유관공(遊觀公)(김흥근(金興根))의 나이 또한 67세에 이르렀다. 공의 생신은 8월 16일이다. 두 분 공이 서로 마주하니, 화려한 기운이 서로를 비춘다. 옛사람들이 이른바 ‘원(元)과 개(凱) 형제들’

을 일컬었는데, 그들 모두가 장수를 한 것은 아니다. 여러 신선들 중의 적송자(赤松子)와 안기생(安期生)과 선문고(羨門高)와 악전(嬴佐) 등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하니 공과 같은 분은 하늘이 공평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신선이나 도사도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술이 이르러 술잔을 권하는 가운데, 공이 기문을 지으라고 더욱 독촉하였다. 내가 듣기로 송나라 미불(米芾)은 바위를 보고 절을 하며 어른으로 삼았는데, 바위의 수명은 몇 천만 년인지 알지를 못하니 절을 하며 어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해, 삼가 바위의 나이를 가지고 공의 나이를 추수하고, 그대로 품석정 기문을 지어 게시한다. 의석공 70세 생신 달(8월) 모일에 단구(丹邱)의 친척 아우가 쓰다.⁴⁷

신석우의 사위 김병주(金炳柱, 1827~1887)는 김응근의 형 김홍근(金弘根, 1788~1842)의 아들이자 김유근(金逵根, 1785~1840)의 양자다. 신석우에게 있어 김응근은 사위의 숙부가 되며 김응근에게 있어 신석우는 조카의 장인인 셈이다. 신석우가 사돈인 김홍근과 그 아래로 김응근과 김홍근 등 안동 김씨 형제들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⁴⁷ 『해장집』 권12, 「품석정기」. “宜石公治亭于惠化門外城北屯之麓, 橡桷不翬, 茆茨是蔭, 軒量以笏, 庭度以弓, 花木周布, 泉流映帶, 瀟灑幽篁, 渺隔人境. 公以暇日幅巾杖藜, 徜徉其間, 亭之百物, 無一不可公意, 公獨拈石一品, 名其亭曰品石, 徵記于丹邱子. 丹邱子既爲公記品泉于城西之亭, 今焉數十年, 髮皤齒頹, 又記公品石. 公長余一紀, 童顏長春, 仙鬢無秋, 鳴琴弄棋, 吟咀文史, 仰山聽水, 供養煙雲, 殆與神仙侔. 所品者泉而今又移之於石, 其興想攸寄, 非塵壒中人可窺探. 愚以通家少年, 久習公儒素而處華膾, 澹泊而御珍腴, 恬約以銷衆忌, 謙畏以饗神佑, 賢胤克家, 諸郎秀丰, 公今年登古稀, 公弟判中樞府事游觀公壽齡亦躋六十七, 公之晬辰, 在仲秋既望, 二公相對, 華滋交暎. 古人所謂弟兄元凱, 未必俱享遐筭, 列仙中赤松安期羨門僊佐, 未聞有瓊饒常棣之樂, 則若公者, 可謂上世平格之輔, 享受仙眞所未享之福者也. 酒至旅酬, 公命記愈敦, 愚聞米南宮拜石爲丈, 石之壽, 吾不知其幾千萬年, 宜其拜而呼丈, 謹以石之壽壽公之年, 仍揭爲品石亭記. 宜石公七十晬辰之月若日, 丹邱戚弟申書.”

품석정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으니, 김응근이 이 집터를 은 200냥에 구매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해당 내용은 품석정을 방문하고 남긴 조면호의 또 다른 시에 서술되어 있다.⁴⁸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은화 1냥의 가치는 대략 동전 2~3냥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품석정 가옥의 가격은 대략 동전 400~600냥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⁴⁹ 1860년을 전후해 서울 지역의 가옥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태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대문 바깥에 있던 가옥이 사대문 내의 집값 변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을지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⁵⁰ 다만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품석정이 초가(茅茨)이자 공터가 그리 넓지 않은 가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기준으로 저렴한 가격이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삼인대와 품석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품석정기」에 남아 있는 내용을 보면 ‘성북둔 기슭(城北屯之麓)’에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다행히 그에 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으니, 근대기 치과의사로 활동했던 함석태(咸錫泰, 1889~?)가 『文章』 1940년 1월호에 실은 「청복반일(淸福半日)」이 그것이다. 아래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다.

…(전략) 바로 지난 10월 29일은 대공일벽(大空一碧)한 일요일이었다. 이 날의 호청(好晴)을 타서 소전(素筵) 손재형(孫在馨氏)와 같이 옛날은 고양군 성북리 상성북둔이오, 지금은 경성부 성북정에 신정사를 낙성(落成)한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氏)의 유거(幽居)를 고叩하였다. 상허는 소간(所幹)이 있어서 외출할 터이니 오후 5시에 찾아달라는 전날의 약속이었으나 경취(景趣)에 바쁜 두 사람의 일이라 2시간 전에 성북동 재를 넘어 개울을 끼고 물풀 길을 찾았다. 희한한 한재(旱災)에 계류(溪流)가 학갈(涸渴)된 것은 무괴(無怪)한 일이나 없던 고층건물이 점출(點出)하는 것만은 구시용(舊時容)이 아니다. 물 없는 내는 추경(秋景)에 가加하여 교외정취로 볼 수 있으나 벌건 벽돌 풀은 페인트와 철조망을

48 『옥수집』 권8, 「溪樓酒散 洞日將曛 水響山靜 不覺首回而魂駐 歸寫二篇 以識餘意之不能自已 寄呈崇鑑」, “宜石以二百銀買屋.”

49 이현창,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7, 1999, 36쪽; 이현창, 「조선시대 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2011, 109쪽.

50 유현재·김현우, 「조선 후기 서울 주택가격 변동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엮어 막은 것은 풍치를 돋는 소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늘어 갈수록 자연이란 파괴되는 것을 알겠다. 전날은 상성북둔 어귀로부터 청류(淸流)를 거슬러 반청(半淸門)을 올라 삼청동으로 넘는 길에 양삼모옥(兩三茅屋)의 촌가 풍정(村家風情)과 아울러 창석노태(蒼石老苔)에 공리(筇履)의 흔적을 찾던 것이 이곳을 가는 풍치(風致)였다던 말은 소전(素筵)보고 다시금 뇌이며 삼인대 옛 터에 이연(怡然)이 걸음을 멈추었다. 대 뒤 한쪽 모퉁이에 주실(朱實)이 방농(方濃)한 여러 그루의 노시(老柿) 사이로 양장석요(羊腸石遙)이 알맞게 굽어진 곳에 한적히 닫혀있는 일각문(一閣門)이 보였다. 주인 우산(牛山) 김용준(金溶俊氏)의 산장이다. 고졸(古拙)한 문만 보아도 누구든지 지나던 사람은 문찰(門札)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 할 것이어늘 더욱 황엽(黃葉)주실(朱實)에 맑은 산음(山陰)에 만타(萬)홍(紅)花(花)를 이룬 풍상(風霜)한 맛은 아무리 보아도 홍시(紅柿)산장(山莊)이라고 불러보고 싶었다. (후략)…⁵¹

윗글에서 ‘삼인대 옛 터에 이연이 걸음을 멈추었다. 대 뒤 한쪽 모퉁이에 …(중략)… 주인 우산 김용준의 산장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삼인대 뒤쪽으로 화가이자 미술사학자이자 수필가이기도 했던 근원(近園) 김용준(金溶俊, 1904~1967)의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용준은 보성고보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1934년 무렵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 1939년 11월 4일에 지은 「노시산방기(老柿山房記)」의 내용 가운데 일부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루마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꿩이랑 늑대랑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아내는 그런 무주구천동 같은 데를 무얼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말 말구 따라만 와 보우 하고 끝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⁵²

51 함석태, 「청복반일」, 『문장』, 1940년 1월호.

52 김용준, 「노시산방기」, 『새근원수필』, 열화당, 2009, 115~116쪽.



그림 11 근원 김용준이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성북동 집 노시산방 풍경과 그의 가족들
(출처: 김용준,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당시 보성고보는 지금의 서울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김용준은 직장 인근에 머무를 적당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집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은 그가 노시산방에 머무르며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용준의 『근원수필』에는 당시까지 성북동에 남아 있던 조선 말기의 사찰 청룡사(靑龍寺)로 향하는 길목에 노시산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보기 좋게 익어 가는 초가을이면 성북동의 호젓한 길녘은 산보하는 청춘남녀로 가득 차고 맙니다. 그들의 코스는 으레 포도를 사서 들고 청룡암靑龍庵으로 뚫린 아늑한 산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이 길녘에 있기 때문에 산속에 사는 나일망정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도회의 첨단을 힘들이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⁵³

청룡암은 지금의 삼청각 인근에 있던 사찰인데, 아래 1915년 제작된 경성 지형도를 보면 김용준의 노시산방으로부터 청룡암까지 이어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다. 노시산방에서 청룡암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m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앞서 함석태의 「청북반일」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삼인대 옛 터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추정해보자면 벽에 ‘삼인대(三人臺)’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한 삼인대의 물리적 흔적을 매개로, 유관 이야기가 지식인들 사이에 전승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으로 삼인대가 노시산방(老柿山房) 인근에 있었을 것이라 가정한다면, 그곳에 10여 년 가까이 살았던 김용준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근원수필』에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소 의문스럽다. 함석태가 알고 있던 삼인대 옛 터의 위치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김용준의 집터 노시산방은 지금의 주소로 성북동 274-1번지이니, 이로써 삼인대와 품석정이 지금의 현대빌라(성북로 166)와 성북힐즈(성북로 166-1)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3}

53 김용준,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앞의 책(2009), 112쪽.



그림 12 1915년 지도에서 살펴본 노자산방과 청룡암의 추정 위치
(『경성지형도』(1:10,000), 1915년 축도, 1921년 수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3 현재 지도에서 살펴본 노자산방의 추정 위치(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재가공)

4. 용암(蓉庵) 김병시(金炳始)의 일휴당(日休堂)

품석정이라는 별업을 성북동에 마련해 거처했던 김응근의 모습은, 그의 아들인 용암(蓉庵) 김병시(金炳始, 1832~1898)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시는 의정부 의정(議政)을 지낸 인물로서, 그의 아버지 김응근이 성북동에 품석정을 마련해 은거 후의 삶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은퇴 후 성북동에 ‘일휴당’이라는 별업을 지어 생활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김병시가 성북동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는 1886년 8월이다.⁵⁴ 이로써 볼 때 김병시는 아무리 늦어도 1880년대 중엽 즈음부터 성북동에 머물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래는 김병시와 교유했던 조선 말기의 문신 박기중(朴淇鍾, 1824~1898)이 일휴당에 관해 쓴 기문인 「일휴당기」의 전문이다.

북한산華嶽 아래에 맑고 깊은 장소가 많은데, 성북동이 그중에 하나이다. 골짜기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 바위를 등 뒤로 하고 물가에 있으니, 바로 용암蓉庵 김 상국相國의 옛 사유지에 있는 별장이다. 상국께서 편액을 써서 ‘일휴당日休堂’이라 하셨다. 상공相公께서 이른 나이에 입신양명해서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장상將相의 자리까지 오르셨으나,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나라를 위한 계책으로 한결같이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니, 쉴 수 있는 날이 있었겠는가? 초목이나 절간 안에 앉아 있다 해도 사사로운 마음이 분주하게 내달리면, 몸은 편안하나 마음은 수고롭다. 공문서와 소장으로 매우 바쁜 중에 처해 있다 해도 공적인 마음이 두루 하면, 몸은 수고로우나 마음은 편안하다. 몸은 편안하더라도 마음이 수고로우면 이른바 ‘쥔다쥔’⁵⁵은 것이 아니며, 몸이 비록 수고롭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른바 ‘쥔다’⁵⁶는 것이다. 옷과 음식과 그릇과 일용품은 적당한 정도로 그쳐서 외물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사양하고 받고 취하

54 『승정원일기』 2951책, 고종 23년 8월 7일(병인). “事變假注書李日彥書啓曰, 臣於本月初七日申時量, 敬奉聖諭, 馳往傳諭于東部崇信坊城北洞契議政府左議政金炳始所住處. (후략)…”

고 주는 것은 기미를 따라 행하여 오로지 이치에 벗어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득하지 않음이 없으셨으니, 이런 마음이야말로 늘 쉬는 것이다.⁵⁵

‘날로 쉰다(日休)’는 누정의 이름에 담긴 뜻을, 대신으로서 김병시의 책무와 연결해 개략적으로 풀어낸 글이다. 조선 말기의 문신 김창희(金昌熙, 1844~1890)도 일휴당에 관한 기문을 썼다. 아래는 해당 글의 전문이다.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늡으면 쉰다”고들 한다. 이는 몸이 쉬는 것을 말한 것이지 마음이 쉬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쉬는 것이 어찌 늡기를 기다리겠는가? 진실로 쉴 수가 있다면 또한 즐기면서 늡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전하는 말에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산다(『논어論語』「용야雍也」 제21장)’고 했고, 또 이르기를 ‘용모와 기상이 화평하고 단아한 군자는 복을 구하는 것이 간사하지 않다(『시경詩經·대아大雅』「한록旱麓」)’고 하였다. 그 도는 일찍이 마음을 쉬게 하는 데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 몸이 쉬고 쉬지 않는 것은 진실로 거론하기에 부족하다.

용암 재상께서 동산의 별장에 작은 집을 새로 짓고, 그 이름을 ‘일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의아해하며 말하기를,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공을 맞이해 정사를 펼치고, 우리 백성들은 공을 믿고 삽니다. 설사 공의 연세가 이미 많아도 오히려 쉰다는 말을 못하게 할 텐데, 하물며 연세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이었습니까? 장차 나라를 몸처럼 여기는 정성의 공평함과 국정을 주관하는 재상의 위치에 처해서, 의당 백성의 병통을 급히 여기고 오락을 물리쳐서 대대로 두터운 업적을 빛냈음에도, 곧 도리어 겸손히 물러

55 『죽포집』 권8, 「일휴당기」. “華嶽之下, 多清遼之境, 城北洞其一. 洞有一小亭, 背巖臨流, 卽蓉庵金相國舊庄別業也. 相國扁之曰: ‘日休堂’, 相公早歲立揚, 歷踐內外, 位躋將相, 民憂國計, 一念憧憧, 有可休之日乎? 坐於草樹招提之裏, 而私意馳騖, 則身逸而心勞, 處於牒訴控德之中, 而公心周徧, 則身勞而心逸. 身雖逸而心勞, 則非所謂休也. 身雖勞而心逸, 則乃所謂休也. 服食器用, 適可而止, 不役於物, 辭受取予, 隨幾而行, 惟當於理, ‘無入而不自得’, 此心常休.”

나 자리에 처하지 않고 쉬는 것을 뜻하시는데, 이는 조야朝野가 공에게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나 창희가 이르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저 낮에 일하는 자는 저녁이 되어 쉬고, 봄에 일하는 자는 겨울이 되어 쉰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서로 순환합니다. 일하는 것은 수고롭고, 쉬는 것은 나태합니다. 하지만 그 알맞은 정도를 얻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현사와 대부 역시 대부분 그것을 면치 못하는데, 오직 공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소 거처하심에 쉬지 않으시는 날이 없으며, 또한 일하지 않으시는 날이 없습니다. 조정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보좌함에 여념 없으면서도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스스로를 지켰기에, 지극히 맑고 흔들리지 않는 덕이 있었으며,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자신의 몸을 보살피는데 여념 없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늘 품었으므로, 끊임없는 지극한 정성과 쉼 없는 공적이 있습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을 묵묵히 운행하여 당시의 어려움을 바로잡고 구제하는 데 그 방술로 삼은 것은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이 일치되게 하는 데 근본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계시면서) 이조叢衡과 승정원絲綸과 호조金穀과 병조卒乘의 업무에 널리 응하고 세세히 잘 대처하시면서도 일찍이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셨으니, 공께서 비록 일을 하였으나 그 쉼 것은 참으로 자유 자재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나와) 도서圖書와 금준琴尊 및 원림園林과 천석泉石 사이에서 경관을 따라 유유자적하시면서도 또한 편안하게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으셨으니, 공께서 비록 쉬시는 와중에도 그 일함이 오히려 그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장차 공께서 이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심은 만년의 맑은 복이 완전한 데 말미암은 까닭이니, 한 시대의 모범으로 가만히 앉아서 세속을 진정시키실 만합니다. 공께서 이 집에 편안히 계시면서도 세속을 걱정하심은 훌륭한 계책을 터득하실 연유라,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려 성상의 교화를 널리 알리실 만한 것입니다. 아! 그대가 공의 뜻이 의정議政의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공이 의도하신 ‘일휴’의 뜻을 걸핍기 정도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⁵⁶

‘날로 쉰다(日休)’는 의미를 논하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한 것이 인상적이다. 앞서 박기종의 글과 마찬가지로 대신으로서 김병시가 짊어진 무거운 책무와 그것을 감당하는 그의 역량과 공적에 관한 칭송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구절 가운데 ‘쉬는 와중에도 일함을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休焉而其作尙未已)’는 표현이 이채롭다. 아래는 김병시와 교유한 또 다른 인물인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이 쓴 「일휴당기」의 전문이다.

수고로우면 쉴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힘을 수고롭게 하며, 만물은 기를 수고롭게 한다. 마음은 쉬는 때가 없으나, 힘은 쉬는 때가 있고, 기는 쉴 때가 있고 쉬지 않을 때가 있다. 드물지만 새 중에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가며 6개월을 가서야 쉬는 것이 있고, 술개는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때로 숲에서 멈추기도 한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낮과 밤을 쉬지 아니하며, 바다에 이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람 중에도 있는데) 농부는 가을에 쉬고, 나그네는 저녁에 쉰다. 선비가 학문을 할 때는 마음을 기울여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며, 벼슬 할 때는 마음과 몸을 다하여 나랏일에 이바지하여 그 생을 다 마친 후에야 그만둔다. 그러나 사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비웃음이 있으며, 용감히 물러

56 『석류집』 권2, 「일휴당기」, “人之恒言曰: ‘老則休’. 此以休身而言, 非休其心之謂也. 心之休, 何待乎老, 而苟得其休, 亦可以樂而忘老矣. 傳云 ‘仁者壽’, 又云 ‘愷悌君子, 求福不回’, 其道未嘗不由於休其心, 而其身之休不休, 固不足論也. 蓉庵傳相於東山別墅, 新搆小堂, 顏之以日休, 或疑之曰: ‘今吾君待公而爲政, 吾民恃公而爲生, 使公而年已至, 尙不可以言休, 況年未至乎? 且以公體國之誠, 處調元之地, 宜其急病讓夷, 以光世篤之業, 而乃反讓退不居, 以休爲志, 甚非朝野所望於公者也.’ 昌熙曰: ‘否. 今夫晝而作者夕而休, 春而作者冬而休, 作與休相爲循環. 其作也勞, 其休也怠, 而不得其節, 皆凡民也. 賢士大夫亦多不能免焉, 惟公則不然, 其平居無日而不休, 亦無日而不作也. 進思贊襄, 而自守恬靜, 故有至清不撓之德, 退思調養, 而常存憂愛, 故有至誠無息之功. 凡所以彌綸默運, 匡濟時艱者, 其爲術莫不本之於作與休爲一致也. 是以銓衡絲綸金穀卒乘之泛應曲當, 而未嘗爲勞, 則公雖作焉而其休固自在也. 圖書琴尊園林泉石之隨境取適, 而亦不足爲佚, 則公雖休焉而其作尙未已也. 且公之優閒於此堂, 晚節清福之所由完也, 可以模楷一世而坐鎮雅俗矣. 公之安處於此堂, 嘉猷碩畫之所由得也, 可以膏澤斯民而對揚聖化矣. 噫, 子之謂公志已決於釋負而已者, 淺之乎知公之日休也夫.’”

난 사람에게게는 강호에서의 근심이 있다. 이에 쉬는 것은 힘이고, 쉬지 못하는 것은 마음임을 알겠다.

승상 용암공이 몇 달간 정승의 자리에 있었는데, 애써 사양하며 그 자리를 떠나 동쪽의 옛 별장으로 물러나서 지냈다. 한 줄기 샘이 있고, 홀처럼 생긴 몇 개 산봉우리가 있으며, 한 묶음의 책이 있었다. 기쁘게 세속 세계를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편지로 명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이곳에서 쉬고 있으니, 이것을 내 집 이름으로 삼고자 하네. 자네가 기문을 써 주게.”라고 하셨다.

아아. 공께서는 훌륭한 임금과 어진 신하로 서로 뜻이 맞았으며, 신분은 장수와 재상을 다 지내셨다. 근심과 걱정이 모이고 많은 책임이 더해져, 거의 하루도 일찍이 쉰 날이 없었지만, 또한 일찍이 하루도 물러날 생각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 지금 정승에서 물러나 조금 한가하지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냇물이 바다로 향해 가는 것과 같으며,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은 농부가 가을 추수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다만 어찌 능히 호연하게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공에게는 마땅히 쉴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다. 나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시국이 바야흐로 어려워,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했으며, 임금이 알아주는 것이 융성하고, 백성들이 거는 기대가 간절한 것이다. 아마도 사부謝傳(동진의 사안謝安)의 바둑이 등산에서 끝나지 아니했을 것이며, 군실君實(사마광)이 손에 든 홀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을 것이니, 마음이 수고롭다면 쉬어 어디 있겠는가?

『주서周書』에 이르기를, ‘덕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나날이 아름다워진다(作德心逸日休)’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아마도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께서는 “아니다, 아니야.”라고 하셨다. 공께서 비록 자처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취지상 서로 가까운 점이 있다. ‘쉰다休’는 글자가 ‘아름답다美’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안식安息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다

면 어디를 간들 쉬는 것이 아니겠는가?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사물이 다
 가오면 순응하고, 일이 지나가면 곧 그만두는 것이다. 병사 백만을 거느리
 는 것과 물 마시고 팔뚝 베고 자는 것을 처한 상황에 따라 한결같이 한다면,
 이는 곧 궁중 안 정승의 집무실 또한 빼어난 별장과 같을 것이다. 벼슬에 나
 아가 도를 행하거나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거나, 처하는 경우마다 아름답
 고 평온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써 공을 위해 축원한다.⁵⁷

역설적이게도 김병시가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나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年未至)’, ‘시국이 바야흐로 어려우며(時方
 艱)’,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했으며(用未究)’, ‘임금이 알아주는 것이 융성하고(主知
 隆)’, ‘백성들이 거는 기대가 간절한 것(蒼生之望切)’. 나라의 중차대한 책무를 짚어진
 대신으로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도성 밖 성북동에 별업을 마련해 쉬고 있
 다는 것은 곧 그곳에서의 생활이 온전한 ‘쉽’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장석은 위의 글
 을 통해 그와 같은 지점을 일깨우고, 김병시를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 그와 유사한 어
 조의 표현이 조선 말기의 문신 김영수(金永壽, 1829~1899)가 쓴 「용암의 일휴당에 제
 하다」라는 칠언절구에도 실려 있다.⁵⁸

산처럼 높이높고 바다와 같은 도량으로	山望巖巖海量寬
한 번 베풀어 족히 백성의 어려움을 감싸 안네	一施足庇蒼生寒
날마다 쉬고자 해도 쉬는 날이 없으니	欲休日日休無日
흰 머리 붉은 마음으로 안정책을 근심하네	白首丹心耿措安

⁵⁷ 『미산집』 권8, 「일휴당기」, “勞思休情也. 有莫之然而爲者, 有有所爲而爲者, 有不可已而爲者. 君子勞心, 小人勞力, 萬物勞於氣. 心無休時, 力有時而休, 氣有休有不休. 希有鳥搏扶搖九萬里而以六月息, 鳶傳于天而或止於林樊, 川之流不
 舍晝夜, 不至海則不止. 其在於人也, 農休于秋, 行旅休于夕. 士之學也, 俛焉日有孳孳, 其仕也鞠躬盡瘁, 皆畢其生而後
 已. 然冥行者有鍾漏之譏, 勇退者有江湖之憂, 是知所休者力, 所不能休者心也. 丞相蓉庵公枚卜數月, 力辭去位, 退居于
 東墅舊築, 有泉一絃, 有峰數笏, 有書一束, 怡然有出塵之想, 以書命章錫曰: ‘吾日日休於此, 以是名吾堂, 子其記之.’ 嗚
 呼. 公契合明良, 身都將相, 憂虞之會, 百責埤益, 蓋未嘗一日休也, 而亦未嘗一日忘退也. 今几寫少暇而戀主之心, 如川
 流之赴海, 憂世之志, 如農夫之望秋. 顧安能浩然若行旅之得歸乎? 況公之不宜休者有五, 年未至矣, 時方艱矣, 用未究
 矣, 主知隆矣, 蒼生之望切矣. 將恐謝傳之墓局, 未了於東山, 而君實之手板, 蹶然於中夜, 心之勞矣, 休於何有? 周書曰:
 ‘作德心逸日休’, 名其在茲乎? 公曰: ‘否否.’ 公雖不自居, 其指有相近者, 休之爲美, 取義乎安息. 心苟安矣, 安往而不休?
 安之如何? 物來順應, 事去則已. 金革百萬, 飲水曲肱, 隨遇而一致, 則是金門黃閣, 亦猶綠野平泉. 用舍行藏, 無所處而
 不休休矣. 用是爲公祝.”

⁵⁸ 『하정집』 권2, 「제용암일휴당」.

‘날마다 쉬고자 해도 쉬는 날이 없다(欲休日日休無日)’는 시구는,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랏일과 백성의 삶을 보살피고자 하는 것이, 대신의 필연적 운명임을 은연
 중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숫자의 엘리트 관료들이 은퇴 후 별업을 짓고 여생
 을 보낸 곳으로서 조선 말기 성북동의 장소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김병시의 일휴
 당은 그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6

1. 성북천 인근 마을의 시작: 돈암리, 성북리, 안암리	258
2. 성북천 주변 지역의 도시화: 경성시가지계획	266
3. 성북천의 복개: 상가아파트의 건설	302
4. 성북천의 복원: 주변 지역의 재개발	318



성북천 주변 도시변화

정기황(시시한연구소)

성북천 주변 도시변화

1934년 이전: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도시화 이전

1934~1935년: 경성시가지계획 이전으로 도시화 초기

1936~1968년: 성북천이 복개, 아파트 건설 이전

1968~2012년: 성북천이 복원되기 이전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2012년~현재: 성북천이 복원되어 현재까지의 시기



돈암 아파트단지 전경, 2021.

성북천

성북천(안암천)은 한양도성 북동쪽 북악산 자락에서 발원해 혜화문 앞 삼선평(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신설동을 거쳐 청계천에 합류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이 지역은 성북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낙산 자락과 북악산의 응봉 자락이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북악산의 구준봉 자락과 동쪽으로는 개운산 자락이 경계를 이루는 분지형 지형이다. 이 분지형 지형은 ‘돈암지구’로 불린다. 이 지역이 ‘돈암지구’라고 불리기 시작한 때는 일제가 경성을 확장하기 위해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일대를 하나의 지구로 묶으면서 부터이다.

돈암지구는 원래 하나의 행정동 혹은 법정동 단위가 아니었으므로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현재 행정동 기준으로 삼선동과 동선동을 중심으로 보문동과 안암동, 성북동 일부가 해당된다. 남쪽으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북쪽으로 안암이 위치해 있었다. 조선시대 그려진 도성대지도에서 남쪽의 안암을 포함해 이런 돈암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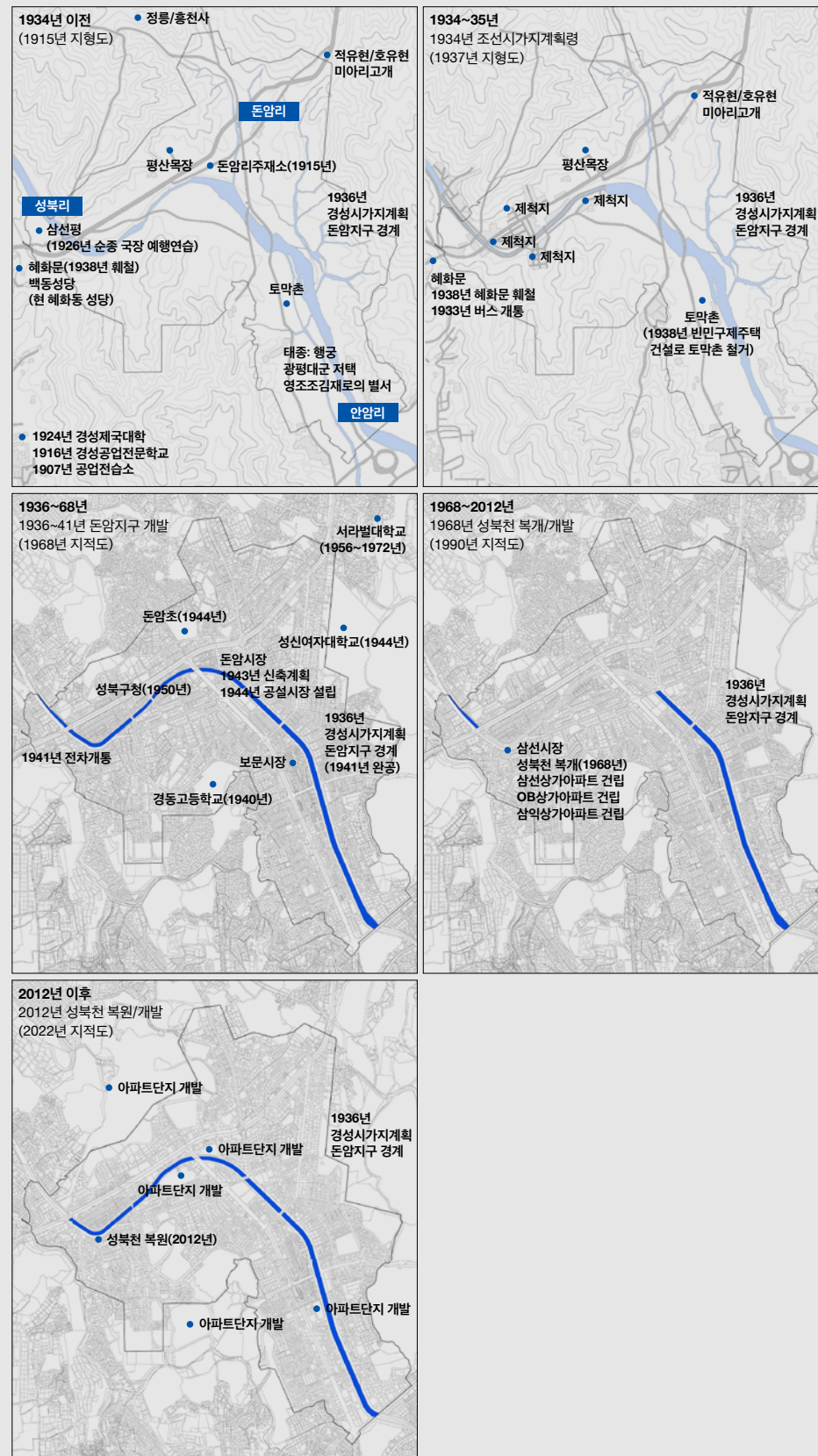
돈암지역의 북서쪽부터 서쪽의 경계를 이루는 산은 북악산이다. 백악, 면악, 공극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북악산은 높이 해발 342.4m이며 조선의 수도 한양의 내사산(內四山) 가운데 하나이며 주산이다. 산의 북쪽으로는 구진봉, 혹은 구준봉으로 불리는 북악산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자락이 성북동 뒤편부터 이어져 내려와 정릉동과의 경계를 이루며, 미아리고개까지 이어진다. 북악산의 다른 자락은 성균관대학교 뒤편으로 내려와 와룡공원을 거쳐 성북동의 남쪽 자락을 형성하며 낙산으로 이어진다.

돈암지구의 서남쪽 경계를 이루는 산은 낙산이다. 낙산은 한양도성의 내사산 중의 하나로 동쪽을 지키는 산이다. 남쪽 끝자락에는 흥인지문(동대문)이 북쪽 끝에는 돈암지구로 오는 관문인 혜화문이 위치한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선동과 보문동이 낙산 자락에 자리한다. 낙산 자락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 흔적으로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타사 오층석탑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정순왕후 설화가 이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돈암지역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산은 개운산이다. 한북정맥의 큰 자락은 삼각산으로 이어지고 그 삼각산 자락은 다시 보현봉과 형제봉, 그리고 북악터널 위쪽

•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밖 신도시 돈암』, 2022를 기초로 ‘성북천(안암천)’ 중심으로 발췌하고 재작성함.

그림 1 성북천 주변지역의 도시변화



인 보토헌을 거쳐 이어진다. 여기서 서남방으로 가면 북악산이 나오며, 동남방으로 가면 정릉과 미아리고개가 나오는데, 이 지맥의 끝자락에 바로 높이 134m의 개운산이 있다.¹ 개운산은 보문지구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안암동·보문동·돈암동·길음동 모두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다. 개운산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운을 연다’라는 뜻의 사찰 이름인 개운사(開運寺)에서 유래했다.

성북천은 이 산들 사이에 형성된 분지 한가운데로 흐른다. 돈암지구를 둘러싼 북악산 중 하나인 북악산의 구준봉 줄기에서 시작된 성북천은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을 지나 종로구 송인동과 동대문구 용신동을 거쳐 중랑천에 이르는 길이 5.11km의 하천으로 돈암지구를 관통한다. 조선시대에는 성북동에 성북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한양에 살던 양반들이 휴식을 즐기러 오는 장소가 되었다. 안암동 지역에는 그보다 일찍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안암동을 지나던 성북천은 안암천, 안감내, 안암내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성북천 주변지역의 도시변화는 크게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 첫 번째 시기는 1934년 이전으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도시화 이전이다. 성북천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성북리, 안암리, 돈암리 등의 일부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34~1935년으로,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는 도시화 초기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버스 노선이 개설되고, 자연하천 상태의 성북천을 중심으로 도시빈민 주거지 등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36~1968년으로 성북천이 복개되어 아파트가 건설되기 이전으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현재의 성북구 돈암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일대가 돈암지구로 구획되어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1968~2012년으로 성북천이 복원되기 이전 도시화가 가속화된 단계이다. 성북천이 복개되어 도로가 되고, 현재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구청까지는 복개된 성북천 위에 상가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다섯 번째 시기는 2012년 성북천이 복원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청계천까지의 성북천이 복원되고, 복원 이후 주변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다. 위와 같이 다섯 시기로 성북천 주변 지역의 도시 변화에 대해 시간순으로 기술하겠다.

¹ 「개운산」, 서울지명사전,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1 성북천 인근 마을의 시작: 돈암리, 성북리, 안암리

조선시대 돈암지역은 '동소문 외(外)'로 지칭되었다. 도성의 동북쪽 소문은 처음에는 홍화문(弘化門)으로 하였다가 1483년(성종4)에 창경궁을 짓고 그 동문을 홍화문(弘化門)이라 정하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1511년(중종 6)에는 혜화(惠化)로 고쳤고, 도성의 동쪽에 있는 소문이라서 '동소문(東小門)'이라 불렀다. 동소문은 한양에서 한반도의 동북지역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었다.

돈암지역은 서북쪽으로 동소문이 있는 낙산(낙타산)·북악산, 동쪽으로 개운산 등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역이고, 그 사이로 안감내(성북천, 안암천)가 흐르는 계곡형 지형에 하천 주변으로 평지가 형성된 분지 지형이다. ^{그림2} 따라서 도시화 이전 돈암지역은 하천을 따라 논밭, 과수원, 농장 등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구릉지에 일부 주거지와 별서(別墅)가 있는 전원지역이었다. 주거지는 크게 3곳으로 동소문 인근 삼선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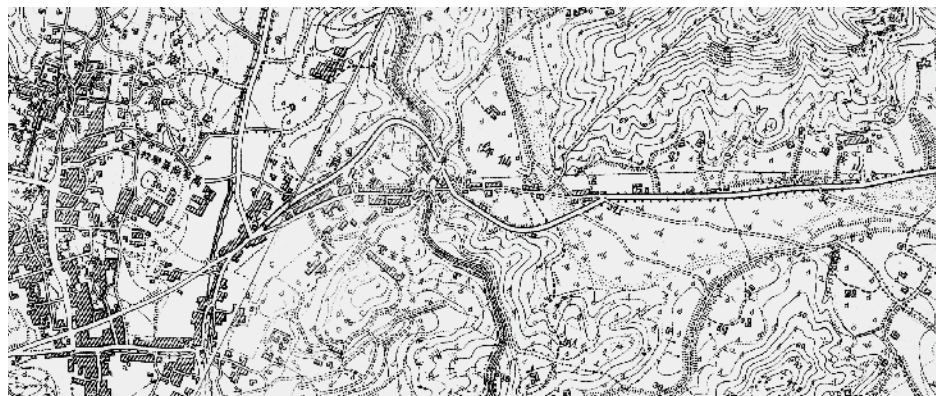


그림 2 『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1921년 수정

(현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주변), 정릉과 홍천사 인근 돈암리(현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선농단(동적전) 가는 길, 안암이 있던 안암리(현재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주변)에 작은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1. 동소문 외 되너미고개: 돈암리

동소문 밖의 다야원 냇가에 거둥하니, 영의정 신숙주·상당 부원군 한명회·좌의정 구치관·우찬성 박원형, 동지중추원사 윤사훈·김국광, 병조 판서 김질·우참찬 윤자운·호조 판서 노사신·예조 참판 임원준과 승지·아종 등이 수가하였다. 한명회에게 명하여 한지를 보아 가운데를 나누어 구역의 경계를 삼고, 좌우로 하여금 수전 수십 무를 만들게 하고, 아종과 김질에게 명하여 그 위에다 내를 막아 좌우로 하여금 개천을 열어 그 전지에 물을 대어서 보니, 뒤에 물이 장마져서 해천 바가 되고 전지가 모두 모래에 덮이었다.²

조선시대 초인 1465년 실록의 표현처럼 돈암지역은 '동소문 외'로 지칭되고 냇가(안감내, 성북천) 주변으로 넓은 유희부지(한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돈암지역은 지대가 낮고 모래가 많아서, 냇가를 개수해 개천을 만들고 인근을 개간하여 농지를 만든다 해도 장마에 개천이 범람하여 모래로 뒤덮이기 쉬웠기 때문에 주거지나 농



그림 3 1950년대 창경원(창경궁)의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그림 4 혜화문 북측 성벽에서 바라본 도성 안, 20세기 전반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

² 『세조실록』 권36, 세조 11년 6월 4일(경진).



그림 5 도성 밖에서 바라 본 혜화문, 1906~7년, 헤르만 산더 촬영(출처: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6 1900년대 초 혜화문 바깥의 모습(출처: 퍼시벌 로렌,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6

승지 박열과 권균과 이계맹, 공조 판서 한사문, 병조 판서 임사홍, 참판 윤구, 한성부 우윤 반우형, 참의 최관 및 내관이 동소문 밖에 가서 금한禁限을 살펴 정하여 표를 세우고서 돌아와 아뢰기를, “만약 모조리 큰길을 한계로 하면 그사이에 인가와 토전土田이 많으므로 다만 보등사로부터 남으로 이 회양의 무덤 뒤 산허리를 넘어 다야원·적유령을 거쳐 동소문 밖 길 위 북쪽 가까이 표를 세웠습니다.”³

조선시대 돈암리 지역의 풍경은 1504년에 쓰여진 연산군 일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소문 밖으로 큰길이 형성되어 있어 적유령(미아리고개)을 넘어 한반도 동북부 지역으로 가는 관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으로 주거지(人家)와 논밭(土田)이 많다는 표현으로 조선 초와 달리 주거지와 농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돈암’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돈암이 되너미고개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따름이다. 되너미고개는 지금의 미아리고개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함경도에 가기 위해서는 혜화문을 나서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다. 조선 초 함경도 일대에 살던 여진인들도 미아리고개를 통해 한양에 들어왔고, 오랑캐 또는 되놈들이 넘어오던 고개

³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18일(병오).

라는 뜻에서 적유현(狄踰峴), 호유현(胡踰峴), 되넘이고개, 되너미고개 등으로 이 길을 불렀다고 한다. 되너미고개라고 부르던 것이 언젠가 돈암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초 여진인이 아니라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이 고개를 넘어 한양에 들어와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화도 있다. 하지만 실제 청나라 군대는 의주로(義州路)를 따라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 잘못된 이야기로 보인다.⁴ 또 다른 유래로는 두터운 바위가 있어 돈암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아리고개가 있는 개운산을 둘러싼 마을 이름이 돈암, 종암, 안암 등 모두 바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터운 바위가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이 지역을 돈암이라 불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삼선평(三仙坪)과 북둔(北屯): 성북리

북악산 자락에서 발원한 성북천은 돈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이다. 이 하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에 돈암지구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소문(혜화문)을 나오면 바로 삼선평이 펼쳐지고 성북천이 흘렀는데, 성북동은 이 두곳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북둔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금성천부라 참으로 아름답고
태평성대라 또한 즐거웁구나⁵

조선시대 삼선평 일대의 모습은 정조 대 문신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쓴 「성시전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혜화문 밖 ‘흰 모래밭’은 삼선평을 뜻한다. 성북천 주변으로 복숭아 밭이 형성되어 있었고, 시냇가(안감내, 성북천)로 주거지가 형성

⁴ 박수진 외, 『미아리고개』, 성북문화원, 2014, 16~21쪽.

⁵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 12, 용지각제 「성시전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북동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765년(영조 41) 혜화문 밖에 어영청 북둔(성북둔)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격적으로 마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성북둔의 설치 이후이다. 영조는 성북동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마전한 천과 쏜 메주를 시전(市典)에서 값을 정해 사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이다. 당시 형성된 마을의 위치는 채제공의 성북동 유람기인 「유북저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혜화문을 나가 북성을 돌아 꺾으니 몇 리 못 가서 골짜기가 입을 벌리듯 열려 있으니 이른바 ‘북저’라는 곳이다. 비로소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니 재단이 하나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사면에 계단을 두었으며 담장을 낮게 둘렀고 홍살문을 사면에 세웠다. 해마다 여기서 춘삼월에 선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백 보쯤 더 가니 마을 사람들이 냇물 위로 다리를 놓고 있었다. …(중략)… 또 다리를 건너니 어영둔 성북둔이 막아섰다. 뜰과 건물이 제법 넉넉했다. 둔의 밖에 있는 작은 연못은 돌담을 둘렀는데 지금애 사 비록 엉성하고 변잡했으나(후략)…⁶

위 기록을 보면 혜화문을 나가 지금의 성북동 방면으로 걸어가면 골짜기가 나온다. 바로 그곳에 선잠단이 있었다고 하니 골짜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위로 100보쯤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간송미술관 부근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성북둔 또한 그 주변에 있던 것이 된다. 즉 조선 후기의 성북동은 선잠단을 지나 형성된 성북둔을 중심으로, 현재의 간송미술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더욱이 현재 간송미술관, 성북초등학교의 앞 성북로가 마전터로 추정되는데, 성북동 포백훈조계의 성립 이후, 성북동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마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마을 주변으로 마전터가 성립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성북동에 북둔이 설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군

⁶ 『변암선생집』 권35, 기 「유북저동기」.

사훈련을 하기 적절한 평지인 삼선평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삼선평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혜화문을 넘어 바로 펼쳐지는 성북천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북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평야지대가 펼쳐졌다. 하지만 사질의 토지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삼선평 일대는 물이 흐르는 평지임에도 논농사는 발전하지 않았다. 조선 초기~중기의 지도 및 사료에는 삼선평이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93년(고종 30) 5월 13일이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북관왕묘(北關王廟)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삼선평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를 행하였다.⁷

실록보다 상세한 기록인 『승정원일기』에는 1816년(순종 16) 3월에 군사 관련 기사로 처음 삼선평이 등장한다.

한의운이 아뢰었다. “훈련도감 중군 서영보가 본국 군병의 중순의 일로 내일부터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삼선평으로 출거합니다.”⁸

이후 등장하는 삼선평과 관련된 기사 역시 모두 군사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 삼선평은 영조 대 성북둔 설치 이후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그 이름이 붙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성북동의 다른 지역과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1921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1/100,000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동소문 넘어 현재의 동소문로 좌우로 삼선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오른쪽은 모두 황무지로서 1921년까지도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⁷ 『고종실록』 권30, 고종 30년 5월 13일(갑오).

⁸ 『승정원일기』 2068책, 순조 16년 3월 21일(신축).

3. 동교(東郊)의 관문: 안암리

안암동과 보문동에서 돈암지구(洞岩支區)에 속하는 곳은 현재 성북천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넘기 전, 즉 개운산 서쪽 지역이다. 법정동으로는 안암동 1가~4가와 보문동 전역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 일대를 모두 안암동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안암동의 동명 유래는 20명 정도가 앉아 쉴 수 있는 ‘앉일바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현재 안암동 3가에 있는 대광아파트라고도 하고,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주변이라고 보기도 한다.

안암동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등장하지만 행정구역 변천이 처음 나오는 것은 정조 대의 일이다.

각부各部의 방坊과 계畵의 명칭을 정하였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동부 東部의 방坊과 계畵의 명칭을 정하였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동부 흥인문 밖 역일계·역이계·사계·마장리계·답십리계·전농리계·청량리계·제기리계·종랑포계·장위리계는 인창방에 소속시키고, 신설계·안암리계·어창계·종암리계·가오리계·수유촌계·능동계·사아리계·번리계·우이리계는 송신방에 소속시켰습니다.”⁹

정조 연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안암동은 신설계, 어창계, 종암리계, 가오리계, 수유촌계, 능동계, 사아리계, 번리계, 우이리계와 함께 송신방에 속했다. 주로 도성 밖 동북쪽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런 행정구역의 흔적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데, 안암동은 1911년에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에, 1914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에 속하게 되는데, 이때 송인면은 안암이 속했던 송신방과 인창방이 합쳐진 명칭이었다.

안암동은 조선 태조 때부터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현재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 가운데 하나다. 고려시대부터 마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백의白衣·백관白冠으로 안암동에 나가서 능터를 물색하였다.¹⁰

⁹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0월 16일(갑진).

¹⁰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15일(경자).

태조 이성계가 왕비 강씨의 능을 만들 자리를 찾는 기록이다. 태조는 6일 후 직접 안암동까지 와서 땅을 파 보는데, 이때 물이 솟아 이곳에 능을 쓰는 것을 중지한다. 고려시대 자료에는 안암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으나, 태조 즉위 초반부터 안암이 등장하기 때문에 안암이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2 ☆ 성북천 주변 지역의 도시화: 경성시가지계획

돈암지구 개발은 도로와 성북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그림 7, 8} 돈암지구를 관통하는 길은 한반도 동북부 방향으로 지나가는 주요한 이동로였다. 하지만 해화문이 훼손되기 이전이었고, 차량 이동 통로가 아니었기에 동대문에서 청량리를 거쳐 원주, 춘천 방향의 길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하천의 경우 자연 상태의 하천이 있었고 그 주변은 농경지였다. 농경지 사이의 길과 하천을 중심으로 취락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 태극당 앞, 해화문 바깥 삼선평, 그리고 보문시장 주변 하천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전기회사에서는 이십팔일부터 동소문, 안암리 간에 [빠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구간은 동소문 안암리 간을 한구간을 삼고 요금은 오전을 받되 승객은 팔전으로 승계하도록 되었다. 삼선평 지역의 종래 불편하던 교통도 이로써 불편이 업도록된 터이라 한다.¹¹

대망중의 시내 동소문 박 돈암정 전차가 금 십이일로써 개통되었다. 삼십만 인구를 포용할 것을 목표로 경성부에서 주택지구를 설치한 이래 급격한 발전을 보던 돈암정 일대 주민의 열망이 겨우 달성되어 오월초순부터 착수되었던 공사는 사십만원의 공사비로 일기로 팔백 미둘의 선로가 완

¹¹ 「동소문-안암리 교외 버스 운전」, 『조선일보』, 1933년 10월 29일 2면.

그림 7 1930년대 이전 돈암지구의
길과 하천(1924년 지적원도와
1921년 「경성도」(『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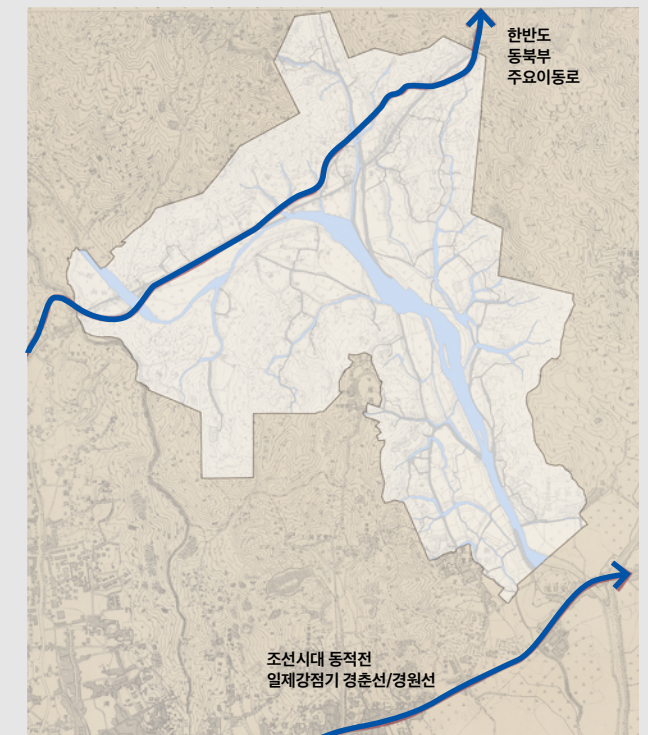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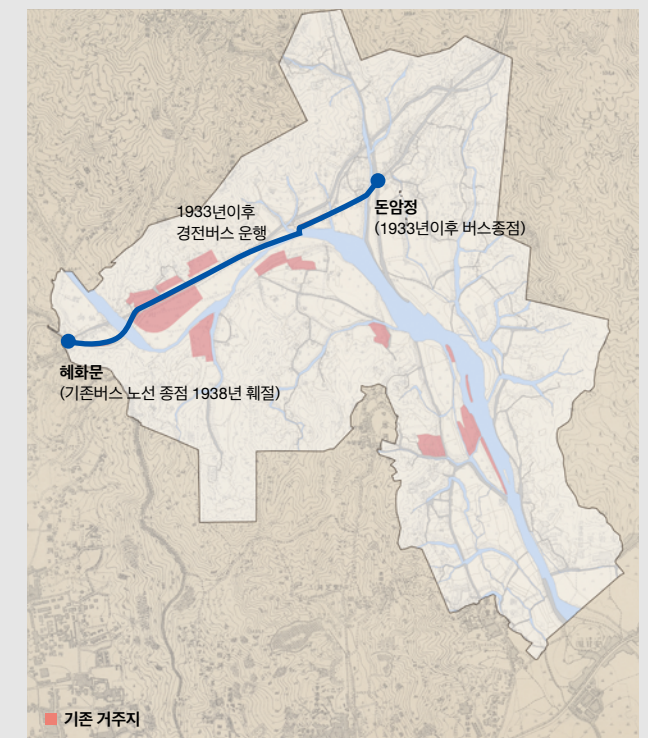


그림 8 1933년 버스 개통 이후
돈암지구의 교통 변화
(1924년 지적원도와
1921년 「경성도」(『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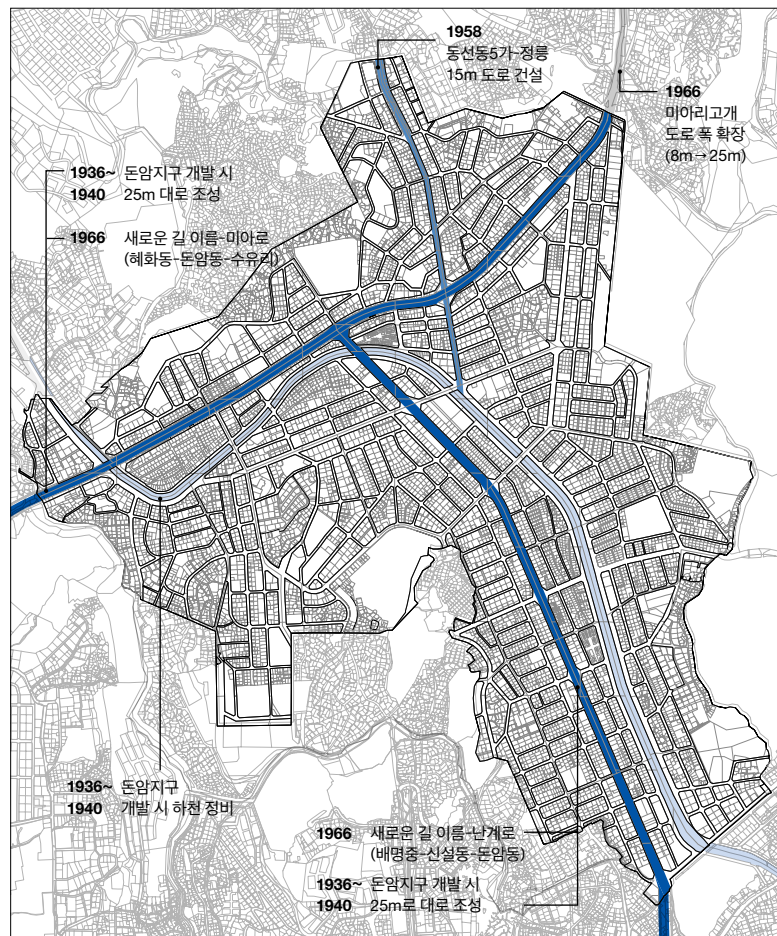


그림 9 1936년 돈암지구 개발 이후 하천과 교통의 변화(1968년 지적도 재가공)

표 1 1939년도 성북구 지역의 도로망

등급	유별	번호	도로폭(m)	연장(m)	기점 중요 경유지 및 종점
대로	3	5	25	3,050	신설동-돈암동
		6	25	4,800	원남동-돈암동-종암동
중로	2	13	15	950	돈암동-성북동
		14	15	1,850	돈암동-돈암동
		15	15	1,220	신설동-안암동
소로	3	15	12	1,920	창신동-신설동-돈암동
		17	12	1,130	돈암동-돈암동

출처: 『경성부 토목사업개요』, 1938년, 23~28쪽.

성되었다. 머저 이날 오전 열시부터 경성 전기회사에서는 혜화정로타리에서 관계자를 초대하여 준공식을 행한 다음 두 대의 [보-기]차들에다 참열자를 태우고 돈암정 종점까지 가서 간소한 축하식을 하였다. 그리고 정오부터는 일반 승객을 태우거로하여 정식 개통을 보았는데 정류장은 혜화정 삼선평 돈암교 돈암정으로 혜화정서 약 오분 걸린다. 운전 계통은 종전대로 본정목을 기점으로 하고 또 전차운전 대수는 종전에 혜화정까지 여덟대이든 것을 네 대 느리어 열두대를 운전케되어 돈암정 일대의 교통난은 이로써 만히 완화된다. 그리고 요금은 종전대로 도심지대까지는 5전이고 미아리행 [빠-스]는 돈암정 종점에서 연락하기로 되었다.¹²

경성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성에서 수용하지 못한 인구가 이 지역에 모여들면서 새로운 교통로 개설이 필요해졌다. 1933년 이후 버스 노선이 개설되면서 혜화문 바깥으로 처음 교통편이 생겨났다. 하지만 혜화문의 육축부(陸築部)가 아직 남아 있어 혜화동로타리에서 직선으로 관통하지 못하고 혜화문을 돌아서 언덕을 넘어가는 길을 이용하였다.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통해 돈암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구 안에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였다. 그림9, 표1 1938년 경성 가로망계획도에는 돈암지구를 비롯한 확장된 경성의 가로망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림10 그중에서 주요 간선도로는 5번 도로와 6번 도로로 돈암지구를 가로지르는 25m 폭의 대로로 조성되었다. 이 도로는 각각 보문로와 동소문로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일대의 교통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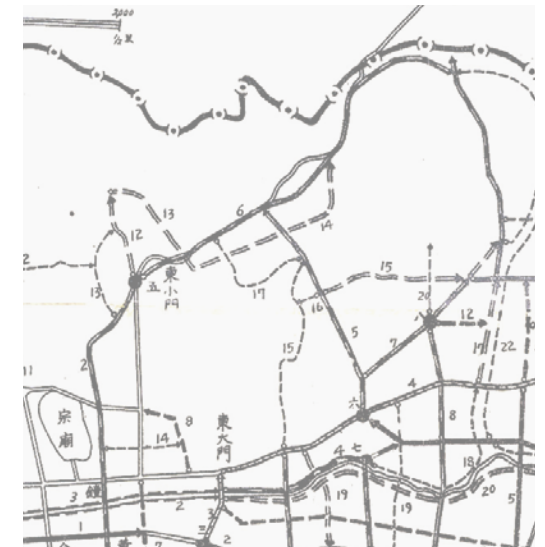


그림 10 돈암지구 일대 도로계획(『도시계획개요』,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계획도』 부분, 1938년)

¹² 「東京城 “발” 延長-敦岩町 電車 今日 開通」, 『매일신보』, 1941년 7월 13일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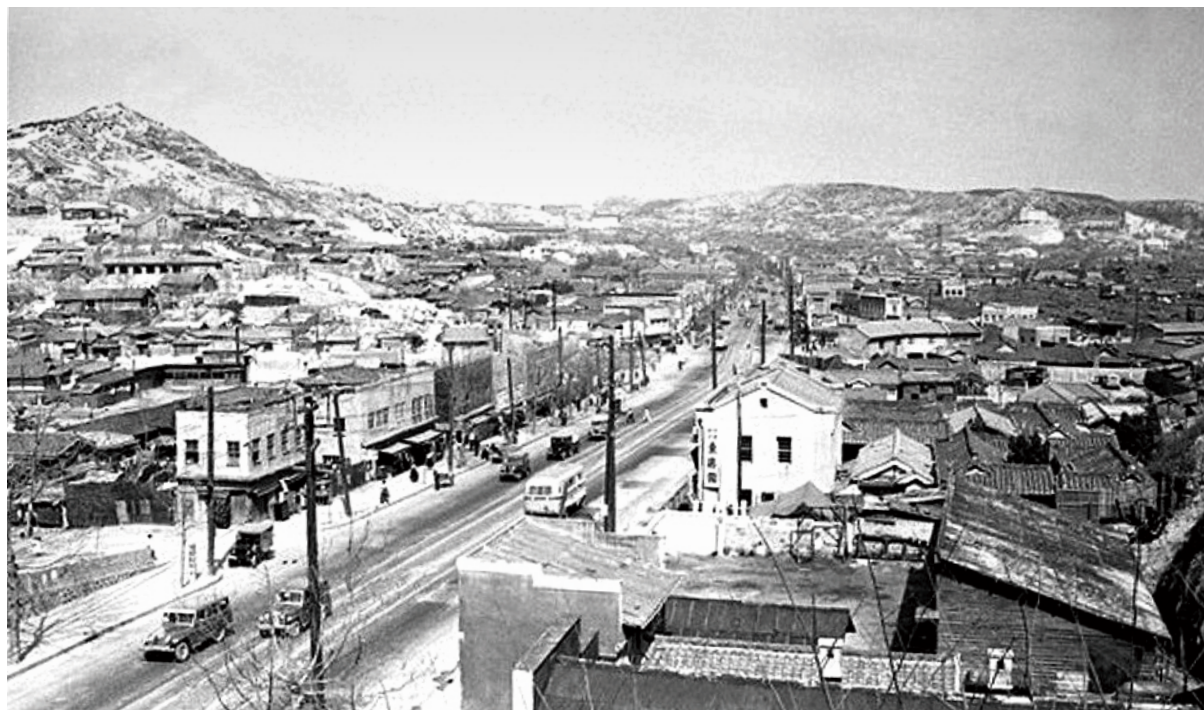


그림 11 1950년대 동소문로 전경(출처: 성북구청)

요 간선도로로써 기능하고 있다. 그림 11 이 도로들은 단순히 교통의 기능을 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의 상업 중심가로서 기능하였다. 1939년 9월 18일 계획구역 내의 지역제 고시로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¹³ 노선상업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면서 상업지역이 아닌 곳으로 그 간선도로에 인접한 양측 대지의 한 필지에 한하여 상업 기능을 갖도록 한 것으로, 동소문로와 보문로의 양측은 노선상가였다.

교통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41년 전차노선이 연장되어 버스종점까지 전차가 개설되었다. 그림 12 전차 개설로 혜화문을 횡철하고 기존 혜화동로터리에서 돈암지구까지 직선도로가 뚫렸다. 전차는 이후 지하철이 조성되는 1968년까지 운행되면서 돈암지구 주민들의 주요 교통편이 되었고 버스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이 운행되었다. 1933년 경전버스(경성전기승합자동차)가 돈암동네거리까지 운영을 시작하였고, 1947년 돈암동-의정부 버스 노선, 1948년 돈암동-서울역, 1954년 돈암동-

¹³ 1939년 9월 18일 자, 총독부 고시 제7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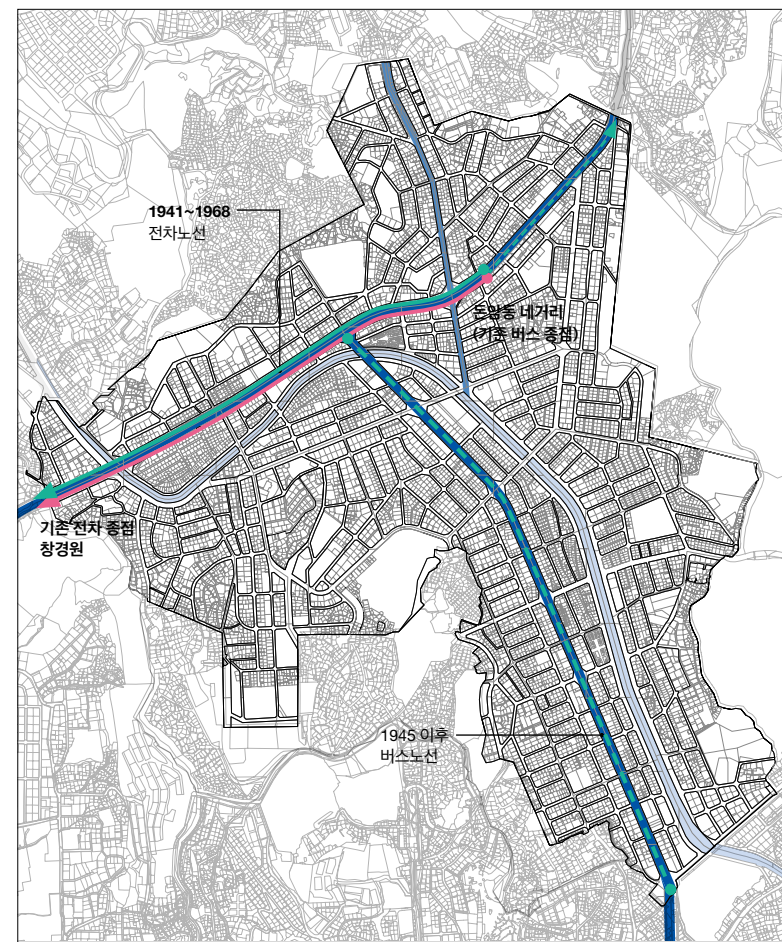


그림 12 1936년 돈암지구 개발 이후 교통의 변화(1968년 지적도 재가공)

우이동문까지 노선의 버스가 확장되면서 돈암동까지만 운행되던 버스가 서울 외곽 지역까지 확장되어 갔다.

돈암지역의 시가지를 살펴보면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돈암지구 조성 당시 5번 도로(보문로)와 6번 도로(동소문로)가 교차되는 사거리가 중심이었다. 2개의 대로는 계획 당시부터 상업가도로 형성되었다. 이 사거리는 현재 '성북구청입구 사거리'로 북동쪽으로 돈암초등학교와 남동쪽으로 돈암시장이 계획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다. 도로가 전차를 포함해 주요 교통수단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거리에는 돈암 주재소, 성북구청 등의 주요시설이 위치해 있기도 했다.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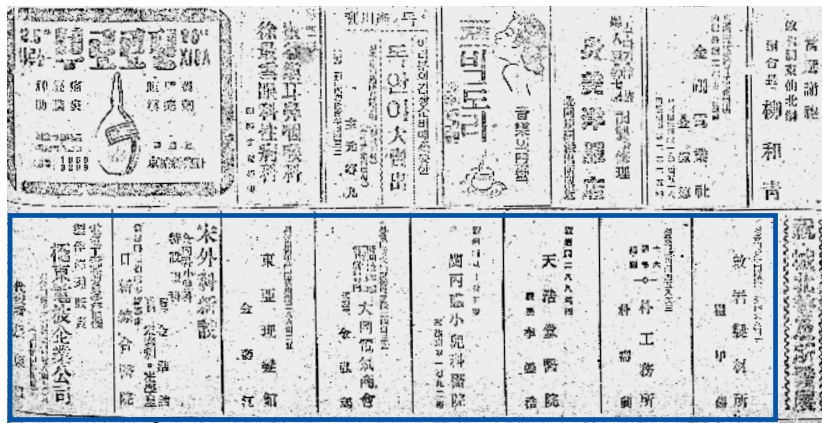


그림 13 1947년 신문 광고 속 돈암지역의 상업시설(『성북보급소발전』, 『민중일보』 1947년 10월 23일)

년 민중일보가 성북보급소 개소를 축하하며 낸 광고에도 돈암지역의 상업시설들이 잘 드러난다. 그림13 이 광고에는 ‘돈암제재소(돈암동458-1), 박목공소(돈암동58-3), 천활당 의원(돈암동 288-4), 문병혜 소아과 의원(閔丙惠 小兒科 醫院), 돈암동 로-타리 앞, 대동전기상회(돈암동424-35), 동아 이발관(돈암동 286-25), 일신종합의원, 극동전과기업공사(돈암동 458-409)’ 등 돈암동에 위치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보인다. ‘문병혜 소아과 의원’은 주소도 없이 ‘돈암 로-터리 앞’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청입구 사거리’는 해방 후에도 ‘로터리’로 교통의 요충지였음이 확인된다.

1960년대 서울이 다시 한번 확장되면서 돈암동과 서울 외곽을 잇는 미아로는 큰 변화를 겪는다. 1966년 11월부터 혜화동에서 돈암동을 거쳐 수유리로 가는 5번 도로는 미아로, 왕십리로터리 앞 배명중학교에서 신설동을 거쳐 돈암동으로 가는 6번 도로는 난계로로 명명되었다. 1958년에는 정릉, 길음지역과 연결하는 아리랑고가도로로 조성되고 1965년 4월에는 미아리고개가 기존 8m폭의 도로가 25m로 확폭되면서 고가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그림14, 그림15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기존의 전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돈암지구 개발과 함께 정리된 개천으로 조성되었던 성북천은 1967년에 복개되었다. 복개의 범위는 성북동에서부터 돈암시장을 지나 현재 구청이 있는 위치까지이다. 해당 구역에는 상가아파트가 건설되고 그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었다. 그림16

1985년에는 서울에 개발 열풍이 불며 돈암지역의 곳곳에서 다세대, 다가구



그림 14 1966년 미아리 고가도로(출처: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그림 15 1990년대 동소문로와 미아리 고가도로(출처: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그림 16 1966년 서울 확장 이후
하천과 교통의 변화
(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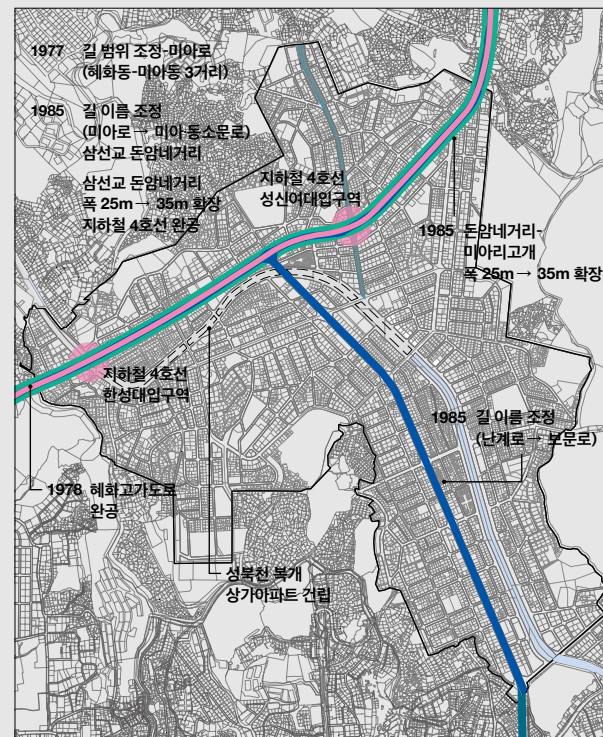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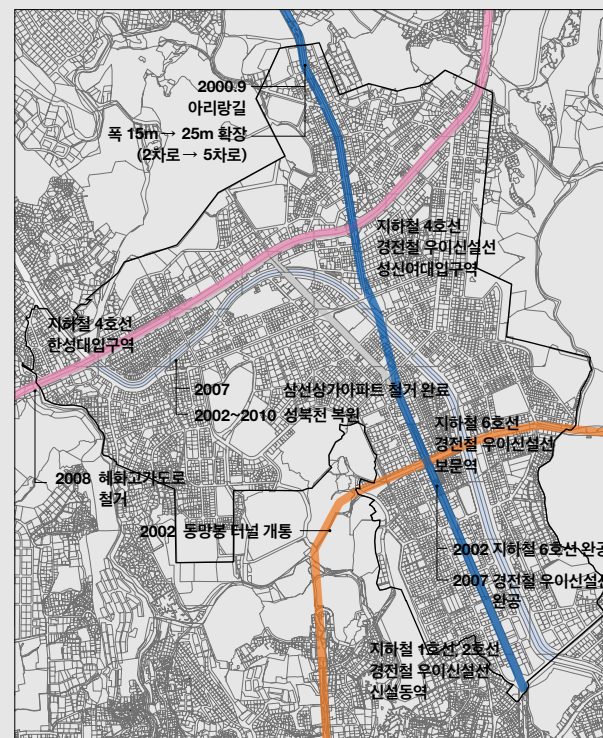


그림 17 2000년 이후 하천과 교통의 변화
(2003년 지적도 재가공)



주택 그리고 아파트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로 인해서 도로와 교통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아로와 난계로는 동소문로와 보문로로 이름이 바뀌고 도로 폭 역시 25m에서 35m로 확장되었다. 아리랑 고개 역시 돈암동-정릉버스 종점 구간 도로를 15m 폭으로 넓히며 돈암지역의 도로는 전체적으로 변경된다.

2007년에는 삼선상가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성북천이 복원되었다. 성북천의 복원으로 삼선상가아파트 하부의 거리에 형성되어 있던 시장과 돈암시장이 축소되었다. 4호선만 있던 지하철은 2000년에 6호선 보문역이 만들어지고 2017년에는 우이신설선이 보문역과 성신여대입구역을 지나게 되었다. 버스는 기존에 다니지 않던 낙산, 북한산, 개운산 자락까지 범위를 넓혀서 다니게 되었다. [그림 17](#) 2000년대에는 도시의 밀도가 점점 상승하면서 교통 노선이 점점 조밀해졌다. 이전까지 개발되지 않거나 달동네로 남아 있던 주거지에 빈틈없이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교통과 도로도 이에 맞춰 연결되었다. 그 와중에 하천의 복원은 빈틈없는 돈암지역에 숨 쉴 수 있는 틈이 되어 돈암지역의 전체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6년 개발 이후 2000년대까지 돈암지역의 전체적인 가로망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고 상업지역이 형성되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교통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그림 18](#)



그림 18 돈암지역의 현재 모습

1. 경성시가지계획: 돈암지구

1936년 3월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시가지계획구역을 고시한다. 경성시가지계획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경성의 확장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경성시가지계획 평면도에는 경성의 확장된 지역 전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성부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연차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1936년 12월 26일 총독부 고시 제722호로 가로망계획과 더불어 5,266만 6,900 km^2 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총 10차 30개 지구 가운데 1차 연도에는 영등포지구 157만 7,900평, 돈암지구 71만 3,900평, 대현지구 49만 8,500평 등 3개 지구 279만 300평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⁴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경성시가지계획은 확장된 경성의 지역들을 기존의 도시와 다른 근대적인 도시로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돈암지구는 확장된 경성 지역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다.

9,500만원으로 25개년 계속 사업인 경성부 시가지 계획정리공사는 5개년 간을 1기로 이 25개년을 5기에 나누어 가지고 공사에 착수한다 함은 임이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제 1기의 첫 해리 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총독부로부터 고시가 잇서야 모든 수속을 밟기로 되야했는데 25일 총독부 고시 제96호 보도한 바와 가티 영등포 돈암정 아현정 등 이 방면으로 면적은 약 900만 평방미돌(약 300만 미돌)이라 한다. 그런데 총독고시으로써 이 지역내의 지주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의무가 25일부터 생기었는바 지주가 공동사업으로서 시행하지 안는 경우에는 직시 부윤이 지주에 대신하여 시행토록 할 명령이 총독부로부터 발포되는 터이라는데 금번 명령나린 지구는 아래와 같다. (영등포지구, 면적 5,223,000평방미돌/돈암지구, 면적 2,363,000평방미돌/대현지구, 면적 1,650,000평방미돌)¹⁵

¹⁴ 손정목, 「식민도시계획과 그 유산」, 『서울20세기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480쪽.

¹⁵ 「土地區劃整理三區 總督府告示로 發表」, 『매일신보』, 1937년 2월 24일 4면.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1937년 2월 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96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공고하였다. 여기에는 돈암지구뿐 아니라 영등포, 대현지구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1937년 2월 24일의 기사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인 영등포, 돈암, 대현지구 900만 m^2 를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성부내의 금년도시가지계획 실시사업의 하나인 토지구획정리구역인 영등포구 영등포정 도림정 당산정 양평정 양화정 522만3천 평방메돌과 돈암구 돈암정 신설정 안암정 성북정 236만3천 평방메돌에 대한 정리공사는 그동안 지주 측에서 공사실행의 구체적 신청이 업슴으로 22일 총독부로부터 경성부윤으로 하여곰 전의 지대의 구획정리공사를 대행하라는 통첩이 잇서서 경성부에서는 전의 명기로 되얏다는데 구획정리구역 내에 잇는 지주들이 결합하여 자치적으로 공사를 진행 하겟다는 신청이 잇스면 총독부에서는 사실 공사 진행의 능력을 인정만 하게 되면 지주들의 요구대로 시행을 지주한테로 명령하는 법인데 우에 말한 바와 가티 지주 측에서 이때까지 그려한 신청이 업는 탓이라고 한다.¹⁶

그리고 같은 해 3월 24일 총독부 고시 제195호로 시행 명령을 내린다. 이 때의 사업 시행명령 내용은 3월 25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내 시가지계획사업 중 영등포와 돈암 지구의 사업에 관해서 지주들의 신청이 없어 사업을 총독부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을 통첩한다. 이는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행이 총독부에서 전체 사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성부에서 인가신청중이든 돈암정 토지구획정리실시계획은 9일에 총독부로부터 인가 되야서 부 당국에서는 근 환지에정지換地豫定地를 발표하고 본격적 공시에 착수하기로 되얏다는데 이 지구는 동소문으로부터 신설정에 이르는 일대로 면적이 약 70만평에 달하는 터로 공사가 완성되는 날이

¹⁶ 「兩區土地區劃整理 府에 代行을 通牒 永登浦敦岩地主들 申請업서 本府서 府尹에 命令」, 『매일신보』, 1937년 3월 25일 4면.

면 경성부의 동부 주택지대로서 현저한 발전을 볼 것이라 한다.¹⁷

경성부 당국에서는 21일 오후 1시부터 동부 출장소에서 돈암구 구획정리
실시에 관하여 지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리라 한다.¹⁸

10월 28일에는 총독부 고시 제756호로 돈암지구와 더불어 대현지구의 구획정리 시
행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실행이 이루어졌다. 지
주들과의 협의, 자세한 공사계획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공사를 실행하였다. 이후에
는 지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수해야 할 토지들을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리고 정지공사의 70%가 이루어진 1939년 3월 분양조합을 만들고 주택의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9년 9월에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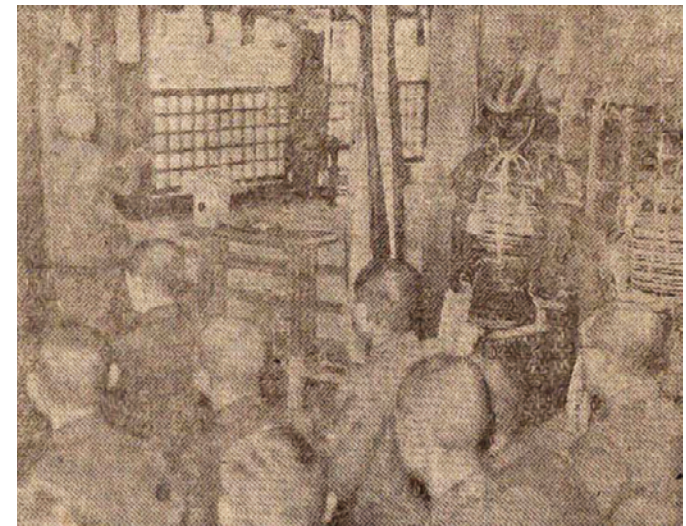
한편으로 전쟁을 하여 나가면서 여유작작하게도 공비 약 6백 만원으로 완
성시킨 주택지대 돈암지구와 공장지대 영등포지구의 화려한 준공을 신전
에 봉고하는 봉고제는 12일 오전 9시 반 경성부 주최로 경성신사에서 엄숙
히 거행하였다. 봉고제는 후루이씨古市 부윤을 비롯하여 반공영부장伴工營
部長 호시무라 재무부 과장星村財務部長 이도 도시계획과장伊都都市計劃課長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열한 가운데 일동 배례한 후 후루이씨 부윤의 옥관
봉전玉串奉奠의 뒤를 이어 부회를 대표하여 쓰스기鈴木文助씨 영등포지구 대
표 가나이金井泰準씨 돈암지구 대표 가나구니모도國友尙씨가 차례로 옥관을
봉전하고 일동 다시 배례한 후 동 10시 식을 마쳤다.¹⁹

분양은 기존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1940년 12월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공사
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0년 3월에는 총독부 고시 제73호로 공사 기간을 연장
하였고 그 이후 1943년 공사를 준공하며 일본식 봉고제를 하였다. ^{그림 19}

¹⁷ 「敦岩町과 大峴地區 區劃整理實施認可 東 西京城發展可期」, 『매일신보』, 1937년 1월 10일 4면.

¹⁸ 「敦岩地區整理에 關한 地主와의 懇談會」, 『매일신보』, 1937년 11월 18일 4면.

¹⁹ 「자라가는 大京城 神前に 飛躍을 奉告」, 『매일신보』, 1943년 10월 13일 2면.



^{그림 19} 돈암, 영등포지구 공사 준공 봉고제(奉告祭) 광경(「자라가는 대경성 신전에 비약을 봉고」, 『매일신보』, 1943년 10월 13일, 출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2. 돈암지구 개발과 부동산투기

돈암지구의 계획 당시 전체 사업 기간은 1937~1940년으로 4년이였다. 하지만 4년
이라는 시간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기에는 부
족한 시간이었다. 이에 당시의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대단위 개발을 위해 방식에 변
화가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에 변
동을 가하지 않고, 토지의 교환과 분합,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
설을 확보하고 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돈암지구의 경우에는 총독부가 개발을
주도하고, 경성부에서 명령을 내려 관에서 주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토지는 지주
들의 소유였기에 개발 비용은 토지의 소유주인 지주들이 부담하게 하였다.

경성부 도시계획계에서 명춘 3월의 해빙기를 기다려서 돈암정구와 영등
포구에 대한 구획정리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동 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금후 전매 이동을 하려면 부 당국의 허
가를 어더야 하고 또 허가하더라도 환지換地가 완전히 쫓난 뒤라야 인허할

모양인데 전기 양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정리 공사비를 소화 15년도부터 20년 간에 년부 상환으로 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돈암구」내 토지의 총 면적은 68만 3천평이다. 이 가운데서 관공유지를 제하면 보통지는 공사시행 후에 40만 7천평 받게 안되는데 사업비 2,142,361원은 전부 보통지의 부담으로 되어서 평당 약 5원의 공사비부담이 될 것임으로 20평 그지基地를 가진 사람은 백원이라는 공사비 부담을 20년 동안 물게 될 것이고 1천평 소유자는 5천원이라는 빚을 걸머지게 되었다.²⁰

1937년 12월 3일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면 돈암지구 면적은 43만 7천 평으로 사업비는 214만 2361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5원이었다. 공사비 부담은 4년 후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938년 7월 28일의 기사를 보면 이 비용은 지구 내 가환지를 매각하여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가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을 하기 전 임시로 정한 토지이다.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분양할 수 없지만 가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같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토지이다. 이를 매각하여 청산교부금이라고 이름 지은 공사 부담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지주들은 별도의 지출 없이 토지의 일부를 가환지로 넘겨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이 가환지는 지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성부에서 시행 인가 직후에 지주들에게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이 가환지들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나 정지공사 등 전체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경성부에서 수용하거나 공사로 이전해야 할 기존 거주자들에게 주어졌다.

경성부 시가지계획과에서는 방금 공사 중의 영등포 돈암정 아현정의 구획정리에 계속하여 신당정 청량리 영등포역 뒤 왕십리역 부근 마포 등 약 250만평의 구획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국 하 총독부의 기채억압(起債抑壓)방침에 의하여 실현 난에 빠지었으므로 이에 대책을 강구한 결과

²⁰ 「區域整理の工事費를地主가負擔케 된다」, 『매일신보』, 1937년 12월 3일 3면.

전기 구획정리시공 지구내의 가환지(假換地) 일부를 매각하여 이를 청산교부금(清算交付金)이라 하여 일단 각 지주에게 교부한 후 각 지주로부터 공사 부담금을 증수하여 이로써 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었는데 이는 치주 자신이 직접으로 돈을 내지 아니하고 간접부담으로써 구획정리를 시공할 수 있는 명안으로 부 당국은 근근관계 지주를 초치하고 본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되었다.²¹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공사 시행을 위해서 4천여 호가 있던 돈암지구의 주거지 중에서 약 1,300호를 이전했고, 경성부에서 이에 대한 이전보상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전하는 1,300호의 가옥은 가환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 1937년 12월 가환지가 발표되고 이듬해 8월 철거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므로, 기존 거주자들은 그 사이에 새롭게 집을 지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938년 7월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이전해야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전이 수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빈민구제, 토막민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기존 거주민들의 이전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거주민들의 이전 문제는 돈암지구의 토지정리가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돈암지구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토지 문제는 필지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35년 돈암지구의 지적과 1924년 지적원도의 지적을 살펴보면 1924년 지적도에서는 분할 없이 대형 필지로 구성되어 있던 필지들이 개발 직전인 1935년 지적에서는 극세장형 필지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21}

돈암동 1924년 지적도에서 돈암동 258번지의 지적은 분할 이전인 1924년 지적에서는 약 24,000㎡의 부정형 필지였다. 이 필지들은 258-1번부터 258-47번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분할된 필지들을 살펴보면 1,000~2,000㎡ 내외의 대형 필지가 6필지이고, 그 외의 필지들은 300~400㎡의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되었다. 300~400㎡로

²¹ 「妙案」『清算交付金』府內數處區劃整理對策으로 不日間關係地主招致可協議, 『매일신보』, 1938년 7월 28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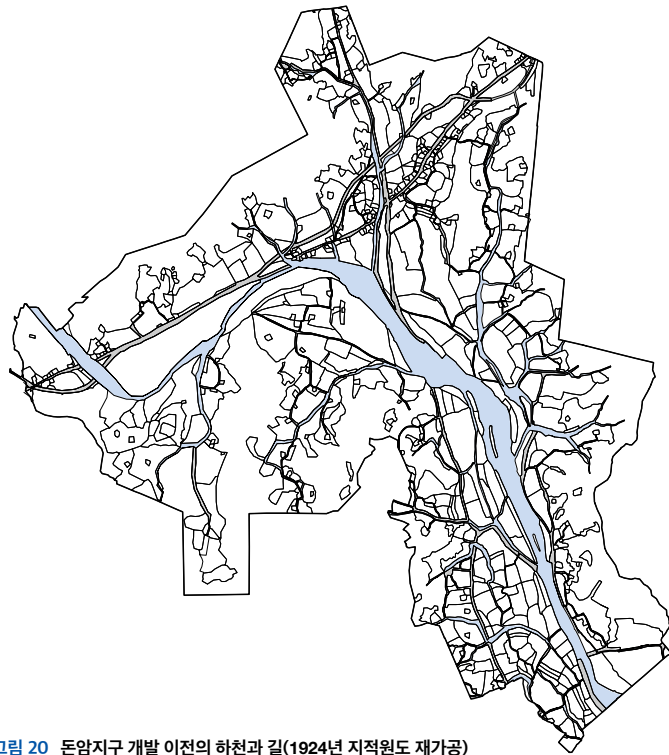


그림 20 돈암지구 개발 이전의 하천과 길(1924년 지적원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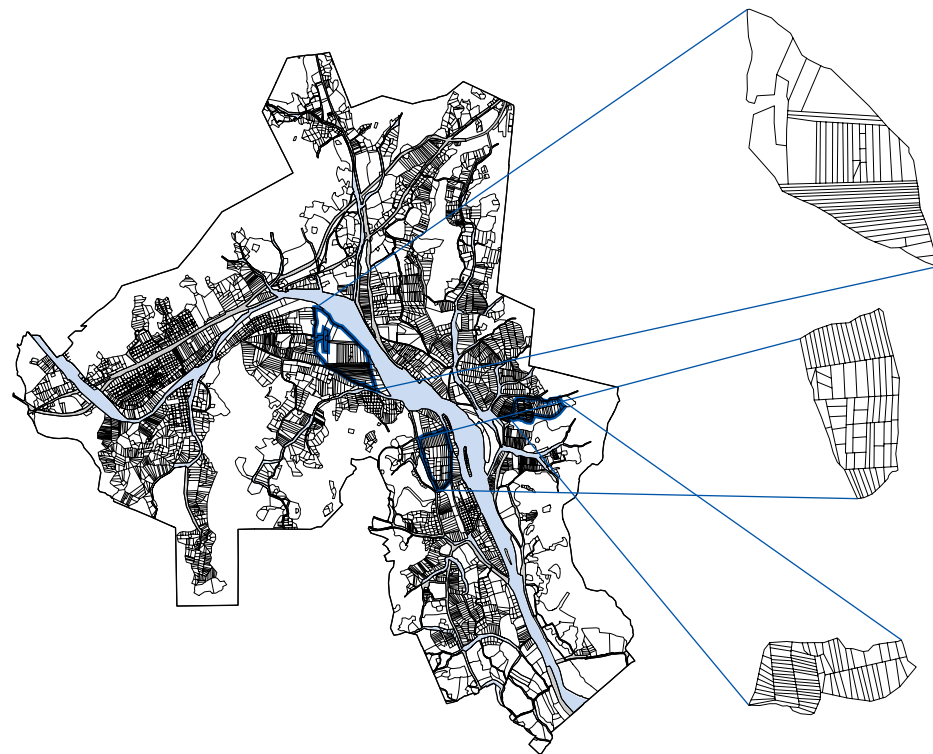


그림 21 1935년 지적에서 보여지는 극세장형 필지(1968년 폐쇄지적도 재가공)

분할된 작은 필지들은 폭 4~7m, 길이 60~144m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극세장형 형태의 필지들이었다. 이러한 필지 분할 방식은 토지의 사용보다는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분을 나눠 갖기 위하여 지분을 쪼개놓은 형태와 유사하다.

이런 필지들은 일부 주거지를 제외하면 돈암동 258번지를 비롯하여 돈암지구 전체 토지에서 확인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돈암지구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개발주체인 총독부와 경성부는 지주들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토지가의 상승으로 상쇄되어 오히려 지주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 홍보했으며,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투기를 중용하였다. 돈암지구가 개발되던 1930년대에는 이미 토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성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청진, 나진 등 항구도시나 만주까지도 투자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 ^{그림22} 토지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금융조합의 돈을 횡령하여 토지에 투자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림23}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경성부에서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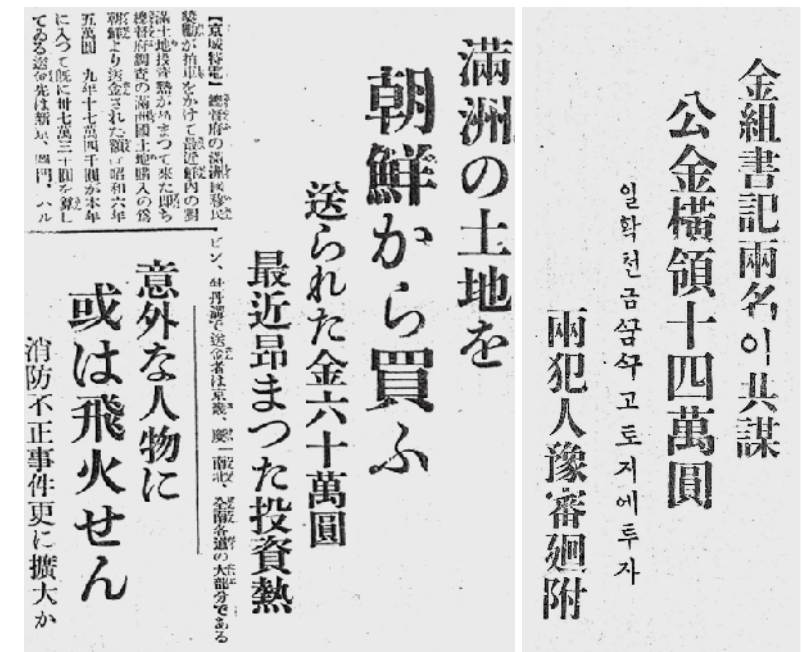


그림 22 「만주의 토지를 조선으로부터 매입하고자 보낸 금 60만 투자열」, 『부산일보』 1935년 7월 3일 (출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그림 23 「금조서기 두 명이 공조 공금횡령 십사만원」, 『매일신보』 1937년 10월 1일 (출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경성부 주거지 분양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성부에서는 분양 시점에 사업 성공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기획하였다. 입간판, 포스터, 팸플릿, 신문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이고, 구획정리 전람회와 전문가 강연회까지 개최하여 택지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다음은 돈암지구를 선전하는 1939년 1월 7일 자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금년에 영등포토지 구획정리가 완성되면 또한 돈암정 토지구획정리가 완성된다. 그리하여 대경성 건설의 이상은 한거름씩의 실현을 보게되는 것으로 이 돈암지구는 경성의 도심 지대를 상거하기 동북 4키로메돌의 지점에 있어 동소문 밖에 흐르는 성북천 양안 일대인데 경성, 원산 간 일등 도로가 돈암정을 통과하며 남부는 신설정에서 춘천가도에 연하여 동쪽, 서쪽, 북쪽은 산으로써 경계선을 그리며 병풍이 돌린 것과 같다. 그런데 소화 11년 4월 1일 경성부 행정구역확장에 따라 돈암리가 경성부에 편입되는 동시에 경성 시가지 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이다. 이 지역은 성북천 유역분지로 상당한 경사가 저서 물이 잘 빠질뿐 아니라 사방에 물려 잇는 산악에 수목이 울창한지라 비성비촌이라드시 경성의 주택지다로는 ‘넘버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건축이 촉진 발증가하여 그 발전상은 놀 날만 하다 그리하여 총독부당국에서 소화 11년 12월 26일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경성시가지계획 가로망급 토지구획정리지구를 결리 고시하여 동 12년 2월 20일 돈암지구 토지 소유자는 소화 12년 3월 20일까지에 정리 시행인가 신청을 하라고 지정했으나 동 신청이 없는 까닭에 동 12년 3월 22일 경성부윤에게 돈암지구정리 시행을 명한 것이다.

이 정리 사업은 토지 상향에 의하여 2공구로 나누어 하는데 아무러케나 생긴 땅을 다스려서 이상적 주택지를 만들려하는 것으로 지구의 중앙을 관통한 동서급 남북의 두 개 간선도로 양척 지대는 상점가를 예상하는 바이며, 이미 시가지화한 부분이 있음으로 이것도 정리하여 주택급 상업지로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1. 질서정연한 도로를 축조하여 가곽(街廓)을 결정함. 2. 주택지를 조성함. 3.

배수설비를 신설, 도로부지 내에 측구급하수거를 설하여 지구 내의 배수를 편리케 할 수 잇는 공사를 시(施)함. 4. 도로면에 사리(砂利)(자갈)를 산포(散布)함. 5. 소공원, 시장 기지를 설치함 등으로 이 천연적 풍경 가려한 지대에 인공을 가하여 가곽, 성북천 개수, 주택지 조정, 배수 등의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까지 만들어 노케되면 이 지구는 금상첨화의 이상적 주택지가 금년 내에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공사기간 (소화 12년도~14년도)이라든지 공사비 부담 방법 등은 영등포지구계획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금년 중에 양개 확장공사가 완성됨을 따라서 경성은 북으로 돈암정, 남으로 영등포의 근대적 신흥 시가의 확대를 보게 되며 일가월 증하는 인구의 주택난도 다소간 완화 될 것만도 사실일 것이나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것이면 그 세력이 괴장하여 금년도의 영등포, 돈암정 토지구획정리 완성으로 경성부민 주택난에 동족반노의 감이 없지 아니한 바이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5일 경성부 임시 부회(임시부회)에서 주택난 완화책으로 주택조합령을 속히 실시하여 달라고 만장일치 가결로 총독에게 요망한바까지 잊거니와 부당국에서는 그 실시 여하를 불구하고 조코 갑산 부유지(府有地)를 개방하여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정지(整地)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태원에서 한남정 일대에 빠친 남산 뒤 부유지 40만평을 정지하여 50평 내지 100평의 구획이 정연한 주택 지대를 만드려 주택건축을 원하는 부민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예산 통과를 기다려서 급속이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여름에 개방 할 예정이라 한다. 이 부영 주택지에는 1. 2부 소학교 축 용지 2개소와 공설시장 건축예정지 1개소도 만들어 수도부설 ‘빠스’ 운전을 실시하고 장내에는 전차까지 연장하기로 되었다는데 주택지 분양에 있어 이권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게 될 것으로 자격은 부내에 거주하는 중류이하 사람으로 현재 집이 없고 건축할 자력이 확실한 사람이여야 된다. 부당국이 이를 착수하게 된 목적은 주택난 완화인 동시에 축일등귀 1로를 밟는 토지가 억제 의 의미도 포함되었으므로 수도끼여서 평당 16원 정도일 것이라하며, 제 1일기 분양만도 50평 평균으로 하면 1805호에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계속하여 경성부 내와 부외에 산재한 100만평 이상에 달하는 부유지를 전부 이런 방식으로 개방할 계획임으로 금년 중에 이의 실현되면 주택난에 우는 부민에게 적지 아니한 편의를 제공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경성부의 시가지계획은 방대한 계획으로 재작년도부터 착수한 시가지구획정리사업은 금춘부터 번대방, 한남, 사근, 용두 등 4지구에 150만평을 150만원 공비로 착수하며 금년 가을부터는 청량리, 신당정, 마포 등 3지구에 120만평을 340만원 공비로 착수하기로 되였다한다. 방재, 영등포, 돈암정 지구는 공사의 약 7할이 진행되었고, 대현정 지구는 약 5할이나 진행되었다 하며, 금년도에 착수하는 전기 7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4월부터 착수하고, 나머지 3지구는 9월부터 착수하여 3개년 계속사업이라 한다.²²

경성부뿐 아니라 건축물·토지경영 회사들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돈암 지구 분양과 정에서는 조선공영주식회사, 동경건물주식회사 등의 개발업자와 토지, 건축물 경영 회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동경건물주식회사는 동경에 본점을 두고 한성에 지점을 둔 토지건축물 분양, 홍보, 매매를 진행하던 회사로 돈암지구뿐 아니라 경성의 많은 지역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하였다. 동경건물주식회사는 돈암지구 안에서 자신들이 분양하는 지역에 별도의 이름을 짓기 위해 현상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명칭 공모에서 동산장(東山莊)이 당선되었으며, 동경건물주식회사는 돈암지구 내 개발 지역을 동산장으로 광고하며 분양하였다. ^{그림 24}

그 결과 돈암지구 토지는 비교적 빨리 판매되었다. 1940년 12월 말 정지작업도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토지구획과 동시에 이곳에는 연일 대량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1943년 10월에는 전체 토지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된 만큼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실제 건물이 설계도와는 다르게 지어진 위반 가옥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에 대해 1942년 6월 27일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²² 「大京成建設譜② 各府の宅地設計」, 『동아일보』, 1939년 1월 7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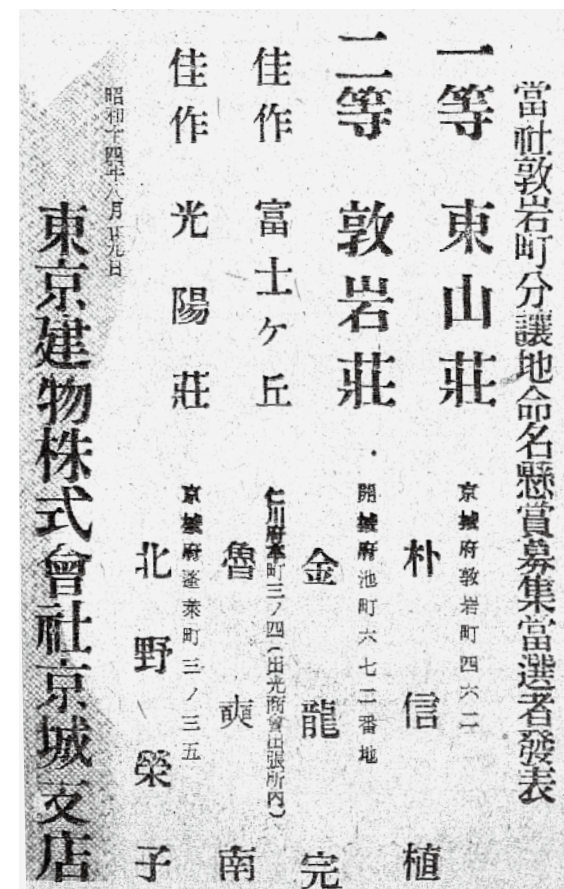


그림 24 「당사돈암정분양지명현상모집발표」, 『조선일보』, 1939년 8월 29일 (출처: 조선일보)

빠더나는 경성은 동으로 서로 인구의 팽창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먼저 주택난을 비저내이고 있다. 더욱이 안암정, 신설정, 돈암정 등 신설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등 대문서 건축계 창구에는 연일 7, 8 통 내지 15-6통의 건축허가 신청서의 접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보면 도면에 있어서나 서식은 어느 정도로 갖추어졌으나 결국 건축된 것을 보면 처음 서식과는 달른 것뿐이어 다된 집을 시가지계획령에 더리어 부득이 부스거나 뜨더내지 않흐면 안되는 집을 지어놓는다. 그리고 집이 다 완성되어 경찰의 사용 허가가 나리기도 전에 매매를 하고 또는 세를노아 다른 사람이 들어 잇서 책임자를 밝히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위반 가옥이 생키

게 되는 큰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인과 공사청부인 가옥 사용인이 모다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이 책임자를 차저내지 못하고 인부만 잇게 되어 미리 취제하기에도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도저히 막아 내일수업은 일이다. 따라서 동 건축계에서는 허가신청서를 처음에 접수할 때에 미리 건축신청인과 공사청부인을 정하여 책임자를 완전하게 한 연후에 허가를 하고 또한 준공계를 내어 관계서원의 검사를 마튼 연후에야 사용하도록 일반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를 요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서 고 보안주임은 다음과 가치 말한다. 의례히 집을 지면은 규측에 어긋나지 안케하여야 할터일테 소위 건축「뿌러~커」가 잇서 허가신청만하여 가지고 권리만을 파는 일도 잇고 또는 완성되지 안흔 집을 팔거나 세주는 일이 잇는데 이런 것은 모다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방지하지 위하여 금후는 건축신청인과 청부인을 밝히어 반다시 항상 책임을 지지는 사람이 잇지 안흐면 허가를 하지 안흘뿐더러 건축위헌자에게 대하여서 엄중히 단속하려 한다.²³

구획정리사업에 브로커가 끼어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운다 세운다하고 좀처럼 세워지지 안는 경성의 주택문제는 날을 거듭 할수록 심각하여 가고 잇는데 이와 가티 절박한 주택난과는 영똥하게도 경성부 내에 비인 채로 잠을쇠를 채워둔 집이 무려 일-천여호나 하품을 하고 잇다는 사실을 드를때 좀 의아한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선 동대문서의 조사에 의하면 관내인 돈암정敦岩町 명륜정明倫町 신설정新設町 신당정新堂町 가튼 방면의 주택촌에 건물 회사 혹은 건축업자들이 세워노키만 하고 텅 뷔인 채 하품을 하고 시다는 집이 9백호가 넘는다는 것인데 이외에도 각 서 관내에 그러한 새 집이 적지 안타 이런 것은 집장사들이 장사

²³ 「設計와 다른 建築 都市計畫令違反으로 嚴重取締」,『매일신보』, 1942년 6월 27일 2면.

를 목적으로 지어 노흔 것이나 그간 주택지 가격이며 집세통제로 집값도 찌러지려니와 금융도 전갓지 안음으로 자연매매도 적고 쏘 물자를 빗싼 갑으로 대서 지었든 집이라고 싹 갑으로는 팔려고도 안음으로 자연 집이 팔리지 안코 그대로 비어잇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 부내의 건물 매매는 거의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역집 장사로는 이왕 지어 노은 집은 하로 빨리 팔어서 리자만 더해가는 빗을 청산하자고 하나 살 사람도 금융이 어렵고 해서 좀처럼 손을 못대고 잇다 더구나 작년 10월에 실시를 본 택지건물 통제령宅地建物統制令의 영향을 보건대 9, 18 현재의 가격에 근거를 두고 시세를 엿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와는 가격에 너머도 차이가 커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통제령에서는 신축가옥에 잇서서 실비에 다가 9부의 이익증득기료와 세금만을 더 부쳐서 팔게 되는 것이므로 집장사가 부르고 시픈 갑과 잘 맞지 안는 모양이다 그리고 방 한칸이라도 전세나 사글세는 더욱 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덕방을 찾는 사람은 집을 사갓다는 사람보다 세집을 찾는 사람이 더 느렸다는 것이다 이 주택난에 귀한 물자를 들려 지어노코 그와 가치 뷔인 채로 집을 놀리고 잇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으로 일반의 이야기꺼리가 되여잇다²⁴

1940년대 경성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주택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성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암지구에 주거 용지를 조성하였고,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암지구 개발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1941년 5월 15일 자 기사를 보면 돈암지구를 비롯한 동부지역의 팔리지 않은 빈집이 900여 호에 달하고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브로커, 건축업자들이 생각하는 집값과 구매자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보다는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물가 정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물가를 통제하였다. 시장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물가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물품의 가격과 지대임대료 토지가격, 소작료 등을 통제한 것이다. 택지건물통제령으로 돈암지구뿐

²⁴ 「住宅難中空家千戶 東部新住宅地帶의 奇現象」,『매일신보』, 1941년 5월 15일 2면.

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셋집을 얻으려고 노력하였고, 건축업자들은 이윤을 적게 남기고 팔고 싶어하지 않았다.²⁵ 이러한 이유로 주택난이 있는 한편으로 빈집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었다.

3. 도시빈민과 제척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 중 제척지는 돈암지구 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이다. 돈암지역은 돈암지구 개발 이전부터 취락지역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지도에서도 그 취락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총독부는 경성부 주변 지역의 지형도를 1915년에 작성하고 이후 1921년, 1937년에 다시 측량하고 수정하여 이를 기록하여 남겼다. [그림 25, 26](#) 1921년에 수정해서 측정한 경성 지형도를 보면 미아리고개와 아리랑고개, 혜화문 주변에는 적은 수의 집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37년 재측정한 지형도에는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도에서 제척지로 표현된 부분들에 새롭게 들어선 건축물이 확인된다. 돈암지구 개발은 1937년 시행 인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해인 1938년에 공사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인 1937년의 지도에 있는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 1937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제척지에 주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척지로 표기된 지역은 동소문동1가 94번지 일대, 동소문동2가 63번지 일대, 동소문동5가 50번지 일대, 동선동4가 35번지 일대, 삼선동2가 60번지 일대, 삼선동4가 73번지 일대로 총 6개소이다. [그림 27](#) 이 지역들은 동소문로와 성북천에 인접하고 있어 돈암지구 개발 이전부터 취락지역 빈민구제 건설이 논의되던 곳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척지들의 토지분할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동소문동2가 63번지 일대를 [그림 28](#) 제외하면 돈암지구 토지분양의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동선동4가 35번지는 [그림 29](#) 개발 이전부터 지목상 대지로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다. 돈암지구 개발에는 더 작게 분할되고, 다시 합쳐지는 등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동소문동 5가 50번지

²⁵ 하원호,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물가통제」, 『대동연구』 53, 2006, 121~152쪽.



그림 25 돈암지구 개발 이전 1921년 제척지
(『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1921년 수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6 돈암지구 개발 이전 1936년 제척지
(『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1937년 수정, 출처: Stanford Digital Repository)

는 **그림 30** 돈암지구 개발 이후인 1943년 이후로 계속해서 필지분할되었다. 삼선동4가 73번지, **그림 31** 동소문동4가 8번지의 **그림 32** 경우에는 돈암지구 개발 이후인 1943년에 지목 변경과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다. 삼선동2가 60번지 일대 **그림 33** 1935년부터 필지의 지목 변경과 분할이 이루어졌다. 지역마다 전후의 차이는 있지만 제척지 6개소는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무관하게 필지의 분할과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돈암지구 개발계획상의 제척지
(『시가지계획 돈암토지구획정리계획평면도』, 『경성부 영등포 및 돈암 토지구획정리비 기재의 건』, 1938년, 출처: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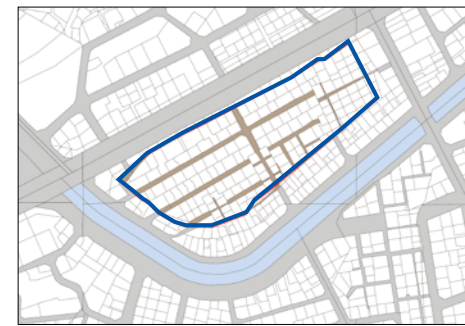


그림 28 동소문동2가 63번지 일대(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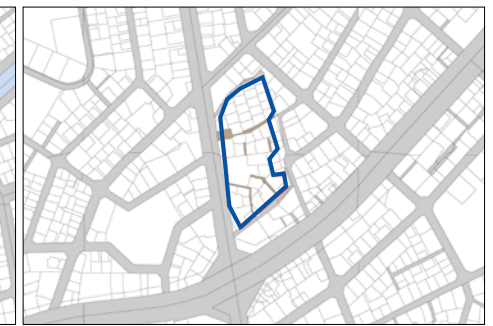


그림 29 동선동4가 35번지(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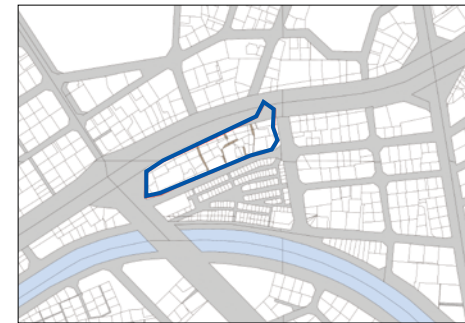


그림 30 동소문동5가 50번지 돈암시장 주변
(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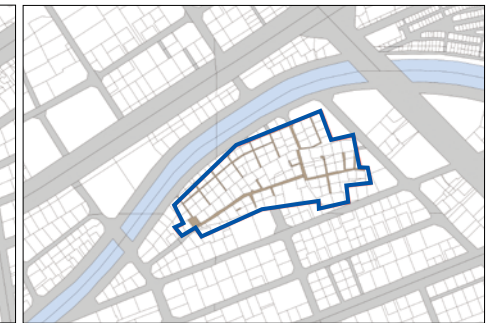


그림 31 삼선동4가 73번지(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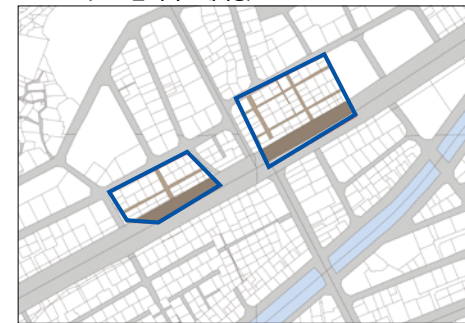


그림 32 동소문동4가 8번지 일대(1968년 지적도 재가공)



그림 33 삼선동2가 60번지 일대(1968년 지적도 재가공)

제척지의 주거지 구조를 살펴보면 돈암지구의 타 지역과는 다른 주거지 구조를 갖는다.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암지구의 주거지 구조는 $40m \times 80m$ 의 블록이 격자형 가로 체계로 조성되어 있다. 이 안에 4열 필지를 배열하고 그 안에 블록을 가로지르는 골목길을 두거나 막다른 골목을 두고 있는 구조이다. 전체 블록을 시가지 계획으로 한 번에 계획하였기 때문에 전체 가로 구조가 이질적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제척지의 가로 체계는 주변 가로와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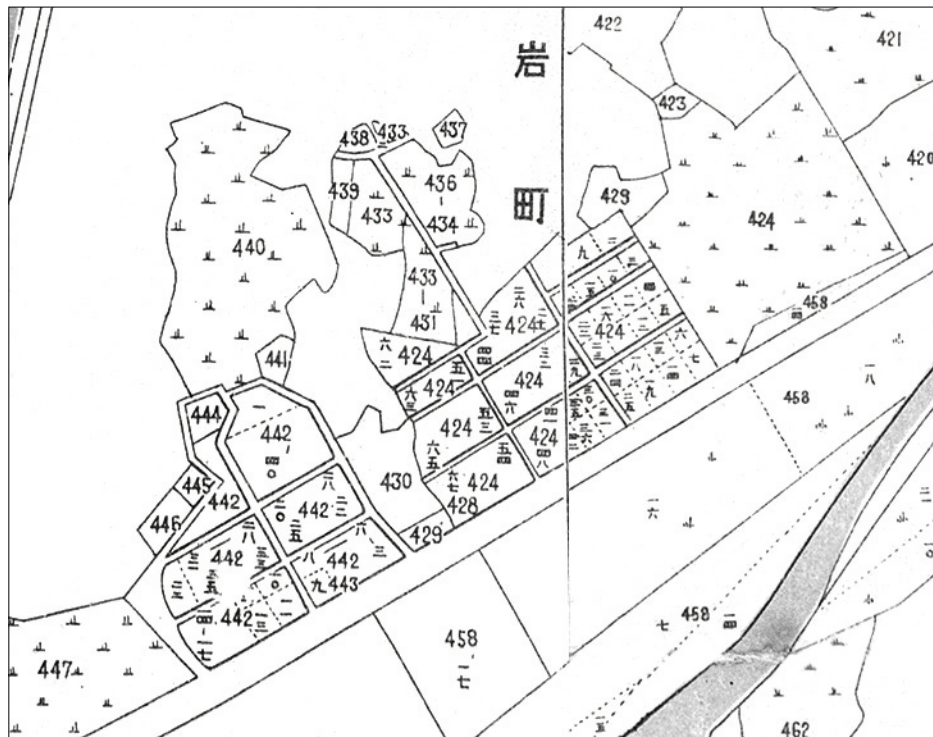


그림 34 동소문동4가 8번지 일대(『대경성정도』부분, 1936년)

의 주거지 구조를 보면 4열 필지에 격자형 가로 체계로 구성된 돈암지구와 다른 도성 안의 주거지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방식의 가지형 가로 체계와 유사한 면모가 보여지기도 한다. 격자형 가로 체계를 가진 동소문동4가 8번지, 삼선동2가 60번지 일대 주거지의 경우에는 북촌과 같이 2열의 필지가 5개소 이하로 연속되고 있는 형태로 북촌에서 보이던 주거지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동소문동4가 8번지 일대는 그림 34 1936년에 작성된 『대경성정도』에 주거지 개발이 이미 시작된 흔적이 보여 1937년 이전 이미 필지분할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인 1943년에는 개발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보문시장

돈암지구 개발 당시 경성부는 보문시장과 돈암시장을 공설시장으로 계획하였다. 1939년 공설소매시장 분포 예정도를 보면 기존 주거지와 새롭게 조성될 도시에 상권의 범위를 예상하여 분포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시장과 돈암시장은 돈암지구 조성 시기부터 상권의 중심지로 계획되었다. 그림 35, 36

현재(2021년) 보문동4가 116번지 일대는 1936년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평면도에서 돈암시장과 함께 시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문시장이 일반적인 주거지와 달리 점포와 공터를 조성하기 위한 형태의 필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보문시장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문동4가 116번지 일대 블록 내부의 골목길과 필지선은 계획된 도시조직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형태의 골목길과 필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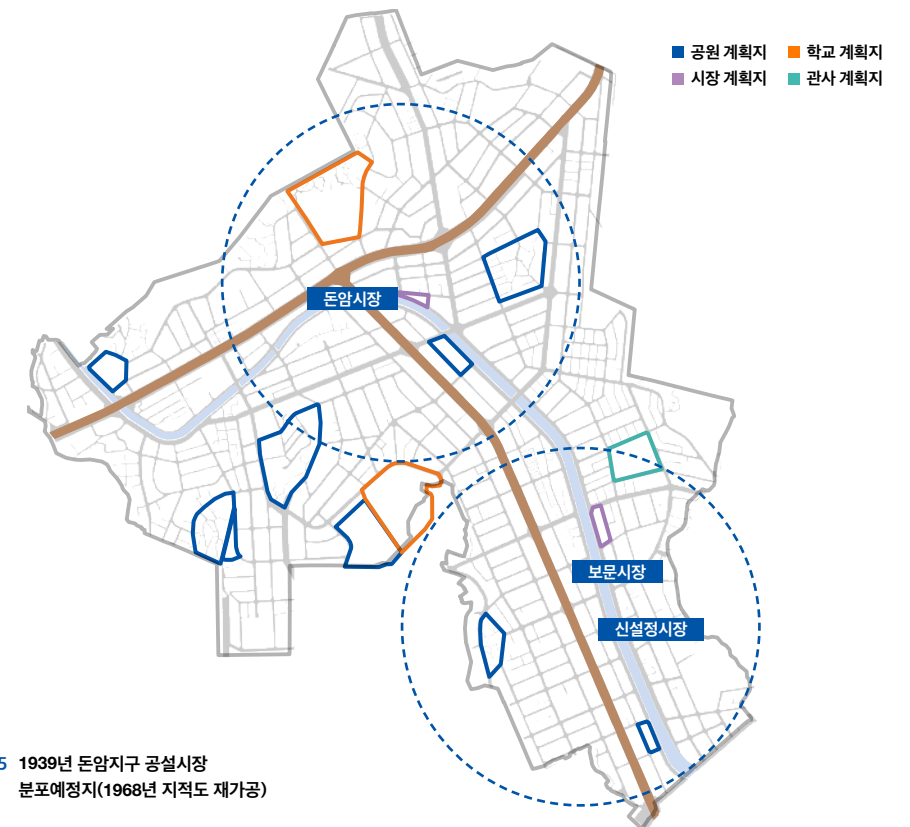


그림 35 1939년 돈암지구 공설시장 분포예정지(1968년 지적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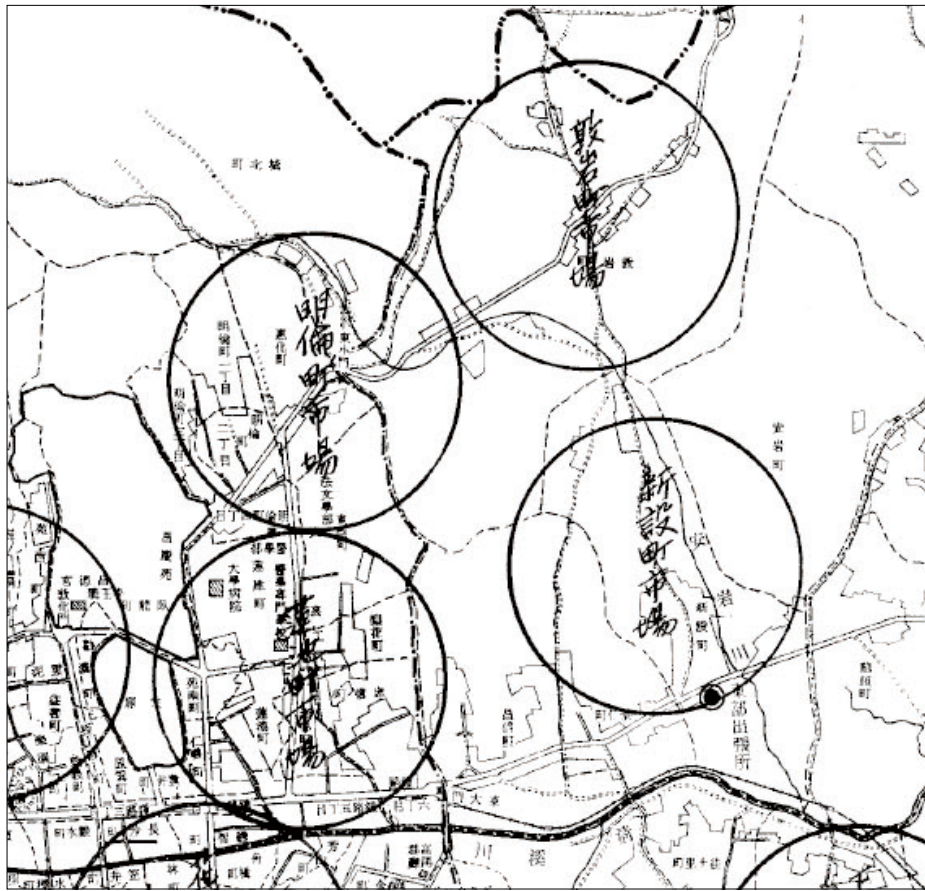


그림 36 「경성부 공설소매시장 분포예정도」부분, 『경성부 공설일용품시장 신설 및 확장비 기채 인가의 건』, 조선총독부, 1939년
(출처: 국가기록원)

보문시장은 제척지와는 달리 자연지형의 영향을 받은 주거지의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보문시장 필지는 시구개수사업에 의해서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 정리된 개천으로 변화되었다. 가로 구조 역시 하천을 정비하면서 직선형으로 정비되었으나 보문시장 블록 내부의 골목길은 기존 지형의 영향으로 부정형의 골목길로 조성되었다. 1968년 개조 지적도의 필지를 살펴보면 블록 내부에 부정형의 골목길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골목길은 시구개수사업 이전의 하천필지와 겹쳐지는 필지선을 가지고 있어 보문시장 내부의 필지 구성과 성북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935년 지적도에서는 하천 안 섬처럼 보이는 지역에 골목길과 대지가 있었던 필지선이 보인다. 이 필지선은 이 지역이 개발 이전에도 주거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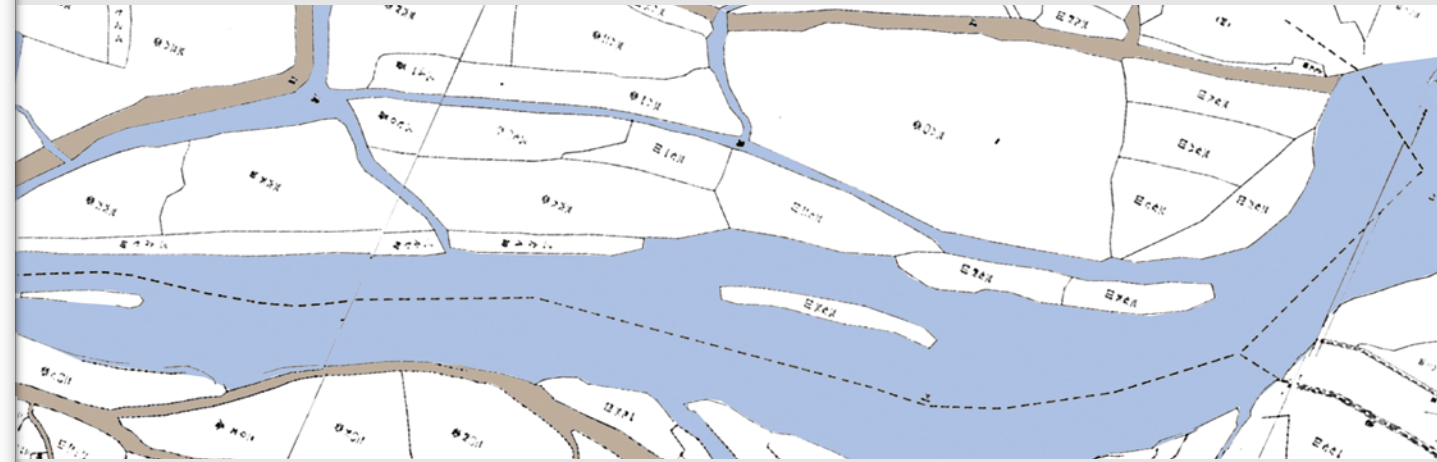


그림 37-1 돈암지구 개발 이전의 하천과 보문시장 주변 지적 비교(1924년 지적원도)



그림 37-2 돈암지구 개발 이전의 하천과 보문시장 주변 지적 비교(1935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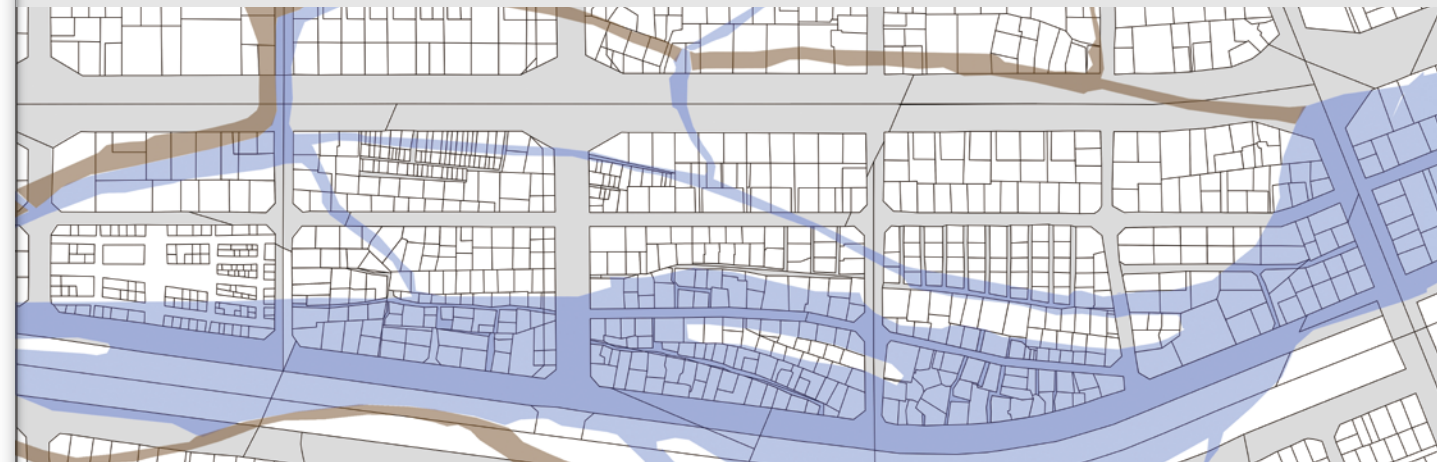


그림 37-3 돈암지구 개발 이전의 하천과 보문시장 주변 지적 비교(1935년 지적도)

1938년 4월 신문 기사를 보면 하천변 토막촌 주민들의 집을 철거하고 빈민구제주택을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기존에 토막민 주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거지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주거지는 아니었고 경성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성 바깥쪽에 만들어진 토막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부에서 신설정新設町 “모랫말” 국유지 오천여평을 대가업자함학진咸學震에게 대부하고 이에 반야 연고 주민 오백여호에 퇴거명령을 나리게 되어 이로 인하여 전 주민은 총연 서로 전기 함학진에게 대부한 것을 취소하고 연고자인 자기들에게 대부를 하든지 그러치 못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그 하회를 기다리던 중 돌연 지난 24일에는 함학진이 인부를 보내어 강제철책을 하다가 주민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의 힘으로 겨우 이것을 제지하고 이어 문제가 문제인만치 부 당국에서는 이를 선처하랴고 익 21일에는 경성부 동부출장소에서 미산梔山도시계획과장 이하 관계원이 주민대표들과 회합하여 간담회를 열고 장시간에 공해야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답안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후 일방 함학진으로부터 철책 독촉이자 심하므로 작 24일에는 주민 남녀노소 오륙백명이 경성부로 쇄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미산梔山도시계획과장과 동과고목高木계획계장을 접견하고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강조한 바 잇었다는데 확대되어가는 이 문제의 장래는 극히 주목된다고 한다.²⁶

보문시장은 개설시장으로 보문동4가 1-1번지의 한 블록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시장은 관 주도하에 개설되었으며, 1959년 사진에서 장방형의 점포형태를 볼 수 있다. 이 점포의 형태는 필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보문시장은 돈암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1960년대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정식으로 시장이 되고 점차 커져 보문동1가와 4가에 걸쳐 있는 큰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²⁶ 「退去令받은 五百住民 大舉京城府에 陳情」, 『동아일보』, 1938년 4월 25일.



그림 38 1937년 보문시장 일대의 토막촌
(『1:10,000 조선총독부지도』, 「경성도」 부분,
1937년 수정, 출처: Stanford Digital Repository)

그림 39 1972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보문동1가
147번지 빈민구제주택(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보문시장 옆 보문동1가 147번지에는 앞서 이야기한 토막민들이 이전하여 살았던 건물이 있었다. 그림 38 1938년에 기존에 있던 토막촌을 철거하며 빈민구제주택을 지었다. 그림 39 그러나 빈민구제주택은 허울뿐이었으며, 총독부는 함학진이라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여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원성을 사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건물은 1959년 사진부터 항공사진에도 그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은 대로에 나란히 놓여 있지 않고 사선으로 놓여 있다. 돈암지구가 공사 중이던 1938년에 지어져 개발시기의 도로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형태로 보인다. 이 건물은 빈민구제주택으로 지어져 결국에는 한 명의 소유가 아닌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의 소유로 필지가 조성되어 건물 내부가 3~4m의 좁은 폭으로 분할되었고 그 필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1959년 임인식이 촬영한 사진은 돈암지구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보문동, 안암동 일대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림 40 이 사진에서 보문시장, 공장, 교회, 시장, 영단주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문동 140번지는 필지 블록은 구획되었지만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블록 단위로 건물이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보문동 101번지 일대는 초가집들이 있고, 보문동 147번지는 지붕이 길게 연속한 건물 형태를 볼 수 있다.

보문시장 2층 한옥상가는 블록내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까지 큰 변형 없이 초기에 건축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43** 부에서 보았을 때 2층 도시한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로변에 있는 삼선동5가 322번지의 2층 도시 한옥 상가가 현재 1,2층 모두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보문시장 2층 도시 한옥은 좌측 칸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면에 창문이 있어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44** 이 주변 골목길은 폭이 2m가 되지 않아 상업 가로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림 45**



그림 40-1 보문시장과 빈민구제주택, 1959년, 임인식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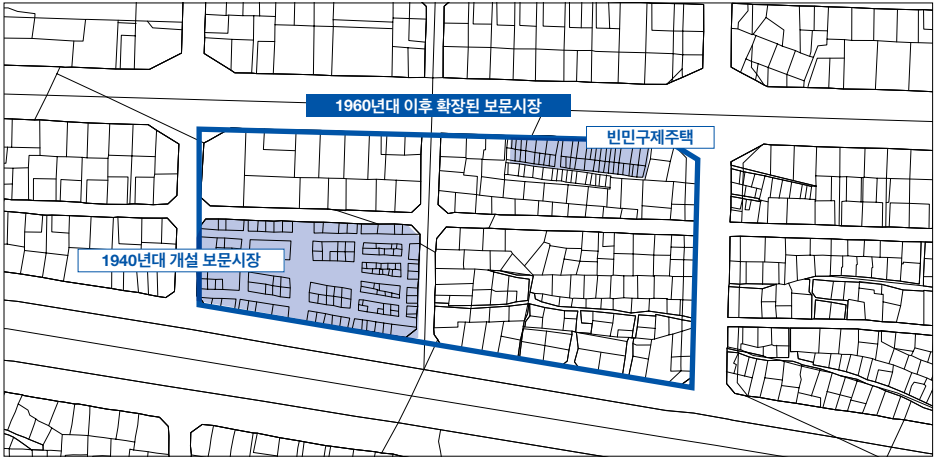


그림 40-2 보문시장과 빈민구제주택(1968년 지적도)



그림 41 보문시장의 가로 경관



그림 42 보문시장 블록 내부의 가로 모습



그림 43 보문동 4가 2·3번지의 모습



그림 44 내부 골목길에 위치한 2층 도시한옥상가 건물과 부정형의 골목길



그림 45 보문시장 내부 골목길

3 성북천의 복개: 상가아파트의 건설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으로 시작된 돈암지구 개발은 1941년 완공되었으나, 초기 계획과는 내용과 규모 측면에서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실제 돈암지구라는 도시의 사회·문화는 광복 후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막촌을 형성하고 있던 도시빈민들은 개발과 함께 인근에 미개발된 구릉지에 빈민촌을 하였다. 광복 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과 한국전쟁으로 피난 내려온 이북민 등 인구가 급증하면서 현재 도시화된 범위로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보성전문학교(현재 고려대학교), 성신여학교(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현재 중앙대학교에 편입), 한성대학교 등을 포함해 근대교육시설이 이전해 오거나 신설되면서 대학가가 형성되었고, 교수, 교사, 학생 등 지식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광복 직후 이승만, 조소앙, 안재홍, 조병옥 등 정치인들과 김동리, 신동엽, 박완서, 김훈 등 예술가들의 거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감내만 찾으면 그 집을 쉽게 찾을 줄 알았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삼선교, 돈암교를 거쳐 우리 동네 앞을 흐르던 개천을 우리는 안감내라고 불렀다. 안감내는 수량이 풍부하고 맑아서 동네사람들은 큰 빨래만 생기면 그 리로 들고 나갔다. 개천과 나란히 난 천변길은 인도와 차도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너른한 길이고 개천 쪽으로는 수양버들이 늘어져있어 차가 많지 않은 당시에는 타동네 사람들까지 일부러 산책을 올 정도로 한적하고 낭만적인 길이었다 …(중략)… 그제서야 내가 천주교회와 신선탕 중간지점에 서 있

는 걸 알았다. 나의 옛집은 바로 신선탕 뒷골목에 있었고, 그 남자네 집은 천주교당 뒤편에 있었다. 천주교당도 신선탕도 천변(안감내)길에 있었다. 교회 는 증축을 했는지 개축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으되 외양은 많이 바뀌고 커져 있었지만 목욕탕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고 이름까지 그대로였다.”²⁷

소설가 박완서(朴婉緒, 1931~2011)는 『그 남자네 집』이라는 소설에서 동선동 거주 당시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는 돈암동성당(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돈암지역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경성시가지계획으로 조성된 도시 한옥과 골목길의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박완서는 동선동에 이어 보문동으로 이주해 도시 한옥에 거주하며, 많은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렇게 돈암지역은 광복 후 물리적 도시의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도시의 면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돈암지역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기이다. 1968년 안감내(현재 성북천)가 복개되면서 삼선상가아파트 등이 건설되었고, 구릉지의 빈민촌은 1975년 불량주택 지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복개천 위에 건설된 아파트는 2012년 철거되어 성북천이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인 돈암1동과 돈암2동은 불량주택 지구개발이 1990년까지 이어져 오늘날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개발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 삼선상가아파트와 삼선시장

성북천은 돈암지구 개발 이전에도 주거지가 분포해 있었다. 개발 이전의 토막민들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성북천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개발 이후에도 도로와 주거지는 하천 주변으로 발달하였다. 성북천은 주거지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돈암지구 개발로 공설시장인 돈암시장과 보문시장이 조성되었지만,

²⁷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8, 14~15쪽.

삼선동, 성북동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그 중간지점인 동소문동2가 지역에는 천변을 따라서 무허가 건물 128동으로 이루어진 삼선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²⁸ 삼선시장은 비공식적인 시장이었지만,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설시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 성북천은 강바닥이 낮은 하천으로 매해 수해의 문제가 있었다. 1961년 5월 12일의 신문 기사를 보면, 서울 곳곳의 하천이 범람하고, 이에 매해 장마가 오고 나면 수해로 인해 호안(湖岸)을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 중 하수도수선공사로 안암천과 성북천 공사 내용이 담겨 있다.

장마철이 오기전 오월까지는 늦어도 착공했어야 할 서울시의 하수도시설공사와 수선공사는 일할도 못되는 9「퍼센트」만이 집행되었을 뿐 나머지 공사계획은 착공예정일자를 한달 또는 두달이 넘도록 손도 안대고 있는 형편이다 토목건설사업에 중점을두고있는 서울시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수도를 뚫고 모래로 덮인 하천을 준설하기 위해서 모두 이십칠 건의 공사계획에 칠억천구백십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삼월부터 오월까지 사이에 착공하여 4월에 2건, 5월에 3건, 6월에 12건, 7월에 3건, 8월에 5건, 그리고 9월까지의 2건을 모두 준공키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5월 10일 현재 하수도시설공사는 52「퍼센트」만이 착수중인 지지부진한 상태 이어서 금년 장마철에도 거리가 물바다를 이룰 것은 틀림없게 됐다 팔일 오해방 이래 거의 손질이 안간 서울시의 하수도는 거의 절반이 막혀버려 비만 오면 차량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은 십여년 동안 한번도 크게 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선진국처럼 빗물을 받는 하수도와 오수를 받는 하수도가 따로 있지 않으며 높은 지대에 지은 판잣집 등에서 하수도를 마련하지 않은 탓으로 시내한복판은 막혀버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하수도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이 너무 늦게 통과되었고 수도국의 신발죽으로 사무인계가 늦어졌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공사계획에

28 「城北川覆蓋자리에 現代式商街아파트」, 『동아일보』, 1967년 10월 23일 4면.

다른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하수도수선공사 = 10건 = 일억사천십만원

▷ 준공된 것 = 2건(안암천복거천준설공사, 성북천준설공사) = 이천백만원²⁹

해방 이후 하천, 하수도 등의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해 장마철에는 하수도가 역류하고 제방이 떠내려가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었다. 1966년 7월 29일의 신문 기사를 통해 서울 곳곳이 수해를 입어 서울시에서 3억 원을 들여 47개소의 하천을 복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의 하천, 하수도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업으로 동선동, 삼선동 성북천, 보문동 등 돈암지역 성북천 인근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일 서울시는 4억 4천만원의 수해복구비중 47개 지역에 대한 1차공사비 2억9천6백96만원을 각 구에 배정, 일제히 착공했다. 이 공사는 거의 하수도공사로 곧 착공될 제 2차공사와 함께 연내에 모두 끝낼 예정인데 1차공사지역과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동선東仙동(1천6백만원) ▲종암鍾岩동(2천4백만원) ▲정화貞和동(1천6백만원) ▲삼선三仙동, 성북천城北川(5백만원) ▲남산南山동(2백만원) ▲양陽동(20만원) ▲중구뫼골목블록공사(1백50만원) ▲후암厚岩동(4백70만원) ▲청과靑坡동(7백30만원) ▲보광普光동(3백50만원) ▲보광普光동포장(1백58만원) ▲원효路元曉路1가(3백50만원) ▲여군女軍앞하천석축(8백50만원) ▲육천旭川호안(1천만원) ▲이태원梨泰院(2백만원) ▲효창孝昌공원(6백만원) ▲흑석黑石동펌프장(7백만원) ▲신길新吉동(5백44만원) ▲오류梧柳동(4백59만원) ▲숭실대崇實大앞(3백92만원) ▲본本동(1백만원) ▲성로원(1백만원) ▲김포金浦가도비탈(1백만원) ▲영등포永登浦뫼골목포장(1천6백만원) ▲신흥新興동(50만원) ▲명륜明倫2.3.4가(7백만원) ▲충신忠信동

29 「장마철엔 물바다」, 『조선일보』, 1961년 5월 12일 3면.

(1천2백만원) ▲인사천仁寺川 준 설(1백30만원) ▲도화桃花1동(3백50만원) ▲용강龍江, 염리鹽里 동(3백만원) ▲아현阿峴동 도서관석축(50만원) ▲창전倉前 동9(1백만원) ▲서교西橋 동도로 보수(1백50만원) ▲답십리踏十里 2동(1천1백50만원) ▲답십리踏十里 제방(5백만원) ▲보문普門 동(6백15만원) ▲창신昌信 동1,2가(4백20만원) ▲청량리淸涼里(7백70만원) ▲독도유원지(1천만원) ▲구중교보수(8백50만원) ▲사근沙斤 동(7백30만원) ▲김호金湖 동(5백70만원) ▲옥수玉水 동(8백70만원) ▲약수藥水 동(1천2백만원)³⁰

서울시는 수해, 무허가시장 등의 문제가 쌓여 가는 와중에 성북천을 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 위에 현대식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발표한다. 당시에 서울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은 부족하였고 서울시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유지인 하천은 별도의 토지수용 절차나 수용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공사비도 시행업체가 분양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하면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천변이나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는 당시 서울 시장이던 김현옥 시장이 세운상가, 낙원상가, 대학천 상가 등의 상가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용한 방식으로, 하천과 같은 공공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건축물을 짓고, 이후에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 점용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³¹ 1967년 10월 23일의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삼선상가아파트는 성북천 가운데 1,014m 구간을 복개하고, 그 위에 현대식 아파트와 백화점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 안에는 사무실 2동, 백화점 2동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 A형 187동, B형 144동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23일 삼선교~돈암교 성북경찰서 뒤를 흐르는 1,014m의 성북천을 복개한 후 현대식 아파트와 백화점을 세우라고 했다. 오는 30일 복개공사가 착공될 이 지역에는 무허가건물 128동으로 이룩된 삼선시장이 들어

³⁰ 「復舊費 3億圓配定」, 『동아일보』, 1966년 7월 29일 4면.

³¹ 강난형, 「서울 메가스트릭처, 세운상가의 도시단면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1. 40쪽.



그림 46 삼선상가아파트 사무소(『착공 전 입주민 모집』, 『경향신문』, 1968년 1월 18일, 출처: 경향신문)

서 있다. 민간자본 2억2백80만원을 유치, 새로짓게 될 상가아파트는 3층 내지 5층 건물로 사무실 2동 백화점 2동 점포 152개 아파트 A형 187동 B형 144동이 들어서게 된다. 1차공사구간인 삼선교~양회다리간 366m지역은 오는 30일에 착공 68년에 완공하며 2차공사 구간인 양회다리~돈암교 구간 408m는 69년 1월 착공, 연내에 완공하고 마지막 공사구간인 돈암교~성북경찰서 뒤 240m는 70년 1월에 착공된다.³²

총 공사비는 8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삼선상가주식회사, 성북상가주식회사, 삼익건설에 시행권을 주어 공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고, 오히려 사업비로 공사비의 일부를 서울시에 예치해야 했던 상황때문에 적합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제대로 절차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³² 「城北川覆蓋자리에 現代式商街아파트」, 『동아일보』, 1967년 10월 23일 4면.



그림 47 1972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완공 직후의 성북, 삼익, 삼선상가아파트(출처: 국토지리정보원)

三仙商街開店 案内

敦岩洞 住宅中心街에 近代商街로 新築된 三仙商街는 20만 周邊顧客의 多大한 期待裡에 드디어 開店하게 되었습니다

位 置 三仙橋-양회다리間 (394 m)
開店日 가棟 7月末 나棟 6月30日
다棟 7月末

業種內容

가棟 1層 洋品, 洋雜貨, 家庭用電器品, 高級食, 品 其他
2層 茶房, 美容院, 理髮所, 病院, 撞球場
3層~5層 貸事務所, 駐藥室

나棟 洋品部, 雜貨及家庭什器部, 食料品部

다棟 魚物, 賣場, 乾魚物

※特惠・月賃一年間免除
其他 入住申請에 對하여 問議하실분은 弊社 管理部에 問議하십시오

	預 約 金	中 間 金	積 金	合 計
賃貸保證金 (內) 4.22坪	200,000	300,000	130,000	630,000
" (外) 4.22坪	200,000	300,000	150,000	650,000
" 10坪	200,000	1,000,000	400,000	1,600,000
分 棟 4.22坪	350,000	450,000	170,000 (10坪 另計)	970,000

三仙商街株式會社

3949

그림 48 삼선상가아파트 입주광고 (『삼선상가아파트개점안내』, 『경향신문』 1970년 1월 12일)

謹賀新年

상가아파트입주안내

◎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3가11번지

성북상가아파트

성북상가주식회사

社 長 林 承 九 副 社 長 金 燮 允 TEL (93)0008 (94)1118

<영 업 종 류>
 1층 지공식보통 상·중·보석·시계
 라디오·TV·양품류·고무제
 용·이불·의류·의류·의류·화장
 용·기타
 2층·다방·식당·병원·이동원·미용
 원·사무실 등
 3층·아파트

그림 49 성북상가아파트 입주광고 (『상가아파트 입주안내』, 『매일경제』 1970년 1월 12일)

골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1968년 1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민간자본유치사업인 성북천의 상가아파트 건설을 담당하던 삼선상가주식회사의 사장은 공화당 성북구당 위원장을 지냈던 정병태씨로, 공사금 없이 사업권을 따내어 입주자들에게 선 계약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였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공사 시작 전부터 입주금을 받기 위한 사무실을 성북천이 시작되는 지점에 지어두었다. [그림 46](#) 이런 상황은 삼익건설, 성북상가주식회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삼익건설은 삼익맨션을 3층까지 인허가를 내고서는 7층까지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설하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상가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지어졌다. 삼선상가아파트는 1969년에, 삼익맨션아파트는 1971년에, 성북상가아파트는 1970년에 준공되었다. [그림 47~49](#)

서울시가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하나로 시공중인 성북천상가 아파트 공사는 자금도없는 자가 맡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공사비 철억이천만원의 이 상가아파트는 삼선교에서 양회다리까지 폭 십m, 길이 삼백구십삼m의 규모인데 공사를 맡은 삼선상가주식회사는 십팔일 공사자금이 없어 입주자 신청광고를 내고 오는 이십오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삼선상가주식회사는 공화당 전 성북갑구당 위원장 정병태씨가 사장인데 회사 측은 자금이 없어 공사금을 미리 입주 금조로 상인들로부터 신청을 받

아 마감 후 계약금으로 우선입주금(일층육십여만원 예정) 20%, 중도금 60%, 입주 후 나머지 20%를 내게 되었다.³³

한강변에 호화판 어파트인 골든맨션어파트가 무허가로 건축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23일 뒤늦게 건축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이 어파트는 어파트 전문건축회사로 자처하는 삼익건설(대표 이종록)이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2의 53 한강맨션어파트 옆에 2개월전부터 짓기 시작한 것으로 23일 현재 2층까지 골조공사를 끝내고 입주예정자모집까지 대대적으로 냈다. 57~32평의 어파트 48가구가 들어설 이 7층건물은 오는 10월말까지 입주를 끝낼 예정으로 가구당 어파트값은 용자금25%를 제외 하고도 3백98만원~7백17만원에 이르는 호화판이다. 말썽난 삼익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삼익상가어파트도 3층까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7층까지불법으로 올렸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³⁴

무허가 시장이었던 삼선시장은 1층 시장과 상층부 주택으로 가로형 시장이 있는 상가아파트로 재개발되었다. 삼선상가아파트는 1990년대까지 돈암지역의 주요 시장으로 기능하였다.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하천을 따라서 곡선형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그 사이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에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림 50** 각 건물의 위치는 삼선상가아파트는 성북구 동소문로2가 21번지 일대, 성북상가아파트는 성북구 동소문동5가 118번지, 삼익맨션아파트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와 3가로 기록되어 있어 양회다리(현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삼선상가아파트-삼익맨션아파트-성북상가아파트 순으로 이어져 돈암시장이 있는 성북경찰서 뒤편까지 이어졌다.

1999년 하천복개사업이 구시대적인 발상이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홍제천과 성북천 등 하천을 복개하고 지어진 상가아파트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었다.³⁵

33 「資金없이工事말아 城北川商街아파트 入住者먼저모집」, 『동아일보』, 1968년 1월 18일 8면.

34 「漢江邊에 무허가맨션아파트」, 『경향신문』, 1971년 6월 23일 8면.

35 「하천 복개부지 상가아파트 철거」, 『동아일보』, 1999년 4월 2일 18면.



그림 50 1991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상가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조성된 주차장(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51 삼선상가아파트



그림 52 삼익맨션아파트



그림 53 성북상가아파트



그림 54 삼선상가아파트가 있던 성북천변의 상가

철거와 하천 복원사업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삼익맨션아파트(성북상가아파트 OB동) 철거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성북상가아파트 C, D, E동, 2007년에 삼선상가아파트가 철거되었다. **그림 51~53** 성북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 작업은 2010년에야 완료되었다.

삼선상가아파트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들은 상가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던 천변의 상가들로 남아있다. **그림 54** 특히 동소문동2가 천변에 위치한 상가들은 삼선상가아파트가 있던 시절의 상가건물들이 대부분 남아있고 여전히 식당, 상회 등의 상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식당가이다.

성북상가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던 돈암시장 쪽은 돈암시장과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상가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돈암시장 건물은 성북천이 복원되는 시점에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동일하이빌이 건설되어 그 경관은 변화하였다. 하지만 돈암시장의 대부분이 남아 있고 천변에 면한 일부 건축물이 여전히 하천과 마주 보고 있어서 상가아파트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2. 상가아파트와 돈암시장

돈암시장은 동소문동5가 120번지 대지에 1944년 공설시장으로 설립되었다. 총독부 내무부에서 세운 계획에서는 블록안에 단일건물로 건축하고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56** 이 계획은 1943년에 세워지고 1944년 박공무소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며 상권이 커지게 되고 돈암시장은 건물 주변으로 무허가 점포가 들어서 혼잡한 상황이었다. **그림 57** 1959년의 신문기사에서는 돈암시장의 돈암 노점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청계천, 북아현 시장 등과 함께 사회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에 난립한 무허가시장을 「큰 골치덩어리」라고 말하면서 『무허가시장은 없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으나 저작 무허가시장에 대한 취체는 소홀히 하고있어서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인시장의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제 서울시내의 시장 형편을 보면 9개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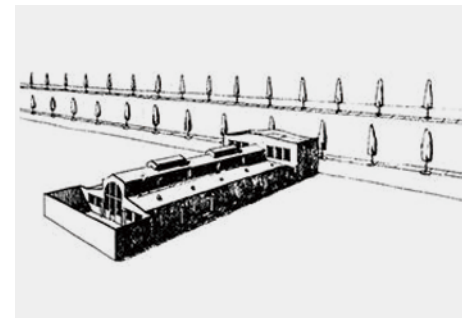


그림 55 공설시장 계획 조감도(출처: 박일항,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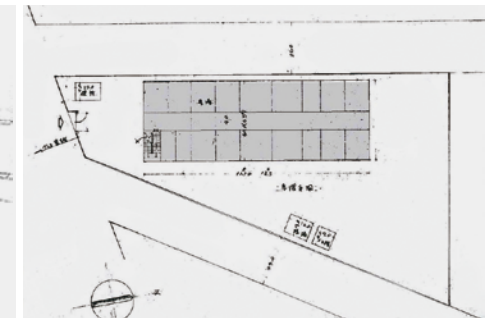


그림 56 돈암시장 공설시장 계획도(출처: 박일항,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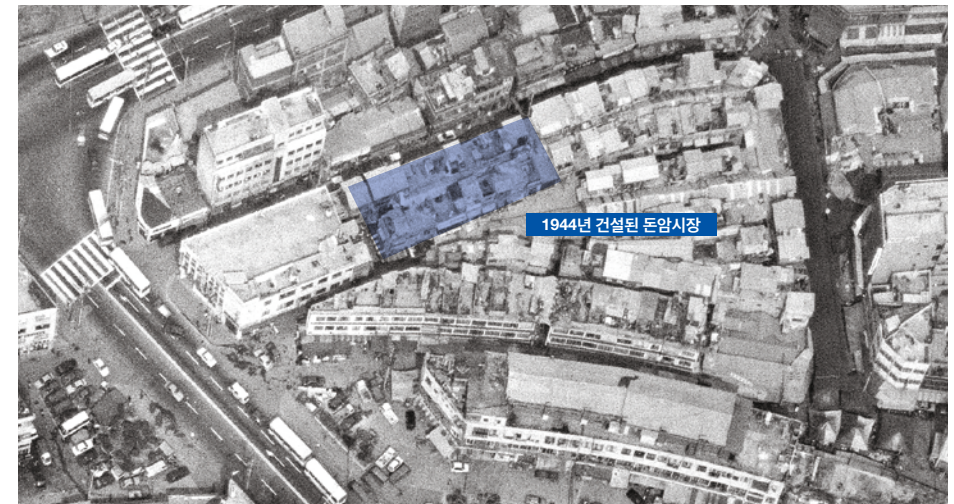


그림 57-1 돈암시장 확장 전 범위(1990년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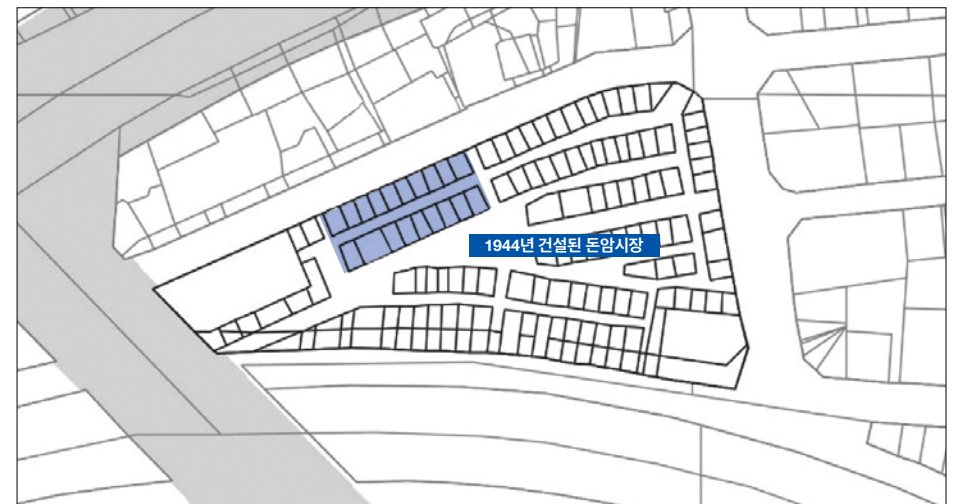


그림 57-2 돈암시장 확장 전 범위(1990년 지적도)

공설시장과 32개소의 공인시장외에 무허가시장으로서 종로시장 방산 평화시장 인현시장 금천시장 청계천변에 있는 청계상우회시장 홍은시장 돈암노점시장 해방촌시장 북아현노점시장 등 10개소가 있다 이와 같은 무허가 시장들은 대체의 경우 시장이 서기에는 못마땅할 장소에 시장으로서의 설비도 없이 서기 때문에 협소하고 더럽거니와 그 중에도 불결한 것은 물론 공로公路의 절반을 점령하고 나선 노점시장이 있어서 교통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은 무허가시장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곳도 있다 그 예로서 북아현노점시장을 들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 좌우측으로 노점들이 내밀고 나섰는데 이중간으로 서대문 신촌 간을 왕래하는 각종차량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왕래하는 자동차들이 노점시장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가 이 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무허가시장을 단속 않는가라고 서울시에 물으면 우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취체하여 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북아현시장의 중간을 흐르는 길복판이 서대문서와 마포서의 경계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포서에서 취체하면 노점들은 서대문서관할구역인 맞은편에 건너가고 서대문서에서 취체하면 마포관할지구인 그 맞은편으로 또 이동하고 있어서 취체에도 곤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태의 무허가시장을 서울시는 종전부터 없애려 하였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장이 없어서 못했으나 지금은 이들을 수용할 근대적인 시장도 있으니 없애야 되겠으나 왜정시대에 마련된 벌금 2백원 형측 지금 돈으로 벌금이 二환형의 취체규칙으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서 취체규칙도 준비하고 있다고 시당국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편 허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어느정도의 설비를 갖추고 허가하여달라고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줄 작정인데 역시 무허가시장에 있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그들은 허가신청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⁶

36 「亂立하는 無許可市場」, 『조선일보』, 1959년 3월 22일 4면.

1962년에는 돈암시장의 무허가점포 257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들과 구청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1968년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축을 시행하여 방화구조로 된 건축물을 지었다. 기존의 무허가점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게 구청은 점포를 지정해주어 입주하게 하였지만 상인들은 입주할 돈이 없어 갈등을 빚었다. 이 당시까지 1944년에 지어진 돈암시장 건물은 돈암시장 건물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시장은 이 한 블록이었으나 돈암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확대되었고 안시장과 바깥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구분 지어져 불리우며 현재의 돈암시장과 합쳐졌다. 2003년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시행되어 돈암시장의 안시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진 안시장 대신에 지금의 돈암시장으로 중심 상가가 옮겨졌다.

29일 아침 『이렇게 추운데 어디로가라느냐』는 주민들의 아우성 속에 서울 돈암敦岩시장 무허가점포 257 동이 성북구청 인부들의 손으로 헐렸다. 이날 철거대상자들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자진철거에 대한 방법을 상의하고 이를 「마이크」를 통해 광고했었으나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에 착수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많았다고 불평했으며 구청 측은 지난 15일까지 만료된 계고기일을 연기해서 자진철거를 종용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강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헐리는 무허가건물은 대개가 영세상인들로 구청에서 지정해준 점포로 들어가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다고 울상들이었다.³⁷

이전 돈암시장이 사라지며 우측 편으로 옮겨진 현재 돈암시장 상가거리에는 반찬가게, 청과물 상회, 정육점, 식당 등 주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들이 있다.^{그림 58, 59}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의 거리와 대로변쪽에 가까운 위쪽 골목길은 모두 이런 점포들이 있고 그 점포들의 위층에는 주거로 이용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주를 이룬다. 일부 이전에 지어진 도시 한옥들이 남아 있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아케이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천변 쪽의 골목길에는 위의 두 골목

37 「無許可店飽257棟 撤去 敦岩市場」, 『조선일보』, 1962년 11월 30일 6면.



그림 58 돈암시장 입구



그림 59 돈암시장 내부가로



그림 60 돈암시장 주변 상가건물



그림 61 2003년 돈암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한 동일하이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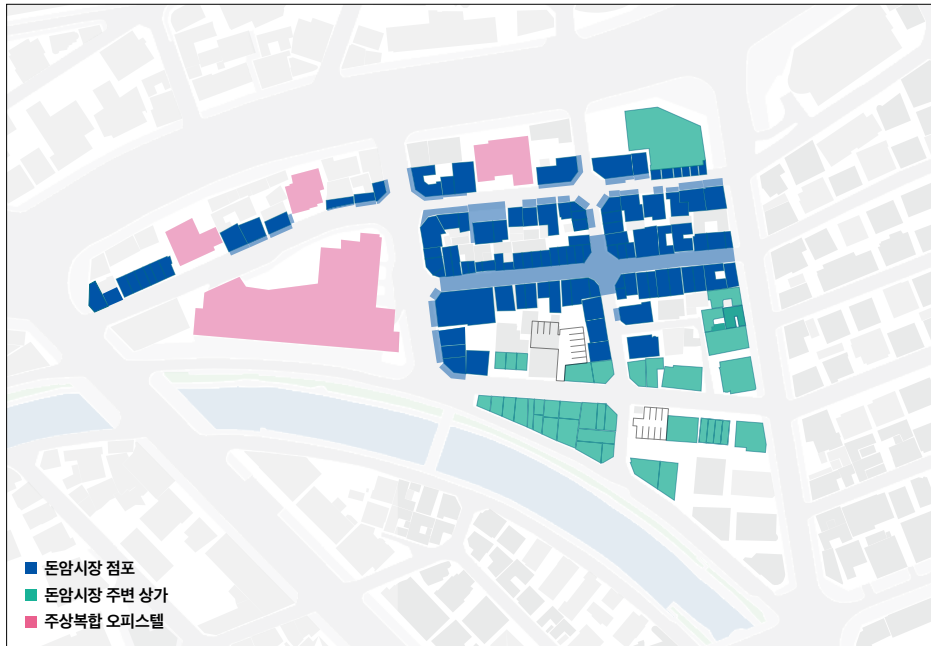


그림 62 돈암시장 점포 현황(2021년 수치지형도 재가공)

의 상가들과 다른 모습이다. 세탁소 등 시장 상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후 시설들과 주변 주민들이 모이는 식당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공설시장이 지어진 이후 시장의 확장, 재개발을 겪으며 돈암시장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로서의 정체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0

재래시장은 돈암동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상권이 집중된 지역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일대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지만 새로운 상가와 상권이 생겨나면서 점차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버려진 장소가 되거나 재개발되어 사라진다. 그림 61 돈암시장과 보문시장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돈암시장의 건물은 철거되어 그 주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보문시장은 주변으로 옮겨진 시장자리마저도 재개발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문시장과 돈암시장은 개발 이전의 취약지역부터 현재의 재개발까지 돈암지구가 겪고 있는 변화과정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64 보문시장자리에 건설된 보문 하우스토리아파트

택만 있으면 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이 많아지고 아파트의 건설 또한 많아진다. 그림 63 아리랑고개 인근의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브라운스톤동선아파트 낙산의 보문아이파크아파트, 개운산 자락의 안암래미안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돈암지구 안쪽까지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보문시장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그림 64 그리고 이미 건설된 아파트 이외에도 지정된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여전히 돈암지구에 분포되어 있어 아파트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보문시장 일대 등 돈암지구로 완공된 도시 한옥과 도시 한옥 지역을 개발한 다세대·다가구 지역이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65, 66

1959년 보문동, 안암동 일대의 사진은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으로 조성한 돈암지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림 67 1959년까지 일제강점기 조성된 도시 한옥 밀집지역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의 좌측 하단에 흐르는 하천이 안암천(안감내, 성북천)이다. 중앙부는 보문로 사거리로 현재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이 있고, 보문



그림 65 삼선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



그림 66 삼선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마을의 모습



그림 67 1959년 보문동, 안암동 지역, 임인식 촬영

시장이 있던 보문동과 안암동 일대의 중심공간이다. 우측 상단은 보문사가 있는 보문동, 삼선동 지역이다.

다음은 1959년 보문동, 안암동 일대의 사진을 기초로 시기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이 지역의 도시적 변화를 기록한 입체적 그림이다. 이를 통해 돈암지역의 도시적 변화와 개발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1959년까지는 일부 구릉지가 주거지로 개발된 상태로 일제강점기 돈암지구와 유사했다. 1972년에는 상업가로인 보문로와 보문시장 등을 중심으로 빌딩들이 들어섰고, 구릉지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다. 그림 68 2003년에는 1990년대 기존 도시 한옥 주거지가 다세대·다가구로 빠르게 개발되었고, 구릉지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그림 69 2021년에는 안암천 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고, 구릉지 주거지 또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다. 그림 70 보문동, 안암동 일대의 시기별 변화는 도시한옥,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단지 개발 등으로 돈암지역의 경관 변화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규모 도시개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림 68 1972년 보문동, 안암동 지역 조감도



그림 69 2003년 보문동, 안암동 지역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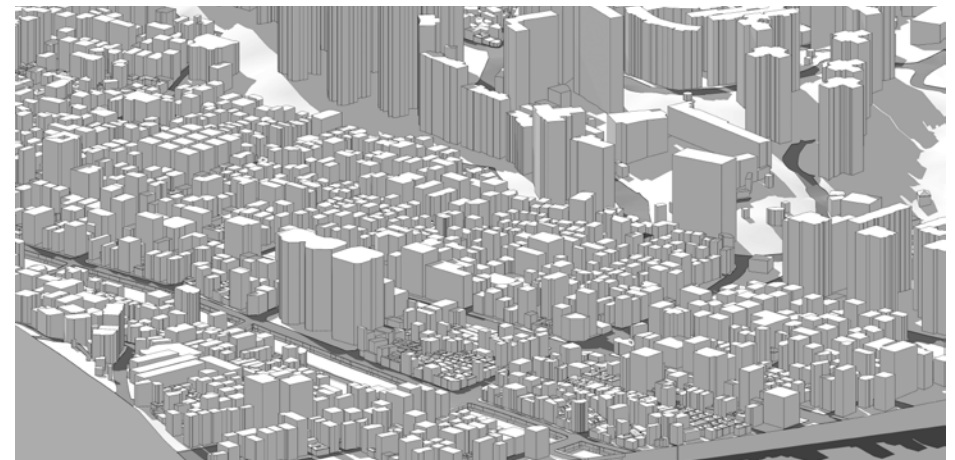


그림 70 2021년 보문동, 안암동 지역 조감도

참고문헌

2장 (유승희)

1) 고문헌

- 『가암유고(可庵遺稿)』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종실록(景宗實錄)』
-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
- 『교량조배절목(橋梁造排節目)』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기언(記言)』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명고전집(明阜全集)』
- 『명종실록(明宗實錄)』
- 『무명자집(無名子集)』
- 『변암선생집(樊巖先生集)』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삼명시집(三溟詩集)』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布帛燾造契完文-節目)』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속대전(續大典)』
- 『수교집록(受教輯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시종원등록(侍從院謄錄)』
-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
-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영조실록(英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진명집(震溟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호음잡고(湖陰雜稿)』
- 『흙영(欽英)』

2) 신문, 일간지

- 『대한일보』
- 『대한매일신보』

- 『동아일보』
- 『매일신보』
- 『황성신문』

3) 단행본

- 김하라 역, 『일기를 쓰다』 2, 돌베개, 2015
- 나각순,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0
- 박수진 외, 『미아리고개』, 성북문화원, 2014
- 보고서, 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1, 2009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1, 2018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3, 2018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2009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 연구」, 200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국역경성부사』 3, 2015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洞名沿革攷』Ⅷ, 1983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1, 1977

5) 논문 및 자료집

- 박선경, 「조선 초 승려 참여기구의 운명 변화 - 별와요·귀후소·화인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7, 2022
- 유승희, 「조선시대 한성부의 四山 관리와 松禁 정책」, 『이화사학연구』 46, 2013
- 유승희, 「조선시대 한성부 성저십리의 지역적 특성과 성저민의 실태」,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 이근호, 「조선 후기 성북지역 陵·園·墓 조성과 그 의미」, 『북악사론』 12, 2020
- 이민우, 「조선시대 성저십리의 농업」,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 임혜련, 「조선시대 先蠶祭 정비와 시행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7, 2015
- 최진아, 「조선시대 성저십리의 무속」,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6) 인터넷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https://history.seoul.go.kr/archive/ggdic/list.do?key=2211220002)
-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3장 (문광균)

1) 고문헌

- 『경세유표(經世遺表)』
- 『경종실록(景宗實錄)』
- 『교량조배절목(橋梁造排節目)』
- 『단종실록(端宗實錄)』

- 『대전속록(大典續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문종실록(文宗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布帛燾造契完文-節目)』
- 『성종실록(成宗實錄)』
- 『성호사설(星湖僿說)』
- 『세종실록(世宗實錄)』
- 『수교집록(受教輯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영조실록(英祖實錄)』
- 『인조실록(仁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한경지략(漢京識略)』
- 『현종실록(顯宗實錄)』
- 『훈조계구폐완문(燾造契舊弊完文)』

2) 단행본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 김경록 외,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십리』, 서울역사편찬원, 2019
-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손상의 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2015
- 이광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시립대학 교출판부, 1994

3) 보고서, 도록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3, 2018
- 서울역사편찬원, 『성북구-보문동·안암동·종암동』, 2018

4) 논문 및 자료집

- 구본현, 「老稼齋 金昌業의 東庄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14, 2008
- 김미성, 「조선후기 貢契의 등장과 도고상업: 折草塵·燾造契·靑藍契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미성, 「18~19세기 노동력 조달 전문 군계공인(軍契貢人)의 형성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 김미성, 「18~19세기 직물 가공업자의 공인화(貢人化)와 직물 시전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9, 2018
- 김선경, 「조선후기 山林川邊에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동길」, 『서울학연구』 30, 2008
- 김태우, 「조선시대 한강 유역 국행 의례 제장(祭場)에 대한 연구-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한 지리적 위치 고증에 대한 시도-」, 『서울학연구』 73, 2018
- 문광균, 「조선시대 한강의 津渡體系와 津船관리」, 『조선시대 '경기'연구』, 서울역사편찬원, 2019
- 박범, 「동적전의 운영구조와 『동적전식례』의 자료적 가치」, 『동적전식례』, 서울역사박물관, 2018
- 박희성, 「조선 先蠶壇 훼손과정으로 본 東郊의 도시 재편 양상」, 『鄉土서울』 81, 2012
- 송양섭,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론」, 『대동문화연구』 76, 2011
- 신동훈, 「연산군代 禁標의 설치와 도성 경관의 변화」, 『동국사학』 71, 2021
- 양보경,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 1994
- 여민주, 「조선후기 서울의 땔감 유통」, 『서울과 역사』 106, 2020
- 여민주, 「조선시대 중앙 관사의 연료 조달 방법과 변화 양상」, 『역사와 경계』 122, 2022
- 원영환, 「한성부연구(1)- 행정제도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39, 1981
- 원영환, 「漢陽遷都와 首都建設考-太宗代를 中心으로」, 『鄉土서울』 45, 1988
- 원영환, 「조선시대 교통로와 역·원제의 고찰-서북로와 동북로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7, 1995
- 유승희, 「15~16세기 漢城府의 주택 문제와 정부의 대응」, 『사학연구』 94, 2019
- 이상협, 「朝鮮時代 東·西活人署에 대한 考察」, 『鄉土서울』 56, 1996
- 이상협, 「한성부의 직제와 행정 편제의 변화」, 『서울2천년사』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 이육, 「조선시대 친경례(親耕禮)의 변천과 의미」, 『종교연구』 34, 2004
- 이정희, 「궁중의 禱祀 祭儀와 음악」, 『한국음악연구』 70, 2021
- 이준호, 「조선시대 기후변동이 전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 - 건습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 2019
- 장지연, 「조선시대 선농단과 선잠단의 실제 형태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 정동일, 「연산군 금표비연구: 대자동 금표비를 중심으로」, 『한성사학』 8, 1996
- 최주희, 「17~18세기 왕실·정부의 연료 소비 증대와 땔감 조달 방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94, 2014
- 탁효정, 「조선 전기 정업원(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조선시대 정업원의 운영실태(1)」, 『여성과 역사』 22, 2015
- 탁효정, 「조선시대 淨業院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영조의 淨業院舊基碑 설치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7, 2017
- 한형주,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 『서울2천년사』 13, 2013

· 한형주, 「조선시대 선잠의례와 왕비의 친잠」, 『역사와 실학』 70, 2019

4장 (이왕무)

1) 고문헌

· 『가암유고(可庵遺稿)』

· 『만기요람(萬機要覽)』

· 『명고전집(明阜全集)』

· 『변암선생집(樊巖先生集)』

· 『부재일기(孚齋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삼군문오부분계지도(三軍門五部分界地圖)』

· 『선고유사(先考遺事)』

· 『선전관청일기(宣傳官廳日記)』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 『어영청도등록(御營廳都謄錄)』

· 『어영청성역등록(御營廳城役謄錄)』

· 『어영청식례(御營廳式例)』

· 『어제수성윤음(御製守成綸音)』

· 『여와선생문집(餘窩先生文集)』

· 『영조실록(英祖實錄)』

· 『완당전집(阮堂全集)』

· 『은송당집속집시(恩誦堂集續集詩)』

· 『인조실록(仁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정조실록(正祖實錄)』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풍석전집(楓石全集)』

· 『홍재전서(弘齋全書)』

· 『효종실록(孝宗實錄)』

2) 단행본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 원, 1985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2007

3) 보고서, 도록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삼군영』, 2019

4) 논문 및 자료집

· 김현동, 「17세기 어영청(御營廳) 창설과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의 성립」, 『한국사연구』 192, 2021

· 나각순, 「서울 한양도성의 기능과 방위체제」, 『향토서 울』 80, 2012

· 송기중, 「17~18세기 전반 어영청 재정의 운영과 변화를 중심으로 -『御營廳舊式例』를 중심으로-」, 『군사』 101, 2016

· 이왕무, 「조선후기 수도원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군사』 90, 2006

· 이장희,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1996

5장 (류인태)

1) 고문헌

· 『가암유고(可庵遺稿)』

· 『구애집(龜厓集)』

· 『극원유고(扃園遺稿)』

· 『금릉집(金陵集)』

· 『금석집(錦石集)』

· 『노주집(老洲集)』

· 『노가재집(老稼齋集)』

· 『담정유고(澗庭遺藁)』

· 『대산집(對山集)』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명고전집(明阜全集)』

· 『무명자집(無名子集)』

· 『미산집(眉山集)』

· 『박옹시초(伯翁詩抄)』

· 『변암집(樊巖集)』

· 『삼명시집(三溟詩集)』

· 『서어유고(西漁遺稿)』

· 『석릉집(石菱集)』

· 『성재집(成齋集)』

· 『소재시(畝齋詩)』

· 『소정고(昭亭稿)』

· 『숙종실록(肅宗實錄)』

· 『순암집(醇庵集)』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여와집(餘窩集)』

· 『역암집(櫟菴集)』

· 『영재집(冷齋集)』

· 『영조실록(英祖實錄)』

· 『옥수집(玉垂集)』

· 『유현집(游軒集)』

· 『이이엄집(而已广集)』

· 『일암집(一菴集)』

· 『은송당집(恩誦堂集)』

· 『정유각이집(貞莚閣二集)』

· 『존재집(存齋集)』

· 『죽포집(竹圃集)』

· 『중산재집(重山齋集)』

· 『중암고(重菴稿)』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충쇄(叢瑣)』

· 『풍고집(楓阜集)』

· 『하서전집(河西全集)』

· 『하정집(荷亭集)』

· 『한경지략(漢京識略)』

· 『해장집(海藏集)』

· 『호음잡고(湖陰雜稿)』

· 『후계집(後溪集)』

· 『흠영(欽英)』

2) 신문, 일간지

· 『대한매일신보』

3)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20

· 김용준, 『새근원수필』, 열화당, 2009

· 김용준,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 최완수, 『겸재의 한양 진경』, 현암사, 2018

4) 보고서, 도록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삼군영』, 2019

5) 논문 및 자료집

· 유현재·김현우, 「조선후기 서울 주택가격 변동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 이현창,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7, 1999

· 이현창, 「조선시대 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2011

· 함석태, 「청복반일」, 『文場』, 1940

6장 (정기황)

1) 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세조실록(世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변암선생집(樊巖先生集)』

· 『정조실록(正祖實錄)』

· 『태조실록(太祖實錄)』

2) 신문, 일간지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신보』

· 『민중일보』

· 『부산일보』

· 『조선일보』

3) 단행본

·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8

4) 보고서, 도록

·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밖 신도시, 돈암』, 2022

· 성북문화원, 『미아리고개』, 2014

5) 논문 및 자료집

· 강난형, 「서울 메가스트럭처, 세운상가의 도시단면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일향,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손정목, 「식민도시계획과 그 유산」,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하원호,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물가통제」, 『대동문화연구』 54, 2006

6) 인터넷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총독부 관보(<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gb>)

·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kor/main.do>)

·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https://history.seoul.go.kr/archive/ggdic/list.do?key=2211220002>)

·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https://sbdata.sb.go.kr/scongbuk/>)

· 성북구청(<https://www.sb.go.kr>)

청계천 기획연구 4

성북천

발행인 김용석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청계천박물관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T. 02.2286.3410

제작·디자인 ㈜사월오일·박소현

발간등록번호 51-6110569-000344-01

ISBN 979-11-90480-77-2(04910)
979-11-90480-14-7(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청계천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 및 자료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값 20,000원



04910



9 791190 480772

ISBN 979-11-90480-77-2

ISBN 979-11-90480-14-7(세트)